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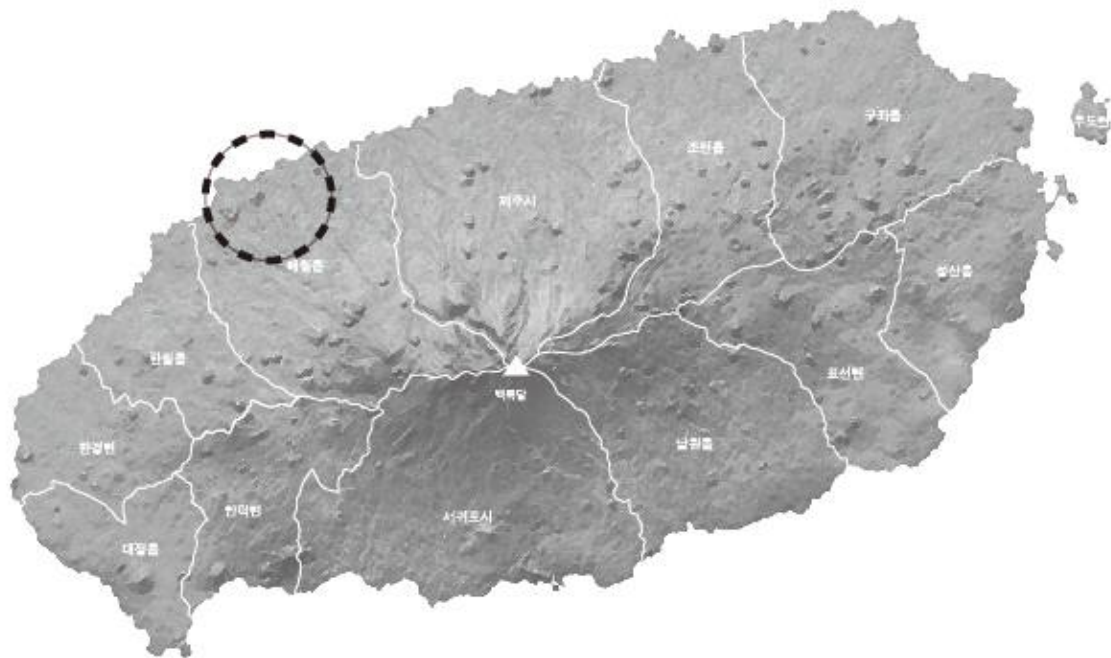
발간 등록 번호

79-6500000-000308-01

2015년도 제주어구술채록보고서

책임연구원 강영봉
연구원 김보향
조사지점 애월읍 고내리

24



Jeju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2015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과 관련하여 귀 도와 체결한 용역 계약에 의한 1차분 보고서를 아래 목록과 같이 제출합니다.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 · 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 · 김순자	17. 표선면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2015년 12월 31일

책임 연구원 강영봉

**2015년도
제주어 구술 채록 보고서 24**

목 차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7
1.2. 사업 기간	7
1.3. 조사 참여자	7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9
1.5. 기대 효과	9
제2장 애월읍 고내리 조사 내용	
2.1. 제보자	10
2.2. 조사 기간	10
2.3. 조사 항목과 내용	10
2.4. 전사	12
2.5. 장비	12
제3장 전사 자료	
제1절 구술	
1. 조사 마을	13
3. 밭일	50
5. 바다일	127
7. 식생활	166
9. 신앙	259
2. 제보자 일생	20
4. 들일	100
6. 의생활	147
8. 주생활	239
제2절 어휘	
1. 인체	266
3. 친족	279
5. 음식	288
7. 생업	302
9. 민속	317
11. 자연	320
13. 식물	338
2. 육아	273
4. 의복	283
6. 가옥	297
8. 수와 단위	314
10. 신앙	320
12. 동물	328

제1장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진중한 제주의 언어 자산을 수집하고 자료를 확보하는 데 있다.

‘제주어’는 제주 사람들의 생각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도구이기 때문에 당연 제주어에는 제주정신과 제주문화가 녹아들어 있다. 제주어가 소멸한다는 것은 결국 ‘제주 정체성의 상실’, ‘제주문화의 변이’를 의미한다. 제주어를 소멸 위기의 언어로 분류한 유네스코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우리들 스스로 제주어 보전에 진력해야 할 계제에 놓여 있다.

제주어가 처한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이제 제주도도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좋은 제보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에 비례하여 제주어의 소실도 가속화되고 있어 제주어 채록 사업이야말로 화급을 요하는 일이매 틀림없다.

이 사업을 통하여 제주어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게 될 것이다. 수집, 구축된 자료는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며, 나아가 제주어 보전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제주어가 삶의 언어로서 그 소중한 가치를 확인하고, 자긍심을 갖는 계기도 될 것이다.

1.2. 사업 기간

-3개년(2014~2016)

1.3. 조사 참여자

<1차년도(2014)>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이완국(전 초등학교 교사)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허영선(제주대학교 강사)

-보조 연구원:

한혜원(제주대학교 대학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2차년도(2015)>

-책임 연구원: 강영봉(제주대학교 명예교수)

-연구원:

김미진(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보향(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선희(제주대학교 강사)
김성용(귀일중학교 교사)
김순자(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 연구원)
김승연(제주대학교 대학원 한국학협동과정)
신우봉(고려대학교 음성언어정보연구실 선임연구원)
안민희(민요패 ‘소리왓’ 대표)
오창명(제주국제대학교 교수)
최연미(돋을양지책드르 대표)

-보조 연구원: 오은주(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과정)

1.4. 조사 지점과 조사자

1차년도(2014)		2차년도(2015)	
조사 지점	조사자	조사 지점	조사자
1. 제주시 도련1동	김순자	13. 제주시 외도동	김순자
2. 조천읍 선흘리	김미진	14. 조천읍 함덕리	김미진
3. 구좌읍 송당리	김선희	15. 구좌읍 한동리	김보향
4. 성산읍 고성리	김승연	16. 성산읍 삼달1리	김미진 · 김선희
5. 표선면 표선리	허영선 · 김순자	17. 표선면 성읍1리	김순자
6. 남원읍 남원리	김보향	18. 남원읍 수망리	최연미
7. 서귀포시 보목리	최연미	19. 서귀포시 하원리	김승연
8. 안덕면 동광리	김성용	20. 안덕면 대평리	김성용
9. 대정읍 구역리	이완국	21. 대정읍 신도리	신우봉
10. 한경면 고산리	신우봉	22. 한경면 청수리	안민희
11. 한림읍 월령리	안민희	23. 한림읍 대림리	오창명
12. 애월읍 봉성리	오창명	24. 애월읍 고내리	김보향

1.5. 기대 효과

이 ‘제주어 구술 채록’ 사업은 도민들에게 기록 사업의 중요성을 일깨워 제주어뿐만 아니라 제주문화와 관련한 각종 자료의 보전 및 전승의 필요성을 고양시키며 소멸 위기의 제주문화를 보전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나아가 제보자들에게는 제주어의 소중함을 자각하는 계기가 되어 자긍심을 높이고 제주도민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제주어 정책 수립과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제2장 애월읍 고내리 조사 내용

2.1. 제보자

고두규(여, 1919년생)
장운삼(여, 1928년생)
고원방(남, 1933년생)
주인순(여, 1934년생)

2.2. 조사 기간: 2015. 5. 1.~12. 31.

2.3. 조사 항목과 내용

제1절 '구술'은 제보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구연(口演)할 수 있는 분야로, '조사 마을, 제보자 일생, 밭일, 들일, 바다일,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신앙, 세시풍속, 놀이, 통과례, 민간요법, 경험담' 등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세부 조사 항목을 두어 제2부 '어휘' 조사 내용을 보충 또는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질문지에 없는 경우라도 조사 마을별 특색 있는 문화 사항이 있으면 별도로 조사하였다.

제2절 '어휘'는 '인체, 육아, 친족, 의복, 음식, 가옥, 생업, 수와 단위, 민속, 신앙, 자연, 동물, 식물' 등 13개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각 부분별 하위 조사 항목을 배열하고, 필요한 경우는 부분 명칭을 조사할 수 있게 하였다. 조사하기가 어려운 '동사, 형용사, 부사' 등의 항목은 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배치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내용과 조사 시간 등은 다음 <표 1>과 <표 2>와 같다.

<표 1> 구술 채록 내용과 전사 여부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전사
1. 조사 마을	구술 1. 조사 마을	고원방	00:20:06	○
2. 제보자 일생	구술 2. 제보자 일생	고두규	01:05:49	○
	구술 2. 제보자 일생	주인순	00:41:56	×
3. 밭일	구술 3-1. 보리 농사 1	고두규	00:08:29	○
	구술 3-1. 보리 농사 2	고두규	00:24:59	○
	구술 3-2. 조, 콩 농사	고두규	00:29:41	○
	구술 3-3. 밭벼 농사	장운삼	00:12:47	○
	구술 3-4. 고구마 농사	고두규	00:20:05	○
4. 들일	구술 4. 들일 1	고원방	00:51:29	○
	구술 4. 들일 2	고두규	00:11:31	○

5. 바다일	구술 5. 바다일	고두규	00:30:06	○
6. 의생활	구술 6. 의생활	장윤삼	00:43:42	○
	구술 6. 의생활	주인순	00:53:02	×
7. 식생활	구술 7. 식생활 1	고두규	01:13:52	○
	구술 7. 식생활 2	고두규	00:59:07	○
8. 주생활	구술 8. 주생활 1	장윤삼	00:20:04	○
	구술 8. 주생활 2	장윤삼	00:27:37	○
9. 신앙	구술 9. 신앙	고원방	00:16:28	○
10. 세시풍속	구술 10. 세시풍속	장윤삼	00:32:36	×
11. 놀이	구술 11. 놀이	고원방	00:22:28	×
12. 통과례	구술 12. 통과례	고두규	01:10:52	×
13. 민간요법	구술 13. 민간요법	고두규	00:13:06	×
14. 경험담	구술 14. 경험담	고두규	00:05:22	×

<표 2> 어휘 채록 내용

조사 내용	파일명	제보자	시간	정리
1. 인체	어휘 1. 인체 1	주인순	00:43:04	○
	어휘 1. 인체 2	주인순	00:26:28	○
2. 육아	어휘 2. 육아	주인순	01:00:05	○
3. 친족	어휘 3. 친족	주인순	00:26:43	○
4. 의복	어휘 4. 의복	장윤삼	01:15:22	○
5. 음식	어휘 5. 음식	장윤삼	01:27:17	○
6. 가옥	어휘 6. 가옥	장윤삼	01:05:30	○
7. 생업	어휘 7. 생업	장윤삼	01:19:01	○
8. 수와 단위	어휘 8. 수와 단위	장윤삼	00:23:27	○
9. 민속	어휘 9. 민속	장윤삼	00:25:49	○
10. 신앙	어휘 10. 신앙	주인순	00:11:16	○
11. 자연	어휘 11. 자연 1	주인순	00:50:08	○
	어휘 11. 자연 2	장윤삼	00:01:32	○
	어휘 11. 자연 3	장윤삼	00:07:45	○
	어휘 11. 자연 4	장윤삼	00:12:07	○
12. 동물	어휘 12. 동물 1	장윤삼	00:36:06	○
	어휘 12. 동물 2	장윤삼	00:35:29	○
13. 식물	어휘 13. 식물	장윤삼	00:50:27	○

2.4. 전사

전사는 <제주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제1절 ‘구술’은 조사된 음성 자료를 질문지 순서에 따라 앞에서부터 10시간 가량 전사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도 모두 전사하였다. 조사자는 @표로, 제보자는 #를 넣어 구분하였다. 제보자가 둘 이상일 때는 #1, #2식으로 구분하여 전사하였으며, 제보자끼리 말이 겹칠 때도 가급적 제보자를 구분하여 전사하였다. 혹 청취가 불가능하여 전사가 어려운 경우는 음절수 만큼 ****로 표시하기도 하였다. 극히 개인사와 관련된 내용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전사를 생략한 부분과 조사 중 전화 통화 내용 등은 전사하지 않고 <중략>으로 표시하였다.

제2절 ‘어휘’는 질문지에 따라 조사된 어휘를 전사하였다. 방언형이 여럿이 나올 경우도 그 전부를 전사하였으며, 제보자가 모르는 경우 또는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로 표시하여 구분하였다.

2.5. 장비

‘제주어 구술 채록’에 이용한 장비는 아래와 같다.

-녹음기: SONY ICD-SX 1000

-캠코더: SONY HDR-PJ 540

제3장 전사 자료

제1절 구술

(@ 김보향, #1 고두규, #2 장운삼, #3 고원방, #4 기타)

1. 조사 마을

101001 @ 고내리 마을의 형성 배경 어떻 만들어진 들어난 거 잇수과?

101001 #3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옛날 어른들 말씀이 고내는 그 처음에는 그 고내 향지가 있었습니다.

101001 @ 으.

101001 #3 향지가 중간이 이제 저 옛 어른 허던 것은 다 어떻게 간 곳이 엇어 불고.

101001 @ 으.

101001 #3 중간에 그 어느 이장 때 헤가지고 향지를 멘들앗는데, 그때 그 향지를 대략은 헤 보게 돼면은 옛날에는 아주 침, 촌테에 이렇게 해서 초가집으로 헤가지고 이렇게 살아오다가 세월의 따름에, 시대에 따라가지고 변화가 많이 웬 셈이죠.

101001 @ 으.

101001 #3 변화가 많이 웬고 그 시절에는 농토가 너르지 안헤불기 때문 막 침 살기가 없는 사름은 상당히 곤란헤십주게.

101001 @ 으.

101001 #3 또 지형도 너르지 않고.

101001 @ 좁읍디다예, 고내리가예?

101001 #3 예, 계난 고내봉이 이렇게 고봉이 되고 보니까 이 안엠후게.

101001 @ 그럼 여기 동은 몇 개, 부락은 하나 부락이과?

101001 #3 하나마씨, 하나. 계난 한 이백오십 호 전후로 죽 내려오다가 중간에 와가지고 취락 구조도 몇 군데 생기고 인구가 불어나고 또 에 교포털의 아주 왕래가 잦아가고 허니까 호수가 많이 불어났수다. 그 원인은 일본에서도 친족덜 쪼금씩 도웨 주민 여기서 집을 지엇고예.

101001 @ 아.

101001 #3 이렇게 헤가지고 또 여기 친족덜, 동기간덜 집도 개량도 영도 허고 이렇게 허다 보니까 중간에 취락구조가 면면으로 가끔 생기다 보니까 많이 늘어서 지금 삼백 호 이상 웬실 거우다.

101001 @ 아, 삼백 호 이상 돼면예.

101001 #3 예.

101002 @ 그럼 이 고내리에 주로 무슨 성씨가 많으과?

101002 #3 예, 고내리 성씨로는 예, 잡성인데 성씨는 잡성인데 뭐 대충 뭐, 뭐라고 그럴 수 있어마씨.

101002 @ 골고루 다?

101002 #3 예, 비슷비슷한 입장이난.

101002 @ 아. 그럼 원래 고내에 있던 사름덜은 무슨 성씨 그런 거 었어났수과, 원래 처음에 들어 온 사름들은?

101002 #3 처음에 들어온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고.

101002 @ 예, 예.

101002 #3 이제 향지 대충 그 전이 좀 봐 난 거 보면은 호수가 비슷비슷해서마씨. 어느 집안이 많다 적다 이것이 아니고 중간에 와가지고 장씨도

101002 @ 아.

101002 #3 부락을 좌우하다시피 많고.

101002 @ 장씨 많구나예.

101002 #3 김씨, 또 잡성이라마씨.

101002 @ 아, 예.

101002 #3 이성, 이가도 그렇고예. 또 전 고잡니다만은 고씨도 또 이렇게 있고 그 후손덜이 다 여기 살았으면은 어느 집안이 많고 적은 걸 흰히 알겠는데 지금은 태어나면 다 출가해가지고 다 서울, 일본 이렇게 침 웨국도 가고 이렇게 허다 보니까 누구네 집안이 많고 적다 허는 것이 별로 구분이 잘 안가마썸.

101002 @ 안 가, 안 가.

101002 #3 예, 비슷비슷해여마씨.

101003 @ 예. 여기 고내도 옛날엔 다 농사 아니예?

101003 #3 아, 구십프로가 농사지예.

101003 @ 계민 배, 고깃배허거나 바닷일 허는 사름은 십프로 뻬다는 거마씨?

101003 #3 예, 예. 계난 그 바닷배도 지금도 험니다만은 그 후손덜이 그 후손덜이 멧 분허고 젊은 분덜이 헤가지고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1003 @ 그럼 농사가 구십프로니까, 주로 고내는 무슨 농서를 지엇수과?

101003 #3 예, 지금에 와서는.

101003 @ 옛날, 옛날. 옛날부터 먼저 곶아줍서.

101003 #3 예, 옛날에는 보리, 조, 콩.

101003 @ 보리, 조, 콩.

101003 #3 감자.

101003 @ 감저예. 겐 지금은마씨?

101003 #3 지금에 와서는 많이 바짜졌습시다. 바짜진 것이 지금 농사 짓는 사름은 다 대부분 그 저 칠십 세 이하로 젊은 분예.

101003 @ 예, 예 .

101003 #3 한 오륙십 세 그 분들이 전부 세대에 따라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농
촌도 다 개량돼지 안 헛습니까?

101003 @ 예.

101003 #3 보리는 가는 사름이 엇고.

101003 @ 예.

101003 #3 가끔 한 사람, 한두 사름이 장서용으로 농협으로 바치는 그런 걸로
갈지, 뭐 식량으로 허는 디는 엇고.

101003 @ 예.

101003 #3 또 그 외로 콩도 드물고 콩도 가끔 한 밭, 두 밭 같고 이렇게 뭐 조
거튼 거 일체 갈도 안 허고.

101003 @ 으.

101003 #3 필요헌 사름 쉼 양식으로, 밀 양식으로 해서 좀 풀려고 허는지 건 모
르겠습니다만은.

101003 @ 예.

101003 #3 지금에 와서는 다 세대에 따라가지고 부락마다 좀 틀립니다.

101003 @ 예.

101003 #3 고내는 쪽과, 부루쿠루.

101003 @ 부루쿠루, 양배추. 또 애월 거튼 디는 뭐 구십프로가 취나물. 신업더
레는 양배추, 여름에는 수박 이렇게 허고.

101003 @ 어쨌든 고내는 아까 부.

101003 #3 부루쿠루.

101003 @ 쪽과.

101003 #3 쪽과, 양배추.

101003 @ 그게 이제 주작물.

101003 #3 주 작물이 돼고 또 이제 주로 다마네기 허는 사름덜토 젊은 사름덜
이 멧 분 있습니다만 많지는 않습니다.

101003 @ 예, 많지는 않고예.

101003 #3 또 이젠 세대에 따라가지고 옛날허고 바뀐 원인인 인건비가 세대
에 따라서 엄청나게, 옛날 우리 지금으로부터 한 오륙십 년 전에, 오륙십 년 전에는
하루 그 할머니들이 가서 일하면은.

101003 @ 예.

101003 #3 보리쌀 대신 두 돼, 여깃말로 닷 돼. 걸 받아왔는데, 지금엔 하루 가
서 일곱 시부터 다섯 시까지 일하면 이십 키로 쌀 한 가마닐 사오거든요. 게니까
세대가 얼마나 바뀌지고 살기가 좋았습니까.

101003 @ 맞아마씨, 맞아마씨.

101003 #3 그런 거고 또 이제 세대에 따라가지고 전화가 들어왔지 전기가 들어
왔지 스이도가 들어왔지. 또 이십 일 넘어가면 다 돈 아닙니까. 다 또 그때에 따라

서 돈을 내쳐야 돼마씨. 허다 보니까 그래도 옛날보다는 엉뚱하게 살기가 좋아지지 안했나. 저 생각에는 일본 몇 번 다니면서 보니까, 제가 마흔 셋에 일본 처음 갔습니다. 갈 땐 보니까 일본사람덜은 살을 빼기 위해서 막 동터가민 운동을 다니고 뛰고 뛰 이렇게 허는데 또 한국사람은 먹지 못해서, 살 빼는 것 보단도 먹지 못해서 지치고 이렇게 허는데 일본엔 살 빼지 못해서 난리. 이것이 하나 머리에 상상이 돼마씨.

101003 @ 음. 계난 일본 가선 몇 개월씩 잊어난 거마씨, 아니면 몇 년 살아난 거마씨?

101003 #3 처음에 간 때는 그 가면은 한 번, 두 번 삼개월씩 기리가에해서 저 한 육개월 간양.

101003 @ 음.

101003 #3 육개월 간 살다가 또 자주 와가면은 그 관리청에서 것도 뒤 조사 막 해가지고.

101003 @ 맞아마씨.

101003 #3 한 삼개월도 살고, 사개월도 살고 또 많이 몇 번 다녀가니까 그 일본 법도 좀 풀어져가지고 한 육개월씩예.

101003 @ 아.

101003 #3 예.

101004 @ 그럼 고내에는 주변에 고내봉 있잖아예?

101004 #3 예.

101004 @ 고내봉 말고 뭐 오름 다른 것도 잇수과?

101004 #3 고내 경내에는 고내봉 하나고.

101004 @ 하나고 예, 예.

101004 #3 애월읍 경에서는 납읍에 있고.

101004 @ 그럼 내는 어떻허과 내는? 오름은 고내봉 하나이고 내는 뭐 잇수과?

101004 #3 하천은 이 고내가예, 일로 나가면 중앙로라고 여기서 한 여디 꺼끄면은 폭낭 이신 디.

101004 @ 예, 알아지쿠다. 의자 이십디다.

101004 #3 그것이 폭낭입니다. 저, 하천입니다. 그 물이 저 하가로 해서 이렇게 고내레 바다레 빠졌거든예.

101004 @ 그럼 그 하천 메파분 것과?

101004 #3 복개했습니다.

101004 @ 복개.

101004 #3 복개헌 지가 한 예, 한 십오 년, 이십 년 웹니다.

101004 @ 그럼 그 천 이름은 고내천이렌 불릿수과?

101004 #3 예, 예. 전인 고내리 팔경에 그것이 들어가서마씨?

101004 @ 아.

101004 #3 계남 고내리 선조덜이 얘기허기는 이 부락이 형성됐는데 고내리 동서, 동향, 서향 이렇게 마주봐서 살아가는데 이 하천이 생김으로써 이런 인심도 좋고 사름 살기가 서로 풍속이나 모든 것이 하천이 있기 때문에 인심 좋은 마을이 됐겠다. 그래서 이 부락 가운데로 하천이 엇었다면은 좀 불쾌지수가 많고 살인사건도 일어날 우려가 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난 기억이 잇어마씨.

101004 @ 고내천이 덕을 주는 그거였구나예.

101004 #3 예, 예. 게서 복개해부니까 그보단 아주 깨끗허고 널리 이용헤지고. 부락에 뭐. 버스가 이레 못 들어와났습니다. 이제는 대형차도 작작 들어오고.

101004 @ 큰 바위나 굴 같은 것도 잇수과?

101004 #3 바위나 굴은 뭐 허고. 바위 같은 것은 일로 가면은 저 남당, 남당이 그 고내 지경이라고 헤 가지고 한 백메타 길이가 잇어십주게. 일로 행 저 남두리로 저 이런 기정이라서마씨.

101004 @ 음.

101004 #3 기정이라고 헤서.

101004 @ 남당?

101004 #3 예, 남당에서 저 남두리까지예.

101004 @ 예. ‘

101004 #3 기정이 많이 잇었는데 그 기정을 갖다가 중간에 그 기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그 부락에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쪽도 잇고.

101004 @ 아 부셔불엇구나.

101004 #3 그 반대쪽도 잇고 거기 뭐 허는 분들은 발전시키자 헤서 그것을 허 가 했더니 부셔불어서마썸.

101004 @ 음.

101004 #3 것이 그 젊은 후손덜이나 선조덜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헤마씨.

101004 @ 음.

101004 #3 그런 부락의 금덩어리를 앗다가 없어졌다 헤서.

101004 @ 아, 기정이 잇어신디. 저기 소랑냥, 미룩중 허는 건 지명 일름이과? 소랑중이엔 헉디다만은.

101004 #3 아, 스랑중. 사랑중.

101004 @ 스랑중. 계민 이거는 지명 이름이과?

101004 #3 지명이주마썸.

101004 @ 계민 여기는 숲, 숲?

101004 #3 숲.

101004 @ 미룩당은마씨?

101004 #3 미룩당은 것도 저 하, 상가 경원데 그 길로 여기서 한 이키로 내지 삼키로 웰 겨우다. 그 올라가게 돼면은 그 질에 너른 공간이 셔서마썸. 공간이 섰는데 거기에 큰 산이 하나 잇어서마씨.

101004 @ 아.

101004 #3 거길 미륵당, 미륵당 허여요.

101004 @ 아 원래 당이 있었던 거 아니고예?

101004 #3 아니, 아니. 그 지명 이름.

101004 @ 지명이 그냥 미륵당이었던 거라예. 계민 고내 앞 바당쪽에는 부르는 이름이 었수과?

101004 #3 고내 앞 바당 쪽에는 고내 앞에는 이제 저 에 자리연가 여가.

101004 @ 자리녀예, 여 이름.

101004 #3 예. 또 저쪽으로 여기서 한 일키로썸 가게 뒤편은 부락 서 끄트머리에 여기서 강찻코지엔 합니다.

101004 @ 강찻코지?

101004 #3 예. 그 강찻코지 가젠 허민 여기서 셋물이 흘러마씨, 생수가 그 신의 물이고.

101004 @ 신의 물? 좋은 물이렌 헨 경 부르는 것과?

101004 #3 그것이 여러 가지 말이 셋주. 옛날 스님들이 다갯다 해서 스니물이엔도 허고.

101004 @ 아, 아.

101004 #3 신의 물이엔도 허고 해서 여름 때에 거기 가가지고 백중사리 때는 옛날에는 상하가 막 납읍까지 와서 사름이 칠월 십오일 뒤편은 작작 이렇게 헛는데 지금은 뭐 또 중간에 보수도 많이 헛습니다만 벨로 사름이 그렇게. 집집마다 저 스이도가 잇고예, 영 허니까 해도 그딘 여름에도 사시절 생수가 그대로 해서 보수 영 잘 헤 낫습니다.

101004 @ 예.

101004 #3 그 신의 물허고 바로 아래 한 오십메타 내려가민 강찻코지, 저디 동쪽으로 남당알.

101004 @ 자리녀, 남당알. 강찻코지예.

101004 #3 예.

101005 @ 이 고내리에는 무슨 기관 들어와 있는 거 잇수과? 우체국이나 학교나 아니면 지서 같은 거나?

101005 #3 그런 것은 없고 병원도 없고.

101005 @ 학교는?

101005 #3 학교도 없고.

101005 @ 고내리 초등학교 었수과?

101005 #3 었수다게.

101005 @ 아, 었수과?

101005 #4 무사마씨, 고내 지경에 따지면은 애월고등학교도 고내 지경이주.

101005 @ 아, 맞아요, 맞아요. 고내에 있는 거지예.

101005 #4 도서관도 있고, 소방서도.
101005 #3 아. 그거.
101005 #4 도서관도, 애월읍 도서관도 다 고낸다.
101005 @ 예, 맞수다. 잘 돌아왔수다.
101005 #3 저 소방서 들어온 지가 한 십오 년 돼우다.
101005 @ 아.
101005 #3 소방서가 들어와 있고 그 일본 교포덜이 애월고등학교가 애월 지경에 잇어가지고 념기게 돼니까.
101005 @ 예, 예.
101005 #3 고내로 땡기는 것이 어떻헌가 헤가지고 부지를 사서 학교에 기증헤서마씨.
101005 @ 예.
101005 #3 경험 고내 지경에 유치가 돼고. 소방서가 들어와 있고.
101005 @ 예. 계민 고내초등학교 옛이민 여기 아이덜 어디 초등학교?
101005 #3 초등학교는 애월초등학교 고내 합작 돼다시피 허니까예.
101005 @ 예. 계민 초등학교 때서부터 버스 탕 다녀야 뵈 거?
101005 #3 걸영 다녀마씨.
101005 @ 계민 얼마나 걸럿수과 여기서?
101005 #4 한 일키로.
101005 @ 아, 멀지 았구나, 바로 옆이구나.
101005 #3 예.
101005 #4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울타리, 울타리에 잇어가지고 지금 보견소 잇는 자리가 옛날 애월상고 자리. 거기에서 애월고등학교로 위치로 옮긴 거우다.
101006 @ 기라예. 그리고 어머님들안티 영 들어보난 여기는 바닷일 험 때 접으로 안 헤십디다예. 우미험 때나 패, 감태험 때 마을제로 안 허고 다 개인으로 험수과?
101006 #3 건 개인으로도 허고 마을에서는 허지 았고 어촌 계원이 잇수다게.
101006 @ 어촌계 생긴 거는 얼마나 뵈 것과?
101006 #3 어촌계 생긴 지는 것도 한 십오 년에서 이십 년 아닌가.
101006 @ 계민 여기는 마을접이 옛수과?
101006 #3 뵈 거까진 잘 모르겠는데.
101007 @ 고내 마을 어떤 풍속 같은 거 잇수과?
101007 #3 풍속 별로,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별로 남을 헤치거나예, 잘못된 일이 잇으면은 하다가 잘 했느니 못 했느니 이런 일은 없습디다. 뵈 서로가 인심 좋은 마을이라고 볼 수 잇지예.
101007 @ 혹시 고내리에서 마을제 거튼 거 지내는 거 잇수과?

101007 #3 예, 있습니다.

101008 @ 고내리 특산물이렌 혈 만 헌 게 뭐 잇수과?

101008 #3 특산물이라고 혈 거.

101008 @ 브로컬리 같은 게 특산물 아닌가예?

101008 #3 부루코리는 이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뻬수다. 양배추 들어온 지가
몬침 들어왔고 부루코리 들어온 진 얼마 안 뻬수다. 한 십오 년 뻬엇수다.

101009 @ 마을 자랑거리 잇수과?

101009 #3 자랑거리 뻬, 서로가 저 살기 좋은 부락이엔 헤영 인심 좋고 살기 좋
은 부락이라고.

101009 @ 예. 고맙습니다.

2. 제보자 일생

102001 @ 낳고 자란 과정예, 일생 살아난 거 물어보쿠다. 튼내지는 대로 영 글
아줍서.

102001 #1 축건 더경 동무렵 앓아.

102001 @ 예, 아 좋다. 어떻헛수과? 낳고 자란 얘기 한 번 쪽 글아봅서.

102001 #1 낳고 자란 거?

102001 @ 예. 어디서 난?

102001 #1 저 동귀.

102001 @ 동귀에서 난?

102001 #1 으, 으. 하귀 저쪽.

102001 @ 예, 예. 동귀 알아지쿠다.

102001 #1 거기서 자란. 거기서 자란.

102001 @ 몇 살까지?

102001 #1 하이고, 거기서 자란 동생덜이 많이 태어나도 다, 옛날에 열로, 열로
열 버천 다 죽어불언.

102001 @ 음.

102002 #1 건디 나가 질 우이, 질 못이. 건디 나 밑으로 세 성지, 나 너 오누이
살안. 계난 경헛 헌디 옛날에 다 가난헛주만은게, 아부진 바르칠허고 어무닌 물질허
고.

102002 @ 바르칠?

102002 #1 저, 바당, 바당.

102002 @ 아, 바르칠 허고.

102002 #1 낄베.

102002 @ 아, 낄베.

102002 #1 이제는 기계베지만은 그때는 내 짓영 허는. 내로 짓어가지고 영.

102002 @ 아.

102002 #1 초석 돌려가지고.

102002 @ 예.

102002 #1 경헨 나가는 베 탕 강 갈치철엔 갈치 나까오곡 생성철에 생성 강 부
썬 오고 그렇게 허면서 살고 어머니는 물질허면서 살고. 나는 또 질 우이니까 게난
다 죽당 다섯 오누이가 살아서 다섯이. 게난 혼 일고으덱, 일곱 설, 으덱 설 돼가니
까 이제 밧딧일을 허라고.

102002 @ 으, 게난 집이서 동귀에서 바다일도 허고 바닷일도 허멍 살아났구나
예.

102001 #1 으, 어린 땐.

102001 @ 어린 때예?

102001 #1 으, 어린 때. 그리고 허다가 혼, 아홉 설, 열 설에 밧디서 일 허는디
손님덜 시경 다니는 군대환 베가 잇어서. 겐 그 베가 넘어가면서 저 애월을 땄려고
허면 이 고내 바당, 아니 애월 대젠 허면은 하여튼 하귀 쪽에서부터 울리는 소리가
나, 빵빵.

102001 @ 예.

102001 #1 게민, 무정헌 군대환아 날 시켜 가라. 일본더레 날 시켜도라.

102001 @ 밧일 허멍 게난?

102001 #1 으, 밧, 밧디서 일 허면서.

102001 @ 베 봐 가민?

102001 #1 베 보멍 그 생각이 나 가지고.

102001 @ 아.

102001 #1 우리 작은아바지네가 일본 사니까, 일본 가서 대판 가서 사니까.

102001 @ 예.

102001 #1 경헨 막 노래도 불러난 적도 잇고 또 그럭저럭 그럭저럭 허다가 아
무리 헤도 그 례로와 가지고 동귀러레 말 많이 질렀어, 말.

102001 @ 물예?

102001 #1 으, 물. 물 질룸젠 허면 나 보고 이제 물 먹을 출, 그거 비워 오라.
또 그 물들을 집집마다 질루니까 이제, 스무집이 질루면은 스무 마리를 물번 강 봐
오랜 허는 거라. 스무 날에 혼 번씩 물번. 그 두 사름이, 두 사름이 가야, 가가지고
그 스무 마리를 몰아 가근에 저 우티 산중에 강 놔둬서 흐루종일 아침서 저녁이까
지.

102001 @ 아, 스무 바리가 말 한 마리, 두 마리 헐 때 스무 마리?

102001 #1 스무 마리, 스무 마리를 들양 강.

102001 @ 아.

102001 #1 경혜영 그추룩 혜영 가면은 하르부지 하나, 나 어린 아이 하나 부짱

가는 거라.

102001 @ 으.

102001 #1 경허면 그 하르부지는 어디 저 큰내 물 내려오는, 그 하르부지는 그 우이서 직히고 난 아래서 직히고. 그 물 돌아나지 못 하게.

102001 @ 못 하게.

102001 #1 경허면 이제 또 몇 년 허여 가니까 그것도 무섭고 너무 지치고.

102001 @ 음, 갖다 왔다.

102001 #1 갖다 왔다.

102001 @ 으, 힘들고예?

102001 #1 힘들엉. 또 출 해 오는 것도 옛날에 베엄, 베엄 무서워 가지고 그것도 무섭고.

102001 @ 하하하.

102001 #1 어쩔 수가 없언.

102001 @ 예.

102001 #1 경허난 이젠, 경헌디 이 동네 거치 벵그르 허게 우리 동귀 돌아댕기는 동네가 흔 서른 가구 있어 갖주게. 겐 그 서른 가구 사름덜이 나 그럭저럭 헤 가니까, 경허난 이제 열세 살, 열네 살엔 문혼을 온 거라. 중매. 이제 거트민.

102001 @ 음, 열세 살, 열네 살에 중매가 온 거?

102001 #1 어, 중매가 완. 나 열세 살, 열네 살에 큰 지레 이거. 글후제 커 보진 안 허연.

102001 @ 하하. 그때 지레라 지금?

102001 #1 으. 지금이나.

102001 @ 그때는 막 큰?

102001 #1 으, 나가 큰 지레. 경허난, 경헌 중매 왕 헌디 그것도 물리쳐 불고. 아버지네는 대답했지만은 그 옛날에는 그 근본, 근본, 근본, 멧 촌 근본, 그 우이 근 본꺼지 다 보는 거라이.

102001 @ 예.

102001 #1 겐 우리 아버지네 동생이 다섯 성제니까, 이제 켈 우이, 우리 아버지는 두 번째 아덜이고 아버지고, 또 그 우이 큰아버지가 있으니까 큰아버지가 안 웬 다고. 근본이 나쁘덴. 겐 그디 뉘짜 헤불언. 동넨디.

102001 @ 그쪽 집이서?

102001 #1 아니, 우리집이서. 우리집이서 큰아버지가, 나의 큰아버지가 안 웬 덴. 그쪽.

102001 @ 근본이 나쁘다?

102001 #1 으, 근본이 나쁘다 허연 것도 이제 뉘짜 헤부난 것도 안 뉘고. 게난 열다섯 나는 헤에는 동네 사름덜이 다 이제 일본을 증명헤 감젠. 경허난 이제.

102001 @ 예, 그때 누계가 데리러 왕 동네 사름덜이 그치 간 것과?

102001 #1 아니, 여기서 무슨 것덜 행 숙닥숙닥 행, 이제 거트면 뭇이엔 허는
 고? 므을마다 뎡기는 옛날엔 주세소엔 헤낫어, 주세소.
 102001 @ 주세소가 뭐과?
 102001 #1 이 저 순경덜 사는 직허는 데. 파.
 102001 @ 아, 예. 파출소.
 102001 #1 파출소. 건디 주세소엔 헤낫어.
 102001 @ 옛날에 주세소엔 헤낫어?
 102001 #1 예, 주세소. 겐 거기덜 가근에 순경덜신디 이젠 사바사바 헤근에.
 102001 @ 증명 받는 것과?
 102001 #1 겐 증명 내드렌. 감젠 허니까 아이고 나도 이젠 어떻헨 감신고 허난
 뤄 계란이라도 멧 개 사가나 닭을 사가나 경허민 뵤덴.
 102001 @ 순경신디?
 102001 #1 으, 거기에 순경.
 102001 @ 계민 그디 순경은 일본 순경신디?
 102001 #1 아니, 그 우리 제주도 순경, 한국 순경덜이주만은 몰라 그때는?
 102001 @ 일본 순경은 엇어나서?
 102001 #1 몰라, 그건 몰르고. 쟁헨 간에 독새기 서른 개 상 강 증명헨 갖주게.
 102001 @ 하하. 독새기 서른 개 상 가난 증명 받아 줍디가?
 102001 #1 응, 받아 줘.
 102001 @ 증명 받젠 허난 사진도 칙고 잇어야 헐 거 아니?
 102001 #1 으, 증명 헐 때에는 사진도 허꼭게 그디 저 호적등본, 옛날엔 민족등
 본이엔 헤나신가 호적등본.
 102001 @ 계민 그 사진 찍젠 허민 사진 찍는 집도 잇어낫다예?
 102001 #1 어디 셔 낫주게 옛날엔게. 경혜영 그냥 베로 가서.
 102001 @ 옛날에 그 증명 받아난 종이 같은 건 없지예?
 102001 #1 그건 엇어. 그건 그때에 뤄 엇어져볼고.
 102001 @ 그게 열다섯 살?
 102001 #1 열다섯 살.
 102001 @ 대판으로?
 102001 #1 대판.
 102001 @ 작은아방신디?
 102001 #1 작은아바지신디.
 102001 @ 예.
 102001 #1 베로 간, 군대환으로.
 102001 @ 그 군대환 타난 기억이 남수과? 얼마나 간 거 같으과?
 102001 #1 5일. 낫만 닷새.
 102001 @ 낫만 닷새. 계민 베는 어디서 닷수과?

102001 #1 타기는?
102001 @ 예.
102001 #1 저 도꼬내. 도꼬내에서 타고 섬, 섬 돈 거라. 도꼬내 탄에 이 앞으로 돌아가 저 모실포, 서귀포로 돌아와, 돌아와 가지고 성산포로. 아, 조천, 조천.
102001 @ 조천으로 출발해?
102001 #1 으, 조천에서.
102001 @ 계민 배가 제주시서 왕 거기서 출발행 도꼬내 왕 다시 어디 강, 어디 강.
102001 #1 으, 멧 포구에 닷새도 더 걸렸저 침. 제주도 도는 것도 삼일이나 걸리고.
102001 @ 아.
102001 #1 그 포구마다 땡기명 손님덜 시끄젠 허난. 또 그때는 종선이 있어주게.
102001 @ 예, 종선.
102001 #1 큰배가 이 밑을꺼지 들어오지 못 허니까 워낙 배가 크니까. 겐 그걸로 행 종선에 올라강 또 큰배에 올라강.
102001 @ 예. 계민 할무니 탄 거는 도꼬내에서 탄 거라예?
102001 #1 도꼬내에서.
102001 @ 도꼬내에서 탕.
102001 #1 이젠 외도주만은.
102001 @ 외도에서 탕 경헨 영영 제주도 돌아.
102001 #1 으, 우리 앞으로 돌아, 우리 앞으로.
102001 @ 제주도 도는 것만 해도 한 삼일?
102001 #1 으, 삼일 걸려.
102001 @ 마지막 출발헌 거 조천에서 출발헌 거라예?
102001 #1 조천에서 마지막.
102001 @ 예.
102001 #1 조천광 대관은 가까운 모양이라. 동쪽으로가 가깝넨 헤여.
102001 @ 계민 조천에서 출발행 대관까지가 닷새?
102001 #1 으, 저 목포 강 짐 시끄젠 이틀 살고.
102001 @ 아.
102001 #1 또 부산도 강 메칠 살고 경혜연 가니까 메칠을 걸려서. 배에서 팔일을 걸런. 밤낮 열엿새 걸런.
102001 @ 열엿새?
102001 #1 으, 열엿새.
102001 @ 계민 십육 일?
102001 #1 으, 십육 일.

102001 @ 아, 배만 가는 게 오일이었는데 목포 강 이틀밤 살고.

102001 #1 어, 어.

102001 @ 부산 강?

102001 #1 어. 목포 강 짐 시끄고 손님덜 시끄고 또 부산 간 손님덜 시끄고 짐 시끄고 가니까 경 걸려. 동경은 가젠 해도 항상 대판까진 베로 간 때는 항상 대판을 내령 동경을 가야 헛주만은 우린, 난 또 그때 대판 작은아무지네영 말젷아부지네영 사니까 대판 강 살았주게. 멧 년.

102001 @ 그때 베샷 얼마나 쥐신지 알아지쿠과?

102001 #1 그때 베샷은 잘 모르켜, 잘 모르큰게.

102001 @ 겐 베 타젠 허민 손에 뭐 들렁 베 탕수과?

102001 #1 무시거 들른 거 서게. 무시거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여긴 엇이니까 거기만 가문 쓸밥으로 잘 먹넌 허난 계난 저 무시거 베로 현 치메 허고 우이 저고리 허고 또 이제 소곱에 바지 하나 허고 그것만이주게. 우이 샤쓰 하나 허고. 그것만 무신 포따리에 썬에. 뭐 가반이 서세계. 이거 열다섯 살이난 게 멧 년이니 팔십오년. 팔십 멧 년고? 팔십멧 년 웨난이.

102001 @ 겐 밥은 베에서 줍디가?

102001 #1 게, 밥은 삼시 쥐.

102001 @ 삼시 쥐?

102001 #1 으. 밥은 삼시 딱 맥여.

102001 @ 그럼 그때 베에 탄 사름덜 막 하낫수과?

102001 #1 아이고, 하주게. 제주 전체 돌아텡기명 시끄곡게, 그때부터도 제주도 사름이 많이 갖주게 일본을, 많이 텡겨주게. 계난 주로 제주도 사름덜 시끄는 거라, 육지 사름덜 많이 안 가고. 육지 가면서 그냥 뭐 짐덜, 쓸도 좀 시끄고 뭐 필요한 것덜 시경가고 사름은 벨로.

102001 @ 그 베가 제주도에 멧 번이나 들어와낫는지 알아지쿠과, 일주일에, 멧 날은 아니잖아예?

102001 #1 메날 아니, 메날 아니. 흔 덜에 흔 번도 아닐거라, 일 년에 멧 번베끼 안 텔 거라. 경헤실 거라 몰라도.

102001 @ 으.

102001 #1 게고 베덜이 군대환 베만 아니라 북목환도 서 낫주. 북목환이엔 현 거 그거는 북한베엔 헨, 북한에서 북한 사름덜이 지어 논 거렌 헨 헤나실 거라. 북목환.

102001 @ 게민 어무니 타 본 베는?

102001 #1 군대환.

102001 @ 군대환만 타 본 거?

102001 #1 으, 난 군대환, 군대환으로 두 번 갖닥왓닥 허연.

102001 @ 두 번?

102001 #1 으. 두 번, 두 번일 거라. 아, 시 번, 시 번.

102001 @ 세 번 갈 때 전부 군대환이어신디 걸린 날은 전부 열엇새?

102001 #1 아니, 제기 온 날도 셔. 밤낮 열새도 걸리고.

102001 @ 아, 열새 걸린 날도 싯고?

102001 #1 예, 어디 들리지 안 현 날은. 그냥 오는 디는 빨리 와.

102001 @ 아, 그럼.

102001 #1 이디 저디 텅기젠 허른 오래주.

102001 @ 기민 여기서 출발할 때도 어디 안 들령 바로 출발헌 적도 잇수과?

102001 #1 엇어.

102001 @ 갈 때는 다 들령 가?

102001 #1 다 들령 가.

102001 @ 올 때는?

102001 #1 올 때는 벨로 경 들리진 안 헤실거라.

102001 @ 아.

102001 #1 올 때는 그냥 제주도로 와.

102001 @ 이젠, 이제 열다섯 살에 일본 가난 그때서부터 고티아줍서.

102001 #1 그때부터 가니깐 이젠 열다섯에부터 가난 이젠 일을 해야 돈을 벌 거 아니? 이제 어디 일, 일본 사름네 집이 일 구허니까 그때는 이제 그 이런 채소 덜 담고 무시거 담는 이런 하꼬덜이 싯지 안 허냐. 그거를 지금은 부찌서 나오고 어떻게 그 무시거로 또각또각 안 해도 웨는데, 풀로 안 부찌도 웨는데.

102001 @ 예.

102001 #1 그 열다섯에 우리 열다섯에 갈 때는 다 종이에 풀 블라가지고 그 하꼬, 보루바꼬를 이젠 하꼬 식으로 영 딱딱 만들어 놓면은 그걸 종이로 하꼬를 만드 는 거라.

102001 @ 음.

102001 #1 그런 디를 나가 이제 들어갓주게.

102001 @ 그니까 그 종이로 나온 건 영 접는구나예?

102001 #1 접지 안 허영 그냥 종이에 큰 창호지 거치 나 풀 블라노든 싯싯 풀 을 이런 디 놔서, 이런 디 놔서 풀을 블르면은 그거를 앓사다가 보루바꼬에 부짱, 영 돌아가멍 부짱 하꼬를 만드는 거라.

102001 @ 부찌는 거?

102001 #1 경혜영 이제 이디서 같으면 이제 베란다 같은 디 강 물령.

102001 @ 으.

102001 #1 경허민 하꼬 웨여. 그런 덜 들어갓주게.

102001 @ 예, 하꼬 만드는 일.

102001 #1 하꼬 만드는 일, 경허민 이제 일본 사름네 집. 일본말은 통 모른 거 라.

102001 @ 음.

102001 #1 계민 아침 갈 때 대판은 오하요상, 동경은 오하요고자이마스 해도 대판은 오하요상 혜영, 계난 이제 아침이 일곱 시에 오렌 혜여, 일곱 시에. 겐 일곱 시에 벤또 짠 오렌 저 도시락.

102001 @ 음.

102001 #1 그거 쌍 일곱 시에 오렌 허른 쪼끔이라도 나가 제기 가근에 많이 헤야 귀여움 받을 거 아니게. 으섯 시에 간.

102001 @ 하.

102001 #1 결영 이디서 가트민 애월 간 만이 현 디 결영 간. 열다섯 살에 결영 간. 경혜영 강 보른 문을 안 올라. 경허른 문 열 때까지 상은에 문 열른 오하요상 허멍 들어강, 원 말도 몰라부니까 일본말. 계난 ㄹ치 일허는 사름은 일본 사름이고 한국 사름은 나 혼자니까.

102001 @ 혼자?

102001 #1 혼자, 나 혼자.

102001 @ 아.

102001 #1 일본 사람네 집이거든. 경허난 이제 그디 가근에 여섯 시부터 나가민 일곱 시부터 일 시작허른 점심 먹고 밤 열한 시까지 일 허여.

102001 @ 에. 밤 열한 시까지.

102001 #1 열한 시까지. 겐 이십오 전, 하루 일헌 것이 이십오 전.

102001 @ 하루에 이십오 전. 하루 일허민 하루에 딱 이십오 전을 쥐?

102001 #1 아니, 아니. 혼 델 일허민. 아, 혼 델에 이십오 전. 하루에 이십오 전 이 아니고.

102001 @ 혼 델에 이십오 전?

102001 #1 혼 델 월급이 이십오 전.

102001 @ 혼 델에 이십오 전이든 그때 쓸?

102001 #1 경허니까 이십오 전을 타 노니까 그때에 옷이 엇언. 그디 강 입을 옷 이 엇으난 새로 치마에 멩지저고리 해서.

102001 @ 음.

102001 #1 그걸로.

102001 @ 이십오 전 다 든 거?

102001 #1 어게, 이십오 전 다 들어가. 혼 델치가 다 들어가야 혼 벌. 게 혼 벌 게 치마 저고리. 경헨 행 입어난.

102001 @ 경헨 옷 한 번 행 입으난 한 달 월급은 엇어져불언?

102001 #1 엇어져불엇주. 게도 밥은 그냥 죽은아부지네 집이서 공짜로 먹고. 멩 델 동안.

102001 @ 아.

102001 #1 경혜근에 거기서 이제 멩 개월 허고 다른 디서 이제 월급을 하영 줘

젠 해근에 그디 강 멧 개월 해 나고. 그디서 해가니까 나가 먼침 간 집이 주인이, 원체 나가 말도 안 곧고 일을 잘 허니까.

102001 @ 예.

102001 #1 다른 디 가지 말렌 허는 거라 영 눈치가 다른 디 가지 말렌 허영 노는 날은 일주일애 한 번 놀주게. 공일날 놀면 그날은 영 눈치로 오렌, 지네 집더래 오렌. 어디 들양 강 맥이고 뭐 사 주고. 신발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허켄. 경허영 혼 번 나가 가난 맥이곡 자꾸 사 주고 해낫주게. 경은 해도 월급이 너미 올려주지도 안 허고 작으니깐 헐 수가 엇지.

102001 @ 음.

102001 #1 겐, 모르게 어디 한국 제주도 가노렌 해영 나왔주게 나완. 겐 어떻 다른 디 강 곱양 일허는 디 그 사름네가 알아서. 주인네가 알양 우리집이 오면 이디 주는 월급 주겠다고.

102001 @ 아.

102001 #1 빼앗양 드려와불언.

102001 @ 일 잘 허난.

102001 #1 경헨 또 먼침 강 허단 디 강 허고 열여덟 살엔 고향애 돌아왔주게.

102001 @ 아, 열여덟 살애.

102001 #1 경헨 열다섯 살애 강 옷 혼 벌 해 입곡 글후애 버는 건 작은아부지네가 돈을 메와 줘서.

102001 @ 예.

102001 #1 메와 주니까 열여덟 살 나니까 이제 시집 가렌 통지가 가서.

102001 @ 아.

102001 #1 경허난 이제 거기서 이제 소게 같은 거, 뭐 이제 이불 싸는 거 같은 거, 그때 모빈단 시난 모빈단, ** 그런 거 이불 겹죽, 또 옷덜 다 거기서 이젠 산 오랏주게. 그 돈으로 번 돈으로.

102001 @ 번 돈으로?

102001 #1 겐 이디 완 그때는 뭐 이불 하나, 요 하나. 여기서도 대목 행 가낫주만은 난 이불 포따리가 두 개 쌍 가서. 나가 질 또 큰딸이고 허난 이제 스춘 오빠네영 아부지영 어무니네영 너가 질 우이고 밑애 동생덜 이시니까 쪼끔 뉘겨뒹당 동생덜도 주라 해도 나 벌어 온 거 나가 허겠다고. 경헨 이제 그거 다 헨 간 헌디 가 보니까 그것이 아니.

102001 @ 음.

102001 #1 잘 몰란 가전. 그냥 전염병을 폐병들 든 덜 가전.

102001 @ 음.

102001 #1 게난 그거 다 이젠 내불어덩.

102001 @ 얼마나 살았수과?

102001 #1 얼마 살아 보지 안 해영 그자 갖닥왓닥 혼 메칠 허당 영 보니까 눈

칠 보난 암만해도 아니 웹직 혜연 살짝 이젠 또 일본을 가 불엇주게.

102001 @ 음.

102001 #1 그때는 초청 받아근에. 저 작은아바지신디 증명행 보내줍서 헨.

102001 @ 아.

102001 #1 경헨 또 이제 열아홉에 일본 나간.

102001 @ 열아홉에. 열여덟에 들어 왕 열아홉에 또 나간?

102001 #1 또 나간.

102001 @ 음.

102001 #1 또 나간 대판 메칠, 멧덜 살단 대판서.

102001 @ 또 나가근에는 대판서 무슨 일?

102001 #1 그 다음 간 때도 그런 일 해도 그 다음에 가가난 열아홉에 가가간 쫓끔 나도 익숙고 허난에 저, 나이도 혼 멧 설 더 먹고 허난에 경허난 이제 월급을 혼 곱은 더 받았주. 곱은 더 받안. 경혜연 허단에 스물한 살에 동경 올라가져신가. 동경서 또 이제 이 고내 사람이, 나 또 대판도 친구가 하나가 고내 사람 친축이 시 난, 친구에 고내 사람 친축이 아 대판을, 침 동경서 대판을 들레 가불어서.

102001 @ 음.

102001 #1 경허난 이제 둘이 이제 그 사름이영 ㄴ치 동경 올라간.

102001 @ 아. 친척이 이시난 친구 데리러 온 건데 친구영?

102001 #1 친구영, 그 친구가 나영 ㄴ치 가야 가켄 혜영 나도 이제. 동경은 먼 친축덜이나베끼 가까운 친축은 벨로 엇엇주게.

102001 @ 아.

102001 #1 경허난 이디 오란.

102001 @ 죽은아방이 가지 말렌 안 헤?

102001 #1 가지 말렌 허나 무시거나 열아홉 스물 나가난 나가 어른 똤 가난 나 즈유주게. 그땐 나 즈유로.

102001 @ 살기는 대판 강 살 때 죽은아방네 집이 ㄴ치 산 건 아니고?

102001 #1 ㄴ치 살안.

102001 @ 동경 강 이제는 어디서?

102001 #1 동경 간에 이제는 고내 사름네 집이서 일해서. 고내 사름네가 주로 가방일 이 저 군복웃, 양복웃덜 그런 거 허는 집이가 막 핫주게.

102001 @ 음.

102001 #1 경허난 고내 사름네 집 강 일헨.

102001 @ 아다치, 아라카와? 그 지역 이름이?

102001 #1 우린 아다치, 아니 저, 저, 저 어디고, 어디고?

102001 @ 아라카와?

102001 #1 으, 아라카와, 동경.

102001 @ 동경예?

102001 #1 으, 동경. 저 아사쿠사 즈꿏디. 유센지, 나가 처음 갈 땐 유센질 가서 유센지.

102001 @ 아.

102001 #1 유센지 간에 오래 살, 멧 년 살고 그 다음엔 미카와시마 간 또 멧 년 살고 또 그 다음에 니시하라엔 현 디 강 이년 쯤 사니까 대동아전쟁이 일어나 불어서.

102001 @ 아.

102001 #1 경헨 대동아전쟁이 일어난, 저 미카와시마 살 때 일어났구나. 경허난 이제 니시하라에 피난을 갖주게. 니시하라엔 현 디 아다치, 아다치구.

102001 @ 예.

102001 #1 거기 간에 집 상 간, 유센지서 아기 하나 낳고, 아덜 하나 낳고 또 이제 그디 간에 딸 하나 난. 경정 헤가난 나가.

102001 @ 결혼을 언제 현 거라?

102001 #1 으?

102001 @ 결혼을? 스물한 살에 동경?

102001 #1 아, 스물두 설에. 스물흔 설에 간에 스물두 설에 허연 스물두 설에 아덜 난 거라.

102001 @ 동경서 누게 소개시켜 주난 만난 거?

102001 #1 으?

102001 @ 동경에서 소개시켜 주난 만난 거?

102001 #1 어, 어. 소개. 고내 사름덜 집이 강 일허고 이제 고내 사름덜이 소개 시키난 경헨 만났 살멍 허연, 이젠 아다치구엔 현 디 니시하라 아다치구엔 현 디 이젠 그디 간에 집을 상 갖주게. 흐끔 벌어지난 이층집 헨 상 간. 산 가난 다 피난 덜 헤볼렌 허는 거라 이녁 고향에 다.

102001 @ 음.

102001 #1 고향이 신 사름덜 다 고향에 가렌. 경허고 또 우리 시어머님 헨 어른 이 여기 고내에서 눈을 양짜 다 어둑영 허난 이제 그 아덜 하나뿐이고 딸 이디 서도 딸은 뭐 내내 들양 사니까 못 들양 살켤. 와근에 들양 살렌. 경허난 이젠 헐 수 옅이 이젠 또 피난덜도 허렌 허고.

102001 @ 예.

102001 #1 계난 집이고 뵈이고 옷이고 뭐, 뭐 집안에 신 거고, 미싱 으덱채 낚에 막 인부덜 드령 일허당 그 사름덜은 다 보내두고 미싱덜이고 뵈이고 다 내불어던 몸뻥이만 온 거라. 아기 둘.

102001 @ 아이고 아까워라.

102001 #1 뭐, 뭐 전부 내불언 집안에.

102001 @ 계난 처음에 갖을 때 고내 사람 가방 만드는 디, 거기서 일허단 계속 그런 가방 종류 만드는 일 헛수과?

102001 #1 예, 그런 가방 종류, 일 우리가 시작 허연에 헛주게.

102001 @ 아, 시작할 걸 언제 시작한 거라?

102001 #1 시작함을 나가 스물네 살에 시작했주게.

102001 @ 아, 스물네 살에 일 시작한 거라예?

102001 #1 으, 스물네 살에 시작했주게.

102001 @ 미싱 들여놓예?

102001 #1 으, 미싱 들여놓. 난 아기덜 때문에 일 안 허고 그냥 심부름이나 허고 밥이나 맥이꼭 인부덜 미싱 으답, 으답 채. 또 인부도 으답, 또 그디 아랫일 시 따바리 헐 사름 멧 사름 두고.

102001 @ 크게 헤신게 일?

102001 #1 크게게. 막 집이 크게, 큰 집 상 강. 경헌디 그거 그냥, 다 피난덜 허렌 허고 또 이디서도 제기 오렌 허고 겐 와불엇주. 스물 다섯에 들어와불엇주게.

102001 @ 게민 스물다섯이 우리 해방 돼기 전해?

102001 #1 해방 돼는 해, 돼는 해. 겐 나 오란 얼마 엇언 시어머님 돌아간.

102001 @ 돌아가시고.

102001 #1 겨난 해방 돼영 돌아가난 각처에서 막 친촉덜이고 아는 사름덜이고 문을 때엔 다 모인 거라.

102001 @ 계난 그때 들어 올 때 신랑도 ㄴ찌?

102001 #1 ㄴ찌, ㄴ찌.

102001 @ ㄴ찌 들어오고?

102001 #1 아이덜 둘 들고. 팔월 달에 난 아이 헨에 뒷해 삼월 달에 들어완, 돌전이 들어오난.

102001 @ 계난 동경에서 제주도 오젠 허난 어떻헤연.

102001 #1 동경에서 제주도 올 적에는 게메, 우리가 이젠 아기 둘 들고 그자 입은 바랑에 대판까지 이제 차로 왔주게. 무신 차, 기차.

102001 @ 음.

102001 #1 와 난 대판 오란 이제 베로 왔주게.

102001 @ 베로.

102001 #1 군대환.

102001 @ 계난 집이 빗덜 가져오지도 못 허고?

102001 #1 아무것도 빈 몸뎡이로 완. 돈 흥뎡 헨 것만 허리에 찬 완. 경헨 그걸로 이딘 아니고 저 우이 쪼그만 집 시누이ㄴ라 상 놔둬서 허연 상 놔두난 그디 들어갓주. 헤끄만 헨 삼칸집.

102001 @ 삼칸집.

102001 #1 으, 그디 오란 살안. 그디 완 아이덜토 넷이나 낳고 허연 그럭저럭 허단 여기에 온 지가 거즘 오십 년도 더, 오십팔 년이니까.

102001 @ 경헨 장례도 치루고 행 신랑은 언제 또 일본 가불엇수과?

102001 #1 신랑은 경허난 이디 오란 일본 살아나고, 또 신랑도 막 몸도 약하고 병이 하, 몸에. 막 엇은 병이 엇은 사름이라. 겨난 여기 와도 무신 밧딧일도 잘 못 허고 그럭저럭, 그럭저럭 허멍 살안 살단에 이젠 암만, 암만해도 이디서 살지 못헝 직 허난 계난 밀항으로 갖주기. 슬째기 곱안.

102001 @ 계난 몇 살에.

102001 #1 곱안 허난 이제 나보다 일곱 설 우이주게. 일곱 설 우인디 나가 또 마흔일곱 설엔가, 마흔일곱 설에 허난에 썬 멧 살에 나간.

102001 @ 아, 계민 막 한창 후에구나.

102001 #1 으, 이디서 막 고생은 고생 거치 헤 난, 헤 난 곱안 나간 거라.

102001 @ 아.

102001 #1 증명덜 허지 못 허난.

102001 @ 그때 밀항으로?

102001 #1 밀항으로. 일본까지 곱안 간 거라. 이디서 곱안.

102001 @ 곱안예?

102001 #1 경허난 이제 또 우리가 막 어렵게 살아지고 허니까 아방이 허는 말이 아덜은 중학교꺼지베끼 못 시킬 거고 딸은 국민학교, 더 이상 못 시킬 걸로 헤, 경허난 경 험 걸로 허연 딸, 아덜 중학 나오니까 아덜을 몬침 보내서.

102001 @ 일본으로?

102001 #1 으, 그디 또 증명헤근에 일본 사는 사름, 갖닥왓닥 허는 사름덜이 잇 엇주게. 안내자, 오란덜 안내헤영 드려가고 허는 사름덜.

102001 @ 으.

102001 #1 계난 그 사름덜이 막, 일본서 그때는 일 험 사름이 막 딸려노난 일은 하고.

102001 @ 으.

102001 #1 겨난 가이도 열일곱 설인디 왕 드려가. 드려가고 딸도 이제 국민학교 졸업 마트난 열 멧 설인디 열시설가 열, 열, 그때에 이제 그 이상 더 못 헌덴 허니까 이제 험 수 엇이 이젠 부산 식당에 아는 사름 식당에 보내연 그디 살암시난, 또 일본 고내 사름덜이 갖닥왓닥 허는 사름덜이 또 데려가서 가이를.

102001 @ 아.

102001 #1 부산으로 간. 경허영 또 오누이가.

102001 @ 아방신디예?

102001 #1 아방은 아까 헛주만은 아방은 말짜 간. 계난 가네들이 몬침 간.

102001 @ 아, 아방이 말짜 간 거?

102001 #1 말짜에 간, 말짜에. 아이덜 다 보내 된.

102001 @ 아.

102001 #1 일 년, 아덜 간 일년 웨난 딸 간 그 다음에 아방 간 거.

102001 @ 아, 기과?

102001 #1 으.

102001 @ 계민 아덜 강 어디에 의지행 살아서?

102001 #1 그디 우리 오촌 조케가 셔난.

102001 @ 그 동경 간 거?

102001 #1 동경, 동경. 동경더레 바로 간. 오촌 조케가 드려 간.

102001 @ 아.

102001 #1 겐 그디 강 살명. 그디 가든 금방 일은, 헐 일은 나오는 거라. 돈은 별게 쁘 거.

102001 @ 기라예. 일본 일손이 딸리난?

102001 #1 으, 막 딸리난. 경헐 거기서 장게 가고 시집 가고 살단덜 이제 다 이 녁 갈 디덜 가불엇주만은.

102001 @ 계난 아덜 하나랑 딸 하나는 아예 일본 강 자리 잡앙?

102001 #1 으게, 그디서 증명허고 헐연 그디서 장개가고 시집가고 허연. 아기덜 토 다 낳고.

102001 @ 경헐 아방도 그쪽으로 간 것과?

102001 #1 그 다음에 아방도 밀항으로 간 거라.

102001 @ 아덜, 딸 이신 디 간 거?

102001 #1 으, 이시난. 그 옛날에 살아나고 허난게.

102001 @ 음.

102001 #1 옛날에 살아나난 뭐 일본말도 잘 알고 또 뭐 그 질도 잘 알고. 계난 감만 허민 일은 얼마든지 헐 거난.

102001 @ 음.

102001 #1 경헌디 몸이 약헤여근에 잘 허지 못 허여근에. 헐 수 엇이게 여기서 거치 쁘 일이 아니니까. 일은 한결해 한결. 경허난 아이덜이영 살명.

102001 @ 음.

102001 #1 경허단 혈압으로 쓰러전.

102001 @ 계민 일본에서 돌아가신 거.

102001 #1 으, 경허연 일본서 혼 이십 년 사난 나가 이제 박람회 때에, 박람회 때엔 이제 단체 증명을 허연 오랜 헐 거라.

102001 @ 예. 일본 박람회 때?

102001 #1 으, 질 처음에 박람회 때. 제주도에서 일곱 사름 간. 그 증명덜 반안. 겐 일곱 사름이 나간 서울 간 이틀 동안 무시것고.

102001 @ 교육 받고?

102001 #1 으, 교육 받고.

102001 @ 반공 교육. 조총련 사름이랑 만나면 안 쁘다?

102001 #1 으, 으. 뭐 볼펜 하나도 받지 말라. 수건 하나도 받지 말라. 뭐 이틀 가 사흘 받아서.

102001 @ 하하.

102001 #1 경헨 받은 나간에 이십 년만에 하르방도 만나고 이제 애기덜도 만나고.

102001 @ 아이고, 이십 년만에.

102001 #1 겐디 혼 스무나홀 살앗주만은 스무나홀 살아도 간 살아진 것 님지 안 허연 오난 너무 섭섭하고 경헨게. 경헨 갖다완 난 이디서 생활허고 이젠 또, 하르방은 또 일본서 사는 디, 여기서 굶주리멍 살고 몸에 병 싯고 허니까 막 몸이 훌쩍해낫주게. 경해난디 거기 강 하도 잘 먹어 노난 몸이 똥똥헤져서.

102001 @ 하하.

102001 #1 경해부난 혈압이 올라분 거라. 혈압이 올라 부난 이제 멧 년 엇언 혼 오십팔 세, 구세 돼가난 두 번 쯤 쓰러전. 경해도 큰 뵐 안 헌디 육십하나 뵐는 헤에 여길 들어간 거라.

102001 @ 으.

102001 #1 여행으로. 메칠을 완 살단 가켄. 겐 들어완에 이젠 공기도 좋고. 그뻐 또 여기 들어와도 아이덜이 대학도 다니고 그 일본서 살아가난 이디 신 아이덜은 대학도 허고.

102001 @ 공부시켜 줘구나.

102001 #1 으, 딸도 이제 우리 족은딸이 이제 예순으섯이주만은 머리가 원체 좋안 오일육 장학생으로만 죽장 헛주게. 고등학교 들어가난 죽장 장학생으로. 경해연 허게 뵐난 이제 교육대 들어간 허고.

102001 @ 으.

102001 #1 또 아덜도 이제 저 이제 어디 뎡기는, 이제 뵐직헛주기만은 저, 저 어디 뎡기는, 도청에.

102001 @ 축산 허는.

102001 #1 국장꺼지 올라간 경허난 뵐직허연 이제 축산에 들어간 허는 디, 그 아덜도 이젠 한참 대학허게 뵐고. 오란 보니까 돈은 하영 들게 뵐 거라. 여기서 돈 을 날 일이 엇어. 게도 이디서 살아보난 하도 공기 좋고 가긴 싯퍼.

102001 @ 하.

102001 #1 육십하나에.

102001 @ 육십하나.

102001 #1 환갑에.

102001 @ 으.

102001 #1 겐 가기 싯평 여기서 그럭저럭 늣헛주게. 증명을 두 달 증명을 헤 온 디 녁 덜을 살아서. 스월 덜에 오란 구월 덜에 가신가.

102001 @ 아.

102001 #1 스월 덜에 오란 구월 덜꺼지 늣추완 산디 간에 이젠 혼 석덜썸 일허 단 일헤가난 팍 쓸어전 이제 널모리 제사라.

102001 @ 아.

102001 #1 십일월 이십팔이에 오뎡 돌아가불언.

102001 @ 여기 왕 녀덜 살고 강, 아이고게.

102001 #1 여기 온 때 마침 여로엔 현 거 혈 때라. 그 테레비.

102001 @ 드라마.

102001 #1 그거 오락 메날 보고. 어디 놀레 갓당 들어왕 보곡 허멍 참 재미나덴
 헨 게 간게만은 경헨. 일본 강 녀덜 살안. 녀덜도 못 살앗구나. 구월덜에 강 십일월
 덜에. 이디오란 녀덜 살고 일본 간 석덜 살고 헨 돌아간. 게난 일본서 이젠 장레 지
 내고.

102001 @ 예.

102001 #1 여기 오란 모시고, 돌아단.

102001 @ 아, 게난 묻기는 여기 묻고?

102001 #1 으, 여기 오란 묻언.

102001 @ 으.

102001 #1 경헤연.

102001 @ 게민 일본 간 큰 자식이 둘이라예. 여기서 큰 자식은?

102001 #1 네 명.

102001 @ 게난 일본 강 돈 별멍 학비덜은 다 대 준 거?

102001 #1 어게. 글후에 이 대학교 들어갈 때부터는 다 헛주게.

102001 @ 예.

102001 #1 그 전이는 얼마 경 들진 안 헛주만은.

102001 @ 으.

102001 #1 중혹교, 첨 고등혹교부터는 일본서 대 쫓주게. 넷, 넷 경헨 다 이제
 결혼꺼지 다 해 놓고 이 막내 사고로 가불고. 여기서.

102001 @ 게난 저기 여기서 어머니는 그냥 막 농서만 지엿던 거라?

102001 #1 농사만 짓고. 농서도 짓고 소소한 장서도 흐뎡 해 받.

102001 @ 어떤 장서덜 헛수과?

102001 #1 소소한 거는 뭐 고기 장서도 해 보고 무신 옷장서도 해 보고, 쓸장시
 도 해 보고, 그자 많이 경 오래 허지는 안 해도 지연 뎡기멍 폭는 거.

102001 @ 지영 뎡기멍?

102001 #1 으.

102001 @ 오일장에도 강 폭는 거 아니?

102001 #1 오일장에도 간 풀고, 여기서 꿰 열말씩 지영 시에도 걸언 가오고.

102001 @ 으.

102001 #1 고기도 이디서 이제.

102001 @ 고기는 생선, 물고기?

102001 #1 생선, 북바리 거튼 거.

102001 @ 북마리.
102001 #1 저 벤자리 그런 거 여름에 경험 지영 강 풀고.
102003 @ 아, 경험 산 거라. 계난 부모님은 원래가 외도인 것과? 어머님, 아버님?
102003 #1 동귀.
102003 @ 아, 동귀, 동귀.
102003 #1 원래가. 아, 원래. 원래가 저 어머님은 신엄.
102003 @ 신엄. 아버지는?
102003 #1 원래가 동귀.
102002 @ 동귀예? 계난 부모님들은 아까 아버지는 바당 강?
102002 #1 으, 허단 허단 그냥.
102002 @ 어머님도 해너?
102002 #1 으, 해너 허고.
102002 @ 계민 농사도 짓고?
102002 #1 농사도 짓고.
102002 @ 그 일도.
102002 #1 으, 으. 경허난 뭐 트멍이 엇멍 막.
102002 @ 으.
102002 #1 바빵.
102002 @ 어렸을 때 막 소 보러도 다니고?
102002 #1 들 보레도 텅기고.
102002 @ 들 보레도 다니고 출도 행 오고.
102002 #1 으.
102004 @ 헤신디 영 동생덜토 잇어지만 놀기도 헤신 거 아니?
102004 #1 노는 시간이 엇어.
102004 @ 아, 놀 시간이 엇어. 하하하.
102004 #1 하이고, 노는 시간이 엇어. 나는 또 성질이 차분허니까 집안에 일허고 밧뎃일. 또 우리 두 설 밑에 동생은 성질이 왈왈왈왈 허영 이 즘상허는 집안일을 못 허니까 가이는 밖에서 영 물도 짚어오고.
102004 @ 으.
102004 #1 또 놀레도 다니고 무시거 허고 헤난 그 기억이 잇어.
102004 @ 계난 뭐 곱을락이라든지 바닷가 가서 조개잡고 그런 거?
102001 #1 아, 그런 것사 소소헌 거 헛지만은 우리 그 어린 때는 모자엔 헌 거 즐아낫주게, 모자.
102001 @ 총?
102001 #1 총으로.
102001 @ 양태 즐아난?

102001 #1 양텐 아니고 우리 모자꼴 헤영 모자.
102001 @ 모자 즐아난?
102001 #1 으, 모자 즐아난. 혼 예닐곱 설 돼난 그 밤이덜 그, 낮인 헐 시간 엇
고.
102001 @ 예, 예.
102001 #1 밤이 그 무신 촛불도 쌍 헤 박, 지름불도 쌍 헤 박.
102001 @ 게민 모자 즈는 거는 뭘 가지고?
102001 #1 뭇총.
102001 @ 뭇총으로예. 그럼 갓, 갓?
102001 #1 갓. 갓에 이디.
102001 @ 우에 거예?
102001 #1 으. 양태는 영, 영 망.
102001 @ 망이고?
102001 #1 아니, 둘레.
102001 @ 둘레이고 이디, 이 부분?
102001 #1 으, 으. 모자는 이디 꼭다리에 거.
102001 @ 아, 모자 즈는 거 헤낫구나.
102001 #1 으, 으. 우리 그런, 그런 건. 모자꼴 헤근에 그런 건 헤낫어.
102001 @ 아. 즐아난 거예? 그게 동귀에서가 그런 일들 막 하영?
102001 #1 하영 헤연. 동귀에선 그런 모자.
102001 @ 아, 게난 양태랑 모자 부찌는 거는 어디서 헤낫수과?
102001 #1 이, 이 서촌더레 헤나실 거라.
102001 @ 게민 지난 번에 우리 양태판 사진 찍엇잖아예. 그거 누게가 헤난 것
과? 양태판. 저번에 선게?
102001 #1 그거 우리 시어머님이 헤난 거.
102001 @ 아, 시어머님이 헤난 거.
102001 #1 으. 그거 시어머님 물림이주게.
102001 @ 아.
102001 #1 난 옛날 건 엇어. 난 이디 온 후엔 엇언. 거 시어머님이.
102001 @ 아. 기구나, 기구나. 여기 옛날에 일본 군대덜 왕 지내낫잖아?
102001 #1 으.
102001 @ 해방 돼기 전까진예?
102001 #1 으, 으.
102005 @ 그때 공출허고 뭘 그런 거 엇어낫수과?
102005 #1 무사 공출허고 엇어? 공출 헛주기게. 우린 온 후에는 일 년가 이 년
베긴 안 헤연. 일본서 오란.
102005 @ 그거 말고 어렸을 때 가기 전에, 일본 가기 전에? 그때도 일본 군인

덜이 들어 왕 있던 시기잖아. 일제시기에?
 102005 #1 나 일본 가기 전에는 그런 공출 같은 건 었고.
 102005 @ 예.
 102006 #1 이런 그, 동귀는이 스삼에 떠드는 사름이 만해났주.
 102006 @ 예.
 102006 #1 경허난이 그 외도, 그 도꼬내 외고 그 주재소에서 지서에서, 지서에 서 순경덜이밤이 오랑 무시거 산.
 102006 @ 뭐 보초?
 102006 #1 으, 입초 산. 경혜부니까 우리 공부도 못 헬게. 야학, 야간도 못 헤 서. 그런 스삼에 떠들어근에 그런 공부나 헬시카부덴.
 102006 @ 음.
 102006 #1 오란 마딱 입초 사는 때문에.
 102006 @ 으.
 102006 #1 그런 건 싯주게.
 102005 @ 계난 막 공출 허고 그런 건 엿어 낫구나?
 102005 #1 그때는 엿고. 그때는 엿고, 우리 일본어 온 후에 보난 공출 헬선게.
 102005 @ 아.
 102005 #1 일본, 일본 신 때부터 헤난. 우리 일본 신 때덜.
 102005 @ 아.
 102005 #1 젠 우리 오란 이년 만엔가 우리 오란 저 멘네.
 102005 @ 예.
 102005 #1 멘네도 갈양 공출허라. 또 무신 뭐, 뭐 감저도 공출허라 헤신디 우리 오란 뒷해엔 끈어져불언.
 102005 @ 아.
 102005 #1 공출허지 말렌.
 102005 @ 해방 뤄니까 공출허지 말렌 현 거지예?
 102005 #1 어, 어. 해방 뤄난 공출허진 말렌.
 102006 @ 계민 사삼은 영 들어왕 겪은 거 아니예, 사십팔 년도난.
 102006 #1 들어완, 들어완.
 102006 @ 그때 엿어난 일들 곱아줍서. 들어 왕은 바로 여기로 고내로 온 거 아 니?
 102006 #1 고내로 완.
 102006 @ 예, 그때 고내 분위기는 어떻헤났수과, 사삼 일어났을 때?
 102006 #1 군인덜게 이디 일본 군인덜 왕 살아나고.
 102006 @ 으.
 102006 #1 일본 군인 우리 저 웃집이 살 때 안거리도 쯤그만 허고 밧거리에 방 이 하나 잇어서, 밧거리에 방 하나. 그리고 저 이문간이엔 헤근에 이문간 하나 방,

그 이문간 하나에 일본 군인이 댓사람 완 살아도 나고.

102006 @ 그 전쟁 끝난 해방 됐난 그 일본 군인 다 나가 분 거 아니?

102006 #1 나간 분디 그 해방 돼기 전이덜 막 부수 들어 와놋주게.

102006 @ 아.

102006 #1 경헌디 우리 밧거리도 오란에 집 빌리렌 헨 살아나서.

102006 @ 살아난?

102006 #1 으, 오랜 안 살고 잠깐.

102006 @ 예, 그럼 사삼 때 누게가 막 잡혀가고 경 안 해놋수과?

102006 #1 아이고 잡혀 가고 말고 그때덜사게. 무신, 무신 칼로 죽이고게.

102006 @ 으, 죽창.

102006 #1 으, 죽창으로 죽이곡 죽창으로 막 날려부난. 막 빠라덜 날리고.

102006 @ 으, 겐 친척들 중에 그것 때문에 피해 입거나 경헌 사름을 엇어?

102006 #1 우리 친족은 하진 안 허여. 좌씨니까. 이디 좌씨가 우리뿐이주게.

102006 @ 좌과?

102006 #1 좌가, 우리 시가가 좌가고 난 고가고.

102006 @ 아.

102006 #1 시가가 좌가. 저 고산, 신창더렌 하도 이 고넨 엇어.

102006 @ 아.

102006 #1 이제 나 떠나 불민 이디 좌씨 엇어. 아들덜 시내 강 살아부난.

102006 @ 아, 기구나. 좌씨?

102006 #1 으, 좌씨, 좌씨.

102006 @ 계난 막 그때 피해, 하르부지가 피해 입거나 경헌 건 엇어난? 잡혀가거나?

102006 #1 아니, 하르부지도 몸 약허고 경해도 죽창 들렁 직허렌 땡겨놋주게. 직허레 땡기고 또 흘 번은, 흘 번은 산에선가 이디선가 다 나오른 훈련들 시키켄.

102006 @ 아.

102006 #1 겐 우리 아기덜 업으멍 영 들어오ندي 요디 집 앞이 밧, 쪼그만 현 밧이 잇어. 백만 원짜리 밧이 잇ندي 그 밧디 흘 백 평쯤 웬 밧디 나오면은 여저고 남저고 아이고 어른이고 다 나오른 훈련시키켄 허연 겐, 겐 나갓주게. 나간 허난 저, 저 순경덜, 군인덜이라. 군인덜.

102006 @ 군인덜이 나오렌 현 거예?

102006 #1 으, 경헌 다 나가난, 아기덜 업으멍 나간디, 아, 그중에서도 확확확확 막 뽑으멍 남자덜만 다 끌어가부는 거라. 그때 고내에서. 그래 이제 고내에 남저가 엇인 거라. 이 중늬은이덜 다. 이제 살아시른덜 흘 백 설, 구십 설덜은 놋주만은. 어땡 어땡 허멍 그 사름덜이 그디 간 후로 그럭 저럭 남제가 벨로 엇어.

102006 @ 죽여분 거라?

102006 #1 경허난 이제 흘 칠팔십 명을 들랑 가분 거라. 저 도꼬내, 도꼬내 주

재소를게.

102006 @ 예.

102006 #1 혼련시키켄 해연. 겐 우린 돌아오고 우리집이 하르방도 가고.

102006 @ 예.

102006 #1 경헛는디 한 메칠 동안 소문을 못 듣는 거라.

102006 @ 하르방 소문을?

102006 #1 아무 소문도 못 들어 고내 사름덜. 경헛 메칠 돼니까 그 심어 간 중에서도 또 뽑아 내연. 저 우이서 먹어분 사름덜, 우이서 강 올려간 사름덜, 억지로 올려갓주게. 이 고낸 산쪽 부터난 사름 하나토 엇어.

102006 @ 아.

102006 #1 흔 사름산디, 두 사름산디.

102006 @ 계난 산에 있는 사람덜안티 명단 올라간 사름덜만?

102006 #1 올려 간 사름덜만 거기 가난 다 뽑안 죽이켄, 죽여볼걸로. 또 명단 안 올라간 사름덜은 돌려 보내고. 돌려 보내고 명단 올라간 사름은. 겐디 우리집이 하르방도 그때 죽이는더레 가긴 가서.

102006 @ 아, 명단 올라가난.

102006 #1 고내광 고내광 저 어디 신업 사이.

102006 @ 예, 예.

102006 #1 아니, 아니. 외도 사이에 연뒤엔 헛 디 거디 심어갓주게. 경허난 이젠, 그 눈치는 모르코. 또 우리집이 하르방은 옛날에 우린, 나영 하르방이영 저 미싱, 좁음틀 하나 난 흑생복덜 수선도 허고 무신 옛날에 미녕웃덜도 헤나고 흑생복덜 헤나서게.

102006 @ 여기서, 고내에서?

102006 #1 고내서, 저 웃집이서. 경헌디 그때에 그 흐뎡 경 막 공부도 잘 안 허고 뵈헛난 사름이라도 흐뎡 눈치도 빠르고 말도 잘허곡 걸걸헛 사름이 셋주게. 뭐 아방넨 근본은 좋지 안헤도 아덜이 경 웃사름덜광 교체도 잘 허고 사름이 셔난디, 우리가 그 사름이영 친헤영 뭐 웃도 헤주고 뭐 허민 그 사름넨 또 우리보단도 못 사니까 공짜로도 헤주고 뵈 헛난디 그 사름이 그 외도 지서에서도 책임을 헛 거라.

102006 @ 음.

102006 #1 계난 그 사름이 우리집이 하르방은 빼 준거라.

102006 @ 아.

102006 #1 계난 아니 죽을 펜더레 세와 준 거.

102006 @ 예, 예.

102006 #1 멧사름은 멧사름을 뽑아내연, 뽑아 내연 뵈줄 두 줄은 아니 죽일 사름 앞줄 두줄은 죽일 사름.

102006 @ 음.

102006 #1 계난 어느 쪽이 사름이 죽을 줄을 몰랑 정말 조메조메 헛주게.

102006 @ 아.

102006 #1 겨난 이제 밤이덜은 팡팡허레 온 거 아니? 겨난 우리집이 하르방 윽 이 산 연결에 하르방 들은 ㄱ만이 사주민 아니 죽을 건디, 아무디 사도 죽을 거니까 앞이 나강 죽으켄 허멍 앞더레 나가불언게. 겨난 오꼳 그 사름네도 죽어불엇주게게. 췌 엇이. 우리집이 하르방넨 살고.

102006 @ 으.

102006 #1 겐 살안 멧 사름은 이제 돌아온 거라. 돌아오난 이제 또 죽은 집이서 덜은 어멍 허난 돌아와져닌 또 물어보레덜 오고. 경헨 그때 그 시절도 넘고, 경헨 돌아오난 이젠 또 목 직허레 가는 거 아니 죽창 들렁.

102006 @ 으.

102006 #1 기추룩 헨 또 멧 년 동안 뎡건.

102006 @ 성 쌓으레도 뎡기고?

102006 #1 으, 성 싸레 나. 우리덜이 뎡겨완 하르방 약허고 허니까 나가 간 막 돌 지멍 다왔주게.

102006 @ 아.

102006 #1 메칠을 뎡겨시, 성 다우레.

102006 @ 성 다우레.

102006 #1 예, 성도 답고게. 아니 헤 본 거 없어.

102006 @ 아, 겨난 죽창 직허고 성도 다우령 다니고.

102006 #1 어, 어.

102006 @ 경해서. 먹을 거는 곤란허지 안 헛수과?

102006 #1 무사 아니 곤란헤. 먹을 거는.

102006 @ 산에서 왕 먹을 것도 뺏앙 가고 경 헛수과?

102006 #1 겨난 그 비라 같은 것만 밤에 부치주게. 우리 고내리엔 경 오라근에 경 양석 빼앗가고 경 안 헌디 저 동귀러렌 뉘 우리 어머니도 무시거영 담요도 더경 놔 두민 문딱 헤 가불고 이불도 가져 가불고 헤영 막 털곡 뿔허곡 허멍 엇날에 헛 주기만은.

102006 @ 그쪽에는 산에 사름이 많앗수게.

102006 #1 으게.

102006 @ 그지게.

102006 #1 그디, 그디가 하 나부난, 학교가.

102006 @ 학교 잇어나부니까?

102006 #1 예, 하난. 우리 고내엔 벨로 올라간 사름이 엇언.

102006 @ 예, 예.

102006 #1 엇어도 창 맞앙 두 가지 죽고, 그때. 요 즈꿏디 죽언. 또 불덜도 멧 밧디 부썬불고.

102006 @ 음.

102006 #1 좋은 집덜 다 부져불고.

102007 @ 그 아까 결혼은 일본에서 결혼하실 때 중매랏수과, 연애랏수과?

102007 #1 중매, 중매.

102007 @ 중매?

102007 #1 중매게. 계난 우리집이 하르방도 혼 번 가난 어른이고 나도 가나고 허난 간단허게 헛주게. 중매해도.

102007 @ 아.

102007 #1 크게 안 허연.

102008 @ 사주 안 보고?

102008 #1 스주고 무시거고 필요엇어.

102008 @ 필요엇어?

102008 #1 그자 연령만 멧 설, 멧 설이다 현 것만 헤영 그냥.

102009 @ 여기서 결혼하실 때는 아까 일본 강 벌어온 걸로 이불이영 두 채 막 행 갓잖아예?

102009 #1 두 채? 다섯 채.

102009 @ 아, 다섯 채 행 갓잖아예? 거기선 어떻 헛수과? 동경에서 결혼할 때는, 혼수?

102009 #1 그디선 서로 아무것도 안 허연.

102009 @ 서로 아무것도?

102009 #1 으, 우리집 하르방도 막 아프고 뿃 허난 돈도 혼 푼 엇고.

102009 @ 어.

102009 #1 빈 몸뎡이.

102009 @ 계난 빈 몸뎡이라신디 어느, 어느 사이에 돈 벌영 그 가게를 차려진 거라?

102009 #1 그 둘이 부지런히 현 거란. 난 아기 돌아도.

102009 @ 결혼하고 나서?

102009 #1 으, 나서, 결혼하고 나서.

102009 @ 겐 경 벌어진 거라?

102009 #1 예, 벌어진.

102009 @ 벌어진?

102009 #1 으, 으. 그뎨 뉘 일만 부지런히 허든 돈만 버는 거니까?

102009 @ 계난.

102009 #1 집도 사고.

102009 @ 집도 사고, 아까 집 상 미싱 여덜 채 들여 낫덴 허난예.

102009 #1 으, 미싱, 좁음틀 여덟 채 들여난.

102009 @ 계니까.

102009 #1 인부 여덟 사름 들여놓고, 또 그레 아래 허는 사름도 으덟 사름.

102009 @ 시따바리에?
 102009 #1 으, 시따바리.
 102009 @ 게민 거기서 결혼할 때 혼수는?
 102009 #1 혼수 아무것도 안 헨게.
 102010 @ 결혼식도 안 허고?
 102010 #1 결혼식도 안 허고.
 102010 @ 사진도 안 찍고?
 102010 #1 사진도 안 찍고.
 102011 @ 하하. 그럼 그때 신혼 살림은 어디서 차린 거?
 102011 #1 유센지.
 102011 @ 아, 유센지. 방 하나 빈 거?
 102011 #1 방 하난 빌언.
 102011 @ 아. 처음 갔을 때 유센지에서 결혼 할 때까지 계속 유센지에 살았던 거구나.
 102011 #1 으, 으. 뜬 디 살단 그디 그냥 혜연 살고. 흐뎡 따로 살아보단 또 이젠 안 돼켄 혜연 흐뎡 나슨, 널른 집 빌언 일을 시작허언 헨 거라. 유센지서부터.
 102012 @ 아들 먼저 그디서 낳고 그 다음 딸? 아들 낳고 딸 낳고?
 102012 #1 으.
 102012 @ 경 들어완, 여기서는 순서가 어떻 됩니까?
 102012 #1 여기서 이젠 총총 딸 싯 나던.
 102012 @ 딸 싯 나던.
 102012 #1 아들.
 102012 @ 또 아덜 난 거.
 102012 #1 또 아덜 난.
 102012 @ 또 아덜?
 102012 #1 으, 아덜 싯, 딸 싯.
 102012 @ 게민예, 우에, 우에?
 102012 #1 아덜.
 102012 @ 우에 아덜.
 102012 #1 그 다음 딸.
 102012 @ 딸.
 102012 #1 그 다음은 딸.
 102012 @ 딸 두 개?
 102012 #1 싯.
 102012 @ 시 개? 그 다음.
 102012 #1 아덜, 아덜.
 102012 @ 아덜, 아덜. 아, 예.

102012 #1 아덜 싯, 딸 싯.
102012 @ 일곱 갠디?
102012 #1 무사, 우에 아덜 하나.
102012 @ 아덜 하나.
102012 #1 싯은 딸. 게믄 넷 아니?
102012 @ 아, 맨 우에 딸 잇는 거 아니?
102012 #1 밋밋 딸을 싯 난 거라?
102012 @ 일본에서가?
102012 #1 으, 일본에서가 아덜, 딸.
102012 @ 아덜, 딸. 이디완 딸 들.
102012 #1 으, 밑으로 아덜 들.
102013 @ 예, 예. 딸 셋, 아덜 셋. 경헛엇던 거. 경헛 여기 왕 일본에서 결혼허
난 시집살인 안 헛거다예?
102013 #1 으, 으.
102013 @ 여기 왕도 바로 시어머니 돌아가셔부난 시집살인 안 헛다예?
102013 #1 안 헛. 시집살인.
102013 @ 하하.
102013 #1 이녁 즈유.
102013 @ 으.
102013 #1 즈유, 즈유.
102013 @ 시아버지는 엇어나고?
102013 #1 아이고 저. 저 무시겡고 우리집이 하르방 막 어린 때에 뵤 때 들 장
시 허레 육지 갓당 그냥 바당에서 풍파 만난, 어느제 죽은 날을 모르난 생일날로
헛 생이라, 제사.
102013 @ 아.
102013 #1 제사.
102013 @ 어디서 죽은 지도 모르고?
102013 #1 몰르고.
102013 @ 경헛 생일날?
102013 #1 경허고. 동갓덜 초엿새날이 제사주만은
102014 @ 계난 이 자식덜 여섯 개는 결혼은 다?
102014 #1 다 시켄.
102014 @ 다 시켄고?
102014 #1 으, 공부 다 시키고 결혼 다 시켄.
102014 @ 일본에 잇는 아이덜은?
102014 #1 가불고 이디도 막둥이 스나이, 아기 오누이, 결혼허연 오누이 난 가
불고. 사고로 즈동차 사고로.

102014 @ 아이고.

102014 #1 저 애월 농협에 이십 년 해연 부장꺼진 올라놔, 올라놔에 이젠 밤이 어디 저 상가 사름이 시꺼다 주켄 헨 시꺼 오단 요, 이디 고등학교 잇어, 이디.

102014 @ 예.

102014 #1 그 앞에서 전봇대에 부닥천. 술, 술덜, 운전수가 술 먹어난 생이라. 절로 오면은 우녜쪽으로 올 거 아니?

102014 @ 예.

102014 #1 알력쪽 전봇대에 부닥천 알력뵈더레 들어 간 거라.

102014 @ 아.

102014 #1 경헨 그 운전수는 살고 우리집이, 이 이디가 직사해 불언.

102014 @ 아이고.

102014 #1 서른여섯에.

102014 @ 서른여섯에? 아이고.

102015 #1 우리 메뉴린 스물 아홉.

102015 @ 아이고.

102015 #1 우리 메뉴리도 농협에 텡견 그때 십 년. 십 년 넘언. 우리집이 아덜도 이제 혼 십 멧년 뵈연 부장급까지 올란. 원체 똑똑허고 완전 일을 잘 보니까 농협 짓을 때에도 총무 메견 돈 책임이고 뵈이고 다 말안 해연 짓어나고 해낫주게. 가부난 그냥 동네 할망덜 제금헸던 돈덜 다 좇아 오고이. 그 사름 엇이믄 우린.

102015 @ 거기 헐 거 아니라고.

102015 #1 못 텡기켄.

102015 @ 아.

102015 #1 그추룩 허멍 막 울멍. 멧 년 동안을 경 잊히지 안 허멍, 이제도 곶아, 이제도 곶아. 원체 일을 잘 보고 저, 경 막 그냥 일도 잘 보고 언강도 짓고 할망덜을 잘 해주곡. 경허멍 허멍. 헌디 메뉴리도 ㄴ치 텡기단 거기서 알안 시집 장게 갖주게.

102015 @ 경헨 아들, 딸 ㅎ나씩 낳고?

102015 #1 ㅎ나 오누이 난. 건 이제 스물 아홉에 홀어멍 드난 난 일흔 멧 설이 고 이 아이덜 떼고 메뉴리가 가 불민 어멍 허코 매날 이젠 막.

102015 @ 즈들앗구나.

102015 #1 삼 년, 시어멍 메뉴리가 삼 년을 이집이서 운 거라. 이집이서 시집 오고 이집이서 아기덜 낳고 이집이서 경허멍 막 아덜 죽어부난 막 울어간다 실러간 다 허멍. 경헨 살단 이젠 메뉴리가, 농협에선 메뉴리 ㄴ라 오란 농협에만 텡기렌 해도 안 가켄. 안 가켄. 혼 멧 년 쉬엇단 이제 어디 시에 가근에 이제 상점이나 헤여근에 가게나 하나 보켄 허멍. 켄 간 어디 해연게만은 도남 간에 그때 도남덜 아파트가 아니고 발전 안 뵈을 때.

102015 @ 으.

102015 #1 집덜토 엇고 현 땀 디, 흔 이십 뻬 년 전이난게. 경허난 이젠 거기 강 도남성환 상가.

102015 @ 음. 가게 났구나.

102015 #1 산 가게 났, 가게 산.

102015 @ 아.

102015 #1 가게 산에 해 두고, 이젠 살 집을 이제 시에 강 마련허젠 허난 나 보고 이젠 어무니 시에 가야 이 아이덜을 이제 봄을 봐야주기. 하나는 우이 지집아이는 국민학교 일학년 뉘고.

102015 @ 아.

102015 #1 족은 거는, 아래 스나이 늬은 저 유치원 마지막 뉘 거난.

102015 @ 애기 봐 달렌 허는 거 아니?

102015 #1 으, 봐 달렌. 이디 살명도 보고 그디 강 봐야주 애기덜만 놔 뉘은. 아이고 어떻헨 시에 강 살코, 어떻헨 시에 강 살코. 어무니가 못 가켄 허믈 난 시에 못 갑니다.

102015 @ 으.

102015 #1 경허게 뉘믈 헐 수 엇다. 나가 가야지. 겐 딱라 갖주게. 경허난 또 사는 집은 마침 서쪽에서 동 끝으로 강 아파틀 마련헨 거라.

102015 @ 으.

102015 #1 저 신천지.

102015 @ 예, 신천지 아파트.

102015 #1 신천지 아파트. 짓기 전에.

102015 @ 예.

102015 #1 짓기 전에 간 뉘 오란 저기, 여기우다. 아이고 이덜 어떻헨 고내에서 뉘기느니, 뉘기느니? 헐 수가 엇수다게, 이디. 그뉘 경 아파트도 늘너지지 안 헨 뉘 주만은 어디 노형 근처에, 노형 근처에 아파트 엇은 뉘.

102015 @ 엇어.

102015 #1 엇은 뉘.

102015 @ 아, 신천지가 처음에 생기난.

102015 #1 예, 겐 경헨 이제 그디 다 짓게 뉘난 지집아인 그디 강, 사학년 뉘, 사학년 뉘 그디 강 사학년으로 들어가고 스나이늬은 일학년으로 들어가게 뉘난 ㄱ 치 들양 간. 그디 강 나가 살명 십 년을 살안.

102015 @ 시에 강 십 년 살안.

102015 #1 십 년 살아도 뉘 일요일, 토요일날 즈낙인 이디 왕.

102015 @ 농사 지엇구나.

102015 #1 농사는 안 지어도 집 보고 그자 이디 우영에 무시겨 승키여 헤뉘 가믈 그거 오랑 흐뉘 허고 토요일 즈낙이 오랑 일요일날 즈낙이 가.

102015 @ 아.

102015 #1 매, 매. 어느날 떨어지는 날 었이.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왔다 갖추게. 계민 신천지에서 버스 타래 오젠 허믄 이디서 저기 저 읍사무소 헌만이 걸영 강 버스 탕 오곡.

102015 @ 아.

102015 #1 허멍, 느령 또 걸영 가고. 경허멍 허단 가네덜 중학 가게 뉘난 버천.

102015 @ 아.

102015 #1 말은 잘 듣는데 어떻 허당 그래도 실수헐 때가 잇잖어게, 아이덜이.

102015 @ 으.

102015 #1 경허민 어멍이 가이덜신디 욱 헤가민 나가 아이 펜백들민 아이 펜백 들엄젠 허고, 손지 펜백 들엄젠 허고 또 메뉴리 펜백 들어가민 아이덜은 날그라 나 뻘텐 허고.

102015 @ 으.

102015 #1 헐 거난 아예, 아예 나가 고내 오란 메칠씩 안 가불엇주게. 또 아이 덜은 안 왓젠 안 허여? 무사 할머니 빨리 읍서, 빨리 읍서. 기여게 나 메칠 시민 가 켜게 이디 불일 뵙 가져, 가져 허멍 츠츠츠츠 떨어전 이디.

102015 @ 하하 경 놀러부뉘?

102015 #1 어. 중학교 때부터 떼전.

102015 @ 계난 메뉴리 또 시집 안 간?

102015 #1 안 간.

102015 @ 아이고, 아이고.

102015 #1 그냥 침이 나가 막 나 떼껴던 그 아기덜, 가불믄 그냥 욱은 건 다섯 설이고 어린 건 두 설이랏주게. 경허난 그것덜 열 설 전이라도 가불믄 어떻 헐 거 라.

102015 @ 계난.

102015 #1 어떻 헐 살코, 어떻 헐 살코 매날 울어 간다 썰어 간다 헌디 윈 어드 레 갈. 윈체 우리 아덜이 아무 존소리도 안 허고 혼 오락년을 살아도 그렇게 사이 좋게덜 살아나부난 뉘 디 강 살질 못 허여.

102015 @ 경허난, 경허난.

102015 #1 이 테레비라도 보멍 부부간이 싸우멍 허민 저추룩 허영 어떻 살아? 그추룩 헌 말만 허주기.

102015 @ 아.

102015 #1 막 아 이추룩 헤영 나 혼자 살아 경 안 허여. 경허고 어떻 어떻 우리 메뉴리가 윈체 머리가 똑똑허고 춤을성도 잇고 경 뵙허는 아이난 돈이 츠곡츠곡 부 턴게.

102015 @ 아이고.

102015 #1 밧도 흐뵙 나 혼 칠백 평 물려준 것이, 가이 물려주난 밧 값도 점점 올르고 한질 들어간 돈들도 혼 멧 쵸 들어간 것도 돈덜 많이 나오고.

102015 @ 으.

102015 #1 나 혈 때 들어간 건 천땀 평이란다 한질로 다 들어가단 남은 것이 칠백 땀 평인디 나 혈 때는 돈 안 권. 한질 들어갈 때. 경허멍.

102015 @ 음.

102015 #1 해난디 어떻 어떻 아파트는 행 가고 가게도 해연 출런 그디 무시거 그럭저럭 헨 허젠 허난 일억오천을 들어서 그때.

102015 @ 으.

102015 #1 이십 년 전에. 이십 년이 무시거라 이제 이십 오년 거저 됐구나. 헌 디 그거 출려 놓고 아파트 허고 이디 또 나 물려준 밧 싯고 경, 정 허난 막 돈에 곤란은 안 헷주게.

102015 @ 아이고, 다행, 다행.

102015 #1 이녁냥으로 또시 가게 해연 또 벌멍 그땐 장서가 잘 뤼난.

102015 @ 으.

102015 #1 처음에 문방구로 허단 이 하도 이젠 문방구덜이 널어져부난 문방군 안 허연. 이제 이것 저것 해 보단 이젠 숙녀복으로 허연. 이제 혼 덜에 혼 번 육지 강 그 동대문, 서대문 강.

102015 @ 물건 해 왕.

102015 #1 물건 해 왕, 숙녀복 해 왕 풀고 이녁냥으로.

102015 @ 음.

102015 #1 해연 므음 부짱 살아가난 또 애기덜도 시집, 장계를 제기 가켄 헌 거 라게.

102015 @ 벌써 그때가 웬 거?

102015 #1 경허난 이제 딸도 스물으답에 가켄 헨 시집 가불고.

102015 @ 으.

102015 #1 그 다음엔 뒷해에는 아덜이 장계 가켄 헌 거라 스물으답에.

102015 @ 아.

102015 #1 게난 작년에, 올리 올리 장계 갖고 이제 아덜난 또.

102015 @ 아이고.

102015 #1 딸은 스물으답에 가도 시어머이 윈체이, 어디 육지 강원도 사는 사름 인디 가령찬 시어명인ㄴ라 헤치 보면서 그 헤치에 아기 나쁜 안 뤼텐 해연 혼 이년 더 싯당 나렌 해부난 이젠 엇언게.

102015 @ 안 생겼구나.

102015 #1 게난 어제 생일 넘은 아이보단도 지네 동생보단도 몬침 가도 아이가 엇어.

102015 @ 아, 게민 야이가?

102015 #1 야이가 생일.

102015 @ 게민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이가 야이?

102015 #1 아니, 아니.
102015 @ 야이 아니?
102015 #1 야이 아니. 가이는, 가이는 야이게.
102015 @ 아.
102015 #1 이것이 가이 해줬주게, 야이가 해줬주게.
102015 @ 손지가 해 준 거 전화?
102015 #1 으, 이거, 이거.
102015 @ 아이고, 좋수다.
102015 #1 계난 난 이거 가정 다님뿐이주게 무신 세금이고 무시거고 가이가 다 내.
102015 @ 하. 좋다예 손지가 이런 것도 챙겨주고.
102015 #1 일주일에 흔 번씩 이걸로 전화 와, 이걸로. 할머니 건강협서. 처음엔 이 나 장계 갈 때까지만 꼭 살아야, 살아야.
102015 @ 으.
102015 #1 아이구야 난 장담 못 허켜. 난 어떻게 해질지 몰르켜. 난 그때까지 살지 못허민 어떻게요? 아니 경 꼭 살아사 합니다. 경허단 보난 올 삼월엔 장계 가 켜, 스월에 장계 가 켜 헨. 애기가 셔 부난 어떻게 할 수 엇이 재작년에 딸 풀고. 아 덜 장계 가 켜 허난 집 빌어 주고 무시거 허고 허젠 허든 하영 들 거난 집터 하나를 시에 샷단 그거 폭난에 이익 얼마만 받안 그걸로.
102015 @ 아이고.
102015 #1 그걸로 헨 집 허연 전세해 주고 아덜도 또 대출 받안 얼마 내 난.
102015 @ 음.
102015 #1 경헨 아덜넨 헨 살고 아덜 낳고. 어명이 이젠 큰 걱정은 엇어도 아기 덜 제기 보내부난. 어제도 고티주게 느 아이덜 제기 보내부난 큰 걱정 엇다게.
102015 @ 이게 메뉴리.
102015 #1 으, 이젠 죽은 메뉴리고 야이.
102015 @ 으, 완전 고운게 메뉴리도. <중략> 사위덜은 어떻게과 사위덜은?
102015 #1 사위도 하난 가불언.
102015 @ 아, 가불언.
102015 #1 으, 이제 살아시든 일흔. 흔 쉰 멧에 가불언.
102015 @ 아이구.
102015 #1 경헌디 그디도 딸은 야이고. 야이네 스나이가 가불고.
102015 @ 계민 둘째, 셋째?
102015 #1 으?
102015 @ 큰딸은 일본 강?
102015 #1 일본 강 큰 사운 살고.
102015 @ 으, 살고.

102015 #1 또 큰 메뉴리 일본 잇고.
 102015 @ 으.
 102015 #1 일본도 손지덜이 핫주게, 이제.
 102015 @ 아. 메뉴리랑 사위는 잇고?
 102015 #1 잇고. 메뉴리, 사위 일본 살암서 이제. 손지덜이랑 다 살멘. 게난 왕
 랜 허주게.
 102015 @ 으.
 102015 #1 경허고 야이, 야네 스나인 저디, 저것에. 그디 남자. 이거, 이거.
 102015 @ 이거 어무니우다게.
 102015 #1 또 하나 셔.
 102015 @ 이건가? 이거, 이거 이 사진.
 102015 #1 으, 그 사진. 앓은 거, 앓은 것이 족은 사위.
 102015 @ 으.
 102015 #1 산 거는 족은 사위네 아덜.
 102015 @ 아덜예.
 102015 #1 게난 족은메누리가 너무 너무 착허고 고마와.
 102015 @ 그지예.

3. 밭일

보리농사

103002 @ 보리 농사 짓는 거 곱아줍서.
 103002 #1 보리 농사?
 103002 @ 예
 103002 #1 보리 농사는게 음력 구월달 나민 씨 뿌령게.
 103002 @ 아, 저 먼저, 먼저예, 이것부터 물어보쿠다.
 103002 #1 뭇이과?
 103001 @ 저기 고내리에서 농사는 어떤 농서를 지어낫수과?
 103001 #1 보리 농사, 조 농사, 고구마, 고구마 농사.
 103001 @ 고구마, 옛날 말로 곱아줍서. 옛날 말로.
 103001 #1 감저, 우리 동네에서 저 감제엔 헤.
 103001 #(주위분들) 감제, 감제.
 103001 @ 감제예.
 103001 #1 우리 동네에선 감제엔 헤.
 103001 @ 아.
 103001 #1 룡.

103001 @ 콩.
103001 #1 이제 그 외에는 뭐. 그것이 대목 짓어, 대목 헛수께.
103001 @ 으.
103001 #1 그 농사가.
103001 @ 그 농사가예.
103001 #1 예, 우리 논도 엇고 허니까예, 밭뿐이난 보리, 조, 감자, 콩 그 농사가 주로 헛수다.
103002 @ 아 그 농사가 주로 헛 거예. 계민 보리 농서 짓젠 허민 뉘부터 준비 헛수과?
103002 #1 보리 농서 짓젠 허민 거름게. 거름은 옛날은 없으니까 집 주위에, 우리 집 예염에 통시가 잇엇수께. 도야지 질루는 통시.
103002 @ 예.
103002 #1 그디 도야지 질좌근에 도새기 질황.
103002 @ 예.
103002 #1 이제 그디, 질루면은 그디 그 통시래 히여지렁헌 찌꺼기덜 막 가져당 놓니게.
103002 @ 음.
103002 #1 뭐, 검질이고 무신 거고 그레 통시래만 가져당 노면 도새기는 그거 짓볼르멍 그디서 살면서 그걸 걸름웁니다게 내중에 썩어가지고.
103002 @ 음.
103003 #1 경허민 일 년에 혼 번 그 걸름을 우리가 꺼내영마씨.
103003 @ 내는 거예, 걸름 내는 거.
103003 #1 내여 낱 베겏디 내여 낱 이제 물 빠정 그거 몰라 가면은 그거를 이제 조금씩 멩텅이에 담아가지고 경해가지고 이젠 밧디 저다근에 거름이 뉘엇든 안 뉘엇든 골루루 뿌려줍니게.
103003 @ 음.
103003 #1 예, 그것이 대목헌 걸름. 소, 소. 이 쉼 질름는 디는 쉼걸름이 대목이고 쉼 안 질루는 디, 우리 도새기덜만 질루는 디는 도새기 걸름이 대목이고 그게 대목이랏수다.
103003 @ 그게 대목이라서예.
103003 #1 예.
103003 @ 계민예 농서 짓젠 허민 걸름은 언제 내 낫수과, 어느덜에?
103003 #1 어느덜에 내져신고?
103003 @ 통시 걸름.
103003 #1 어, 구월, 아니 구월부터 허난에 여름 때에 헛니다. ㄱ실에, ㄱ실에. ㄱ실리.
103003 @ ㄱ실에 거름을 낼 거예?

103003 #1 예. 걸름을 내영 해 낫당 이제 구월덜, 음력 구월덜이민 이제 밧디 저다근에 뿌립니다. 갱허민 이제 췌로 갈아.

103003 @ 걸름 밧디 지여 뇌서예. 게민 걸름을 먼저 뿌릴 것과?

103003 #1 뿌려마씨.

103003 @ 어떻?

103003 #1 그걸 이제 병덩이 진 거는 손으로 풀명게.

103003 @ 손으로 다.

103003 #1 예게.

103003 @ 그거 글체에 담양 안 허고.

103003 #1 글체에도 담양 텅기멍 뿌릅니께. 글체에도 담양 텅기멍 뿌리고 또 가까운 딴 손으로 뿌리고 먼 딴 글체에 담양 텅기멍 뿌리고.

103003 @ 게민 걸름 내잖아예, 통시 걸름 내가지고 집이 영 뇌 둘 때는 쌓아가 지고 놀 놀영 뇌두는 형태로 해 됩니까?

103003 #1 영, 영 읍에 울타리 읍에.

103003 @ 울타리 옆에 해 두는 거잖아예.

103003 #1 예.

103003 @ 해 두민 영 뭐 새도 썩우고?

103003 #1 예 우에 더꺼근에 비 맞지 말렌 행 그대로 들류왕. 그대로 썩어가면 서 집이 팡팡 납니다게.

103003 @ 예.

103003 #1 그대로 뇌 두민 것이 뜨거왕.

103003 @ 갱 밧디 정 갖잖아예. 맥에 낡 정 가면.

103003 #1 맥에 낡 정 가.

103003 @ 밧디서는 다시 그렇게 놀 놀어놓지는 안 허고?

103003 #1 골로로 밧 골로로 뿌릴만씩.

103003 @ 골로로 저다 놓는 거.

103003 #1 으. 그 거림이 하면 한 대로 많이 뿌리고 좇게 뿌리고.

103003 @ 으.

103003 #1 족으민 족은 대로 널리 피우고.

103003 @ 경헨, 경헨 걸름을 허는 거예. 게민 보통 보리 갈 때는 여기는 통시 걸름을 하영 헛수과?

103003 #1 통시 것이 우리는, 췌가 엇어부난.

103003 @ 아, 췌가 엇어부난.

103003 #1 췌 신 집이 췌걸름 허고. 우린 췌가 엇이 도새기 뿐이난 그거로 뿐. 그거로만. 경헨 내중에 또 오줌 거튼 것도 오줌항에 메와다가 허벽에 지어당 또 뿌리고.

103003 @ 아, 오줌도 뿌리고.

103003 #1 예. 오줌 뿌리고.

103003 @ 예, 켄 정 갓수다예, 밧디 걸름을 정 강 영 술술술술 골체에 헨 손으
로 헤 뿌령. 경혜영 밧을 갈 거?

103004 #1 갈아.

103004 @ 보리밧을 갈 거.

103004 #1 아 경혜영 이제 씨 뿌령. 그 다음에 씨 뿌령, 보리씨 뿌령.

103004 @ 갈아난 다음에?

103004 #1 아니. 뿌령 낱 갈아. 뿌려 낱 갈아.

103004 @ 아, 게민 그거구나예. 저기 걸름은 먼저 뿌리고.

103004 #1 걸름 뿌리고.

103004 @ 그 우이 씨 뿌리고.

103004 #1 씨 뿌리고.

103004 @ 그다음 가는 거?

103004 #1 가는 거. 켄 갈아근에 이제 썬피로 꺾어. 보리는 꺾지 안 허주만은
조 같은 건 블러근에.

103004 @ 다른 쪽에서 들으난 거기는 거름 위에 씨를 뿌렷덴예.

103004 #1 아 그거는.

103004 #(주위) 쉼로 건 블리멍.

103004 #(주위) 그거 남군에 우리 세계에 경 헛주.

103004 @ 예, 예. 경 헛디다예.

103004 #(주위) 씨 뿌령 막 블라, 쉼 이경 막 블라.

103004 @ 거름 낸 다음에 거름이 좀 므르면. 게난 이것도예 보리 농서 짓는 것
도 달라, 트나 저기영.

103004 #1 게난 다른 디서 보리씨 허고 걸름 허고 서텅, 서텅 쫓영, 막 블라 블
랑 그걸 이제 흐뎡 목형 경혜영 그걸 이제 줍아 놔. 경헌디도 이십니다만 우리 동
넨 그거 아니.

103004 @ 아, 그거 아니.

103004 #1 썬 씨대로, 걸름은 걸름대로.

103004 @ 아. 트난게.

103004 #1 트나, 트나 제주도 안에서도 트나.

103004 @ 그럼 그건 게예, 걸름을 다 뿌려난 다음에.

103004 #1 예, 뿌려낱.

103004 @ 보리썰 뿌령.

103004 #1 씨 뿌령 그 다음 이제 쉼로 갈앙.

103004 @ 예.

103004 #1 그것이 보리는 끝.

103004 @ 게민 보리 농서는 몇 월에 갈아마씨?

103004 #1 음력 귀월달.
103004 @ 음력 구월. 계민 보리 가는 게.
103004 #1 예, 이달에 이제 갈아야지. 이달에.
103004 @ 이제 가는 거예.
103004 #1 예, 이달 내내 갈아사.
103004 @ 밧 갈 때는 뭐로 갑니까?
103004 #1 밧, 췌로게.
103004 @ 췌에 뭐 이경.
103004 #1 멩에. 멩에 메왕.
103004 @ 멩에.
103004 #1 멩에 영 앞이 모가지에 걸려 낡.
103004 @ 췌 목에 허는 건 멩에라예.
103004 #1 멩에.
103004 @ 영 밧 가는 데 쓰는 건 뭐?
103004 #1 장기.
103004 @ 쟁기로 갈잖아예. 쟁기에 끼우는 거 이름도 알아?
103004 #1 보섭.
103004 @ 예 보섭 끼우고예. 보섭 옆에 영 세워진 건 뭐과?
103004 #1 벧, 벧, 벧. 옆이 건 벧.
103004 @ 장기랑 췌랑 영 이어주는 줄이 잇잖아예. 그건 뭐렌 굴읍니까?
103004 #1 그거는 무시겨여만은. 저, 저 췌얏배.
103004 @ 보리는 언제 씨 뿌리는 거라마씨?
103004 #1 구월달. 음력 구월 달.
103004 @ 아까 거름 뿌렁, 그 우이 씨 뿌렁 그 다음은 밧 가는 거라예?
103004 #1 으.
103004 @ 뭐로 가는 거라?
103004 #1 소.
103004 @ 췌.
103004 #1 췌. 췌로. 췌로 가는 거.
103004 @ 췌에 잡대 헤가지고.
103004 #1 으, 췌에 장기 메왕.
103004 @ 장기 메왕.
103004 #1 예, 멩에 헤영 췌얏배로 영 이영.
103004 @ 음.
103004 #1 거기 영 즐라메영, 즐라메영 두우로 장기 헤영, 보섭헤영.
103004 @ 보섭 헤영.
103004 #1 보섭 짚렁.

103005 @ 계민 보리씨 뿌릴 때는 어떻 뿌립니까?

103005 #1 보리씨 뿌릴 때는 무신 저 옛날 줍팍. 흔 돼, 이제 거트민 돼싱 흔 돼 드는 줍팍. 그것에 놔가지고 영 심어가지고 이쪽 손으론 심고 이쪽 손으로 뿌리는 거라.

103005 @ 으, 돼약세기 들렁.

103005 #1 줍팍, 줍팍.

103005 @ 아, 줍팍들렁.

103005 #1 돼약세긴 작으니까.

103005 @ 아.

103005 #1 돼약세기로 다섯 개 드는가.

103005 @ 아, 줍팍이 큰 것과?

103005 #1 으, 크주게. 줍팍은 크주. 대싱 흔 돼, 이제 거트민 대싱 흔 돼 드는 거.

103005 @ 대싱 흔 돼 드는 거.

103005 #1 으. 그것이 줍팍. 옛날 우리 썬난 줍팍 불림질도 영영 허는 줍팍. 그 걸로 허고.

103005 @ 그걸로 흔 손엔 들고 흔 손으로 영 뿌리는 거라예. 계민 씨 뿌릴 때 썬는 여자가 뿌리는 거?

103005 #1 여자도 뿌리고 남저도 뿌리곡. 남저 엇으민 여자 뿌려. 우린.

103004 @ 남자 밧 갈아야 헐 거 아니.

103004 #1 으, 남자는 헐도 밧 가는 사름이 매 집이 엇어.

103004 @ 으.

103004 #1 우리 마을이른 흔, 우리 마을이른 스무 사름썬 신가. 그 샓 쥐근에게 빌어당. 우리집도 엇어난 엇어난.

103004 @ 그민 그 밧 가는 사름이 썬 키우는 사름이과?

103004 #1 으, 으. 썬 키우는 사름이 밧 가는 사름.

103004 @ 밧갈썬 키우는 사름?

103004 #1 으. 밧갈썬 키우젠 혜영 영 키우주게. 밧 갈젠 혜영 영 키우고 옛날 엔 밧덜 갈젠. 경헐 출덜 해당 맥이곡.

103004 @ 계민 그 밧 갈젠 허민 그 옛날에 밧 가는 샓으로 얼마나, 뭘 쥐나신 디 알아지쿠과? 돈은 안 쥐실 거라예. 쓸 쥐신가?

103004 #1 아니 돈도 조끔 쥐야주게.

103004 @ 얼마 쥐난지 알아지쿠과?

103004 #1 그때는 얼마 안 쥐져실 걸.

103004 @ 안 쥐져실 거라예.

103004 #1 예. 그때는 멧 백 원이지, 멧 백 원 텔 처렌가이. 잇어붙어젓져만은.

103004 @ 계난 어무니네 그거 빌렁 밧 간 거마씨?

103004 #1 빌영, 빌영. 밭 갈젠 허민 메칠 전이부떠 강 부탁허영 빌영.
103005 @ 씨는 남자 어른이 뿌리고?
103004 #1 씨는 언제나 나가 뿌려.
103004 @ 할무니가 뿌려?
103004 #1 어. 나가 뿌리지. 거름이고 똥이고 나가. 우리집이 하르방이 일본 강 살아불고.
103004 @ 아, 일본 가불엇수과?
103004 #1 으 여기 나 혼자 살고. 애기덜 키우면서 나 혼자 살고.
103006 @ 게민예, 보리 종류에는 어떤 게 잇수과?
103006 #1 솔보리.
103006 @ 솔보리허고 또?
103006 #1 우린 솔보리만 헤난.
103006 @ 솔보리만 헤난.
103006 #1 으, 아무것도 다른 건 엇어. 어떤 사름덜은 맥주보리.
103006 @ 맥주보리.
103006 #1 밀.
103006 @ 밀.
103006 #1 그런 거 헛주만은, 우린 그런 거 아니. 솔보리만.
103006 @ 보리 종류에는 아까 솔보리가 잇고.
103006 #1 맥주 보리도 잇고.
103006 @ 또 다른 보리도 잇수과?
103006 #1 여기는 그거 두 가지.
103006 @ 아 두 가지베끼 엇고예.
103007 #1 보리밭 밭 갈면 뽕는 건 안 험니까?
103007 @ 아니 보린 그렇지 안 헤.
103007 #1 보리 안 블라.
103007 @ 으, 보린 안 블라.
103007 #1 조는 블라도.
103007 @ 아, 보린 안 블라.
103007 #1 보린 안 블라 그냥. 처음에 걸름 뿌령 씨 뿌령 그 다음에 그냥 쉼로 갈은 그것이 쫓.
103007 @ 아, 쫓는 것도 안 허고.
103007 #1 으, 쫓는 것도 안 허고. 조는 이거 페라와.
103008 @ 존 이땅 물어보쿠다예. 조는 이땅 물어보고 보리밭디 검질 땡니까?
103008 #1 아이고 메고 말고. 경헌디 저 흐꿈 검질 엇은 밧딘 두 번쭝 돌아앗앙 메민 땡는데, 처음 초불 혼 번 메고 또 짓으민 또 혼불 메민 땡는데 짓어난 밧디는 세불쭝 메야지. 보리 검질도. 겐디 엇어난 밧디는 혼불 메민 보리 검질은 끝나.

103008 @ 짓은 디는 더.
103008 #1 짓은 디는 세불까지도 메여.
103009 @ 계민 보리밭디 나는 검질은 뭐가 잇수과?
103009 #1 보리밭디 나는 검질덜은 뭐 그 옛날에 무신 진풀.
103009 @ 으.
103009 #1 또 무신 췌비눔, 물웃.
103009 @ 물웃도 보리밭디 납니까?
103009 #1 예, 물웃도 경나. 이제눈 물웃 엇어져불언.
103009 @ 엇어져불언.
103009 #1 우리 밧덜도 이제 천이백 평 이디 잇주만은 그디도 물웃이 엇어, 지
금은 영 보니까.
103009 @ 아.
103009 #1 지금은 취나물 같고 무시거 허난 경헌 디사.
103009 @ 계난 췌비눔 나고.
103009 #1 진풀 나고.
103009 @ 진풀 나고.
103009 #1 또 물웃 나고, 쭉 나고.
103009 @ 쭉.
103009 #1 예.
103009 @ 쭉 나고. 또 잇수과 나는 거?
103009 #1 또 이실 거라. 몰라도.
103009 @ 보리처럼 막 키 크는 풀도 잇고?
103009 #1 키 키는 풀은 벨로 엇어. 보리철엔.
103009 @ 예. 계민 보리 익언.
103009 #1 익영.
103010 @ 이제 수확허젠 허민, 들이젠 허민 어떻힙니까?
103010 #1 들이젠 허민 이제 호미로 이녁만 강 비는 거라.
103010 @ 비영, 경헨.
103010 #1 비영 나란히 녹져 낱. 다 비여지믄 이제 문침 빈 츠레로 무꺼, 무꺼
요만씩. 요만씩 무경.
103010 @ 으.
103010 #1 무경 이제 그거 옛날엔 혼 밧더레 밧 가운데레 가져당 메왕 데며냥,
이제 비 완직 허민 뭐 가져당 더꺼.
103010 @ 으.
103010 #1 옛날엔 가빠도 엇고 그냥 뭐 그디 무신 것덜.
103010 @ 뭐로 더꺼서?
103010 #1 예고 가빠 엇언 무시거로 더꺼나져신고 옛날에.

103010 @ 새 비영?
103010 #1 으 그걸 거라. 새 비영, 무신 저 새로, 옛날 새, 집 이는 초가집 이는 새가 잇엇주께. 그걸로 느람쥐엔 현 것이 잇엇주께, 느람쥐.
103010 @ 으.
103010 #1 그거 여껏던 거 헤다근에 더꺼져실 거라. 밧디 메와냥.
103010 @ 게민 저 보리 빌 때는 뭐로 비여서?
103010 #1 호미로, 호미.
103010 @ 예, 호미로 비영 들러 놓잖아.
103010 #1 으.
103010 @ 무끝 때는 얼마큼씩?
103010 #1 무끝 때는 요만씩, 요만씩 그자.
103010 @ 그게 흔 못?
103010 #1 흔 못, 흔 못.
103010 @ 흔 못이 보리는 몇 개면 흔 바리가 됩니까?
103010 #1 그러니까 그 흔 바리, 두 바리 허는 거는.
103010 @ 으.
103010 #1 그거는 그런 물이나 쉼나 기운이 쉼 것에는 많이 들어가고 기운이 족으면 작게 시끄고.
103010 @ 아 작게 시끄고.
103010 #1 그거 흔정이 엇어.
103010 @ 게민 못 행 무끝 때, 이 무끝 걸 못이렌 험니까?
103010 #1 못이렌. 흔 못, 두 못.
103010 @ 이렇게 묶는 거는 뭐로 무꺼?
103010 #1 보리로.
103010 @ 보리로.
103010 #1 이거는 보리 고고리지, 보리 고고리, 보리썰 나는 고고리.
103010 @ 으.
103010 #1 겐 올로다가 영 데와다 놔가지고 영 자쳐가지고 나무데기를 자쳐가지고 그걸로 무꺼.
103010 @ 게민 지계인 거다예.
103010 #1 으. 보리 지계지계. 보리 지계.
103010 @ 보리냥 그대로 묶는 거난예.
103010 #1 보리 꼭다리로 데와가지고 그거를 이제 풀어지지 못허게 보리대로 이젠 반으로 갈랑 영, 영 갈랑. 경허민 이디 풀어지지 안 헤영 그대로 무꺼져.
103010 @ 아. 경험 몬다 낫당.
103010 #1 몬아 낫당.
103010 @ 놀 놀어 낫당.

103010 #1 놀 놀어 낫당 이젠.
103010 @ 어떻게?
103011 #1 경혜여근에 이젠 밧디설 홀트던가 클로, 클로.
103011 @ 으.
103011 #1 경 안허민 집이 그걸 지어다 낳.
103011 @ 으.
103011 #1 짐으로 지어다 놔가지고 집이 오란 데메 뒤근에 또 그 저 보리클.
103011 @ 으.
103011 #1 보리클로 홀타.
103011 @ 홀타.
103011 #1 홀타근에 이젠 기계로 장만허여. 홀탕 기계 엇인 때엔 마께로 두들
고.
103011 @ 으.
103011 #1 옛날에 저 보리클덜 엇은 때엔. 경헌 때 헛주만은 중간에 보리클덜
나니까 클로 헛주게, 기계로.
103011 @ 클로 굽어낭.
103011 #1 으, 저 보리 홀트는 클이 있어.
103011 @ 으.
103011 #1 홀트는 클로 홀타낳 이제 그 으물만 헤영. 막 데며낫당 이젠 클 오랑
불렁 놈의. 것도 흔 마을에 우리 마을에 하나베끼 엇어주게. 거 클 허는 사름덜이.
103011 @ 으.
103011 #1 기계로 허는 사름덜이.
103011 @ 으.
103011 #1 그걸로 오라근에 장만해줘.
103011 @ 아, 게민 보리클로 헌 걸 다시 모아 낳 기계로 장만 허는 거?
103011 #1 아, 클로 허지 안 허영 장만허기 전에는, 전에도 고고리만 헤여 놔근
에.
103011 @ 아.
103011 #1 고고리만 보리클로 홀타놔근에. 대는 엇어지고 보리대는 딱로 앓앙
놓고.
103011 @ 으.
103011 #1 그거 놀엇다가 또 불 때고, 밥 헐 때에 불 숭고. 경허고 고고리, 으물
은 으물대로 헤근에, 헤 낫당 기계 오른 장만허른 쫄이 되는 거. 보리가 되는 거.
103011 @ 그 기계는 뭐렌 부르는 것과?
103011 #1 기계는 저 보리클, 보리클.
103011 @ 홀트 때 쓰는 게 보리클 아니고?
103011 #1 홀트 때 쓰는 거는 저 무신 클. 잇어불어젓저이. 홀트 때 쓰는 것이

보리클인가?

103011 @ 으. 홀트 때 쓰는 게 보리클.

103011 #1 이거는, 이거는 방에 공장에서 나오는 클이니까 무신 클이엔 해낫저
만은 잊어붙어졌저이. 맞아, 맞아 홀트 때 허는 건 보리클.

103011 @ 으.

103011 #1 보리클도 우리집이 어디 돌아져실 거라.

103011 @ 아, 잇수과 보리클.

103011 #1 어디 실 거라. 창고에.

103011 @ 계난 보리클은 영헨 이렇게 이렇게 막 박아진 거잖아예?

103011 #1 으, 박아진 거, 박아진 거.

103011 @ 계난 여기 영 나무 세왕.

103011 #1 으.

103011 @ 여기에 영 찍 낱.

103011 #1 어, 어. 등기는 것이 보리클.

103011 @ 계민 고고리만 툫아질 거.

103011 #1 으, 으.

103011 @ 그 고고리 툫아진 거 모여 낫당.

103012 #1 모여 낫당 방에클 방에 공장에 클로.

103012 @ 아, 방에클.

103012 #1 으. 방에클.

103012 @ 이거 툫으는 건 보리클이고.

103012 #1 으, 보리클.

103012 @ 그 다음에 방에클에 놓는 거예?

103012 #1 으. 방에클.

103012 @ 계민 방에클 없을 때는?

103012 #1 두드렛던 거주게.

103012 @ 두드리는 거는 뭐로 두드리는 거라?

103012 #1 도께, 도께.

103012 @ 으.

103012 #1 으, 도께로 마당에 넣어 낱. 도께로 두드렁 장만허주.

103012 @ 으, 으. 이제 도께로 장만 다 헛수다.

103012 #1 예게.

103012 @ 다 현 다음에 이젠 뭐 헤.

103012 #1 이젠 얼멩이로 치영, 치영 우이 거 앓아뒀 이젠 불려.

103012 @ 불령?

103012 #1 으, 불령 허민 뒤는 거.

103012 @ 쌀은?

103012 #1 쓸은 쓸대로 방에.
103012 @ 으.
103012 #1 방에, 큰 방에가 잊지게.
103012 @ 그걸 무슨 방에렌 불러?
103012 #1 저 들방에.
103012 @ 들방에.
103012 #1 들방에. 들방에 들로도 짓고 우리 사람으로도 으섯 사름, 일곱 사름 수놓영 가명 지어당 먹어낫주게.
103012 @ 으.
103012 #1 경헌디 그 다음에 보리클 그 기계를 나난 기계로 강 가까와나고.
103012 @ 기계빵에 강.
103012 #1 기계빵에 강. 고내도 혼 맞디 잊어 낫주게.
103012 @ 기계빵 하나 잊어낫수과?
103012 #1 으 잊어난. 잊어난.
103012 @ 으. 계민 아까 보리 씨 뿌리는 거는 음력 구월에 헛잖아예.
103012 #1 예, 음력 구월.
103012 @ 보리 비는 거는?
103012 #1 비는 거는 오월덜, 음력 오월덜.
103012 @ 오월덜에 보리 비고 타작도 다 오월덜에 헤?
103012 #1 예, 예. 비여 노면은 타작허고, 장만허는 거 엇은 때 타작으로 헤낫주게 도께로.
103012 @ 자, 도께 다 끝낫수다예. 아까 들방에 가가지고 할 때, 들방에 가가지고 할 때 사람이, 들이 엇이면.
103012 #1 사람으로.
103012 @ 사람으로 어.
103012 #1 여섯 사름.
103012 @ 여섯 사름. 아, 여섯 사름이 여기 메영.
103012 #1 메영 영 질빵헤영 메영.
103012 @ 음.
103012 #1 질빵이나 경 안허믄 짐패나.
103012 @ 으.
103012 #1 그냥 저 무시거로 쏜 짐패. 그걸로나 질빵으로나 메영 등기곡 또 멧 사름은 밀리고.
103012 @ 으.
103012 #1 영 즈룩이 잊주게.
103012 @ 낭, 밀리는 거?
103012 #1 으, 으. 방엿즈룩.

103012 @ 방엿즈룩.
103012 #1 방엿즈룩은 밀려주고 앞으로 등겨주고.
103012 @ 여섯 사람이 경 밀리는 거.
103012 #1 여섯 사람이.
103012 @ 건 번갈아 가명 허는 거/
103012 #1 으, 번갈아 가명 수눌영.
103012 @ 수눌영.
103012 #1 수눌영. 혼 번은 이 사람네 거 허고 혼 번은 저 사람네 거 허고 경 수눌영.
103012 @ 아까 걸름 지어 갈 때도 이펜이 앓은 할머니가 수눌영 걸름 지어 갖 덴.
103012 #1 수눌영 걸름 지고. 뭇이라도 수눌영 걸름 지고.
103012 @ 친구들끼리 그것도 장만헐 때도 경 헛구나예.
103012 #1 으, 으.
103012 @ 계민 보리 장만헐 때 물방에서 보리 물 노면 영 가는 거마씨?
103012 #1 예, 물 노명. 어느 정도.
103012 @ 얼마나 영 돌리민 굴아집니까?
103012 #1 아이고, 그거는 시간 제한이 었어. 시간 제한이 었영 그거 뱃겨진 줄 알면은 그만헐 거니까. 흐뎡 오래긴 허여. 물방에에서 허는 것이 오래긴 허주게.
103012 @ 아. 계민 보통 할머니는 보리 농서 지을 때 얼마나 지어 낫수과? 몇 섬이나 지어낫수과?
103012 #1 보리 장만헐 거 열다섯 섬까진 지어난.
103012 @ 계민 그거.
103012 #1 계난 다 장만헐 거 이디 놓고 저 구들에 놓고도 해난.
103012 @ 아.
103012 #1 그 쓸로, 보리, 보리. 보리로 장만헐 쓸로.
103012 @ 예, 보리로.
103012 #1 막 기계 오랑 저디서 장만허믄 이디 놀 디 었으니까 여기 막 담양.
103012 @ 계민 그 보리는 물방에 안 간 보리를 말허는 거잖아예.
103012 #1 으, 물방에 안 간 보리.
103012 @ 이렇게 장만헐 보리를 널어놨당 물렛당.
103012 #1 물렛당.
103012 @ 푹싹 물려.
103012 #1 파싹 물려.
103012 @ 파싹 물렛당 그 다음 물방에 가는 거잖아예.
103012 #1 으.
103012 @ 그 열다섯 섬은 혼꺼번에 물방에.

103012 #1 아니, 아니. 먹을 만씩.

103012 @ 먹을 만씩?

103012 #1 으, 으. 다 향에나 푸대에 낫당 먹을만씩 지어오주게.

103012 @ 으, 으.

103012 #1 흔 뺨에 열 말 그 정도.

103012 @ 열 말.

103012 #1 예, 열 말 그 정도 돌방에에 저.

103012 @ 흔 뺨에 열 말 저.

103012 #1 열 말.

103012 @ 흔 섬이 몇 말이과?

103012 #1 열닷 말.

103012 @ 흔 섬까지는 아니다에.

103012 #1 으, 흔 섬꺼지는 못 허고 열 말.

103012 @ 게민 열다섯 섬 혈 때 이거 다 먹은 것과 아니면?

103012 #1 아니 더러 풀안.

103012 @ 폰 거. 일 년 먹젠 허민 몇 말?

103012 #1 처음에 우리 이 비료도 아무것도 엇인 때에는 저 칠백 평 밧디.

103012 @ 으.

103012 #1 저 밧이 칠백 평이면은.

103012 @ 으.

103012 #1 칠백 평이면은 열 멧 말베끼 아니 난게.

103012 @ 열 멧 말?

103012 #1 예, 걸름 엇어부난.

103012 @ 무사 영 안 나.

103012 #1 걸름 엇어부난 그냥 천리 하나 만리 하난에 그냥, 거베끼 안 난 거라. 경헌디 열다섯 섬 혈 때는 걸름이 나온 때. 그때는 열다섯 섬 췌 거게.

103012 @ 으.

103012 #1 이디 천이백 평 밧디허고 칠백평 밧디 허니까 그거 해전.

103012 @ 게민 천이백 평에, 칠백 평 행 천구백 평에서 열다섯 섬이 나온 거라?

103012 #1 으.

103012 @ 그럼 그때는 췌걸름 들인 것과?

103012 #1 아니 그때는 비료 흐뎡 걸름이 나와난 거.

103012 @ 비료.

103012 #1 으, 나온 때 그췌 곱아지고 아니 나온 때는 그 수량이면은 흔 뺨에 보리 같지 못허영 이제 천이백 평에 보리 같면은 칠백 평에는 유채 누물 같고 또 칠백 평에 보리 같면은 천이백 평에 유채 같고.

103012 @ 으.

103012 #1 어, 바꾸멍.

103012 @ 으.

103012 #1 경헨 해낫주게.

103012 @ 일년 살젠 허면은 보리는 얼마나 먹어집니까?

103012 #1 아이고 게메. 식구가 하면 한 대로 먹고 작으민 작은대로 먹엇주만은 그거 지정 못허엇주.

103012 @ 아까 혼 번 갈민 열 말을 갈앗덴 헛잖아예.

103012 #1 예, 열 말 지여 와.

103012 @ 열 말 정 오민 그건 얼마나 먹어져서?

103012 #1 열 말 지영 오민 혼 혼 덜 정도.

103012 @ 아. 혼 덜 정도. 게민 물방에에도 차꾸 가사큰게.

103012 #1 예게, 이녀 시민 갈 거고게, 엇이민 못 가고. 엇이민 엇인 대로 어떻게 해근에 그럭저럭.

103012 @ 예. 이제 물방에 강 곶양 왓수다. 곶양 오민 또 어떻게 헐 거?

103012 #1 지영 오민.

103012 @ 지영 오민.

103012 #1 또 ㄴ레로 곶아.

103012 @ ㄴ레로 곶아.

103012 #1 으, 그거.

103012 @ 무슨 ㄴ레로?

103012 #1 그냥 우리, 우리 보리쌀 ㄴ는 ㄴ레, 돌ㄴ레.

103012 @ 예, 돌ㄴ레예, 돌ㄴ레로 곶양.

103012 #1 곶아.

103012 @ 그걸 뭐 헨덴 헵니까? 거핀덴 헵니까?

103012 #1 아니, 거피지 안 허영 저 보리쌀로 ㄴ는 무신 것이 있어, 조정이 있어.

103012 @ 으, 조정이.

103012 #1 으. 조정이 있어. 그거 ㄴ레가 우이가 무거와근에 허면은 우이 영 중시리가 잇주게. 아래 영 들어가는 중시리가.

103012 @ 으.

103012 #1 게민 드디 뭐 바탕 흐뽀 밥 헿 먹을 정도로 곶아지게끔.

103012 @ 아. 요걸 뭐렌 부르는 거, 돌ㄴ레 아랫 거를 뭐렌 부릅니까?

103012 #1 아래 거는 게 아래착.

103012 @ 우이 거는?

103012 #1 우이 거는 우이착.

103012 @ 게민 우이 착에 영 나왕 여기 썬는 거라예.

103012 #1 영 꺾는 거.

103012 @ 계민 여기 구멍난 거는 여기는 뭐렌 굴아?

103012 #1 저 중시리, 이진 중시리 고양이.

103012 @ 이진 중시리, 이진 중시리 고양이. 겐 이 중시리를 가지고 이 높이를 조절하는 거라?

103012 #1 예, 조절. 그루를 굴젠 허면은 요만썸 허게 허영 허고.

103012 @ 으.

103012 #1 또 보리쌀로 우리 밥 행 먹을 걸로 허젠 허민 요만큼 허영.

103012 @ 어.

103012 #1 그디 뭐 소굽에 담양.

103012 @ 담양.

103012 #1 겐 들리지게 허면은 이것이 쫄이 훑게 나오고.

103012 @ 아.

103012 #1 또 야트게 허면은 그물로 나오고.

103012 @ 아, 기다예.

103012 #1 그레에 경헌 조정을 해근에, 이 동글락헌 그레덜.

103012 @ 겐 알착, 우착.

103012 #1 우착.

103012 @ 중시리, 중시리 구멍. 또 우착에 고망은 무시거렌 굳는 거라?

103012 #1 그거는?

103012 @ 쫄 들어가는 고망.

103012 #1 쫄 들어가는 고양은 그거 쫄 드어가는 고양이 무시거엔 헤낫주기만은 그거는, 우에 무엇이엔 헤낫저만은 잊어불엇저.

103012 @ 나중에 물어보쿠다, 나중에 생가나쁜, 튼내지민 굴아줍서 또 물어보쿠다. 그민 영 손 잡는 건 뭐렌 굴아?

103012 #1 저 그레츠흥

103012 @ 다시 한 번.

103012 #1 그렛츠흥.

103012 @ 아, 츠흥이엔 굴을 거.

103012 #1 그렛자락, 그렛자락. 옛날에 그자 그렛츠흥, 그렛츠흥 헤낫주.

103012 @ 예, 옛날 굳는 말로 굴아줍서.

103012 #1 그렛츠흥.

103012 @ 영 보리쌀을 그는 거라예, 돌그레에.

103012 #1 으. 보리쌀도 굴고 그레루도 굴고 그자 뭐 줌쌀로도 굴젠 허민 굴고 그자. 우이 그 중시리에 호렝이라.

103012 @ 음.

103012 #1 중시리 호렝이.

103012 @ 경험 보리쌀 곱아지민 이제 밥 헤먹는 거?
103012 #1 으.
103012 @ 보리쌀 곱앙.
103012 #1 보리쌀로 밥은 헤 먹는 거고.
103012 @ 영 보리쌀 ㄱ는 거는 거핀덴은 얘기 안 험니까?
103012 #1 거피덴, 거피는 거는 거피는 대로 줌쌀밥이엔 험 줌쌀.
103012 @ 거피는 거는 다른 거?
103012 #1 줌쌀. 아래 그 아래 줌쌀.
103012 @ 아, 줌쌀로.
103012 #1 그 보리쌀 허는 알로 또 체가 세 질이라.
103012 @ 음.
103012 #1 대체.
103012 @ 음
103012 #1 거름체, 총체.
103012 @ 음
103012 #1 경허문 대체로 나오는 거는 밥 험 먹고 또 거름체로 나오는 거는 제
게 헤지는 밥이 잇주게.
103012 @ 으.
103012 #1 물만 께와근에 그냥 그거 노면은 얼른 헤져. 경허는 거.
103012 @ 게민 그 거름체에 나오는 거는 제게 헤지난 보리가 갈라진 거 아니?
103012 #1 으, 으. 보리쌀이 줌질이 나오는 거게. ㄱ튼 보리쌀이라도 훑게 나오
고 줌질이 나오고 허는 거.
103013 @ 그럼 보리쌀로는 주로 뭘험 먹엇수과?
103013 #1 보리쌀로는. 보리쌀로는 밥 헤먹고게, 밥 헤 먹고 그걸로 또 줌질이
곱앙 떡도 허고.
103013 @ 떡 허고.
103013 #1 으, 그거주게.
103013 @ 보라쌀로 무슨 떡 헤져신고예.
103013 #1 보리쌀로 귀주떡도 허고, 또, 또 저 무시거 헤근에, 누룩 허영 막걸리
거치 헤 낵.
103013 @ 으.
103013 #1 쟁험 그거 헤근에 찌여근에 귀주떡덜 헤 먹고. 떡 멘들앙도 먹고게
또 줌쌀밥이엔 헤근에 급허게 뭘 허는 것이 셔. 줌쌀이영 서쟁.
103013 @ 아, 줌쌀밥도 헤 먹고. 게민 보리 갈지 안헤영 보리 그 자체로 보까가
지고도.
103013 #1 그건 게역게.
103013 @ 게역.

103013 #1 계역.

103013 @ 계역, 계역은 어떻게 만들었수과?

103013 #1 계역은 보리철 나면은 보리 장만허면은 보리 몰라가지고, 장만헌 보리를 막 틀러가지고 이젠 보깡 옛날엔 솟두경에서.

103013 @ 으.

103013 #1 솟두경에서 놔근에 막 보까근에 이젠 또 그거 ㄴ레로 곶아근에 경헨 계역헨 먹엇주.

103013 @ 그 ㄴ레 갈 때도 돌ㄴ레 헤영.

103013 #1 예, 돌ㄴ레 조정헤영.

103013 @ 조정헤영 돌ㄴ레로.

103013 #1 으, 으. 돌ㄴ레로. 옛날엔 돌ㄴ레로.

103014 @ 그민 이제 보리 곶아나민 보리 꺾질. 보리 꺾질 뭐렌 곶읍니까? 보리 쓸 나오고 보리 꺾질 뱃겨진 게 나오지예.

103014 #1 으.

103014 @ 보리 꺾질 뱃겨진 건 뭐렌 곶읍니까? 보릿겨?

103014 #1 보리 꺾죽. 보리꺾주게.

103014 @ 그 보리 꺾죽은 뭐 험니까?

103014 #1 보리 꺾죽은 벨로 무시거 그건 벨로 필요엇어낫주게. 보리 꺾죽은.

103014 @ 도새기 먹이 줘?

103014 #1 아 그 첨 맞다. 도새기.

103014 @ 도새기.

103014 #1 도새기 것 허는 거.

103014 @ 도새기 주는 거예?

103014 #1 으, 그건 도새기 것으로 헤영 솥양 것 줘낫주게.

103014 @ 솥양, 그냥 안 주고 솥양 주는 거?

103014 #1 솥양 줘야 돼.

103014 @ 그럼 죽처럼.

103014 #1 죽거치 허영. 경 서경 다른 것에 밋에 서경.

103014 @ 뭐 콩?

103014 #1 예, 아니 콩도 아니고 그자 무신 그냥 서끄는 것이 서 낫주기만은.

103014 @ 보리쩍은 뭐헨수과?

103014 #1 으?

103014 @ 보리쩍?

103014 #1 불 습안게 밥 헨 때.

103014 @ 계민 데명 놔 뒷당.

103014 #1 데명 놀어근에 그냥 물 아니 들게. 썩지 못허게 허영.

103014 @ 으.

103014 #1 그 새로 행 노람쥐 행영 더꺼근에. 그 주쟁이 행 창 더끄고.
 103014 @ 겐 보리 까끄라기는 뭐 헛수과?
 103014 #1 보리깍?
 103014 @ 아니 보리 까끄라기, ㄴ시락?
 103014 #1 ㄴ시락. ㄴ시락은 굴묵 때연.
 103014 @ ㄴ시락은 굴묵 때연.
 103014 #1 굴묵게 방 뜨겁게 굴묵 때연. 막 굴묵에 가져당 데며근에 막 완전 뭐
 그건 겨울, 겨울에 이제 보일러 지금 낡 허듯이 그건 겨울에 헐 걸로 허영.
 103014 @ 으.
 103014 #1 경헐 온돌 거치, 온돌 거치도 아니헐 요만큼 아궁지 헤영 허믄.
 103014 @ 음.
 103014 #1 그디베끼 안 듯아. 옛날엔.
 103014 @ 예.
 103014 #1 ㄴ시락으로 헐 때는.
 103014 @ ㄴ시락으로 헐 때는?
 103014 #1 으.
 103014 @ 하하. 들어가는 그 질만.
 103014 #1 으, 한가운데 그자 굴묵 어귀, 어귀로 영.
 103015 @ 게민 영 보리 농사 지으멍 재밌는 일, 기억 남는 일, 생각나는 일 잇
 수과?
 103015 #1 보리 농사 지어날 때 생각날 일이엔 헐 거는 혼자 허젠 허믄 너무
 꿩고 너무 지치고 그냥 그런 거나베끼 다른 거 뭐.
 103015 @ 어무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본 잇어부난 여기 혼자 산 거?
 103015 #1 혼자.
 103015 @ 애기는?
 103015 #1 애기덜 으섯.
 103015 @ 애기덜 으섯 헤가지고 혼자?
 103015 #1 으.
 103015 @ 시부모님도 여기 엇고?
 103015 #1 시부모님도 엇고. 나 스물다섯에 시어머니 나 일본 살단 스물다섯에
 오는 디 오란 혼 땃 달만이 돌아가부난. 해방 웨는 헤에 돌아가불언.
 103015 @ 아.
 103015 #1 시어머니가. 경허난 아이덜 허고. 아이덜도 우로 중학교, 큰아덜 중학
 교 졸업 마탕 일본 가불고.
 103015 @ 으.
 103015 #1 못 사니까, 어려우니까.
 103015 @ 으.

103015 #1 또 큰딸은 국민학교 졸업 마탕 나가불고 그 다음에.

103015 @ 으.

103015 #1 또 하르방도 그 다음에 나가불고, 우리집이 아방. 경허난 나도 그 알로 행 너오누이.

103015 @ 아, 하르부지도 들어와났구나.

103015 #1 으, ㄴ치 들어와난게. 스물다섯에. 나보다 일곱나 우이난에 이제 난 스물다섯이고 서른 멧 살에 들어완.

103015 @ 으.

103015 #1 들어왔단 여기 살단, 그러저럭 흥꿈 살아보단 또 나간, 일본 나간.

103015 @ 아.

조 농사

103016 @ 아까 보리 농사 지을 때는 걸름을 준비했잖아예, 조 농사 지을 때는?

103016 #1 걸름 필요 엇어.

103016 @ 아, 걸름 필요엇어?

103016 #1 으 물만 맞추민 뉘여.

103016 @ 뭐 맞추민 뉘여?

103016 #1 이 물, 물때. 비가 비가 많이 오면 못허고.

103016 @ 아.

103016 #1 비만 영 땅에 조정만 맞창.

103016 @ 음.

103016 #1 그냥 땅 너미 므르지도 안 허고 너미 젓지도 안 허고 질지도 안 허고.

103016 @ 으.

103016 #1 그 정도 헤근에 그냥 갈아근에 갈면은 이제, 갈아 노면은.

103016 @ 그민, 조 농사 짓젠 허민 따로 준비헐 건 엇수과?

103016 #1 뭐.

103016 @ 미릿.

103016 #1 미릿 준비허는 건 뭐 그디 섬피허고 무신 거 그냥, 그런 거나베끼.

103016 @ 아.

103016 #1 걸름은 별로 안 헤도 뉘여.

103016 @ 혹시 여기는, 아 건 므물이군아.

103016 #1 우린 므물도 엇고 이렌.

103016 @ 계민.

103016 #1 보리, 조, 감저, 콩이나베끼 엇어.

103018 @ 므물도 엇고. 계민 조는 언제 갑니까?

103018 #1 조는 어느 때 헤나신고? 하여튼 보리 끝나면 조 허여.

103018 @ 보리 다 거둬들.
103018 #1 으, 거둬 들었.
103018 @ 거둬들인 다음에.
103018 #1 으. 다음에 조 허여.
103018 @ 계민 조 갈젠 허민 뭐 걸름 따로 필요 엇수과?
103018 #1 걸름 따로 필요 엇고.
103018 @ 필요 엇고예. 줍씨는 어떻?
103018 #1 줍씨는 조 간 때에 으문 걸로 곶황 씨 헤영 놔 뒀다근에 그거 빼여.
103018 @ 어떻 뺏니까?
103018 #1 그것도 그대로. 줍쪽에 놔근에 그대로 알아 맞창.
103018 @ 아까 보리는 거름 허고 씨 뿌리고 갈았잖아예?
103018 #1 으.
103018 @ 조는 어떻헤마씨?
103018 #1 조는 갈아 낱.
103018 @ 음.
103018 #1 이제 섬피로 꺾어 낱.
103018 @ 음.
103018 #1 이제 씨 골루루 뿌려가지고 이제 블라, 블라 발로.
103018 @ 아.
103018 #1 몰이나 쉼나 신 디는 그걸로도 허주만은 그거 엇이른 사람 발로 블라나서 엇날엔.
103018 @ 음.
103018 #1 이제는 안 블라도 뒀는데, 이젠 조도 안 블라도 뒀어.
103018 @ 하하.
103018 #1 그냥 씨만 뿌렁, 갈아 씨만 뿌렁 내불민 뒀는데 엇날엔 거 블라야만. 경허른 그 지쟁이, 지쟁이 닳은 걸로 영 찢러 보멍 그건 딱 많이 안 들어가믄 잘 블라진 거고 많이 들어가믄 잘 안 블라진 거고. 경헤나서 우리 조 농사 헐 때. 겨고 물 하영 허면은 죽어불고.
103018 @ 물 하영 헐다는 건 비 하영 온다는 거?
103018 #1 비 하영 오는 거. 찹 비 하영 오믄 죽어불고 비 하영 안 오믄.
103018 @ 으.
103018 #1 우리 것도 밧도 질왓, 말왓이엔 헐 것이 잇어.
103018 @ 으.
103018 #1 질왓이엔 헐 거는 비 하영 오믄 곶황 물에 버청, 비에 버쳐근에 조가 다 죽어불어.
103018 @ 말왓?
103018 #1 질왓, 말왓.

103018 @ 아, 질왓, 말왓.

103018 #1 질왓은 물 하영 오민 죽어부는 밧, 말왓은 물 하영 와도 그냥 그대로. 그대로 그냥 농사가 돼 가고. 조가 좋고.

103018 @ 음.

103018 #1 또 이 콩 농사, 뭐 저 감저 농산 비가 하영 와도 돼고 족게 와도 돼고 그런 건 소소한 밧디 다 돼는 거고.

103018 @ 음.

103018 #1 조 농사는 까다로와.

103018 @ 조 농사는.

103018 #1 어 조 농사는.

103018 @ 물 맞추젠 허니까.

103018 #1 예, 조 농사는 밧도 콜리우고(콜류고) 비도 콜류고.

103018 @ 밧도 콜립니까?

103018 #1 예, 밧도 콜러.

103018 @ 아.

103018 #1 비, 저 물 하영 안 글르는 밧이라야 조가 돼고.

103018 @ 으.

103018 #1 물 글르는 밧은 조가 아니 돼여.

103018 @ 아. 게난 아까 조 갈 때 밧 갈아난 다음, 섬피로 꺾은 다음에 씨를 뿌리는 거라?

103018 #1 예게, 밧을 쎄쎄히 멘, 멘들앙. 좁씨가 원체 저, 저.

103018 @ 족은 거난.

103018 #1 족으난.

103018 @ 으.

103018 #1 족으난 거 영상허게 헤불븐 소곱에 들어가불민 너미 지피 들어가민 나질 안 허여.

103018 @ 으.

103018 #1 나오질, 나오기가 페로와.

103018 @ 예.

103020 #1 어려우니까 쎄쎄허게 곱닥허게 헤가지고 술술술술 뿌려서 그 다음에는 블라 가, 블라 가면은 또 이제 씨를 감화질 거난.

103020 @ 으, 블라 가민 감취져.

103020 #1 으, 감취져. 감취지게꾸리 그렇게.

103020 @ 게민 영 더프는 거는 섬피?

103020 #1 으, 꺾는 거는 섬피.

103020 @ 섬피. 꼬실퀴에는 안 험니까?

103020 #1 으?

103020 @ 꼬슬퀴.

103020 #1 꼬슬퀴엔 안 해. 이딴 설피.

103020 @ 설피는 무슨 낭으로 설피를 만들어?

103020 #1 그냥 아무낭이라도 영 이런 가쟁이.

103020 @ 으, 가쟁이.

103020 #1 가쟁이 영 벌겨진 것만 그차오믄. 가쟁이 벌겨지고 이런 디 영 무끄
기 좋게시리.

103020 @ 영 현 거라예. 이디 가쟁이 이파리 있는 거고.

103020 #1 예, 계민 이만이 영.

103020 @ 여기 이 앞을 땡기명.

103020 #1 뚜러메영.

103020 @ 뚜러메영?

103020 #1 으.

103020 @ 줄 멩.

103020 #1 줄 메영.

103020 @ 예.

103020 #1 줄 메영 그것에 돌, 돌 지들황.

103020 @ 지들황.

103020 #1 무겁지 안 허민 꺾어지지 못 헐 거난. 무겁게 헤영.

103020 @ 계민 그것 꺾는 거는 사람이?

103020 #1 사람으로.

103020 @ 사람으로. 하하. 몰 잊고 쉼 잊는 사름들은 거기 쉼 답아냥 불롭게
해?

103020 #1 몰 잊고 쉼 잊어도 불르는 거는 마찬가지. 게 몰 시면는 몰로도 불롭
긴 허여 몰도.

103020 @ 으.

103020 #1 몰로도 불르믄 쉬웁주. 몰 잊으믄 사름으로 몰르젠 허면은 옛날엔 그
렇게 다리도 아프고 힘들어.

103020 @ 힘들쿠다게.

103020 #1 어, 조 농서헐 때 불르는 것이 힘들어, 진짜.

103020 @ 힘들크라.

103020 #1 흐루종일 걸어땡기젠 허민.

103020 @ 영영영영 불르명.

103020 #1 예, 영영영영 그냥 이리 갖닥 저리 갖닥 그냥 완전 막땡이 안 들어강
지평 막땡이 안 들어갈 정도로.

103020 @ 으.

103020 #1 경해야만 땡여. 지금은 그추룩 안 해도 땡는 걸.

103020 @ 안 해도 되는 거예.
103020 #1 으.
103020 @ 무사 경 헤신고예
103020 #1 으, 옛날엔. 어리석언게.
103019 @ 음. 게난 좁씨 뿌리는 거나 보리씨 뿌리는 거나.
103019 #1 뿌리는 건.
103019 @ ㄱ타예?
103019 #1 예, 영 분발만 해근예. 그냥 알아맞창, 간격만 알아맞추멍 뿌리민 뒤는 거.
103019 @ 아. 예, 예.
103020 #1 조팍 불를 때 혹시 남태 그런 건 안 써낫수과?
103020 @ 남태엔 헨 거 몰라 뵈산디.
103020 #1 그냥 썬피로만.
103020 @ 썬피로 꺾어근예 불를 때 발로 불량.
103022 #1 그럼 이젠 조팍도 검질 메야 뵈 거 아니과?
103022 @ 으.
103022 #1 조팍디 검질은 뵈 ㄱ라지 거튼 거여 뵈, 똑 조 답은 검질이 있어.
103022 @ 으.
103022 #1 꼭 조 답은 검질.
103022 @ 그게 뵈?
103022 #1 ㄱ라지.
103022 @ ㄱ라지. 조 답은 검질.
103022 #1 으. 돈돈히 안 보민 조도 답고 검질도 답고 허는 디 모른 사름덜은 조도 다 메부는 수가 있어. ㄱ라지는.
103022 @ 하하.
103022 #1 꼭 조 답게 나오는 검질이. 그거 많이 나와.
103022 @ 아. 알쿠다. 이렇게
103022 #1 보쿨. 으. 그건 꼭 조 거치 그냥 굳작허게 나와.
103022 @ 으, 굳작허게 나오는 거. 그 다음 뵈 보쿨.
103022 #1 보쿨.
103022 @ 또?
103022 #1 그 다음에는 으, 여름 검질이니까 여름에 나오는 검질이 하지.
103022 @ 으.
103022 #1 조팍디.
103022 @ 뵈 제환지 거튼 것도 나오고.
103022 #1 으, 제환지, 제환지. 밋붉은제환진 더 질기고.
103022 @ 밋붉은제환지?

103022 #1 예, 밑에가 붙어. 밧붙은제한지 잇고 그냥 제한지도 잇고.
103022 @ 짓도 나오고 또 잇수과? 췌비눔도?
103022 #1 췌비눔은 겨울에.
103021 @ 아, 겨울에. 게민 조팻디 검질은 멧 번이나 뻤니까?
103021 #1 아이고 조팻디 검질은 혼이 엇어. 열불이라도 메주민 좋아.
103021 @ 무사마씨?
103021 #1 경 많이 나고 여름 때고이.
103021 @ 검질이 경 하?
103021 #1 하, 하. 또 소까도 주고.
103021 @ 아 조는 소까야 뤄?
103021 #1 으, 으. 소까야. 이디 하나 시민 영, 영 이 정도로 듄싱듄싱 그렇게
헤야 고고리가 커. 조코고리가. 경 안 허민 줄아. 좇으민 줄아.
103021 @ 계난 조팻이 검질은 열불이라도.
103021 #1 으, 경허난 뭇 닥치는 대로. 검질 엇을 때꺼지 메영, 조가 이만이 헐
때까지라도 막 메야. 메고 소까주곡.
103021 @ 아. 게민 조는 막 크는 거 아니과? 이정도까지 막 크는 거 아니?
103021 #1 으, 요정도까진 크지.
103021 @ 그지예.
103021 #1 크민 혼이 뤄민 고고리 피민 영 수국수국수국.
103023 @ 예. 컷수다예, 크난 이제 베여야 뤄 거 조도.
103023 #1 비여야주게.
103023 @ 비젠 허민.
103023 #1 비젠 허민 호미로.
103023 @ 어뎡 비여 낫수과?
103023 #1 그냥 보리 비뫼.
103023 @ 보리 비뫼.
103023 #1 으, 보리 비뫼. 경해도 보리거치 경 많이 영구진 못해도 이 좇대가
술지니까.
103023 @ 아.
103023 #1 경허난 멧, 멧 개씩 헤여근에 비영 그것도 영 나란히 널영 몰류왕.
103023 @ 으.
103023 #1 그것도 무꺼.
103023 @ 게민.
103024 #1 그건 무경 또 무경 이젠 다 비여지면은 톨아야 호미로.
103024 @ 으.
103024 #1 그걸 밧디서.
103024 @ 밧디서 톨는 거?

103024 #1 밧디서 툐아.
103024 @ 고고리틀?
103024 #1 고고리틀.
103024 @ 으.
103024 #1 겐 툐양 맥으로, 맥에 담양 집이 지어 왕.
103024 @ 으.
103025 #1 겐 그거 또, 그거는 또 물방에 가져당 물방에로 또시 누르떠근에 장
만해여.
103025 @ 조도 물방에.
103025 #1 물방에서 누르떠.
103025 @ 험니까?
103025 #1 어. 물방에 강.
103025 @ 조코고리 맥에 툐아 논 걸 정 강.
103025 #1 정 강. 물방에 겨당 놔둬서. 짓도 수눌멍.
103025 @ 하하.
103025 #1 보통이 아니랏주게.
103025 @ 계난 물방에 강.
103025 #1 경허난 고고리도 물방에 강 부수고 또 이제 부수와 논 쓸 조도 쓸
멘들젠 허민 물방에 강 지곡. 물방에서.
103025 @ 음. 쓸도?
103025 #1 쓸도. 쓸도 물방에서.
103025 @ 아니, 고고리.
103025 #1 경허른 거 겁죽 잇이 막 영 보면서 겁죽 잇이 해근에 영 지는 거라.
너미 해볼어도 꺾아져볼고.
103025 @ 계난 물방에는 돌이 막 무겁잖수과?
103025 #1 무겁주.
103025 @ 크고?
103025 #1 으.
103025 @ 계민 좁쌀 같은 건 쪼그만 허난 다 글아져불지 안 헤?
103025 #1 아니, 그냥 많이 낱 영 비로, 비로 쓸어 올렸다 올렸다 허영 그디 못
아지지 안 험 정도로.
103025 @ 아, 그냥.
103025 #1 조정 맞추멍.
103025 @ 아, 계난 이만이 험 그 돌 조를 막 하영 놓는 거라?
103025 #1 예, 영 막 하영 놔근에 가운딘 이디 지둥 잇주게 지둥. 지둥 시민 이
디 큰돌, 맏돌 돌게꾸름 웬 거 아니.
103025 @ 으.

103025 #1 경허면은 이제 이디가 많허면은 췌아지지 안 허고 경허민 자꾸 안에
거 쓸어 주고 베꼈디로 쓸어 올리고.

103025 @ 무슨 비로, 무슨 비치락으로?

103025 #1 저, 셋비게.

103025 @ 예?

103025 #1 저런 비.

103025 @ 저건 비. 저런 비를 뭐렌 곶아? 그냥 비치락?

103025 #1 대죽, 대죽비게.

103025 @ 대죽비로?

103025 #1 으, 대죽비로게.

103025 @ 소래기비로 아니고?

103025 #1 소래기비론 못 허여, 영경. 못 허여 그런 거 거친 거나 베끼 소래기
비로. 이 저, 저 대비론 못 허여.

103025 @ 게민 이건 대축비?

103025 #1 으, 대죽비. 대죽비로.

103025 @ 옆이서 쓸어 주는 거, 올리는 거다예.

103025 #1 으, 올리고 가운데 거, 안에 서 영 느리고 가운데로만. 돌 신디 돌 도
는 디로만 메우쳐 노는 거라 자꾸 영. 경허민 킷아지지 안허여. 경허민 돌리는 것도
조정을 맞춰근에.

103023 @ 예, 맞춰가지고예. 게민 아까 조코고리를 툷잖아예. 조 비여 낱.

103023 #1 비여 낱 밧디서 툷아. 널어, 널어진양 툷아. 걸 놓지 안 허영 무끄지
안 허영.

103023 @ 아, 무끄지 안 허영.

103023 #1 무끄지 안 허영 그대로 툷아. 밧디서 그냥.

103023 @ 그거 조 비영 메칠이나 널어 놓니까?

103023 #1 아니 그자 비여 노면은 그냥 툷으멍 고고리로 물려와. 고고리 툷아
당.

103023 @ 아. 게민 보리는 보리쪽으로 물리잖아예?

103023 #1 으.

103023 @ 비여 놓고 물령 무끄는 거 아니?

103023 #1 아니 그것도 처음 며칠 돼주게 흔 밧 비젠 허민.

103023 @ 음.

103023 #1 게민 처음 빈 딜로부터 허여 가민 물라 가는 거. 역불로 물리젠 안
해도.

103023 @ 아 밧 다 비젠 허면.

103023 #1 으, 오래여 메칠 걸려.

103023 @ 메칠 걸리난 처음 빈 것서부터 무꺼 가는 거.

103023 #1 으, 무꺼 가면 츠츠 몰라 가고 비 오람직 헤가민 그냥 막 억질로 무꺼대고. 또 날이나 좋암직 허민 메칠 널영 내불고. 잘 모르든 장만허기도 좋고게.

103024 @ 계난 조는 묶지도 안 행 바로 고고리로 툷아 부는 거라예.

103024 #1 으, 고고리로 툷앙 고고리로 물리우는 거.

103027 @ 그럼 그 고고리 다 툷앙 조칩은 어떻게?

103027 #1 조칩만 무꺼.

103027 @ 무꺼?

103027 #1 으, 그건 또시 이젠 늘어다근에 불 솟고. 또 쉼 신 집인 쉼 맥익고.

103027 @ 아, 쉼 맥익고.

103027 #1 으, 조칩은 쉼 먹어.

103024 @ 계민 고고리 툷을 때는 뭐로 툷는 거라?

103024 #1 호미로.

103024 @ 호미 세워 낱 영.

103024 #1 영, 영 이디 영 쥼져근에.

103024 @ 쥼정. 무릅에 이디 영 쥼정?

103024 #1 으, 이디 영 놔근에 툷툷.

103024 @ 헤가지고 고고리는 맥에.

103024 #1 으, 맥에 담고.

103024 @ 담아 놓고예?

103024 #1 으, 께는, 낱은 이레 놓고.

103024 @ 예.

103024 #1 경험 무꺼근에.

103024 @ 그 조고고리를 마께도 때리거는 영은 안 헤낫수과?

103024 #1 그건 건 향 건 못 허여. 작은 거나베끼.

103024 @ 작은 거.

103024 #1 뭐 씨나 허젠 헤영 덩드렁마께로 두드리주게. 그추록 안 허민 물방에 가야.

103024 @ 어쨌든 조고고리를 들렁 물방에.

103024 #1 물방에 가.

103024 @ 도께질도 안 허고.

103024 #1 도께로 조는 잘 못허여.

103025 @ 아. 계난 물방에 간 거. 물방에 간 한 번 곶아서예. 그냥 고고리 다 툷어내고 쫄, 쫄.

103025 #1 조.

103025 @ 쫄쫄.

103025 #1 쫄쫄 만들지 못 허지게. 조로만 나와.

103025 @ 조로 나와. 겐 쫄쫄 만들젠 허민.

103025 #1 좁쌀 게메 아까게. 좁쌀 만들제 헤도 방에 가근에게 그걸게 비로 안에 거 영허고 베졌디 거 쓸어 놓곡 헤근에게 이만큼 허면은.

103025 @ 게민, 게민 조코고리 툄은 날 바로 좁쌀을 만드는 건 아니라예.

103025 #1 아니라, 몰려 봐야. 조로 몰려.

103025 @ 조로 얼마나 몰려?

103025 #1 조로, 조로 벳 난 날 혼 이틀, 사흘 몰려야 헐 거라.

103025 @ 몰령 놔 뒷당.

103025 #1 몰령 담양 맥에 담양 놔 뒷단 이제 또 그걸 이제 먹게 웨민 강 저 오는 거라. 아이고.

103025 @ 게난 몰방에 또 가야 웨는 거.

103025 #1 또 가야 웨고, 또 가야 웨고. 경허난 몰방에덜이 하낫주게 옛날엔.

103025 @ 고내에도 하낫수과?

103025 #1 어. 고내도 하낫어. 이젠 하나토 엇어도.

103025 @ 아.

103025 #1 요 아까 가오란 집 그 골목에도 서나고. 이제도 돌방에 서 그디 저 우영에. 알력집 우영에. 아까 할망네 알력집 우영에.

103025 @ 몰방에 헤난 거 잇수과?

103025 #1 몰방에 영 둥그렁 헐 거.

103025 @ 아 잇수과.

103025 #1 으. 딱로딱로 떼여지긴 헤도 메와지진 안 헐디 그 옆이 서 나난 그디로 잇어.

103025 @ 아, 잇어예. 나 나중에 사진 찍으쿠다.

103025 #1 그거 잘 못 볼 거라 풀 짓어부난.

103025 @ 아, 풀 짓어부난.

103025 #1 그디 그냥 테역밭 웨불언.

103025 @ 예, 나중에 물어보쿠다. 좁쌀은 몰방에 한 번 강 장만헐 때 얼마나 험니까?

103025 #1 좁쌀은 막상 허문 혼 댓 말 웨카, 댓 말썸.

103025 @ 댓 말예.

103025 #1 음.

103026 @ 좁쌀로는 이제 뭐 헤 먹읍니까?

103026 #1 좁쌀론 조팝도 헐 먹고게. 또 보리쌀에 서경도 먹고.

103026 @ 으.

103026 #1 서경도 밥 헐 먹고. 또 좁쌀로 물 웃저근에 남방에가 잇어.

103025 @ 으, 남방에.

103025 #1 요만이 헐 도고 남방에, 도고 남방에엔 헐.

103025 @ 으.

103025 #1 그 저 방엿골로.
103025 @ 방엿골예.
103025 #1 방엿골 영 이만이 헨 거, 이만이 진 거 행.
103025 @ 영 진 거, 찍는 진 거는 뤼렌 곱읍니까?
103025 #1 방엿골게.
103025 @ 방엿골. 여기 남방에 주변에는 나무잖아예.
103025 #1 으, 나무.
103025 @ 안에는 돌로 뤼고.
103025 #1 돌로 뤼고. 이제는 그냥 도꼬남방에엔 헨 돌로 안 뤼도 그냥, 그냥
판 것도 있어난 거주게.
103025 @ 그 다음에 돌로 뤼 부분은 뤼렌 곱읍니까?
103025 #1 방에톡.
103025 @ 방에톡.
103025 #1 으, 방에톡, 혹.
103025 @ 아, 방에혹.
103025 #1 혹.
103025 @ 이거는?
103025 #1 건, 그거는 저 무시것고?
103025 @ 방엿귀?
103025 #1 방엿귀, 방엿귀.
103025 @ 방에혹에 좁쌀 낱 방엿귀로.
103025 #1 땃아. 땃음도 허고 원체 한 거는 또 그것도 뭇방에 강 땃아.
103025 @ 아.
103025 #1 물 웃져당, 물 웃져.
103025 @ 물 웃져?
103025 #1 물, 물 컷당 물 허여근에 그냥 그것이 딱딱허지 앓을 정도로 헤근에
건정 강덜 뭇방에에 강.
103025 @ 게민 물 크는 곁 아까 어무니 물 웃지다.
103025 #1 물 웃지는 거.
103025 @ 아, 물 웃젓당 그걸 다시 뭇방에에 다시.
103025 #1 으, 다시 이제.
103026 @ ㄴ는 거라.
103026 #1 으, 딱 허젠 허믄 옛날덜 시리떡덜, 옛날은, 옛날. 경헌 건 또 뭇방에
강 땃아당.
103026 @ 게민 뭇방에 강 ㄴ레 곱앙 와예, 물 웃진 쓸.
103026 #1 물 웃진 쓸, 좁쌀을 막 뭇방에에서 ㄴ는 거라. 경헌 큰 시리 옛날에.
옛날엔 못 살아도.

103026 @ 으.

103026 #1 그 대소상 때에는 뭐 스무 시리여, 열 시리여덜 막 헤낫주게게.

103026 @ 경헛지예. 막 하영 헛지예.

103026 #1 경 그디 강 뵈아당 막 하영덜. 경헛 빗으로덜 갈랑덜 먹고.

103026 @ 게민 그찌 쩡 왕 갈르는 거?

103026 #1 아니.

103026 @ 빗으로 갈른덴 허는 건.

103026 #1 아니 시리에 쩡게.

103026 @ 아.

103026 #1 그를 곶아당 시리에 찌여 가지고 찌여근에 이젠 또 비와 놉근에 칼로 그창 먹는 거주.

103026 @ 그 쯤썰로 만드는 시리틀?

103026 #1 조침떡.

103026 @ 조침떡.

103026 #1 조침떡.

103026 @ 아, 조침떡 헤 먹젠 강 곶양 오는 거라예.

103026 #1 으, 음. 쓸로 허는 건 설귀떡.

103026 @ 설귀떡. 나중에 물어볼 거주다 그거는 어떻 만들어신지. 오늘은 농사 허는 거 물어보고예. 쯤썰로는 아까 조팍 헤 먹고 떡 헤 먹고 또 뭐 먹어?

103026 #1 쯤썰론?

103026 @ 으.

103026 #1 또 술도 허고.

103026 @ 술.

103026 #1 막걸리 술.

103026 @ 막걸리.

103026 #1 경허난 소주 빠고.

103026 @ 막걸리 헤 낭 소주 빠는 거라.

103026 #1 으, 막걸리로 담아 놏다근에 이제 퀘여가면은. 또 청주 빠는 수도 잇고. 말강현 물, 물이 나오주게. 게민 그거 청주엔 헤근에 빠뵈 또 막걸리로 먹는 수도 잇고.

103026 @ 게난 그것도 다 만들어 난 거 아니예.

103026 #1 으.

103026 @ 이제 떡, 밥, 술 경 헛수다예. 이걸로 게역은, 조로 게역은 안 헤 먹는 거라예.

103026 #1 조로 게역은 아니, 보리로.

103027 @ 쓸로는 경허고 조침으로는 뭐 허는 거?

103027 #1 조침?

103027 @ 으, 조칩.

103027 #1 조칩은 쉼덜 맥이는 거.

103027 @ 쉼덜 맥이고 그 다음?

103027 #1 불도 습는 딴 불도 습고 쉼도 맥이고.

103027 @ 으 으. 혹시 조칩이나 보리찹 같은 거 지금 여긴 잔디 심어신디 옛날엔 다 흑이랏잖아예.

103027 #1 흑게, 흑.

103027 @ 여기 깔고는 안 헛수과, 마당에?

103027 #1 마당에 웨 끌게 웨민 끌아낫주만은 그추록 많이 끌아보진 안 헤여.

103027 @ 많이 끌아 보진 안 헤.

103027 #1 으, 으.

103027 @ 마당에 깎는 건 뭐 끌아낫어?

103014 #1 마당에 깎는 건 보릿대, 보릿낭.

103014 @ 보릿낭.

103027 #1 으 보릿낭. 조칩도 끌기 끌지만은 보리 저, 조칩은 쉼덜 맥이는 때문에 아까와.

103027 @ 귀헌 거군아.

103027 #1 귀헌 거. 쉼출로도 나가부난.

103027 @ 쉼출로 나가난예.

103014 #1 보릿낭을 쉼 안 먹으난 그것덜 많이 마당에 끌아낫주게. 이 명석 끌앙, 명석 끌앙 날레 널젠 허면 밑에 보리낭 끌앙, 보리낭 끌앙

103014 @ 보리찹은 할머니 보리낭이엔 곱암수다예?

#1 보리낭.

103027 @ 보리낭. 조칩은 그냥.

103027 #1 조칩, 조칩.

103027 @ 보리찹이엔은 잘 안 허고.

103027 #1 보리낭, 보리낭.

103027 @ 조칩이엔 허고예.

103027 #1 조는 조칩.

103016 @ 예, 예. 그럼 줍씨 보관은, 씨 보관은 어떻 헛수과?

103016 #1 씨 보관은 저 다 물리우면은 그런대로.

103016 @ 굴리는 거 아니 훑은 걸로.

103016 #1 훑은 걸로 굴리왕, 조코고리도 굴리우고.

103016 @ 으, 굴리왕.

103024 #1 조코고리 굴리왓당 딱로 널영 그걸 이제 뵈으로 마께로라도 이제 장만헤영.

103024 @ 그건 하지 안 허난.

103024 #1 하지 안 허난, 물방에 안 가.
 103024 @ 안 가예.
 103024 #1 거 집이서 장만혜영, 장만혜근에 이제 다 마르민 불령 허고 이젠 잘
 물류왕 이젠 찰리에 담양.
 103024 @ 으.
 103024 #1 담양 걸어두나 경 안허민 어디 항 소곱엘 놔 두나.
 103024 @ 항 소곱에.
 103024 #1 으, 경헛다근에.
 103016 @ 씨같은 거 보관허는 건 거의 다 항에 보관헛수과, 옛날에 씨 뭐 보리
 씨같은 거 보관 행 놔 뒷당 뿌렛잖아예.
 103016 #1 으.
 103016 @ 게민 그거 어디?
 103016 #1 항에덜.
 103016 @ 항에덜.
 103016 #1 항에.
 103016 @ 항에.
 103016 #1 딱로.
 103016 @ 딱로예. 허벽에도 담양 놔 두고.
 103016 #1 허벽에도 질고게. 항에도 질고.
 103016 @ 으, 허벽에도 질영 놔 두고예.

콩 농사

103029 @ 콩 농사도 헛수과 콩?
 103029 #1 콩도 해낫주게.
 103029 @ 콩 농사는 어떻 준비헤야 될 것과?
 103029 #1 콩 농사는 콩은 간단허여. 그자 씨 뿌령 갈앙만 내붙어도 나.
 103031 @ 거름 안 허고?
 103031 #1 으, 거름 안 헤도 나.
 103031 @ 아, 콩은 거름 안 헤도 나.
 103031 #1 으, 콩은 거름 안 헤도.
 103030 @ 그럼 씨를 먼저 뿌리는 것과?
 103030 #1 으, 씨를 먼저 뿌려 낱 갈앙만 그냥 내 부는 거.
 103030 @ 갈앙만.
 103030 #1 그건, 그건 간단헤여.
 103030 @ 콩은 언제 갑니까?
 103030 #1 콩도 조 혈 때 여름에.
 103030 @ 여름에.

103030 #1 으, 여름에.
103030 @ 으, 조 혈 때.
103030 #1 이제, 이제, 이제 콩 익었지개. 이제 노란 콩덜, 검은콩, 노란콩 푸린 콩 이제 싱거봐 둔 것덜 다 단풍 일어가지고 이제 다 익어 감서. 여름에 행 놔두민 이제 거뒤 들이는 거. 가을에 이 구월덜에 꺼경 거뒤들여.
103035 @ 아, 예. 콩 꺼경십디다.
103035 #1 으.
103035 @ 하하.
103035 #1 이제 콩덜 꺼끄레 강 막 콩 꺼끄는 거 막 비싸주게. 이제, 이제 거되 들이는 거라.
103035 @ 이제 거뒤들이는 거예.
103035 #1 그건 여름에, 한여름에덜 헤여근에.
103031 @ 콩밭 거름은 안 허고, 콩밭 거름은 안 허는 거예?
103031 #1 안 허여.
103032 @ 콩씨 어떻 뿌립니까?
103032 #1 콩씨도 마찬가지로. 콩씨는 흙으니까 흙은 대로 알아맞창 그자 뿌렁 내불민.
103032 @ 으, 좁팍에 낱?
103032 #1 으, 좁팍에 놔근에 손으로 영영.
103033 @ 아, 밀으로. 밀으로 영영예. 게민 콩밭디 검질 맵니까?
103033 #1 메. 검질 경 안 메도 돼긴 헤여. 콩이 어울어져 가민 검질이 삭아져 불영.
103033 @ 어.
103033 #1 콩으로.
103033 @ 콩으로 삭아지는 거.
103033 #1 으, 게난 콩밭디는 멧불 안 메도 돼여.
103033 @ 보통 콩밭디 멧불?
103033 #1 혼불쫂 메민 돼지. 혼 번 메민 그자 그걸로. 그런대로 콩은 탁 어우 려지니까.
103033 @ 으.
103033 #1 이파리로 어우려지니까.
103033 @ 으.
103033 #1 빈 땅이 우로 못 봐 콩은.
103033 @ 으.
103033 #1 다른 곡석 닙지 안 허여. 경허난 콩밭디는 검질 많이 안 헤.
103033 @ 콩은 소꿀 필요도 없잖아예.
103033 #1 소꿀 필요도 엇고.

103033 @ 엇고.

103033 #1 싱글 필요도 엇고 싱거도 돼지 안 허고.

103034 @ 아, 싱거도 돼지 안 허고. 케민 콩빳디는 어떤 검질덜 납니까?

103034 #1 콩빳디 보콜.

103034 @ 보콜?

103034 #1 보콜 같은 거. 그디도 저 제환지.

103034 @ 아, 제환지.

103034 #1 예, 보콜 제환지. 이런 무신 저 뭐 무신 거 거기도 으라가지 나긴 허는 디 대목 나는 거는 보콜, 제환지.

103035 @ 으, 대목 나는 거는 보콜, 제환지에. 콩은 여름에 갈아가지고 수확할 건디.

103035 #1 이제 수확할 때.

103035 @ 수확허젠 허민 어떻 꺼릅니까? 콩은 꺾는 거라예?

103035 #1 꺾는 거, 꺾는 거.

103035 @ 어떻 꺾웁니까 그거는?

103035 #1 호미로 그거는 그냥 영 대여근에가.

103035 @ 으.

103035 #1 딱딱딱딱.

103035 @ 으, 호미로.

103035 #1 익어가면은 꺾어. 힘들어.

103035 @ 콩 꺾는 게?

103035 #1 으, 겨난.

103035 @ 힘으로 행 밀령 꺾는 겨난예.

103035 #1 밀령 꺾진 안헤도 거 호미로 영 줍아댕경 보리, 조거치 비질 못허니까.

103035 @ 으.

103035 #1 이쪽은 영 앞쪽에 힘 주고 호미는 줍아댕기곡 경허명 영 꺾어. 꺾으난 콩은 꺾은다, 꺾은다 허주.

103035 @ 콩 꺾으레 가는 거예.

103035 #1 콩 꺾으레 가는 거.

<중략>

103035 @ 콩 영 꺾엇수다예. 콩 꺾으민 밀령 무끌 거? 어떻게 장만허젠 허민?

103035 #1 그냥 꺾으명 무꺼.

103035 @ 꺾으명 바로 무끄는 거?

103035 #1 무끄명 말명 그디서 그자 뭐 무신 푸테나, 푸테나 무시거 영 헤영 저, 저, 저 갑빠나 그거 놔근에 그자 거 무겍지 안 허는 거니까.

103035 @ 으.

103035 #1 경허난 경혜단 모여다 낱 기계로 장만해여 밧디서.
103035 @ 기계 나오기 전에는?
103035 #1 나오기 전에는 도께로.
103035 @ 도께로.
103035 #1 도께나 마께나.
103035 @ 계난 무끄지 안 해영.
103035 #1 아니, 무끄지 안 헐 정도로. 그건 무끄지 안 해도 돼여.
103035 @ 계난 무끄지 안 해영 모다도 돼는 거/
103035 #1 모여 놔도 돼여.
103035 @ 모여 낱 그냥 그 밧디서 도께질, 두드리는 거.
103035 #1 으, 밧디서 저 기계로도 밧디 이젠. 저 옛날엔 도께로도 밧디서.
103035 @ 도께질 허젠 허민 바닥에 뭐 깎니까?
103035 #1 옛날엔 멍석.
103035 @ 멍석 깔아 놓고.
103035 #1 이제 지금은 갑빠라도.
103035 @ 갑빠라도예.
103035 #1 옛날엔 멍석.
103035 @ 멍석 깔아 낱 그 우에 막 콩 앓아당 두드리는 거라예.
103035 #1 으, 으.
103035 @ 콩은 아래 떨어지고 찹은?
103035 #1 거뒤 내고.
103036 @ 거뒤 내고예. 예 경헝 도께질 헐 거예. 콩 장만허민 콩으로는 이제 뭐 헐 것과?
103036 #1 콩으로 장 담고게.
103036 @ 장 담고.
103036 #1 으, 메주 슻양.
103036 @ 또?
103036 #1 경도 헝 먹고 곶양 죽도 썩 먹고 국도 끌렁먹고 뭐 다 허지 뭐 콩으로는.
103036 @ 아, 죽도 썩 먹고 국도 끌렁 먹고.
103036 #1 으, 으. 보깡도 먹고.
103036 @ 그걸로 녹물 키왓수과?
103036 #1 으?
103036 @ 녹물, 녹물?
103036 #1 녹물 어떻?
103036 @ 콩지름, 콩으로 콩지름?
103036 #1 으, 콩으로 콩지름도 낱 먹곡. 콩지름 놓는 콩은 떠난 콩 허영 즈진

거. 콩누물허는 콩이 딱로 잇주게.
 103036 @ 계민 그런 콩덜도 딱로 질봐?
 103036 #1 메주콩 딱로 잇고.
 103036 @ 아 메주콩 딱로 잇고.
 103036 #1 계도 갈 땀 다 비슷허게 ㄱ치 같고 씨만 딱나.
 103036 @ 아, 씨만 딱나. 계난 콩지름도 헤 먹고.
 103036 #1 헤 먹는 콩 잇고.
 103036 @ 메주도 헤 먹고.
 103036 #1 메주, 으, 메주 헤 먹고.
 103036 @ 둬비도 헤 먹고?
 103036 #1 둬비 헤 먹는 콩은 메주허는 거나 비슷허고.
 103036 @ 비슷허고. 그럼 콩 종류 무슨 콩, 무슨 콩 일름이 잇수과?
 103036 #1 머드레콩 거튼 거. 쌍콩.
 103036 @ 다시 한 번, 머드리콩?
 103036 #1 머드레콩.
 103036 @ 그 다음 쌍콩?
 103036 #1 쌍콩.
 103036 @ 또?
 103036 #1 주눈이콩.
 103036 @ 주?
 103036 #1 눈이콩.
 103036 @ 주눈이콩?
 103036 #1 으.
 103036 @ 주눈이콩. 또? 요거 정도?
 103036 #1 으.
 103036 @ 머드레콩으론 뭐 행 먹어?
 103036 #1 머드레콩으론 밥에도 낱 먹고 요새덜은 뭐 약제로덜 볶양덜 먹고. 저 검은콩, 붉은콩, 노란콩.
 103036 @ 아.
 103036 #1 머드레콩은 색제가 세 가지나 있어.
 103036 @ 아, 기구나. 쌍콩은?
 103036 #1 쌍콩은 저 글아근에 그냥 메주도 쓰꼭게. 메주.
 103036 @ 아, 이거는 메주 쓰는 콩?
 103036 #1 으, 메주.
 103036 @ 주눈이콩은?
 103036 #1 주눈이콩도 그거 메주레 다 들어가고 그건 뭐, 그것도 무신 약제로도 들어간덴 허라만은. 주눈이콩도.

103036 @ 음.
 103036 #1 막 즈질아 흐끔.
 103036 @ 즈진 거예.
 103036 #1 으, 즈진 거.
 103036 @ 콩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
 103036 #1 으, 세 가지.
 103037 @ 콩집은 뭐 헵니까?
 103037 #1 으?
 103037 @ 콩집.
 103037 #1 콩집은 콩집도 소, 쉼도 맥여.
 103037 @ 쉼 맥여?
 103037 #1 으, 쉼 맥이고 쉼 맥이지 안 허민 불 슴고.
 103037 @ 아.
 103037 #1 옛날에 밥 헤 먹어.
 103037 @ 콩집을 깔거나는 안 헷수과?
 103037 #1 뭇에 깔아?
 103037 @ 마당에.
 103037 #1 아니, 콩으로는 아니.
 103037 @ 아니.
 103037 #1 거 노시라불고.
 103038 @ 예, 콩농사 지으명 뭇 기억나는 일 잇수과?
 103038 #1 우리 콩농사는 많이 지어지지 안 허여. 콩 헷 때는 조 허는 때문에 조를 많이 헤낫지.
 103038 @ 조를 많이.
 103038 #1 조를 많이 헤낫지 콩은 경 많이 안 해서.
 103038 @ 원래 고내리 자체가 조를 더 많이 헤낫수과?
 103038 #1 예, 고내리에는 기자 보리, 조 많이 헤낫주게.
 103038 @ 보리, 조.
 103038 #1 감저, 고구마.
 103038 @ 감저예?
 103038 #1 으, 그거.
 103038 @ 많이 헤난 거예?
 103038 #1 으, 많이 헤낫주. 다른 농선 경.

밭벼 농사

103039 @ 보리농사, 조농사, 콩농사까지 영 여쭙반예. 오늘은 산디농사부터 여쭙보쿠다. 여기도 산디 헤 낫수과?

103039 #1 아니, 허는 사름은 가끔 헤도 우린 안 헤반.

103039 @ 안 헤반예.

103039 #1 예.

고구마 농사

103049 @ 계민 감저 물어보쿠다, 감저.

103049 #1 으, 감저.

103049 @ 감저 농서 허젠 허민 이제 뭐 준비해야 헐 것과?

103049 #1 감저 농서는 뭐 특별히 거름은 엇고 거름 헤지면은 옛날에 바당에
몹.

103049 @ 예.

103051 #1 노랑몹이엔 현 거 있어. 그거 해당 영 밧고지 고랑에 깎아근에 이제
쇄로 갈아노면은 것이 돼비 돼영 거름 돼영 잘 헤난디.

103051 @ 음.

103051 #1 그것도 매 사람 못 허고 그때도 다, 그때도 고구마 헐 때도 통시 걸
름 햅몹 노면은 잘 돼고 경 안허면은 잘 안 들엉.

103051 @ 어쨌든 거름.

103051 #1 조금 낱야.

103051 @ 낱야.

103051 #1 으, 쪼끔 낱야 아멩헤도 다르지.

103051 @ 그럼 아까 몹, 노랑몹.

103051 #1 노랑몹.

103051 @ 그 노랑몹을 뭐렌 불릿수와 일름을?

103051 #1 노랑몹.

103051 @ 그냥 노랑몹.

103051 #1 예, 그냥 노랑몹.

103051 @ 계민 이거는 몹국 헤 먹는 몹이랑은.

103051 #1 아니, 거름 허는 거. 이진 거름만 허는 거.

103051 @ 거름만 허는 거. 계민 몹 허젠 허민 개인적으로, 개별로 강?

103051 #1 으, 개인적으로 옛날엔 헤난디 지금은 하나도 엇어붙어서 그런 몹이
엇어, 엇어전. 옛날엔 너무너무 그냥 바닷가에 가면 그것이 막 그냥 밀려 왕, 바닷
가에 그거 지어당 헤난디 지금은 엇어.

103051 @ 그냥 그건 누구에게 안 곶양 그냥?

103051 #1 안 곶아도 그건 아무라도 헤 오는 사름이 임제. 몬침 헤오는 사름이
임제.

103050 @ 그럼 그 거름 헤가지고 감저는 언제 준비헵니까?

103050 #1 감저 싱글 때?

103050 @ 아니 감저 싱그기 전이 어쨌든 모종을 놔야 될 거 아니?
103050 #1 모종을 놔야.
103050 @ 그 모종은 언제 놓니까?
103050 #1 모종은 음 삼월 사월달에 놓지.
103050 @ 모종을 삼월, 사월에 노면 그민.
103052 #1 이제 줄 나면 줄이 크면 묘가 나오면 이젠 오월 음력 오월달, 유월달 전이 싱거야.
103052 @ 유월달 전이 싱그는 거라.
103052 #1 으, 이제, 이제 파종달 험주게.
103052 @ 계민 음력 삼월달에 묘종 놔 가지고예, 그거 줄 잘랑?
103052 #1 자, 자, 잘랑. 줄 잘랑.
103052 @ 줄 잘랑.
103052 #1 으 줄 잘라당 이제 밧 갈아 노면은 밧 갈아 노면은 글쟁이로 영영 헤치명 그 줄을 영 낡 갱 또 흑 더깁.
103052 @ 그럼 거름은 밧 갈기 전이 뿌리는 거?
103052 #1 으, 밧 갈기 전에.
103052 @ 갈기 전에.
103052 #1 으, 놔지면은 놓는 거고 특별히 뭐 감저는 거름은 뭐 허나 안 허나 해도 허면은 잘 들지만은 안 허민 잘 안 드는 수도 잇고. 안 혀도 돼긴 돼여.
103052 @ 안 혀도 돼여.
103052 #1 으, 안 혀도 돼여. 이 보리 님지 안 허여.
103052 @ 그럼 모종 싱글 때도 거름 안 허여?
103052 #1 안 혀, 안 혀.
103049 @ 그럼 모종 싱글 때 삼월달에 모종 싱그는 거부터 곶아 줍서. 모종을 어떻 싱거?
103049 #1 모종은 그 감저 그냥 그때 돼면은 싹 나는 것도 싹고 아니 나는 것도 시니까.
103049 @ 음.
103049 #1 그냥 가져다근에 쪼그만헌 거 하나씩 영 찢렁 놔뒤 영. 요만씩 요만 싹 새 잡아가지고.
103049 @ 그럼 그 감자는 전 해에 거?
103049 #1 으, 작년에 거.
103049 @ 작년에 거 보관 헛당?
103049 #1 으, 보관 헛당. 올리 이제, 이제 파당 보관헛당 이제 봄 나민 싱그는 거. 삼월, 사월달에.
103049 @ 감저를 이만큼 큰 거 안 혀영 조그만 헌 거.
103049 #1 으, 조금만씩 헌 거.

103049 @ 짤라근에는 안 허고?
103049 #1 짤랑은 안 돼고.
103049 @ 그냥 조그만 헨 거 골랑?
103049 #1 으, 으. 만약 쫄르게 되면 그 눈 나눈 바둑이 있어. 그것만 쫄라지게 해도 돼주만은 그렇게 짤랑 뭐 허당은 찍어붙고 게난 쥔 수 이시민 조그만 헨 거 해근에 그냥 싱거 놔 두민. 또 큰 거 싱그민 큰 대로 싹이 많이 나고.
103049 @ 예, 예.
103049 #1 이것이 많이 나고. 작으민 작은 대로 혼 세 개도 나고 두 개도 나고.
103049 @ 그럼 그 감저 싱글 때 그 간격을 얼마씩 헿 싱거?
103049 #1 메종? 묘종, 묘종?
103049 @ 감자줄 늘 때, 묘종을 짤를 때?
103049 #1 짤를 때. 이만씩게.
103049 @ 아, 이만씩.
103049 #1 으디 하나 노민 이디 하나 놓고.
103049 @ 게민 낱 이시민 한 두 덜정도 삼, 사월이민 유월덜 허나 두달.
103049 #1 혼 석달. 두덜, 석달은 걸려.
103049 @ 석덜은 키우는 거잖아예. 막 감자썩 나고.
103049 #1 으, 으 놔 냥.
103052 @ 그민 이제 그걸.
103052 #1 으, 짤라당 하나 하나 짤라당.
103052 @ 호미로?
103052 #1 으, 호미로. 호미로 짤랑 이제 밧 갈아 낱 갈아 놔도 글갱이로 영 헿 고랑 짓영, 고랑 짓영 그 줄을 가져당 그레 낱.
103052 @ 음.
103052 #1 영 탁, 이파리 우터레, 이파리 우터레 흑 가지 못허게 줄 영 노면은 이제 흑을 이레 영 더꺼.
103052 @ 예.
103052 #1 경헿.
103052 @ 기민 영 헿 밧 갈민 이레 영 고랑을 만들 거 아니예.
103052 #1 만들 거.
103052 @ 게민 여기는 이 밑을 뭐렌 부릅니까?
103052 #1 고랑게.
103052 @ 이걸 고랑이렌.
103052 #1 고랑, 이렷 고랑.
103052 @ 으.
103052 #1 높은 디는 이렷.
103052 @ 이렷?

103052 #1 으, 이렇. 야픈 디는 고량.

103052 @ 고량?

103052 #1 으, 고량.

103052 @ 게민 감저는 이랑에 찢를 거? 감자썩은?

103052 #1 이렇허고 고량 그 사이에.

103052 @ 아, 요기에?

103052 #1 으, 으.

103052 @ 여기에 찢렁, 속속 감저줄 이런 디 찢르는 거라예.

103052 #1 예.

103052 @ 겐 이랑에 흑을 호끔 무더부는 거?

103052 #1 으, 으 이랑에 흑을 헤다근에 그 이파리는 살리고. 줄거리만 줄만 영 감추는 거. 그렇지 았으민 죽어불어. 햇빛에.

103052 @ 아, 햇빛에.

103052 #1 죽어불 거니까 햇빛에 죽지 안 헐 정도로 흑을 영 더퍼부는 거주.

103052 @ 우이가 이랑이라예?

103052 #1 이렇, 우이가 이렇.

103052 @ 밑에가 고량.

103052 #1 고량.

103052 @ 게민 요거 하나를 셀 때 헐 고량헐니까, 헐 이랑헐니까?

103052 #1 헐 고지.

103052 @ 아, 한 고지.

103052 #1 헐 고지에 이렇, 고량.

103052 @ 한 고지.

103052 #1 으, 헐 고지에 이렇, 고량.

103052 @ 고구마, 아니 감저밧디 거름은 아까.

103052 #1 엇어도 돼고.

103052 @ 엇어도 돼고.

103052 #1 시문 신대로 허여지면 좋주만은 엇으민 엇으대로 또 그런대로. 저 그 감저 싱거근에 잘 드는 밧이 이런 밧도 질왓, 말왓이 잇어. 질왓은 비만 쪼금 와도 물 골르는 밧. 물이 얼른 빠지지 안 허영.

103052 @ 으.

103052 #1 또 말왓이엔 헐 거는 비가 하영 와도 그 자리에서 빠져 부난 거난.

103052 @ 아.

103052 #1 말왓이엔 헐 디 싱그민 잘 들어.

103052 @ 아, 조도 경허지 안 헐수과?

103052 #1 으, 조도 경허고. 조허고 감저는 똑같아.

103052 @ 아, 조허고 감저는.

103052 #1 아 그래도 어느 집이든 조보단 감저 농서는 흐뭇 쉬웁지.
103052 @ 조보다.
103028 #1 폐롭지 안 허지. 조는 뭐 비만 많이 오민 다 죽어 불어. 고고리가 영 피영 이만씩 헛당이라도 다 죽어 불어.
103028 @ 아, 다 커신디도.
103028 #1 커근에 고고리 평.
103028 @ 음.
103028 #1 고고리 퍼근에 익어도 비만 왕 하영 오민 다 죽어 불어.
103028 @ 아, 그런 것과?
103028 #1 너무 억울허여.
103028 @ 아, 다 키워신디 죽어 불민.
103028 #1 다 키워 이제 다 먹게 쉰 것도 다 죽어 불어. 경허민 으물이 안 나.
103028 @ 아이고, 아이고. 조 농사가 경 폐롭구나.
103028 #1 폐로와 폐로와 조 농사는.
103053 @ 계민 감저밧디도 검질 맵니까?
103053 #1 검질? 검질 감저밧딘 잘 안 메여.
103053 @ 잘 안 메여예.
103053 #1 그 이파리로 더꺼지니까.
103053 @ 더꺼지니까예.
103053 #1 워낙 하면은 흐뭇씩 메여 주주만은 그렇지 안 허면 안 메도 어느 정도 감춰져.
103054 @ 그럼 감저밧디도 나는 검질들이 이실 거 아니?
103054 #1 나는 검질은 저 조밧디 나는 검질이나 비슷하게 나누게. 저 제완지 같은 거 맛 거튼 거.
103054 @ 조 가는 거랑 감저 가는 거랑 시기가 비슷한 것과?
103054 #1 맛, 맛.
103054 @ 맛난 같은 시기에 제완지 같은 거 나는 거예.
103054 #1 으, 으.
103054 @ 이제 경행 감저 유월달에 싱그난 음력 유월에 싱그난 파는 건 지금?
103054 #1 지금 이 상강, 상강이엔 헤근에 혼이 잇주게. 이 때가 막 팔 때.
103054 @ 지금 음력이 몇 월이과?
103054 #1 음력이 이거 구월.
103054 @ 구월이난 지금이 막 팔 때.
103054 #1 구월 초 열흘인가 쉰실 거라.
103054 @ 아, 그럼 그때 상강할 때가 막 팔 때.
103054 #1 막 팔 때. 그 후에는 크지도 안 허고 그냥 그런대로 그냥 실 거난 그 때꺼지 크면은 그때 쉰면 다 파는 거.

103054 @ 계난 감저도 혼 석달 크는 거다예.
103054 #1 예, 경허는 거.
103054 @ 모중행 입 날 때까지가 혼 두 석달.
103054 #1 두 석달.
103054 @ 그 다음 모중 신경 감저 팔 때까지가 혼 석달.
103054 #1 으, 으. 석덜쫘.
103054 @ 키우는 건디 이제 다 컷수다. 검질도 다 메고예.
103054 #1 다 메고.
103055 @ 이제 커시난 수확을 허젠 헐 거. 수확허젠 허면은 어떻 헐 거?
103055 #1 수확은 허젠 허면은 이제 쉼 엇은 집이는 글쟁이로 파고 글쟁이로
줄은 문저 다 비여 놓고 줄은 다 비여 제쳐 놓고.
103055 @ 호미로 다.
103055 #1 호미로.
103055 @ 걷어덩.
103055 #1 걷영. 비명. 비영 걷영 영영 멍쳐 낱 바둑 바둑이 멍쳐 놔두고 글쟁
이로 파.
103055 @ 음.
103055 #1 경허고 또 쉼덜 신딘 쉼로 가는 디도 잇고.
103055 @ 잠대로?
103055 #1 잠대로.
103055 @ 잠대로 거 알아불민 감저.
103055 #1 어떤 디 막 알아지주게. 굶어, 꼬차져.
103055 @ 음.
103055 #1 굶지 안 허여. 쉼로 가는 딴. 게 워냐 많이 허는 디는 허여도 쫘그만
씩 허는 디는 다 글쟁이로 파고.
103055 @ 글쟁이로 파고.
103055 #1 파도 파기 쉬우면은 것도 많이 파져.
103056 @ 예, 예. 계민 감저 팟수다예. 감저 파민 이제 보관을 어떻헐 거라.
103056 #1 보관은 우리 옛날에는 공출 시대에는 공출허젠 허면은 더러 생체도
바찌고 또 굴양 저 그걸 영 호미로 썰엇든 기계로 썰엇든 영 썰어가지고.
103056 @ 그거 써는 걸 뭐렌 험니까?
103056 #1 절간. 절간, 절간 헤여, 허여 낱 밧디서 물리우는 거. 물랑 곱게 헤영
물리우면은 물랑 풀기도 허고 뺏양 먹음도 허고.
103056 @ 음. 그럼 이제 절간 안 헛수다. 절간 안 험 고구마도 영 보관헐 거 아
니예.
103056 #1 보관헐 거.
103056 @ 겨울내냥 먹을 거민예.

103056 #1 먹을 거.

103056 @ 그거 보관허젠 허민 어떻 헤 낫수과?

103056 #1 옛날엔 보관허젠 허민 저 고시락이엔 헐에 저 보리 장만 헤난 가시락.

103056 @ 으, 고시락.

103056 #1 그거 소곱에도 놓고.

103056 @ 으, 그거 소곱에도 놓고.

103056 #1 경 안 허민 조 장만 헤난 조강메기 그거 소곱에도 낵 에워 싸끈 헐당.

103056 @ 땅 팡 놀, 감저놀 놀 거 아니?

103056 #1 으, 땅 파진 안 허여.

103056 @ 아, 여긴 안 팝니까?

103056 #1 여긴 잘 안 파.

103056 @ 동쪽만 헤도 땅 파신디.

103056 #1 으, 이디는 그냥 낵 에워싸근에 허고 안에덜도 다 보관헤근에 허고 게. 이젠 안 허여. 옛날.

103056 @ 예, 옛날, 옛날.

103056 #1 옛날에 옛날에는 우리는 대목 저 고시락 허영 허곡 경 안 허면 조코 고리, 조 털어난 강메기가 잇어 강메기. 그 소곱에 낵도 허곡.

103056 @ 그럼 감저놀은 안 놀어낵수과?

103056 #1 감저 경 하영 놀게시리 허지 안 허연게. 조그만씩. 조 농서만 많이 헐지 감저는 그자.

103056 @ 아. 많이 안 허난.

103056 #1 많이 허는 사름은 많이 허영 놀기도 허여.

103056 @ 놀, 놀젠 허민 어떻 헤나시고예, 그 사름덜 하영 허는 사름들 감저 놀 놀젠 허민.

103056 #1 하영 허는 사름덜 놀젠 허면은 저 무시겏고 밑에 보리낵 놓고 또 콩 꼬질 놓고 또 경허근에 감저 혼 징 낵 또 거 징징이 헤근에 그거 에워싸근에 또 놀 어 낵도 허고 또 그대로 또시 침 에워싸근에 놓기도 허고 안에 무시거에 놓기도 허고 향에도 담양 먹기도 허고.

103056 @ 향에도?

103056 #1 어 향에도.

103056 @ 향에 논 거 썩어 불지 안 헐니까?

103056 #1 아니 그냥 임시 먹는 건 경 안 허여.

103056 @ 임시 먹는 거라예.

103056 #1 으, 임시 먹는 것들.

103056 @ 그민 이제 아까 감저 가져가지고 씨 헐 거는 그냥 보관헐 거 아니예.

103056 #1 씨?

103056 @ 예. 멩년이 씨 허젠 허민 그냥 보관헐 거고.

103056 #1 으, 그냥 보관헐 거. 무신 멩탱이에나. 멩테이에나 하꼬에나 낱.

103056 @ 놔 가지고 보관헐 거고.

103056 #1 으.

103057 @ 절간 고구마 썰어근에 다 들렛수다예.

103057 #1 으.

103057 @ 그거 들린 거는 바치기도 허고?

103057 #1 그때는 바쳐낫주게. 공출 때는 바치단.

103057 @ 공출 때렌 헌 게 언제과?

103057 #1 공출 때는 그 해방 됐는, 해방 됐는 다음 해꺼지.

103057 @ 아, 그때꺼지 공출 해난 거?

103057 #1 어, 어. 해방 됐는 해방.

103057 @ 그럼 해방 전이랑 해방 됐는 다음 해꺼진.

103057 #1 으. 쪼끔 다음 해꺼지 공출해연 꼬차져 불언, 끊어져 불언.

103057 @ 게민 그 절간 고구마 만들젠 허민 썰어야 텔 거 아니?

103057 #1 썰어, 썰어.

103057 @ 그거 뭐로 썰어마씨?

103057 #1 기계로도 잇어, 기계로.

103057 @ 씨는 기계.

103057 #1 으.

103057 @ 영 노면, 영 돌리면?

103057 #1 어, 어. 영 우로 영 노면은 일로 영영 돌리민 일로 이만씩 나와.

103057 @ 일로 이만씩 나와.

103057 #1 어, 나와. 탁탁탁탁 나와. 경허민 그거 이젠 일일이 널어.

103057 @ 게민 그 기계가 해방 전이도 잇어 낫수과?

103057 #1 해방 전인 엇엇지.

103057 @ 그지예?

103057 #1 으, 그냥 저 무시거 깔로만 썰엇지.

103057 @ 예, 해방전이는.

103057 #1 손으로만 썰고.

103057 @ 손으로.

103057 #1 또 해방 전이는 그런 씨는 것도 많이 썰지 못허지게. 그대로, 그대로 그자 숲으멍 먹엇주게 놔 둬서. 심어.

103057 @ 게민 그 절간 고구마 씨는 기계를 뭐렌 불르는 일름 잇어낫수과?

103057 #1 그거 불르는 일름 잇어난디 그것이라 빛이엔 곱아나신지 잇어붙어져 이.

103057 @ 예, 예. 튼나지민 곱아줍서. 그럼 고구마는 아까 몰린 거 어땜 먹어난 마씨?

103057 #1 절간고구마 그거 막 몰르면은 방에서 강 뺏아당.

103057 @ 방에에 뺏아당. 아이고 방에 쓸 일 많수다예.

103057 #1 게, 방에 쓸 일 해주게. 옛날엔 기계, 이제 기계나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103057 @ 아니 그럼 방에를 우리집만 쓰는 것이 아니라 동네 사름덜이 다 쓰는 거잖아예.

103057 #1 으.

103057 @ 계민 그 방에 쓰젠 허민 내일은 나 쓰켜, 모레는 나 쓰켜.

103057 #1 으, 으. 미릇 맞춰 뒤야.

103057 @ 아.

103057 #1 그것도 당번 순서번이 잇엉.

103057 @ 아.

103057 #1 내일 멧 시쯤엔 우리집이 허쿠다.

103057 @ 아.

103057 #1 내일 어느 때까진, 저녁 때 우리 허쿠다, 아침 때 우리 허쿠다. 경행 강 곱아 뒤야.

103057 @ 계미 그거 누구안티 강 곱아?

103057 #1 지는 사름안티.

103057 @ 방에도 담당헤연 지는 사름이 잇어났구나.

103057 #1 아니, 문침 지는 사름. 거기서.

103057 @ 아.

103057 #1 거기 그냥 임시 지는 사름이 임제주게.

103057 @ 아.

103057 #1 순서, 순서로 강. 다음에 누게네 질 겨우광 허문 아무 질 거엔 허문 그 사름 다음에는 우리 허쿠다. 경 곱아덩 오면은 그거, 그것이 순서라.

103057 @ 아, 그것이 순서라. 어쨌든 다 동네니까예.

103057 #1 으, 동네니까. 다 ㄴ튼, ㄴ튼 반이니까.

103057 @ 계난 방에에 강 ㄴ레 곱양도 먹고.

103057 #1 먹고.

103057 @ ㄴ레 곱양 뒤 헤 먹어.

103057 #1 ㄴ레 곱양 떡 헤영게.

103057 @ 아, 절간고구마로.

103057 #1 으. 범벅도 행 먹고게.

103057 @ 범벅도 행 먹고.

103057 #1 으, ㄴ레 곱양.

103057 @ 또 절간고구마로 뭐 해 먹읍니까?
103057 #1 아니, 그걸로 ㄹ레 곶앙 그냥 먹고 치영덜도 먹고게. 파베기로 헤영
덜 그냥.
103057 @ 으.
103057 #1 또 치영덜도 먹고게. 그것도 식량으로.
103057 @ 그 돌린양 치는 거라예?
103057 #1 으, 으.
103057 @ 그 절간고구마 혹시 빼때기렌도 곶앗수과?
103057 #1 빼때기 옛날엔.
103058 @ 빼때기. 청 먹는 거예. 아까 고구마 팔 때, 감저 팔 때 그 줄기 비엿
잖아예. 그 줄은 뒤에 씹니까?
103058 #1 줄은 물류와근에 쉼 맥이고. 쉼, 툄 그거 양석으로.
103058 @ 양석으로.
103058 #1 으, 그거 양석으로덜 막 그냥 그거 질루는 사름덜 다 오랑 가져가고.
폴지 안 허영.
103058 @ 쥐 부는 거.
103058 #1 널어 놔 두민 쥐 부는 거.
103058 @ 아, 쥐 부는 거.
103058 #1 으.
103058 @ 계민 준 값으로 뭐라도 가져 가야.
103058 #1 아니 경허난 준 값으로 그 사람네가 생각 이시믄 갈아도 주고게.
103058 @ 아.
103058 #1 수눌어근에. 그거 맥여시니까 가져단 맥여시니까 밧 갈아 주겠다.
103058 @ 맞아, 맞아. 그거라도 해야지예.
103058 #1 으, 으. 경, 경.
103059 @ 계난 감저 농서 지으면 뭐 생각나는 일 잇수과?
103059 #1 감저 농서 우린 많이 경 지어보지 안 허난양.
103059 @ 예.
103059 #1 조그만씩, 조그만씩. 경 전지가 경 한 것도 아니고.
103059 @ 아.
103059 #1 그자 조, 보리 헤 불고, 조 헤 불고 무신 콩이나 갈아 불고 허민 감
저 농서도 벨로 안 헤낫주게.
103059 @ 계난 제일 하영 헤난 농서는?
103059 #1 제일 하영 헤난 건 보리, 조.
103059 @ 보리, 조. 역시 밥 먹을 거예.
103059 #1 이녁이 식냥 먹영 살아나갈 거.
103059 @ 먹영 살아나갈 거.

103059 #1 감저 거튼 건 대용식이니까게 아멩해도게.

103059 @ 아멩해도예.

103059 #1 감저, 콩은 대용식이난.

103059 @ 예, 예.

103059 #1 조, 보리는 뭐 그건 없으면 안 돼지.

103059 @ 예. 기라예.

기타 농사

103060 @ 혹시 수박 갈아놔수과?

103060 #1 수박도 안 허여.

103061 @ 참웨?

103061 #1 참웨도 안 허여. 난 아무것도 그런 건 안 허여.

103062 @ 고치?

103062 #1 고치도 안 허고.

103062 @ 먹을 거, 먹을 거.

103062 #1 먹을 것도 안 헤반.

103062 @ 안 헤 반.

103062 #1 사당 먹주. 쪼금씩 먹어지게 돼민 사당 먹엇주.

103063 @ 음. 배, 배추?

103063 #1 배추도 안 헤 보고.

103064 @ 무우?

103064 #1 무우도 많인 안 허영 저추록 쪼금씩이나베끼 엇날도.

103064 @ 계난 저추록 쪼금씩.

103064 #1 어, 쪼금씩.

103064 @ 계난 저건 어떻행 씨 뿌리는 거마씨?

103064 #1 저건 피종으로.

103064 @ 묘종으로?

103064 #1 아, 아 저거 씨로, 씨로. 씨로 해도 씨로 꼬집아 놔 두민 돼여.

103064 @ 그냥 갈아 낱.

103064 #1 으, 영 글갱이로 굽어 낱, 굽어 낱 이젠 바둑, 바둑이 씨 혼 방울씩
들어청 놔 두민.

103064 @ 무수는 저거는 몇 월에 허는 것과?

103064 #1 저건 이제 금방 혼 들도 안 웬디.

103064 @ 계민 음력 팔월.

103064 #1 음력 팔월.

103064 @ 여름에예?

103064 #1 으, 음력 팔월에.

103064 @ 줍양 놔 두민 크는 거.
 103064 #1 크는 거.
 103064 @ 계민 몇 월에 먹어지는 거라?
 103064 #1 이제라도 먹젠 허민 먹는 거지.
 103064 @ 이파리는 지금?
 103064 #1 이파리는 지금도 먹고. 뽕양 먹젠 허민 뽕양도 이제, 이제 요만씩베 끼 아니 드난.
 103064 @ 무수를 영 뽕아서예. 영 뽕으면 이디는 무수가 달려 잇고 이건 썸이라예.
 103064 #1 으, 썸이라.
 103064 @ 이건 썸이렌 허고 이거는 뭐렌 곱읍니까?
 103064 #1 그건 늑뻘.
 103064 @ 이 밑에는.
 103064 #1 그거는 늑뻘.
 103064 @ 그지예.
 103064 #1 이젠 무수, 무수 허지 만든 그 전인 늑뻘.
 103064 @ 우에 건 썸이고.
 103064 #1 으, 썸 츠마기, 썸.
 103064 @ 초?
 103064 #1 츠마기. 츠마기썸.
 103064 @ 아.
 103064 #1 아래 건 늑뻘.
 103064 @ 아, 맞아, 맞아. 계민 츠마기썸 여린 때는 츠마기썸으로도 짐치 헤 먹을 거 아니?
 103064 #1 짐치도 행 먹고 숲양도 먹고.
 103064 @ 아, 숲양 먹고.
 103064 #1 으, 숲양도 먹고.
 103065 @ 지슬도 갈아 봤수과, 지슬.
 103065 #1 아니 지슬도 안 헤 보고.
 103065 @ 먹을 것도 안 허고.
 103065 #1 먹을 것도 안 허여. 이디, 이 우리 부근에 토지엔 지슬 잘 안 뒤여.
 103065 @ 아, 기구나.
 103065 #1 그것도 뒤는 장소가 다 잇어.
 103066 @ 피?
 103066 #1 피도 안 헤 보고.
 103067 @ 피도 안 헤 보고. 므물도 여기 안 헛지예?
 103067 #1 므물도 안 허고. 므물도 안 뒤여 이딘.

103068 @ 담배도 안 하고?
103068 #1 담배도 안 하고.
103068 @ 안 하고예. 예.

4. 들일

소 기르기

104001 @ 쉼 질러 난 거 여쭙보쿠다. 쉼은 어떻 행 질렀나수과?
104001 #3 쉼을 하난 산 쪼그마현 거 산 부림 시작해서마씨.
104001 @ 거 몇 살에 쉼을 질르기 시작한 것과?
104001 #3 예, 흐. 아버지네도 쉼은 좀 질렀습니다.
104001 @ 집에서예.
104001 #3 예 길르는 걸 토대 삼아 가지고 아버지네도 돌아가고 어머니는 살아 계신데 술 하나 이젠 사서마씨. 사서 이제 열심히 맥여서마씨. 겨난 이 부락에선 두 번째로 쉼로 막 맥어나서마씨.
104001 @ 아, 예. 경 소 많이 질렀을 때는 몇 마리나?
104001 #3 한 마리.
104001 @ 한 마리 가정.
104001 #3 한 마리 해서 이제 풀고 사고 허니까 돈이 조금 쉼은 거라양. 딴 것 하고는 달라가지고.
104001 @ 계민 송애기를 상 질랑 크민 풀고 경헌 것과?
104001 #3 예, 예. 없으니까 이거라도 해서 첨 용돈이라도 벌기 위해서 밤낮으로 해서마씨.
104001 @ 예.
104001 #3 경허니까 쉼 좋은 쉼이 돼니까 상인덜이 자꾸 찾아와마씨.
104001 @ 음.
104001 #3 쉼이 좋다고 해서.
104001 @ 아, 예.
104001 #3 돈은 팬찮허게 주겠다고 해가지고.
104001 @ 예, 예.
104001 #3 돈을 좀 받으면서 한 다섯, 여섯처레 쉼 길뢰서마씨.
104001 @ 송애기 상.
104001 #3 예, 예.
104001 @ 송애기 난 거 길른 거마씨, 아니면 송애기 상.
104001 #3 송애기 상.
104001 @ 상.

104001 #3 한 세 살짜리 사근에 큰 췌 만들아근에 풀고.
 104001 @ 아.
 104001 #3 예, 경허근에 허른 한 일년, 이년 길르른 또 팔아뒀근에 또 교체허는 거라마씨 용돈 좀 빼 뒀근에 또 송애기 또 사가지고 키우고. 그렇게 헤가지고 한 마흔까지 헤서예.
 104001 @ 몇 살 때서부터?
 104001 #3 한, 에 군인 나가 가가지고, 군인 스물 한 살에 간 스물 다섯 나는 해에 제대했수다. 제대헨 결혼 한 스물 일곱에 헤가지고 그때부턴 열심히 뛰여도 밥 먹기가 힘들었습니다.
 104001 @ 아, 스물일곱 살부터 한 마흔 살까지는 계속.
 104001 #3 예.
 104001 @ 한 여섯 마리 정도예.
 104001 #3 예.
 104001 @ 겐 송애기 상.
 104001 #3 예, 교체허면서.
 104001 @ 계민 보통 세 살 난 걸 삽니까?
 104001 #3 예, 세 살.
 104005 @ 그럼 이 췌 나이를 어떻 세넛는지 알아지쿠과?
 104005 #3 예, 사릅 송애기렌 헤마씨?
 104005 @ 혼 살은 뭐렌 험니까?
 104005 #3 금승.
 104005 @ 금승.
 104005 #3 다간.
 104005 @ 다간.
 104005 #3 사릅 송애기.
 104005 @ 사릅 송애기. 그 다음 네 살은?
 104005 #3 네 살 나릅.
 104005 @ 나릅 다섯 살은 마씨?
 104005 #3 다섯 살은 혼, 나릅, 다섯 살은 뭐렌 굴앗신지?
 104005 @ 다습이렌 헛수과? 다습?
 104005 #3 예.
 104005 @ 다습, 으습?
 104005 #3 예, 경헤서마씨.
 104005 @ 예.
 104005 #3 경허난 난 한 나릅에, 다간에 사근에 사릅에 헤영 밧 ㄹ르치고 갈당 나릅, 다습 나는 해엔 풀아서마씨.
 104005 @ 아 계민 다간에, 두 설에 사는 거다예.

104005 #3 두 설, 세 설.
 104005 @ 다간, 사릅에 상.
 104005 #3 예.
 104003 @ 계민 슷쉐 샷수다예.
 104003 #3 예. 경혜근에 이제 집이서 정신 찰려근에 맥이게 뵈든 돈이 꽤 남아
 마씨.
 104003 @ 그 슷쉐면은 맛갈쉐로 산 거?
 104003 #3 예, 예. 겐 밧도 같고.
 104003 @ 아, 밧도 같고.
 104003 #3 밧도 같고 뭐 온갓 현다 허는 건 다 허는 거라마씨. 겐 념의 밧도 갈
 레 다니고.
 104003 @ 념의 밧도 갈레 다니고.
 102001 #3 예. 경헨 이제 혼 마흔 념도록 남의 집 살앗수다.
 102001 @ 음.
 102001 #3 마흔 뵈도록 남의 집 살아서마씨.
 102001 @ 음.
 102001 #3 겐 그렇게 허다가 병이 팍 나서마씨. 병이 팍 나가지고.
 102001 @ 아팍수과?
 102001 #3 예, 아파가지고 병원 생활도 여러 번 헛수다.
 102001 @ 어디 편찮으셔난 거마씨?
 102001 #3 저 바당에 간 그 고기 솝는디 같이 휘여 다니다가 저 폐종양 걸련.
 슷 다 먹어서. 그 시에 독립병원이 저 중앙로에 있어잖우과양? 거기 한 백날씩 입
 원허고.
 102001 @ 아이구.
 102001 #3 그렇게 허다가 이젠 도저히 살아갈 길이 엇언 막 병원 생활 허 땀
 저 몹쓸말로 죽어볼 생각도 많이 가졌고 경혜도 살고 봐야 뵈지 안 허까, 이렇게
 헤서는 안 뵈겠다 헤가지고 그때부터 막 결심해서 이것도 마흔 나는 해에 이녁집이
 엔 헨 샷수다.
 102001 @ 예.
 102001 #3 마흔 나는 해에.
 102001 @ 집 지어진 걸 그냥 산 거마씨?
 102001 #3 아니 아니. 초가집인디 도저히 일어가기가 힘들어 가니까 마흔에 상
 마흔 셋 나는 해엔 일본 갓다왕 집을 지엇수다.
 102001 @ 음.
 102001 #3 더프기가 곤란해 가지고.
 104002 @ 아, 초가 이는 게 힘든 거라예. 예. 췌 길르멍 췌도 영 종류가 이실
 거 아니예.

104002 #3 쉼도에.

104002 @ 털 색깔이나 뭐 뿔 모양에 따라.

104002 #3 예. 뿔 모양이나 저 색깔이나 양 계란 그 황소.

104002 @ 황소.

104002 #3 그 노란 쉼.

104002 @ 노란 쉼을 황소렌 해예.

104002 #3 예, 그 쉼만 쪽 길렀수다. 검은 쉼도 안 키우고.

104002 @ 예.

104002 #3 또 모양도 그 쉼 좋다. 영 헌 것에 딸라 부터서마씨. 좋다 허는 거에 딸라 부텅.

104002 @ 그럼 다간이나 사릅 쉼은 어디 강 사온 것과?

104002 #3 이 중간산 부락에, 이 부락에도 쉼 장시덜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저, 나 쉼 바꾸젠 험시메 어디 좋은 거 하나 봉가 읍서.

104002 @ 아.

104002 #3 경허민 느려와마씨 느려오민 그 사람네도 담배값이나 남아야 뭐 허는데 또 좋은 건 깎으지 안 허연 사서마씨.

104002 @ 경 질르기는 어떻든 황쉼을 질뤼신디.

104002 #3 예.

104002 @ 어쨌든 다른 이름덜은 영 들어나실 거 아니예?

104002 #3 예.

104002 @ 그 우선은 남자 쉼은 뭐렌 험니까?

104002 #3 부룽이.

104002 @ 부룽이?

104002 #3 예.

104002 @ 여자 쉼은?

104002 #3 암쉼. 암송아지, 숫송아지. 다간꺼지는. 두 설꺼지는.

104002 @ 아. 두 설꺼지는 암송아지, 숫송아지 허고 그 이후엔.

104002 #3 그 후엔 저 암쉼 암쉼엔 허고 또 숫송아지덜은 사릅, 나릅 영 해근에.

104002 @ 예, 숫송아진 부룽이렌 부르고.

104002 #3 예, 예. 이 금송, 다간꺼진 부룽이. 암송아지 이정도라양. 어린 소라 해가지고.

104002 @ 으. 케민 그 부룽이가 맞갈쉼과?

104002 #3 부룽이가 세 설, 네 설 나릅나는 해에 맞을 그르치는 거라.

104002 @ 아.

104002 #3 나릅 나는 해에.

104002 @ 예.

104002 #3 ㄹ르쳐근에 그때부턴 이녀 췌로 혜근에 한 일 년, 오래 길루면 이 년을 길뤄사.

104002 @ 예.

104002 #3 이 년 길루면 돈이 뽕직허면 교체허는 거라마씨.

104002 @ 예, 예.

104002 #3 교체해서 사릅 부롱이 어린 거 사다근에 잘 멕여근에 이젠 또 밧도 ㄹ르치고 영 혜근에 밧 갈아근에 이젠 혼 다섯쫘 뽕가믄 췌 안 풀쿠과 허민 또 풀고.

104002 @ 아. 그건 췌 장시덜이 와 가지고 풀쿠과 허는 거?

104002 #3 예, 예. 그럼 그 분덜도 상 가근에 또 념기는 거라마씨. 계난 좋은 췌는 상인이 많고. 또 어떻 몰멩허나 경헌 건 상인이 드물어마씨.

104002 @ 으.

104002 #3 경혜영 한 마흔꺼지, 마흔꺼지 허다가.

104002 @ 계난 아까 췌 종류가 숫췌, 암췌, 부렁이, 밧갈췌 그런 명칭덜이 잇고.

104002 #3 예.

104002 @ 털 색깔은 아까?

104002 #3 털 색깔은 황췌.

104002 @ 황췌.

104002 #3 검은췌.

104002 @ 검은췌.

104002 #3 또 득췌라고 푸리롱헌 검은 췌도 잇어마씨.

104002 @ 예. 저 득췌?

104002 #3 예.

104002 @ 득췌예?

104002 #3 예. 또 저 노랑허면서도 저, 노랑, 다 잇어불언네.

104002 @ 그 물에 막 줄무늬 잇는 것처럼 한 거 어럭췌렌 곱읍니까?

104002 #3 어럭췌. 노랑어럭췌.

104002 @ 노랑어럭췌. 아, 그걸 노랑어럭췌렌 곱읍니까?

104002 #3 예, 예. 어럭췌.

104002 @ 그거말고 또 엇수과 췌이름?

104002 #3 예?

104002 @ 그거말고 또 엇수과?

104002 #3 노랑 백췌, 얼룩베기췌. 노란 것에 이제 하얀 거.

104002 @ 예.

104002 #3 반 서꺼진 것이 싯수게. 췌 노랑얼룩췌.

104002 @ 노랑얼룩췌예?

104002 #3 예.

104002 @ 그럼 빨모양 보민 영 올라간 건 뭐렌 골옵니까?

104002 #3 천상, 영 올라간 건 천상빨.

104002 @ 아, 천상빨.

104002 #3 또 영 앞더레 영 현 건 골체빨거치 앞더레 모양 좋게 휘여지는 췌가 잇주게.

104002 @ 예, 예.

104002 #3 경허든 빨이 호미자룩거치 호미같이 이렇게 앞더레 들앙 딱 보기 좋다 허여근에.

104002 @ 아, 그럼 그런 췌를 따로 불르는 이름은 엇고.

104002 #3 따로 불르는 이름은 모양이 좋덴 허지. 세부적인 건 모르쿠다. 하하.

104003 @ 아, 예. 그럼 췌는 뭐 혈 때 이용합니까?

104003 #3 췌는 첫째는 농서 짓는 사름은 밧 갈기 위해서 우선은 그 당시만 해도 기계가 안 나온 때니까 농서 짓는 사름은 필히 밧을 갈기 위해서.

104003 @ 예.

104003 #3 또 놉 빌영 갈젠 허민 이 샅품이 비쌌주게. 게난 밧갈기 위해서, 이 농서 짓길 위해서 이 췌 사름에 사당 나릅에 그르치민 자기 농서도 짓고.

104003 @ 예.

104003 #3 또 어디 강 밧 갈아주민 일도 왕 허여주고. 영 수눌어 가면서 허면 좀 편리도 허고. 이렇게 헤근에 쪽 농촌에서 살아십주. 허다가 예, 한, 이 뭐 기계 나온 지도 한 삼십 년.

104003 @ 삼십 년.

104003 #3 예, 이 정도일 겨우다. 게난 삼십 년 전후우다.

104003 @ 그 전에는 췌로 행, 췌 밧 갈젠 허민 뭐 이영 혈 것과?

104003 #3 췌 밧 갈젠 허민 쟁기.

104006 @ 그거 쟁기를 여기서, 고내리에선 뭐렌 골앗수과?

104006 #3 쟁기렌 험니다.

104006 @ 쟁기렌 헛수과?

104006 #3 예, 또 여기 그 멩에 영 헤여근에 모가지 영 현 건 접괘, 췌 접괘.

104006 @ 췌 접괘. 여기 멩에에 영 휘여진 걸?

104006 #3 예, 휘여진 거 췌 접괘.

104006 @ 예.

104006 #3 또 일로 줄로 헤여근에 뒤에 강 영 허는 건 송비줄.

104006 @ 송비줄? 어, 안 들어 봐난 겨우다. 송비줄?

104006 #3 예.

104006 @ 잠깐만예, 송비줄. 그럼 이거 하나 보여드리쿠다. 이거 밧 가는 거잖아예. 어느 걸 송비줄?

104006 #3 이걸 전체 송비줄이엔 협주. 요꺼지가.
104006 @ 아.
104006 #3 요꺼지가 요거 다 통틀어서.
104006 @ 예.
104006 #3 요것이 접레고.
104006 @ 잠시만예. 예, 골아줍서.
104006 #3 요것이 멩에에 영 내려왔수게양, 양쪽으로.
104006 @ 예.
104006 #3 요건 접레고.
104006 @ 어디 여기가?
104006 #3 아니, 아니. 요 나무가 잇수레.
104006 @ 아, 나무, 나무.
104006 #3 요거양.
104006 @ 예. 오리목은?
104006 #3 오리목은 요걸 오리목이렌 협니다.
104006 @ 아, 여기 끝에.
104006 #3 예. 쟁기에서 연결시키는 이걸 오리목이엔 허고 이건 접레.
104006 @ 접레.
104006 #3 예. 낭으로 영 헤영 모가지에 영 허여야 이디 걸어져야 소가 이거 힘으로 쪽 멩경가른 빛이 갈아지게 돼주.
104006 @ 예.
104006 #3 이것 엇이든 췌가 그대로 나가 뵙니다.
104006 @ 나가 부는 거라예.
104006 #3 예, 예. 경허고.
104006 @ 게민 이 접레는 무슨 낭으로 만듭니까?
104006 #3 윤노리.
104006 @ 윤노리낭예?
104006 #3 예, 윤노리.
104006 @ 잘 휘여지는 걸로 헤야 뵈 거 아니예.
104006 #3 예, 예.
104006 @ 윤노리낭.
104006 #3 윤노리낭도 허고 또 저 개불낭.
104006 @ 개불낭?
104006 #3 예, 예.
104006 @ 아, 그걸로 만듭니까?
104006 #3 예, 그걸 허고 요거 끝나면은 요 알로 노끈네기 헤근에 영 뵈어나십주. 영 헤게뵈든 일로 빙빙 감양 허당 거 풀러근에 이건 따로 개고 쟁긴 쟁기대로

허고 또 이 줄은 이거 영 심어둠수루 영 좁아텡기민 소가 이레 오고 이레 허민 이레 오고 허는 건 가르석.

104006 @ 가르석.

104006 #3 예, 가르석.

104006 @ 예, 예 가르석.

104006 #3 양쪽에예.

104006 @ 줄예, 케니까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104006 #3 예.

104006 @ 좁아텡길 때예.

104006 #3 거 왼쪽으로 돌리고 싶으면 왼쪽 잡아텡기고 오른쪽이로 돌리고 싶은 오른쪽으로 좁아텡기고 그렇게 해서 허기 때문이 이건 가르석이고 이건 쟁기 고양.

104006 @ 예.

104006 #3 영혜근에 갈다근에 영 삼십 분 이상 갈아가든 흐쉴 흐 십 분 쉬어서 헤여마씨.

104006 @ 예.

104006 #3 흐 번에 계속 갈진 못 헤여마씨.

104008 @ 이 멩에는 무슨 낭으로 만듭니까 보통?

104008 #3 예, 보통 그 오동낭양.

104008 @ 오동낭, 멩에는.

104008 #3 오동낭이나 저 노가리.

104008 @ 노가리?

104008 #3 예, 노가리 멩에나 오동낭이나 그걸로 헤마씨.

104008 @ 음, 케민 여기는 아까 접레고 이 줄은 가린석이잖아예.

104008 #3 예.

104008 @ 요거 요 등에 멘 벳줄은 뭐과?

104008 #3 이건 저, 이거 전체는 송비줄이고.

104008 @ 예, 전체는 송비줄.

104008 #3 이것은 등, 다 잊어불언 모르쿠다.

104006 @ 아, 예 알앗수다. 이거는 고내리에서는 쟁기렌 굴은덴 헤서예.

104006 #3 예, 쟁기마씨.

104006 @ 케민 여기 명칭덜 알아지는 거 글아줍서.

104006 #3 이, 이건 저 무꿀.

104006 @ 아, 이거는 무꿀? 몽클 아니고 무꿀?

104006 #3 예, 무꿀.

104006 @ 예.

104006 #3 무꿀이고 이것은, 예, 모르쿠다 이것도. 이건 손잡이, 손잡인데.

104006 @ 손잡이예?
104006 #3 아, 이건 성에, 성에.
104006 @ 예.
104006 #3 성에, 성에.
104006 @ 성에예, 긴 게 성에예?
104006 #3 예, 성에고 이것도 별도로.
104006 @ 이거 양짚머리렌?
104006 #3 예, 양짚머리.
104006 @ 아까 여기가 오리목이라고요?
104006 #3 여기서, 요것에서 요레 저 오리목을 끼웁주게.
104006 @ 아, 끼우는 게 잇수과?
104006 #3 예, 요디도 요만이 낭이 셔마씨양.
104006 @ 예.
104006 #3 낭이 시면은 이게 줄이 영 돌아벤 걸 이레 와근에 딱 무꺼마씨.
104006 @ 아.
104006 #3 무꺼야 똥기지 그대로는 똥기질 못 험주게.
104006 @ 예.
104006 #3 게난 건 오리목이엔 허고 이거 전체는 솜비줄이엔 허고 성에, 무클,
이건 저.
104006 @ 양짚머리.
104006 #3 양짚머리. 요건 보섭.
104006 @ 보섭, 요건?
104006 #3 이건 벳.
104006 @ 벳. 여기 기울이젠 영 설치허는 거 잇수과? 작데기 끼우는 거?
104006 #3 예, 벳칼.
104006 @ 벳칼.
104006 #3 예.
104006 @ 게민 이 벳 각도를 조절허젠 딱 끼우는 거예, 밑에?
104006 #3 예, 예. 경허난 이디 벳줄이라고양.
104006 @ 예.
104006 #3 요만썸 이제 그 벳 뒤에 군기가 요만썸 시난 노가 두 개 잇수다. 두
개 시든 그 벳칼로 그걸 조정행 요레 깎고 요레 맞추와근에 영 헤근에 딱 영 허든
손 보기 전엔 안 풀어져마씨.
104006 @ 아.
104006 #3 게난 이젠 뭐 이런 것도 다 옛날.
104006 @ 그니까. 요 부분을 곁으는 거 잇수과?
104006 #3 예, 것도 잇는데.

104006 @ 설치? 아니?

104006 #3 예, 설치가 아니고 거 뭐.

104006 @ 알았수다. 기억나는 거만예. 혹시 췌예, 췌를 밧 갈 때도 씻주만은 짐 시끌 때도 써낫지 안 헛수과 췌예?

104006 #3 예, 예.

104007 @ 등에 짐 시끌 때?

104007 #3 예, 예.

104007 @ 그때는 우예, 췌 우예 뭐 써웁 허지 안 허여?

104007 #3 저.

104007 @ 질메?

104007 #3 질메. 하하하. 잘 알암신게마씨.

104007 @ 질메에서 불러난 이름 같은 거 생각나는 거 잇수과?

104007 #3 질메, 다 잇어불언.

104007 @ 잇어불언예. 예, 예 알았수다. 멩예에도 부분 멩칭이 잇을 건디예?

104007 #3 아까 멩예마쭈?

104007 @ 예, 아까 멩예에도. 영 허면.

104008 #3 이건 접케. 이건 멩예양.

104008 @ 예.

104008 #3 이 낭만 멩예.

104008 @ 예.

104008 #3 이건 저 송비줄.

104008 @ 예.

104008 #3 이것도 더러 뭐 잇었는디 잇어불언 모르쿠다.

104006 @ 아, 여기 이 낭을?

104006 #3 이 낭을. 양깃머리, 무클, 성예, 보섭, 벳.

104006 @ 이 낭을 오리목이엔 부른 거 아니예?

104006 #3 이 줄, 이 줄.

104006 @ 아, 이 줄을.

104006 #3 이건 빛이렌.

104006 @ 고들게?

104006 #3 고들게 아니우다.

104006 @ 고들게 아니라마씨. 이 줄을 오리목이렌 해서.

104006 #3 오리목, 오리목. 게난 이것도 저 고지 강양. 소리낭 꺾테기.

104006 @ 소리낭 꺾테기?

104006 #3 예, 소리낭 꺾테기 영 베끼고. 그걸로 허면 비 올 때 비 맞아도 오래 가고 허니까 그걸로 헤근예 노인덜 헤근예, 그 막 아이덜 시키고 헤근예 영 호렝이 닳은 걸로 노 꼬아근예 드러근예 험주게.

104006 @ 예.

104006 #3 탄 거는 그 당시만 해도 나일론 끈이 엮이니까 질긴 것이 엮어마씨.

104006 @ 음.

104006 #3 그런 걸로 허면은 오래 가지 안 허여. 이걸로 허니까 허주. 글후에는 저 남총 그런 걸로 해서 또 드러서 허고.

104006 @ 그 남총을 흰 게 멧 살 때쯤이랏수과?

104006 #3 예, 남총은 한, 나가 알기로는 한 서른예.

104006 @ 그때 남총낭으로.

104006 #3 예. 그때 해서 남총 헤다근에 또 드러가지고 이거 허고 그런 정도라 서마씨.

104006 @ 예.

104006 #3 또 이 보섭은 한 해내지 두 해 쓰면은 몽글아불어 마씨. 게민 교체해야 허여. 교체해야 허고 이 벧은 얼른 다이지 안 허니까 흰 대 쓰고 또 물려주는 사름도 있어마씨.

104006 @ 아, 게민 보섭은 물리는 거 아니과?

104006 #3 물리는데 흰 해, 두 해쯤 쓰면 바파사 허여. 뭐 땅이 세부난게 땅 들 에도 박치고 막.

104006 @ 맞아, 맞아마씨.

104006 #3 몽글아부난.

104006 @ 계난 요거는 막 대 물리멍 오래 쓰는 건데, 보섭은 경 허는 거마씨?

104006 #3 예.

104006 @ 이 잠대 만들 때 이 나무덜은 이걸 보통 나무로 다 헷던 거라예.

104006 #3 이걸 보통예. 저 소리낭, 굴무기, 먹사오기 그런 걸로 허여야 이 춤낭 이 웨여서 길다 허기 때문에 잘못 허면 일로 잘 나가불어마씨.

104006 @ 깨져?

104006 #3 깨져불어. 허기 때문에 그런 낭이로 허고, 이것도 그런 낭이로 허연 소낭 같은 건 오래 가질 안 허난.

104006 @ 아.

104006 #3 무쿨, 성에. 이것도 알아짐직 헨디 모르고.

104006 @ 설칫 아니과? 설칫?

104006 #3 설치렌 허는가 맞는 거 같수다. 또, 또 요 꼬트머리에 요 흰 낭이 잇 수다.

104006 @ 이거 돌벵이빨 아니?

104006 #3 하하, 돌벵이빨.

104006 @ 그지예, 나무 영 요만허게 나온 거.

104006 #3 계난 줄이 이디 왕 무끄게 돼 잇수게.

104006 @ 아. 계난 이걸 어쨌든 줄 걸리젠 허는 용도구나예.

104006 #3 걸러근에 이 후로 흔 번 무꺼사.

104006 @ 예.

104006 #3 돌벙이뿔 무끄는 줄 헤영.

104006 @ 예, 예. 게난 쉼 질루멍 영 기억나는 일이 잇수과?

104010 #3 기억나는 일은예. 그 옛날에는 할로산에 사계절 낱 내부는 소가 잇어 마씨. 그 저 드룻소.

104010 @ 드룻소.

104010 #3 보통 여기 사름이 길르는 소허고 성질이 틀러마씨. 워 저 사냥개 닭 아마씨. 그 쉼 성질이. 경허난 그런 쉼덜토 또 여기 사다가 잘 길러서 잘 그르청 허 른 밧도 잘 등기고 큰 쉼가 뵤는 수가 잇어마씨. 그제 좀 싸마씨.

104010 @ 음.

104010 #3 겐디 그런 소덜이 잘 못 다니당은 사름이 하나 죽는 건 문제 아니라 마씨. 막 사골 일으켜마씨. 그대론 천냥만냥 사름 가가민 돌아나불고. 줄 꼬창 돌아 나불고예. 그렇게 허기 때문에 그런 산쉼, 드룻소 그 밧엔 헤낫는데.

104010 @ 그런 소들은 아예 방목행 내부는 거라?

104010 #3 방목행 내부는 거.

104010 @ 집이서 쉼 키울 때 여름에 방목은 안 헤 낫수과?

104010 #3 방목 헤마씨.

104010 @ 어느 기간에?

104010 #3 방목은 언제 허는고 허민 오월 그물믄 이제 농서가 다 끝나마씨. 끝 나면은 오월 흔 스무닷새부터 유월 초, 음력으로 초 닷새 사이에 어느 목장, 고넌 이제 산 일번지 허면 산일번지에 이제 그 고내리 이제 그 칠신이 고내 구역에 고내 목장이 잇기 때문, 마을에서 운영허는 목장이 잇기 때문 거기 강 이제 소 봐 줄 사 름이 나타납니다.

104010 @ 음.

104010 #3 경허민 한 해 사십일 내지 오십일 길루는 샳 받젠, 샳 받젠 헤근에 몰아가면은 거기서 인수 받아근에 거기서 고내부락 한 이천 평, 삼천 평 현디 담이 이렇게 쌓여 잇어양.

104010 @ 음.

104010 #3 게민 그 지경 매날 돌면서 그 쉼 파악하고 또 그 자연이 잇주만은 물통이, 소 맥이는 물 파가지고 번번허게 해서 그 물도 먹엄사 안 먹엄사 허고.

104010 @ 음.

104010 #3 또 경허는 동안에 두 덜을 키우는데 대부분은 소 임제덜은 흔 덜썸 웨민 영 보레 가마씨.

104010 @ 쉼 보레.

104010 #3 쉼 동태가 어떻험신고 해서. 가다가 이제 나도 한 열, 열일곱, 열으덜 썸 뵤 땀디 아부지가, 나가 셋아덜입주.

104010 @ 음.

104010 #3 셋아덜이난, 셋놈아 붉아가건 저 산물번지 강 췌 강 뺑 오라.

104010 @ 아.

104010 #3 영 허는 거라마씨. 그뎨 또 유월에는 방에 안 해서 더우니까 마당에 잡니다. 명석 깎아근에.

104010 @ 예, 예. 맞수다, 맞수다 명석 깎앙.

104010 #3 자는디 시계도 엇고 현 때 자단 벌떡 일어나니까, 아이고, 아버지 췌 강 뺑 오렌 헛는데 간다고 그대로 혼자 뛰는 거라마씨. 혼자 뛰는데.

104010 @ 몇 시 뵈 줄도 몰랑?

104010 #3 예. 그 대략 길은 쪼끔 아는 거라마씨. 아는디 여기서 산물번지 가젠 허른 한 육, 칠 키로 뵈 거우다.

104010 @ 산물번진 어느 지경이과?

104010 #3 저 상가 알아마씨?

104010 @ 예.

104010 #3 그 우에 쪽 올라간 디라마씨.

104010 @ 아.

104010 #3 어디 그 큰 바람에 앞췌 뵈지 안 허카 허는데.

104010 @ 예.

104010 #3 한 번은 이거 우스운 말이우다만은 뛰어가단 보난양 가시왕 트멍에 들어가전. 붉기 전에양.

104010 @ 음.

104010 #3 붉앙 보난 그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가시 뵈디 들어강 그런 고통도 겪은 적이 잇엇수다.

104010 @ 하하.

104010 #3 경허난 붉으난 갓다 완 아버지신디 말씀 드리고 경헤낫수다.

104010 @ 아, 예.

<중략>

104004 @ 췌 뵈 밧 갈젠 허민 질들여야 헐 거 아니마씨?

104004 #3 예, 예.

104004 @ 계난 아까 사릅 뵈 뎨 연습을 시키잖아예.

104004 #3 예.

104004 @ 계민 췌 밧갈췌로 키우젠 질 들일 뎨 어떻 허뎨마씨?

104004 #3 잘 물엿수다. 허게 뵈민 사릅에 사다근에양 겨울에 콩죽 쓰면서 메틀 한 보름간 한 멧사발씩 맥입니다. 그럼 나릅나는 달 한 삼월췌 나민 풀 맥이민 췌 가 막 할랑할랑 허게 살췌니다.

104004 @ 예.

104004 #3 경헤근에 밧 갈아짐직 허른 췌 이제 꼬 뵈뵈니다.

104004 @ 음.

104004 #3 말을 안 들으니까 코를 께마씨. 나무에 돌아메근에 맥바농 갖다근에 이제.

104004 @ 맥바농으로?

104004 #3 맥바농이로 이제 끄내기 헤근에 콜 께마씨. 콜 께근에 이젠 영 헤근에 놓 허는 거 보아다근에 영 허믄, 이젠 쉼 그르치젠 허믄, 아무것도 안 헤도 사름도 국민학교 가젠 허믄 아무것도 안 헤 나니까 사름도 서툴지 안 험니까?

104004 @ 예.

104004 #3 쉼도 마찬가지로.

104004 @ 예.

104004 #3 마찬가지로 이제, 멍엔 그건 다 가트고 이 쟁기만 이젠 그 저 오리목에 돌을 요만이 험 거 헤가지고 험 사름, 험 좋은 사름 실을 정도로 그것에 돌에 균길 딸라마씨.

104004 @ 음.

104004 #3 균길 딸라가지고 베로 영 걸어근에 그 오리목에 헛다가 걸어마씨. 걸어근에 이젠 쉼을 몰면은 쉼이 제멋대로 하늘꺼지 들려켜마씨. 경헤근에 험 사름 허믄 쉼이 차분허게 누그러져마씨.

104004 @ 음.

104004 #3 누그러진 다음은 나무를 두 발 정도 툴 거 이만이 살진 거예.

104004 @ 예, 예.

104004 #3 그걸 메와가지고 그걸 헤근에 허면 험 사름 간 께읍니다. 게민 쉼이 이제 막 어느 정도 질들어 가.

104004 @ 아.

104004 #3 질 들어 가근에 어질고 헤여가믄 이젠 쟁길 메와가지고 단 번에 곧장 안 갑주게. 경허민 이제 집이 사름 보고 쉼 이끌라고 말이지. 쉼 뿔에 석 끼와가지고 영 줍아댕기믄 쉼이 그대로 갑니까? 안 가지. 이레도 갖당 저레도 갖당허믄 이레 가져 허믄 가린석 이쪽 줍아댕기곡 이쪽 허면 이레 줍아댕기곡 그렇게 허면서 한 삼, 사일, 한 오일 헤가믄 영 쉼도 눈치 알아가지고 사름 앞이만 사도 딸라가마씨.

104004 @ 아.

104004 #3 딸라가다근에 이제 일주일, 열흘 뉘가민 사름 없이 헤도 밧 영 허민 고지 터 가민 돌아올 뉘 또 그 고지 터 간 것이 검영허지 안 험니까?

104004 @ 예.

104004 #3 그 줄기로 어느 정도 따라 다녀마씨.

104004 @ 아.

104004 #3 경허영 험 열흘 정도 뉘민 어느 정도 소소헌 밧은 값 시작허는 거라 마씨.

104004 @ 계난 처음에는 쟁기 안 메왕 오리목에 돌 없엉.

104004 #3 돌 그 다음은 나무. 웨 그런고 허게 웨믄 그 어린 송아지덜 그런 거 허게 웨믄 막 천냥만냥 들러킵주게.

104004 @ 예.

104004 #3 계난 쟁기 메우민 들러퀴멍 부수와불어. 계난 낭 헤서 펠 대로 뛰라 허는 겁주게.

104004 @ 아, 예.

104004 #3 계난 처음엔 돌 메왕 흔 이틀 허당 그 다음 낭 메왕 흔 사흘 허당 그 다음은 쟁기메왕 이끄꼭 헤근에 좋은 밧디 강 값 시작해십주.

104014 @ 쉼 나이가 잇어나신디, 혹시 몰도 나이가 이신 거 알아지쿠과?

104014 #3 몰은 잘 몰라마씨. 몰은 뭐 '수'자 붙엉.

104014 @ 이수, 삼수.

104014 #3 예, 예 그런.

104014 @ 금숭은 같고예. 이수, 삼수, 사수.

104014 #3 예, 예. 그 안 길좌나불기 때문에 그 잘 모르쿠다.

떡이

104016 @ 그럼 쉼 질룰 때 떡이는 어떤 거 헤낫수과?

104016 #3 떡이는 이제 팔월 추석 웨지 안헛니까예. 이제 팔월 추석 웨면은 그 빨리 চল리는 사름은 추석 스시부터 입추 칠월절 들어근에 헤가민 산에 가근에 자기 출왓 십니다게.

104016 @ 음.

104016 #3 출왓 가근에 비여근에, 늣 빌엉 가근에 비여근에 흔 댓씩 빌어근에 비여근에 아침에 가믄 점심 맥이고 헤근에 비영 거기 이제 몰류왕 무경 놀엇당 이젠 시꺼당 집이 왕 따시 놀 누는 거라마씨.

104016 @ 음.

104016 #3 놀 놀어듬서 흔 못씩 영 빠멍 주는 거라마씨. 경허면서 이젠 또 경헤 노민 웨비가 이제 많이 나올 거 아니과?

104016 @ 예.

104016 #3 계민 웨비도 이제 흔덜에 흔 번은 내영 어드레 데멧당, 그거 헤근에 이제 농서 질 때 밧디 시꺼 가간에 저 가고, 시꺼 가간에 쉼로 이제 저 질메 지와 근에 시꺼가고 경 헤근에 농서 짓고.

104016 @ 음.

104016 #3 경허난 쉼 길루젠 허민 그 출 헤 들이는 거양 그것도 보통일이 아니 우다.

104016 @ 보통일 아니라예.

104016 #3 보통일이 아니우다.

104018 @ 그 출 허젠 허민 이젠 팔월? 음력 팔월 웨민 비레 갈 거라예?

104018 #3 예, 예.

104018 @ 눅 빌영 가는 것과?

104018 #3 눅 빌영 가는 거. 겨난 쪼금 현 거 허주만은 경 안 현 건 눅 빌영 안 가게 웨민. 경허당 비가 맞아볼게 웨민 그것이 터불어마씨. 게민 쉼가 안 먹어.

104018 @ 아.

104018 #3 경허난 날 좋은 때에 일기 잘 들으면서 오닐 비면은 널, 모리는 무끄는 거라마씨. 거 저 하늬브름 올라오기 전이.

104018 @ 그럼 한 이틀은 물리는 거다예.

104019 #3 예. 혼 사흘 물라와근에 허른 확 눅 빌영 강 무꺼근에 거기 늘어 두는 거라.

104019 @ 예.

104019 #3 지금 가트면 구루마 이제 차거튼 거 시난 확 시꺼당 늘어 불민 웨는 디 그 당시만 해도 차가 잇수과게. 쉼에 질메 지왕 가근에 출 시경 운반허는 사람. 또 대부분 그거라마씨 쉼 해근에.

104019 @ 예, 예.

104019 #3 그 당시엔 니야까, 구루마 그런 것도 엇고.

104018 @ 게민 출 비젠 허민 뭐로 빌 것과?

104018 #3 호미로게.

104018 @ 여긴 낮 안 헛수과?

104018 #3 호미, 호미.

104018 @ 게니까. 호민 산디 비는, 보리 비는 호미 얘기 허는 거 아니?

104018 #3 예, 예.

104018 @ 그거말고 긴 낮 안 췌수과?

104018 #3 육지는 어떻 헤는지 여기 다 이런 거게. 영, 영.

104018 @ 게민 그 출 비는 거 남자, 여자 상관 엇갓다예.

104018 #3 상관없이게 눅 빌영 가고.

104018 @ 그럼 어무니도 ㄹ치 출 비어나고마씨

104018 #3 ㄹ치 강 비주 거 어떻힙니까?

104018 @ 저가예, 저가 원래가 고향이 한동이우다. 구좌읍 한동마씨.

104018 #3 아, 예.

104018 @ 겨난 우리도 쉼 한 일고, 여덟 개 질화신디 우리는 여자는 출 안 빙니다. 남자덜이 낮 가정 삭 비영 허민 여자덜이 거 가가지고 무끌 때만 헤가지고.

104018 #3 여자덜이 무경? 무끄는 건?

104018 @ 예. 무끄고, 날르고 놀 때만 아버지가 가 가지고 놀고예. 여자덜이 다 무경 날랑 올려주민.

104018 #3 아, 예.

104018 #4 우리는 늪 빌영 강, 아침 혼 으섯 시 돼민 걸영 저 땅 동산이엔 현 디 저 옷드르레 가는 디 저 땅 동산이엔 현 디 걸영 강 호미로 다 비엿주게.

104018 @ 호미로 다 비엿던 거라예. 게민 물르민, 출 비여난 거 혼 사흘 물류왕 무끈덴 헛잖아예?

104018 #3 예.

104018 @ 무끝 때는 뭐로 무릅니까?

104018 #4 아, 그걸로, 그걸로.

104018 #3 출로. 출로 영 헤영.

104018 @ 지께 헤가지고예.

104018 #3 예, 예.

104018 @ 게민 보통 하루 가민 혼 사름이 몇 못 정도나 비여집니까?

104018 #3 글썸예. 저 뭐.

104018 #4 서른 못이 혼 바린가, 멧 못이 혼 바리라.

104018 #3 예순못, 예순못.

104018 #3 예순못이 혼 바리라.

104018 @ 아, 여기 못, 못 쪽다예.

104018 #4 예, 요만씩.

104018 @ 아, 요만씩베끼 안 헤. 겐 예순못이 한 바리라?

104018 #3 예.

104018 @ 아, 쪽구나.

104018 #4 게민 한 두어 바리 비는가?

104018 #3 두 바리, 두 바리.

104018 @ 아, 완전 쪼그만 허게 무끄는구나.

104018 #4 혼 요만씩 헤여. 석 줌, 석 줌 헤여근에.

104018 @ 게민 요만씩인게.

104018 #4 이레 석 줌, 이레 석 줌 헤여근에 그 출로 영 데왕 무끄젠 허믈 경 하영 무꺼져게. 그 비여 논 걸로 영영 헤근에 무끄젠 허믈 하영 무꺼져게. 하영 못 무끄주게.

104018 @ 아, 하영 못 무꺼?

104018 #3 그것에서 쪼금 긴 걸로 영 데와근에 허믈.

104018 @ 예, 예.

104018 #4 경허여.

104019 @ 게민 이제 다 무경 모다지난 늘 늘 거 아니예. 늘 늘민 더프는 건 뭇 로 덮어? 영 지붕을 만들어야 헐 거 아니?

104019 #3 예, 예.

104019 #4 그때는 어욱.

104019 @ 어욱.

104019 #4 으, 어욱 비영 낫당 걸로 더끄는 거.
104019 #3 또 저 느람쥐라고양.
104019 @ 예.
104019 #3 새로 영.
104019 #4 건 집이 왕 헐 거고 밧디서는 그냥.
104019 #3 어욱 밧디선.
104019 @ 느람쥐, 출 놀도 느람쥐로 험니까?
104019 #4 느람쥐로 더끌 거.
104019 #3 밧디서는 주로 어욱 비여근에 주로 더퍼듭니다. 어욱 비여근에.
104019 #4 건 밧디서 더플 때 경허고 집이 오라근엔 새로 허곡게.
104019 #3 새로 느람쥐 여경 낫당.
104019 #4 여경.
104019 @ 게민 출 놀이 막 크지 안헐수다예?
104019 #3 아이, 크는 집인 커마씨.
104019 @ 게민 막 큰 디로 느람쥐로 다 더꺼져?
104019 #3 으, 다 느람쥐.
104019 #4 흔 두 판이 세 판이 헤여근에. 것도 새 두 못 정도 허믄 흔 판이. 크면은 많이 더끄고.
104019 @ 흔 판이 허민 어느 정도 헐 것과?
104019 #3 새를 두 못 정도 허면 느람쥐를 여끄주게. 여기서거트민 새를 영 헤근에 영, 영 여꺼 가는 거라.
104019 @ 예.
104019 #4 그추룩 헤여근에 허믄 흔 두 못헤사 흔 판이렌 험니까?
104019 #3 두 못 헤사 흔 판이.
104019 @ 이렇게?
104019 #4 이만이 셋뭇은 이만이.
104019 @ 아, 셋뭇은 이만이.
104019 #4 으.
104019 @ 게민 셋뭇은 몇 뭇이 흔 바리라?
104019 #4 건 바리 엇어.
104019 @ 건 바리 엇어마씨.
104019 #4 건 뭇, 뭇 뭇.
104019 @ 이만이 헐 게.
104019 #4 흔 뭇. 거 두 개 정도.
104019 @ 두 개 정도 허면 영 여끄면 질게 한 요 정도 뤼짚다예?
104019 #4 더 뤼주게, 한참.
104019 #3 흔 너 발.

104019 @ 너 발?

104019 #4 너 발이 무시거라게. 우리 이디서 허민 저 마당까지 가주.

104019 #3 흔 너 발, 닷 발썸 헤여마썸. 출 놀이 클 때는 흔 두 번은 돌아오주게.

104019 @ 아.

104019 #4 두어번 돌아야 헐 거주게 큰 놀도.

104019 @ 게민 여기 췌 하영 질루는 집도 놀은 다 동글랑 허게 만들앗구나.

104019 #3 예, 예.

104019 #4 으, 그걸로. 막 큰 놀은 흔 세 판이도 더끄곡, 두 판이도 더끄곡 새 두 못 헤영 흔 판이 만들영. 경헌디 췌기는 흔 이만씩베끼 안 죄여.

104019 @ 알아지쿠나 한 이만씩. 요 정도민 한 번 꼬으고.

104019 #4 한 번 꼬으고 또 한 번 꼬으고. 겐 이것이 메기면 또 잇어근에 또 흔 번 꼬으고.

104019 @ 예, 경 다 느람쥐 더프는 거군아.

104019 #4 으, 느람쥐 만들양 출놀 더프는 거.

104019 @ 출놀 더프는 거예.

104019 #4 으, 경허연 옛날엔.

104019 @ 경헨 아까 췌에 질메 정 시꺼올 때는 몇 못씩 시꺼 와서?

104019 #3 주로예, 한 쪽에 서른 못 정도 헤근에 저 흔 바리.

104019 @ 육십 못?

104019 #3 예, 육십 못.

104019 @ 게난 육십 못이 흔 바리였던 거라예, 못 쯤그난예.

104019 #3 예, 예.

104019 @ 경헨 집이 왕 놀영 느람쥐 더경 그거 하나씩 빼멍 먹었던 거.

104019 #3 예, 예.

104020 @ 그 출 말고 췌 또 뭐 맥엇수과?

104020 #3 췌 게난 그 옛날도 감제 싱것거든예.

104020 @ 예.

104020 #3 감제줄 몰라다근에 것도 해당 늘어듬서 쯤금씩 빼멍 맥여마씨.

104020 @ 아, 감저줄도 늘어마씨?

104020 #3 예.

104020 #4 감저를 많이 싱것지.

104020 #3 또 콩각지.

104020 @ 콩각지. 조 헐 땀 조코고리 툃아근에 거 들방에 강 둘러나른 이제 조코고리 대만 신 거, 조풍뎡이. 그건 곡석이 쯤 한 방울씩 부트난 잘 먹어마씨.

104020 #4 게, 조침허고.

104020 @ 출은 영 썰영 메역나진 안허고?

104020 #3 글후제 그것이 들어와서마씨. 글후에.
104020 @ 아.
104020 #4 무시거?
104020 #3 출 썰영 작두로.
104020 @ 작두로.
104020 #3 그것이 중간에 들어와서마씨.
104020 @ 중간에 아.
104020 #3 나가 이제까지 얘기 현 건 옛날 시절이고.
104020 @ 옛날에.
104020 #3 그 후로 출을 작두로 썸 시작허난 기계가 착착착착.
104020 #4 뭐 사료도 나오고, 뿔도 나오고.
104020 @ 아, 예.
104020 #3 나오는 것이 하나 둘, 하나 둘 나옴 시작허니까 딱 이렇게 발전 돼서 마씨.
104020 @ 아. 계민 이젠 출 비레 땡기명 기억나는 일 잇수과?
104020 #3 멧질 때 뉘 가문 출도 묵은 출 없지. 또 멧질날은, 떡 허는 날 허고 멧질날은 논텐 허지 옛날도 논텐 허니까 쉼가 집이 한 마리, 두 마리 신 사름은 집 이서 이제 메여둬서 출을 비여들이는 거라. 풀출로 퍼렁헌 거.
104020 #4 멧질 때 혼 이틀 놀 거난 비여단 놆 뉘주게.
104020 @ 아.
104020 #3 경허난 쉼 하나가 하루에 한 다섯 못 먹넨 허믄 열 못, 혼 두 짐은 비여와야 뉘. 계난 쉼가 두 마리면 혼 서넉짐은 미룻에 비여다가 재경 놉뉘. 계민 영 바근에 출 어디 좋아서라 허민 놉의 밧디 도둑질 행 오는 거라. 하하하.
104020 @ 아.
104020 #3 경도 해낫수다.
104020 @ 예, 예. 그럼 일 년에 쉼 한 마리 맥이젠 허민 출 몇 마리 정도 필요 허과?
104020 #3 출이 한.
104020 @ 집에 메는 기간이 얼마나 뉘니까? 두 달만 빼고 다 집에 메는 거 아 니 여기는?
104020 #3 예, 정월 그물영 음력으로 정월 그믐이니까 이월덜 뉘 거우다.
104020 @ 예.
104020 #3 그때꺼지는 집이 메고.
104020 @ 집이 메고.
104020 #3 출은 팔월에 비는데 시월, 시월 한 보름쯤 뉘가민 들여놉마씨. 그 전 에는 이 농서덜 저난 밧디 예염에 뉘 먹을 거 잇다 해서 영 가을에도 밧디덜 놓고 허다가.

104020 @ 아, 맞디.
 104020 #3 또 음력으로 한 시월 보름 돼가민.
 104020 @ 추워 가민.
 104020 #3 추워 가민 들여 메마씨. 경허민 십일월 보름 십이월 보름, 정월 보름, 이월 보름, 한 녀달정도는 집이서예.
 104020 @ 집이서예. 녀달 정도 집이서 멜 때는 어쨌든 출 맥여야 될 거 아니.
 104020 #3 예, 출 맥여야.
 104020 @ 게민 그거 허젠 허민 혼 몇 바리 정도.
 104020 #4 아메도 쉼 하나가 혼 으섯 바리.
 104020 #3 여섯 바리, 일곱 바리 양. 겨난 쉼가 두 마리 멜 때는 한 열댓 바리 혜사 아 금년은 쉼 출은 풍부허켜 이 정도라마씨.
 104020 @ 게민 삼백육십 못 정도 돼쿠다예?
 104020 #3 예.
 104028 @ 쉼은 이 정도 허고 혹시 사농헛수과, 사농?
 104028 #3 예?

사냥

104028 @ 사냥, 사냥?
 104028 #3 안 헛수다.
 104028 @ 꿩 안 봉가왔수과?
 104028 #3 아니.
 104028 #4 우리 아방은 꿩 안 혜난. 웃드르 사름덜 헛주.
 104028 @ 예.
 104028 #4 이 고내 사름은 사냥허는 사름이 엇어.
 104028 @ 엇어? 꿩도 잘 안 잡아?
 104028 #4 아니 꿩코도 잘 안 놔.
 104028 #3 그 꿩덜 젊은 아이덜 코 놔가지고 하나 두 개 잡아단 먹다가 것도 순간에 싹 지나불엇수다.
 104028 @ 음.
 104028 #3 그 외에 먹을 것이 많이 나오니까마씨. 이제도 묘종 밧디나 뭐 허면 은 그 꿩알 조금 놓니다.
 104028 @ 음.
 104028 #3 낫자 사름 먹을 수 잇는 거 안 가정 읍니다. 다 던져 불영. 그 세대가 그만큼.
 104028 @ 지나불언예.
 104028 #3 예. 옛날에 누가 꿩 하나 봉가오민 한 잔 먹게 돼엇다 모여근에 요리 행덜 먹었는데 그 시절은 옛날로 돌아가 불엇수다.

104028 @ 아이고, 예.

멜감

104022 @ 겨울에 지들커 같은 거 허레 다녔수께?

104022 #1 아이고 다니고 말고.

104022 @ 지들커?

104022 #1 어.

104022 @ 지들커에는 종류가 뭐, 뭐 잇어났수과?

104022 #1 지들커에는?

104022 @ 예.

104022 #1 솔입썸.

104022 @ 으, 솔입썸. 또?

104022 #1 뭐 집이서 나는 거는 콩꼬질.

104022 @ 콩꼬질.

104022 #1 으, 저 보리낭대.

104022 @ 보리낭대.

104022 #1 조칩대. 그런 다 지들커레 들어가주게.

104022 @ 계민 낭?

104022 #1 그 외에 남은 소, 소낭.

104022 @ 소낭.

104022 #1 소낭허고 또 삭다리. 삭다리엔 헨에 그 나무 썬은 거. 영 삼은 거 딱 딱 꺾어다근에. 그런 거 허고.

104022 @ 음.

104022 #1 또 저 고지가면은 춤나무 삭다리덜도 시난 그런 것덜도 허고.

104022 @ 음.

104022 #1 경헨 불 뗏주게.

104023 @ 저기 굴묵 진을 때 똥, 쉼똥, 똥똥은?

104023 #1 쉼똥, 똥똥도 좇어나서.

104023 @ 좇어나서예.

104023 #1 으, 그거 좇어당 물리왕 굴묵 짓고.

104023 @ 물리는 거라?

104023 #1 으, 으.

104023 @ 계민 쉼똥, 똥똥으로 굴묵 진을 때 좋았던 거 뭐과?

104023 #1 완전 오래가고.

104023 @ 그게 오래가?

104023 #1 으, 오래 가고 딱시고.

104023 @ 딱시고.

104023 #1 이거 ㄹ시락 같은 거 다른 건 재기 그냥 활활활활 부뜨붙어.
104023 @ 음.
104023 #1 경허난 ㄹ시질 안 허는디 그런 거는 오래오래 부뜨면서 듯아.
104023 @ 게민 쉼똥, 똥똥 좇으레는 어디 가낫수과 여기 고내리에선?
104023 #1 고내리에선 저기 고내봉에도 가고.
104023 @ 맞아 고내봉 있다, 고내보예.
104023 #1 으, 고내봉에도 가고 농서허는 밧디덜도 농서 안 헐 때에, 안 헐 때에 그냥 소, 똥똥 낱 놔두주게. 옛날엔, 겨난 이제 돌담. 저 밧담덜 다운 디 그냥 그레 들이청덜 몰이나 쉼나 강 낱 나두민 먹으면서 똥 짠 거 셔. 게민 그거 좇어당.
104023 @ 그거 좇어 와베도 똥 것과?
104023 #1 게.
104023 @ 아니 그 밧들 바령 들이젠 쉼 놔두고 똥 들여 둔 거 아니?
104023 #1 아니, 경 안헤.
104023 @ 경 안 헤여.
104023 #1 경 안 헤여. 그거 좇어 와도 똥여.
104024 @ 솔입, 아까 솔입?
104024 #1 솔입도 고내봉에 강 굽어 오고.
104024 @ 솔입 걷젠 허민 똥 가정 갖수과?
104024 #1 글쟁이.
104024 @ 글쟁이.
104024 #1 글쟁이, 솔입 걷는.
104024 @ 글쟁이로 굽영 모두민.
104024 #1 모도우민 이제 모도우민 이젠 저 얼멩이엔 현 거 잇어. 얼멩이 영상 영상허게, 저 우리 테왁, 헤너덜 가정 다니는 망사리 잇지 안 허여, 망사리.
104024 @ 예, 예.
104024 #1 그 닻은 거라도 막 크게 헤영.
104024 @ 예.
104024 #1 크게 헤여근에 막 영상, 영상, 영상허게 즐앙, 똥앙.
104024 @ 예.
104024 #1 그거 가정강 그것에 닻아. 얼멩이엔 허주게 얼멩이에 닻앙 지영도 오고 경 안 허민 탁탁탁탁 잘 받쳐 가지고 거기 짐 질만씩 만들아가지고 두 봉다리나 시 봉다리 헤영 지영 오고.
104024 @ 솔입을 낱 짐 만드는 방법을 곱아줍서.
104024 #1 만드는 방법은 그냥 글쟁이로.
104024 @ 음.
104024 #1 글쟁이로 영, 영 굽어당 흔 모똥, 흔 모똥씩 헤영 놔근에 그 모똥을 시 모똥으로 지력실 만드는 거라.

104024 @ 지력시?

104024 #1 이만씩, 이만씩 현 무덤 시 개씩 헤영 게민 이만이 돼주.

104024 @ 예.

104024 #1 이, 지력쉬가.

104024 @ 예.

104024 #1 경허민 그 우이 낱, 그 우이 낱. 그만씩 현 거. 그 우이 낱, 그 우이 낱, 허면이 요만이 허민 현 짐 돼여.

104024 @ 게민 밋에 뭐 낭가쟁기나 안 낱?

104024 #1 아니해도 직각하게 잘 돼여. 잘 만들어 놔.

104024 @ 그럼 모듬을 막.

104024 #1 예, 예. 팍팍 치면 직각하게 잘 돼여. 율율 푸더지지도 안 허고.

104024 @ 아, 현 모듬허민 이 정도행 막 다져 놓은 거?

104024 #1 으, 으. 다져 놓는 거. 곱닥하게 다정. 경 안허근에 그냥 대강 대강 허젠 허민 얼멩이엔 현 거 가정 강 그레 막 담아.

104024 @ 음.

104024 #1 경헨 그결로 지영 오라.

104024 @ 게민 그 모듬을 이렇게 세 개행 밋에 끌고 또.

104024 #1 또 그만이 행 그 우이 영 끌고.

104024 @ 끌고. 멧 개나 올려?

104024 #1 멧 개, 현 다섯, 으섯. 이, 이 우리 정 올만큼.

104024 @ 예.

104024 #1 너미 무거와도 안 돼꼭게.

104024 @ 그럼 그거 무꺼야 텔 거 아니과?

104024 #1 으, 베로 무경.

104024 @ 베.

104024 #1 베로 무경게.

104024 @ 베는 가정 가는 거?

104024 #1 예, 베는 가정 가야지. 쉼, 저 짐헨엔 현 거. 찹으로 꼬와근에.

104024 @ 게민 이거 모듬 한 거 옆에 뭐로 묶지?

104024 #1 안 헤여, 안 헤도 돼여.

104024 @ 와 잘 만들었다. 이거예.

104024 #1 예, 옛날에는 그것이 뭐. 그렇게도 행 허고 대강 그렇지, 그렇지 못허는 사름은 얼멩이엔 현 거에 담양 정 오고.

104024 @ 얼멩이는 뭐로 만들앗수과?

104024 #1 얼멩이는 저 옛날에 그 찹으로 꼬양. 막 즘질이 깎아근에 만들어낫주게.

104024 @ 그 얼멩이는 우리 보리 담는 그런 거추룩 막 툃툃허게 만든 건 아니

라예.

104024 #1 아니, 그냥 얼망얼망. 요만씩게.

104024 @ 해녀덜 그물허는 거예.

104024 #1 으, 으. 모양으로 헤영.

104024 @ 거기에 담으면 마다리처럼예?

104024 #1 으, 으. 마다리처럼. 우이 영. 그렇게만 허면 안심은 돼주게. 안심은 웨영. 그자 안심은 돼주게, 안심은 웨여도 그렇게 얼멩이에 낡 정 오민. 겨고 보단 으로 행 헤도 어떻 안 허여.

104024 @ 그렇게 만드는 것은 아까 보따리엔 헛수과?

104024 #1 저, 저, 저?

104024 @ 보단?

104024 #1 보달 치는 거. 보달 치는 거.

104024 @ 게난 하나 만드는 거를 보달 친덴 헤예.

104024 #1 으, 보달.

104024 @ 어쨌든 흐꿈 영 네모나게?

104024 #1 으, 영영영영.

104024 @ 메주 다지듯이?

104024 #1 으, 메주 다지듯이 허영.

104024 @ 행 우에 세 개를 놓는 거라?

104024 #1 으.

104024 @ 이렇게 놓고 우에 놓고 행.

104024 #1 으, 이 정도 허면은 흔 짐.

104024 @ 흔 짐. 이거를 보달 치다 허는구나.

104024 #1 보달 쳐.

104025 @ 예, 예. 경헨 가져 올 거. 게민 나무는 삭다리말고.

104025 #1 삭다리말고.

104025 @ 그냥 큰 나무들도 헤? 멀쩡헌 나무들도?

104025 #1 멀쩡헌 나무 우리 근력으로 못 허주게.

104025 @ 못 허여.

104025 #1 예, 그건 톱이나 가져 가야 헐 거니까. 우린 작두엔 헨 것이 있어서, 옛날엔 작뒤.

104025 @ 작뒤?

104025 #1 으, 작뒤.

104025 @ 예, 작뒤 가정 강 헨 거?

104025 #1 으, 작뒤 가정 강 탁탁 헤근에 그자 이 부락에덜은 언제나 헤 와. 작뒤로.

104025 @ 으.

104025 #1 우이의 슬진 건 톱이라야.
104025 @ 작뒤랑 톱이랑 다르과?
104025 #1 다르지게. 톱은 실랑실랑실랑 이제도 톱질덜은 잇고 작뒤는 지금은 잘 안 써. 작뒤는 호미듯이 써도 이렇게 웬 거라 이렇게 작뒤는.
104025 @ 계난 이렇게 웬 거 아니마씨? 여기 날 잇영.
104025 #1 날 잇어.
104025 @ 여기 손잡이, 탁탁 치는 거.
104025 #1 요 영, 요 영 현 거주게, 요 영.
104025 @ 아.
104025 #1 이거 즈룩이고 이거.
104025 @ 장호미같이 생긴 거군아.
104025 #1 으, 으.
104025 @ 영혜영 여기 즈룩.
104025 #1 으, 으.
104025 @ 이거 여기 날이고, 이거 즈룩이고.
104025 #1 으.
104025 @ 탁탁 찍는 거.
104025 #1 이렇게 허면은 일론 찍고 이걸 췌고.
104025 @ 으.
104025 #1 영, 영 착착착착 허멍.
104025 @ 그걸 작뒤렌 허는 거?
104025 #1 으, 작뒤.
104025 @ 톱을 작뒤렌은 안 해서?
104025 #1 으, 톱은 톱.
104025 @ 예, 예.
104025 #1 톱은 톱대로 따로 사용허여. 이제도 톱은 사용허는 디 작두는 잘 사용허지 안 허주게.
104025 @ 계민 낭 허레 갈 때 톱은 안 가정 가고?
104025 #1 톱도 가정 가긴 가정 가. 신 사름은. 켄디 톱 신 사름이 벨로 엇어주 그뻐.
104025 @ 아.
104025 #1 작두덜은 싯고 호미, 글쟁이 그런 건 막 쉬와도.
104025 @ 거는 작두 가정 강 탁탁 찍으멍 낭을 현 거라예.
104025 #1 으. 이제 저 노꼬메, 검은 오름, 큰바르메, 죽은바르메, 뭐 하꼬네 그런, 그런 디 다 뎡겨주게.
104025 @ 아, 어디, 어디? 하꼬네?
104025 #1 저, 저 새별오름. 하꼬네엔 해점저. 새별오름. 우리가 걸어서 다 뎡겨

지 옛날에.

104025 @ 옛날에.

104025 #1 밤 흔 흔 시, 두 시에 나가면 불기 전이 들어가는 거라.

104025 @ 겐 흔 짐 허면 하루가 끝나는 거?

104025 #1 하루가 끝나는 거. 밤이 나강.

104025 @ 밤이 나강.

104025 #1 아이고.

104026 @ 솟도 구워 낫수과?

104026 #1 아니, 우린 안 구워난.

104026 @ 안 구워.

104026 #1 솟은 안 구워난.

104026 @ 그럼 제사 때 뭐 구젠 허민 솟 어떻게 써나서?

104026 #1 우리가 그 남을 떼주게. 낭 혜땅 떼는 거 그거 끼왕 나 뒷당.

104026 @ 그거 끼왕 나뒷당.

104026 #1 으, 겐 솟 만들앙. 그걸로, 그걸로.

104026 @ 그걸로 겐 솟 만들진 안 허고.

104026 #1 으, 화리에도 그걸로 행 떼고.

104026 @ 솟, 솟, 저기 사당 쓰지도 안 허고.

104026 #1 이녁대로 만들앙, 옛날엔. 중간에사게, 이젠 만들지 안 허는 때난. 불 아니 숨을 때는 사 왓지만은 우리가 아궁이에 불 땔 때는 그걸로 헛주.

104027 @ 그럼 아까 그 먼 디까지 허레 가낫잖아예. 낭 허레, 그때 기억나는 일 엇수과? 솔입 걸으레 낭 허레 다니명, 똥 좇으레 다니명?

104027 #1 똥은 뭐 가까운 디서 좇고 나무 허레만 먼 데 가고 솔입 굶으레는 이디서민 저, 저 소랑중 그런 디 어디 소랑중이엔 현 디, 미럭당이엔 현 디 그런 디 가낫주.

104027 @ 소랑중이 숲 이름이과?

104027 #1 으, 소랑중.

104027 @ 숲 이름이 소랑중, 그 다음 미럭당 아까?

104027 #1 으, 미럭당.

104027 @ 미럭당. 이거는 뭐 당 이름?

104027 #1 으, 당사 잇는디 미럭당, 미럭당 허여. 거기 가면은 큰 산 잇고.

104027 @ 아, 여기도 산?

104027 #1 으, 산 잇고 저 쉬는 디 잇고.

104027 @ 예.

104027 #1 소랑중이엔 현 디는 이런 민짱헌 요런 믫을 넘어간 디 우에.

104027 @ 으.

104027 #1 그디 가면은 소나무덜도 하고 다른 잡나무덜 하고 현 디 그디가 소

랑중이주게. 그디 많이 땡기주.

104027 @ 으, 기민 술입 걸으레 이디 다니고 낭 허젠 허민 더 멀리?

104027 #1 더 멀리 가고.

104027 @ 더 멀리 가고.

104027 #1 으, 으. 술입 굽으레 고내봉도 많이 다니주게. 고내봉도 술나무 하나
까. 술나무도 그 술썩이 털어지는 때가 있어. 경허민 그뎨 가면은 많이 굽어지주게,
때가.

104027 @ 술썩이렌 곶암신디 술썩 걸으레 간 것과 술입 걸으레 간 것과?

104027 #1 술썩.

104027 @ 아, 술썩예. 술썩 걸으레 간 거예.

104027 #1 술입이엔도 허고 술썩이엔도 허곡게. 그냥 그건 술, 술썩.

104027 @ 아, 낭 허래 가젠 허민 뺨또도 쌍 가고?

104027 #1 그자 무시거 조금 썩 강, 감저 같은 거나.

104027 @ 숯양?

104027 #1 으, 숯양, 치여근에 가정 가고, 밥도 썩어 어떤 때 가정 가고.

104027 @ 으.

104027 #1 썩어 먹어야 조반겸 점심겸.

104028 @ 여기 혹시 꿩 거튼 거 사농도 해나신가예?

104028 #1 꿩?

104028 @ 꿩.

104028 #1 꿩 사냥 같은 거 여긴 안 해난.

104028 @ 뭐 지달이 같은 거?

104028 #1 지달이도 안 해반.

104028 @ 안 해 보고예.

5. 바다일

105001 @ 바당에 다녀낫수과?

105001 #1 바당에?

105001 @ 예, 바당에.

105001 #1 바당에 메역 썩어 즈물레 땡겨낫주게.

105001 @ 그럼 여기에는 바당에서 허는 일들이 뭐, 뭐 이실 건고예? 어무니 메
역 즈문 거말고 다른 일덜도 다 곶으민?

105001 #1 다 여기 즈녀덜사 뭐 생복게.

105001 @ 으, 생복.

105001 #1 생복, 저 구쟁기게 옛날말로.

105001 @ 으.

105001 #1 요샌 소라엔. 저 옛날말로 짐복.

105001 @ 전복.

105001 #1 구쟁이.

105001 @ 구쟁이.

105001 #1 구살.

105001 @ 구살.

105001 #1 그런 저 무신 수두리보말. 그런 건 굶디도 잇주만은 바당에 나는 거
는 무신 저 무꾸럭 같은 것도 바당에 나고.

105001 @ 예.

105001 #1 그런 것덜 줌네덜 허주게.

105001 @ 줌네덜예.

105001 #1 으.

105001 @ 그거 헛물질.

105001 #1 미, 저 저 미.

105001 @ 으.

105001 #1 저, 저, 저, 저 무신 거엔 허느니? 그것 ㄹ라 미, 해섬, 이젠 해섬이엔
허주만은 미 그런 거 허주게. 미.

105001 @ 계난 이거는 헛물질 갈 때 허는 거라예.

105001 #1 으, 헛물질 헐 때 허고.

105001 @ 예.

105001 #1 메역물에는 메역만 강 해 오고.

105001 @ 예. 여기 우미는 안 헵니까?

105001 #1 우미 안 허여. 잘 안 허여. 우미 몰라 올리덜 허긴 해실 거라. 상즘네
덜, 큰즘네, 잘 허는 줌네덜.

105001 @ 아, 상즘네.

105001 #1 으.

105001 @ 어무니 상즘네랏수과?

105001 #1 아니. 우린 메역만 다른 건 안 해 받, 안 해 받.

105001 @ 헛물질 안 해 받마씨?

105001 #1 헛물질도 안 해 보고.

105001 @ 계민 먹을 거는?

105001 #1 먹을 것만 기자, 메역 이녀 먹을 거 몰류앗당 승키로 먹을 거.

105002 @ 으. 여기서는 듬복 거튼 거나 감태 같은 거 보리 농서 헐 때?

105002 #1 그런 것도 안 허여.

105002 @ 걸름 안 헵니까?

105002 #1 안 허여, 안 허여.

105002 @ 고내리는.

105002 #1 아, 저 감태덜은 허는 사름은 멧 사름 잇어서.

105002 @ 으.

105002 #1 경 매 사름 허진 안 허꼭게.

105002 @ 매 사름 허진 안 허고?

105002 #1 으, 역불로 물에 들엉 허진 안 허고.

105002 @ 계난 오는 거, 오는 거.

105002 #1 오는 거, 밀려 오는 거.

105002 @ 으.

105002 #1 큰 브름 불어나믄.

105002 @ 으.

105002 #1 그런 땀 저디 남뚜루엔 현 디 가근에 무신 거뒤다근에 물류왕 밧디
덜 걸름으로 헤 낫주. 허는 사름덜 멧 사름 잇어서 우린 안 헤 뵈주만은.

105002 @ 듬복도?

105002 #1 듬복은 이디 엇어. 감태나 싯주, 감태, 노랑뭍, 무신.

105002 @ 듬복 고내 엇어?

105002 #1 고내 잘 엇어. 저 우리 친정 동넨 서 낫주만은 이디 고넨 잘 엇어.

105002 @ 바당도 틀리다예.

105002 #1 으, 예. 이디는 저 먹돌 바당이 하고 모살 바당이 싯고, 다 틀려, 틀
려.

105002 @ 예, 아까 감태는 헛덴 헛잖아예.

105002 #1 으. 감태 같은 건 돌렛당 놀엇당 걸름으로덜.

105002 @ 계민 그거 허젠 허민 개인으로 험니까, 접으로 험니까?

105002 #1 개인으로 해난.

105002 @ 접 엇어?

105002 #1 으, 그 전엔, 옛날엔. 지금은 감태도 엇고 아무, 그런 거 엇이니깐 허
지도 안 험주만은.

105002 @ 으.

105002 #1 그 쪼끔씩 험 때는 개인으로.

105002 @ 개인으로 험니까?

105002 #1 으, 허는 사람만 그자 그 바당에.

105002 @ 예.

105002 #1 다녀근에 허주.

105002 @ 개인으로 허게 뒤면 나가 여기 가당 보난 감태 보이난 그냥 강 나 뭍
대로 행 와도 뒤 거? 누게안티 안 곺앙?

105002 #1 으, 그냥 그 물궂에 올랑 시난게.

105002 @ 으.

105002 #1 담 우이덜.
105002 @ 으.
105002 #1 바당서 건져 오는 것이 아니고. 메여진 거.
105002 @ 계난 메여진 거 봉가 오는 거군아.
105002 #1 봉가 오는 거.
105002 @ 물에.
105002 #1 물에 강 헤여 오는 것이 아니고.
105002 @ 으, 으. 휩쓸려 온 거예.
105002 #1 휩쓸려 온 거.
105002 @ 으, 으.
105002 #1 밀려 온 거, 밀려 온 거.
105004 @ 우리 아까 보말?
105004 #1 으.
105004 @ 보말 여기서 뭐렌?
105004 #1 수두리보말.
105004 @ 수두리보말. 또 보말 종류 뭐가 잇수과?
105004 #1 떡보말.
105004 @ 수두리보말, 떡보말, 또?
105004 #1 곰생이.
105004 @ 곰생이, 또?
105004 #1 또 저, 저. 저저저 하나 무시거여만은. 음, 하나 영 두경, 두경 췌게
현 것ㄱ라 문다닥, 문다닥지.
105004 @ 문다닥지?
105004 #1 으, 문다닥지.
105004 @ 어무니 이거 보민 알아집니까? 어느 게 곰생이고 어느 게?
105004 #1 알아지고 말고.
105004 @ 하하하.
105004 #1 알아져. 이제라도 아져당 노민 다 알지.
105004 @ 아, 수두리, 떡보말, 곰생이, 문다닥지예?
105004 #1 으. 문다닥지.
105004 @ 문다닥지.
105004 #1 메우니.
105004 @ 메, 메우니렌 헛수과?
105004 #1 으, 메우니.
105004 @ 메옹이 안 히고?
105004 #1 메옹이.
105004 @ 다시 한 번.

105004 #1 메옹이.
105004 @ 메옹이?
105004 #1 으. 군벳.
105004 @ 군벳도 보.
105004 #1 보말로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
105004 @ 으. 군벳 나중에 물어보쿠다. 군벳도 잇고예. 메옹이도 보말 종류 아
니예?
105004 #1 보말 종류.
105004 @ 수두리, 떡보말, 곰생이, 문다닥지, 메옹이.
105004 #1 메옹이, 다 보말로 들어가는 거.
105005 @ 으. 강이 종류에는 뭐 잇수과?
105005 #1 강인 강이. 강이는 저 춤강이.
105005 @ 으.
105005 #1 또 듬북강이.
105005 @ 춤강이?
105005 #1 으, 바당강이.
105005 @ 으.
105005 #1 또 강이 종류도 여러 종류주만은 다른 종륜 잘 모르켜.
105005 @ 세 갠게예, 바당강이.
105005 #1 으, 여러 가지 셔.
105005 @ 춤강이, 듬북강이, 바당강이.
105005 #1 심방강이엔 현 것도 셔, 붉은 거, 빨강현 거 심방강이.
105005 @ 심방강이?
105005 #1 으.
105005 @ 네 개. 춤강이, 듬북강이, 바당강이.
105005 #1 으.
105005 @ 심방강이.
105005 #1 으.
105003 @ 와, 기구나. 계민 이 보말허고 강이는 어떻 잡아낫수과?
105003 #1 보말허고 강이는 둘 일렁. 요만씩 현 둘 일렁. 바닷가에 물 싸가믄.
견 질, 질 꺾디 잇어.
105003 @ 으.
105003 #1 물만 쪼끔만 싹다 허믄 강이 잇고.
105003 @ 음.
105003 #1 보말은 흐끔 물 더 내려강 보면은 둘 우이덜 잇고.
105003 @ 아, 계민 맨 꺾디가 강이.
105003 #1 강이. 꺾디가 강이 그 다음에 보말.

105003 @ 보말.

105003 #1 그 다음에 저, 강이 다음에 보말은 곰생이, 문다닥지.

105003 @ 강이 다음에 보말은 곰생이, 문다닥지.

105003 #1 으. 그 다음에는 수두리, 먹보말.

105003 @ 어. 잠깐만예. 강이가 잇고 곰생이, 문다닥지가 잇고, 그 다음.

105003 #1 으, 물ㄱ음이 틀려.

105003 @ 아, 물ㄱ음이 틀려예.

105003 #1 틀려. 저 수두리보말허고 먹보말은 물이 쪼끔 더 느려가야 잇어.

105003 @ 음. 그럼, 보말 영 잡젠 허민, 강이는 물만 싸민 잡을 거난. 강이 영 잡젠 허민 물때가 몇 물 때민?

105003 #1 물때 네물.

105003 @ 네물?

105003 #1 으, 네물, 다섯물이민 보말 잡아.

105003 @ 네물이엔 험니까 여기는?

105003 #1 너물.

105003 @ 혼물, 두물.

105003 #1 두물, 서물, 너물

105003 @ 너물예? 너물이나 다섯물썸에는?

105003 #1 어, 어.

105003 @ 보말 잡을 거예?

105003 #1 어.

105003 @ 강이는 몇 물 때?

105003 #1 강이는 뭐 두물, 서물에도 가도 잡아.

105003 @ 두물, 서물에도?

105003 #1 으, 두물, 서물에도 가도.

105003 @ 가도 잡을 거?

105003 #1 으, 으.

105003 @ 그냥 굿디 강.

105003 #1 굿디 강.

105003 @ 돌만 일르민?

105003 #1 예, 예. 이만씩 현 돌만 일러도 강이 잡아지는 거.

105006 @ 기라예. 우리 바당에 강 불 쌍도 뭐 잡고 헤낫수과?

105006 #1 어, 그건 저 낙지.

105006 @ 낙지.

105006 #1 밤에 그 저, 물ㄱ음허고 바다 저 들ㄱ음. 바닷물 ㄱ음허고 그디 그 ㄱ음이 잇영 바당물 영 밤이도 썸 때 들어오는 ㄱ음. 그, 그 ㄱ음에 요만씩 현 웅텡 이가 잇어.

105006 @ 으.

105006 #1 물 촌, 잔물 앓는.

105006 @ 으.

105006 #1 골르는 웅덩이.

105006 @ 으.

105006 #1 그디 가근에 영 뒷에 햇불 싸근에 영 허면은 낙지가 찰락 나와.

105006 @ 아, 영 웅덩이에 강?

105006 #1 그 물 우에로 영 불이 비추면은.

105006 @ 으.

105006 #1 그것이 그 낙지가 고양이 잇었다가 땅고냥에 잇었다가 탁 나와.

105006 @ 계민 그것도 물때에 맞춰 가얏 거우다 물때예?

105006 #1 으, 으. 물이 흐끔 길아져사. 물 느려강 흐끔 싸사.

105006 @ 계민 그것도 물 너물, 다섯물 똬사?

105006 #1 아니 그건 밤이.

105006 @ 밤이.

105006 #1 불 쌍 가는 건 밤이.

105006 @ 밤이난 몇 물 때?

105006 #1 밤이도 초저낙이 물 싸젠 허면은 혼 열, 열혼물, 열두물.

105006 @ 열두물쯤에.

105006 #1 으, 그 스시에.

105006 @ 그때 가가지고.

105006 #1 으, 으.

105006 @ 낙지 잡안?

105006 #1 낙지. 우리는, 우리는 안 헤 본 디 경 허멍 잡는 사름덜이 잇어났주 게.

105006 @ 그때 싸는 불을 뒀엔 험니까?

105006 #1 햇불, 햇불.

105006 @ 그냥 햇불예, 햇불 쌍. 햇불은 뒤에 햇수과?

105006 #1 햇불 저 막덩이 헤근에 저 검질 감양, 무신 저.

105006 @ 천? 검질?

105006 #1 무시거 그디 조침이라도 많이 행 감아근에게.

105006 @ 예.

105006 #1 감양 딱 무경. 계근에 경 불 부찌민.

105006 @ 으.

105006 #1 지금덜은 그 웨에는, 그 웨에는 쉼줄, 쉼줄 슬진 거 헤영 쉼줄 끄트 머리에 험벅, 험벅에 지름 맥영.

105006 @ 지름 맥영.

105006 #1 지름 맥여근에 허믈 오래가주게 그건. 경헨 거 비추고.

105006 @ 췌줄은 췌 막데기 얘기 허는 거?

105006 #1 으, 췌 막데기. 나무엔 카불거난.

105006 @ 아, 불 부떠불카부덴.

105006 #1 불 부뜰 거난 췌.

105006 @ 췌에 허민 여기 손잡이 뜨겁거나 허진 안 험니까?

105006 #1 아니, 끄트머리에 헨 거난.

105007 @ 으, 췌에 천에 헨예. 그럼 여기에는 고내리에는 갯담, 원담이 엇어났 수과?

105007 #1 원담 잇어나서.

105007 @ 원담에서 뭐 잡아난?

105007 #1 저, 멜.

105007 @ 그럼 여기도 멜 잡는 거 헨예?

105007 #1 예.

105007 @ 원담 이름 뭐 잇수과?

105007 #1 상뒤돈,

105007 @ 상뒤?

105007 #1 으, 상뒤돈.

105007 @ 상뒤돈.

105007 #1 으, 상뒤돈 원담.

105007 @ 하나 잇언?

105007 #1 으, 하나, 하나.

105009 @ 계민, 멜 거리젠 허민 어떻 헤 사람들.

105009 #1 사람들 멜 거리젠 허민 새백이, 아침 새백이 때 영 돌아헨기는 사람이 잇어.

105009 @ 그런 멜 거튼 거 올라시냐, 어떻 안 헨시냐?

105009 #1 그 사름덜 보면은 새백 세 시에도 가고 네 시에도 가고.

105009 @ 그럼 그것도 다 개인으로?

105009 #1 개인으로. 빠르게, 빠르게 들린 사름은 해당 먹고.

105009 @ 안 헨 사름은 못 해당 먹고.

105009 #1 겐 많이 헤 오면은 사당덜도 먹고게.

105009 @ 아, 사당덜고 먹고.

105009 #1 으, 빌영도 먹고.

105009 @ 계난 여기는 접으로 바당일은 안 헤 낫구나?

105009 #1 으, 그런 건 벨로 엇어. 그 원담이 작고 허니까 그 영업으로 허진 안 헨고 부락에 심심헌 사름덜 개인으로, 부지런헌 사름덜은 해당 먹고 겐 안 헨 사름은 못 해당 먹고게.

105009 @ 으, 게민 원담에 들어왕 잡는 거는 멜만 잇고 다른 건 엇어?
105009 #1 다른 것도 들어오게 돼면은 들어오주만은 다른 건 잘 안 들어와.
105009 @ 멜이라예, 주로 들어오는 건.
105009 #1 멜, 주로 멜.
105009 @ 멜 들었수다예, 그럼 멜 거린덴 허잖아예.
105009 #1 거린 건 족바지.
105009 @ 족바지.
105009 # 족바지, 족바지, 사들. 사들이엔 현 건 흐뎡 큰 거. 족바진 쪼그만현 거. 우리라도 가정 텡기는 건 족바지.
105009 @ 사들은 어떻?
105009 #1 큰 거, 그 종류라도 흐뎡 큰 거. 이 자리 거리는 거.
105009 @ 예.
105009 #1 그것ㄹ란 사들. 사들.
105009 @ 그거 족바지랑 비슷하게 생겼수과?
105009 #1 비슷허여, 비슷허긴 작고 크긴 허주. 족고 큰 거.
105009 @ 아, 작은 건 족바지.
105009 #1 족바지.
105009 @ 큰 건.
105009 #1 그물.
105009 @ 사들.
105009 #1 사들.
105009 @ 사들, 사들은 뭐로 멘들아신고예?
105009 #1 그것도 그 슬진 주낫, 주낫.
105009 @ 으.
105009 #1 주낫으로 사들 영 으팡.
105009 @ 주낫이 뭐과?
105009 #1 주낫이엔 허믄 저 실.
105009 @ 으.
105009 #1 멘네 그런 걸로 다 헤가지고 허는 거주게.
105009 @ 그민 그 주낫으론 주로 뭐 만들아? 줄 만드는 거, 그 낚시줄 같은 거?
105009 #1 낚시줄도 허고 그런 걸로 베도 허고 허주 뭐, 못 허는 것이 엇어 그런 건.
105009 @ 그럼 멘네를 막 여러 번.
105009 #1 예, 여러 번 헤가면 슬지게도 나오고. ㄹ늘게도 나오고 그런 걸로 다 그거 허는 거주게.
105009 @ 게민 이 사들 그물도 주낫으로 허는 거군아예. 낭은?

105009 #1 낭은, 낭은 저 사들허는 낭은 저 고지 강.
105009 @ 어.
105009 #1 그런, 그런 일름 잇어, 나무 일름이.
105009 @ 으.
105009 #1 그런 거 헤다근에 영 불 때여가지고 흐뭇씩 구웁. 카지 못힐 정도로.
쫘끔씩, 쫘끔씩 허민 영 이렇게 휘여져.
105009 @ 열 가해가지고 휘여?
105009 #1 으, 으. 경행 무꺼근에.
105009 @ 무경.
105009 #1 경행 그물 으파근에 이젠.
105009 @ 아. 계민 그거 험 때 그 낭 이름?
105009 #1 그건.
105009 @ 생각 안 나고?
105009 #1 저 저 저 저, 그거 무신 낭이고?
105009 @ 똬수다, 똬수다.
105009 #1 윤노리낭.
105009 @ 윤노리낭?
105009 #1 윤노리낭 거튼 거.
105009 @ 윤노리낭.
105009 #1 노가리낭 거튼 거.
105009 @ 노가리낭.
105009 #1 으, 노가리, 윤노리.
105009 @ 노가리, 윤노리낭예, 손잡이도?
105009 #1 손잡이는, 손잡이는 아무 거라도 똬여. 소낭으로도 허는 디.
105009 @ 허는 디 휘젠 허면 윤노리.
105009 #1 으, 그런 것이 질겨. 불 때고 똬 영 헤가도 꺼꺼지지 안 헤 이거.
105009 @ 그런 걸로예. 계민 갯담에 갈 땐 그거 들렁 가는 거라예.
105009 #1 으.
105009 @ 사들이나.
105009 #1 족바지.
105009 @ 족바지나. 구덕?
105009 #1 구덕은 대구덕.
105009 @ 대구덕 들렁 가고.
105009 #1 으.
105009 @ 족바지 지지명 어이 들어가라 허젠 허민 똬 솔박이라도 안 가정 갑니
까?
105009 #1 솔박, 솔박이라도 똬긴 똬주기만은게.

105009 @ 그냥 족바지?
105009 #1 으, 사름으로만.
105009 @ 손으로?
105009 #1 으, 으. 손으로도 허고 솔박도 침, 좀팍도 가정가고.
105009 @ 좀팍도 가정 가야. 족바지 이신 거 구덕에라도 담아 놓을 거.
105009 #1 족바진 그냥이라도 들 수 잇주만은 사들은 채우쳐야.
105009 @ 아, 채우청.
105009 #1 영 행 거려, 거려 나.
105009 @ 좀팍으로예.
105009 #1 으. 거려. 채우청.
105009 @ 거려나예, 구덕에 담아예.
105009 #1 으. 담양.
105009 @ 계민 여기는 멜 막 하영 거렁 그 멜을.
105009 #1 하영 경 거렁 그 멜 헐 것이 엇고 먹을 거나베끼 허질 안 허여. 걸름
이나 뿃 허게 들진 안 허난.
105009 @ 아, 여기는예.
105009 #1 예, 예.
105009 @ 걸름허게나는 안 허고.
105009 #1 예, 예. 이 이 바당이 넓으질 안 헤 가지고. 이 이 영장 돌덜이 하고
모래 바당이고 그렇게 허니까 많이 들지를 안 허여 그런 건.
105008 @ 계민 원담 이제 막 담들 멀어져 불민 그 담덜 다우고 허잖아예.
105008 #1 예. 모다들영 다올 때 모다들영 다와. 켜디 지금은 헤타헤 불영 멜도
안 들고 경, 이제도 흔적은 잇어.
105008 @ 으.
105008 #1 흔적은 잇주만은 잘 들지 안 헤여 지금은.
105008 @ 옛날에 그거 보수허젠 허민 사름덜 막 모입서.
105008 #1 으, 모영 원담덜 다옵서, 다우레 나옵서 허면은 남저 신 집이덜은 강,
나강 다옵고.
105008 @ 으. 그건 누계가 왕 곶아?
105008 #1 거 반장이 잇주게.
105008 @ 반장이?
105008 #1 으, 으. 통장.
105009 @ 그민 멜, 원담 다올 때는 어쨌든 반장이 다 불령 영 헤신디, 멜 거릴
때는 멜 들엇수다, 다 나옵서.
105009 #1 아니 경 안 허여. 경허게끔 많이 들지 안 행게.
105009 @ 아, 계난 먼저 강 봐지는 대로.
105009 #1 예, 봐지는 대로 그냥 거렁 허면은게, 또 아는 사름 가민 그냥도 주

고.

105009 @ 으.

105009 #1 빌어당덜도 먹꼭게.

105009 @ 아. 케민 멜 잡아당 그거는 주로 뭐 행 먹엇수과?

105009 #1 국 끓영게.

105009 @ 국 끓영 먹고.

105009 #1 으, 녹물 놓고 헤영. 배추 낱.

105009 @ 또 젓은, 멜젓?

105009 #1 아, 멜젓도 허고. 멜젓도 헤영 먹고.

105009 @ 폐쌍 물리지는 안 허고?

105009 #1 여기서는 물려 보진 벨로 안 허고.

105009 @ 아, 그때 먹은 걸로 끝이구나.

105009 #1 으, 으. 그자 젓이나 허고 끓영 먹고, 지정 먹꼭.

105010 @ 물고기도 낚아 낫수과? 바다, 바닷게기?

105010 #1 우리?

105010 @ 예.

105010 #1 아니.

105010 @ 낚시대로 그런 거?

105010 #1 아니, 아니.

105010 @ 안 헤 받?

105010 #1 안 헤 받.

105010 @ 케민 물에 들엇을 때 작살로 고기는 안 쏘아 봤수과?

105010 #1 안 쏘아 받.

105013 @ 그, 여기 고깃배 잇수과?

105013 #1 저, 무시것고 오징에 거리레 가고 경 큰 배들은 엇어.

105013 @ 아, 고내 오징어 허는 배는 잇어?

105013 #1 으. 멧 개 실 거라.

105013 @ 옛날에, 옛날에.

105013 #1 옛날에는 엇고, 중간에부터 셔 낫주.

105013 @ 아.

105013 #1 옛날에, 옛날에덜은 뭐 저 갈치, 고등어 그런 거 허레는 텡겨나서.

105013 @ 그런 거 허레 갈 때 배는 무슨 배?

105013 #1 낚배.

105013 @ 낚배렌 헤낫수과?

105013 #1 으, 기계엇인 배, 낚배.

105013 @ 예, 기계엇어 가지고 뭐 달령 다넛잖아예.

105013 #1 배초석.

105013 @ 그거 배초석이렌 해?
105013 #1 배초석.
105013 @ 배초석. 옛날 배 요런 배 아니?
105013 #1 으, 그거 배 초석.
105013 @ 이 배를 아까 무슨 배라고?
105013 #1 낚배.
105013 @ 낚배예?
105013 #1 으, 으. 기계 엇은 배 낚배.
105013 @ 기계 엇은 배예.
105013 #1 으.
105013 @ 여기 명칭덜 모르지예? 알아지쿠과? 이건 배초석예?
105013 #1 배 초석.
105013 @ 배 머리를 뭐렌 곶아? 몰라?
105013 #1 머린 뭐, 머리 ㅍ트머리 그거 뭐.
105013 @ 예, 뻬수다. 그림 낚배만 잇고 자리 잡는 뻬 엇어낫수과?
105013 #1 무사 테우, 테우 셔낫주게.
105013 @ 예, 그것도 잇고예.
105013 #1 으.
105014 @ 게민 즘녀들이 물에 들엉 잡는 해산물은, 물에 들엉예, 물에 들엉 잡는 건 뭐, 뭐 잇어낫수과?
105014 #1 뭐 저, 전복.
105014 @ 전복.
105014 #1 구쟁이.
105014 @ 구쟁이.
105014 #1 미.
105014 @ 미.
105014 #1 무꾸럭.
105014 @ 무꾸럭.
105014 #1 그거. 저, 저 미. 민 곶앗지양?
105014 @ 예, 예.
105014 #1 그거.
105014 @ 전복허고 소라를 영.
105014 #1 구쟁이.
105014 @ 구쟁이를 잡을 때 다 개인으로 허는 거 그런 거.
105014 #1 옛날엔 개인으로, 옛날엔 막지 안 허영, 어촌계영 무시거영 엇어낫주게 옛날은게.
105014 @ 예. 개인으로 영 잡아 오민, 전복도 여자, 남자가 잇어 낫수과?

105014 #1 잇주게. 잇어 모양도 틀려.
105014 @ 게민 여자는 뭐렌 글아?
105014 #1 암천복.
105014 @ 남자는?
105014 #1 슷천복.
105014 @ 아. 모양이 어떻 트납니까?
105014 #1 모양이 수천복은 영 소랑허고 암천복은 영 쪼금 동그랑허고. 틀려.
105014 @ 뒤에가 오목헌 게?
105014 #1 오모록 허영 소랑헌 것이 수천복.
105014 @ 수천복.
105014 #1 베짜헤영 영 흐끔 쫄랑 동고롯헌 것이 암천복.
105014 @ 겐 암천복은 베짜헿 영 동그락헌 거라예?
105014 #1 으.
105014 @ 오몽헿 쫄 길쭉허멍 오목헌 건.
105014 #1 으, 건 수천복.
105015 @ 아, 기구나. 즈녀덜 바다에 이렇게 잡으레 가젠 허민 뭐, 뭐 가져 갑니까?
105015 #1 뭐, 뭐 가져가. 옛날엔게 구덕 지고 퀘에기엔 헌 것이 셔, 퀘에기엔 저 이 췌 가족으로 만든 거. 퀘야기.
105015 @ 다시 한 번 글아줍서.
105015 #1 퀘야기, 퀘야기.
105015 @ 퀘야기 예. 퀘야기가 뭐과?
105015 #1 소 가족으로 만든, 췌가족으로 만든.
105015 @ 뭐 헿 때 쓰는 거?
105015 #1 거 물 아니 흘치지 못허게 허는 거.
105015 @ 예.
105015 #1 췌가족 바짜 물르문 버쩍 영 이젠 덜 물을 때에 이렇게 영 흐끔.
105015 @ 으.
105015 #1 이제 지게, 지게 신 집이덜은 지게에 그 퀘야기를 놓젠 허문, 지게가 영 오무룩 헤영 지게 가달이 잇주게, 가달. 가달허고 이런 등뺑이 허는 디가 이렇게 웬 디 이렇게 허젠 허면, 퀘야기가 영 오무룩허게 헤여 놔근에.
105015 @ 지갯가지예?
105015 #1 으, 지갯자지에 맞게, 이디 맞게시리. 오그령 물좌근에 그거 대영 물 앓지 못허게 허영 그 우에 구덕냥.
105015 @ 으.
105015 #1 그것에 메역도 지영 텡기곡 뵈 헿낫주.
105015 @ 게민 지게도 여자덜이 저 낫수과?

105015 #1 저 우리 친정엔 해도 이 고넨 여저덜 안 해난.
105015 @ 안 지고.
105015 #1 남저덜만 지고.
105015 @ 남저덜만, 예. 케민 여저덜은 질구덕에?
105015 #1 떼영 배로, 그 퀘야기만 대영.
105015 @ 밀에 대는 거?
105015 #1 으, 밀에 대는 거.
105015 @ 으.
105015 #1 밀에 대영 물 아니 흘치는 거.
105015 @ 이게, 이게 구덕이면 영 등짝허영?
105015 #1 이거이 퀘야기민게 영 허영 요정도.
105015 @ 이 정도.
105015 #1 이레 구덕 낡.
105015 @ 구덕 낡.
105015 #1 이젠 대 헤영 이레 영.
105015 @ 예.
105015 #1 이진 등더레 가는 거.
105015 @ 등더레.
105015 #1 이진 알로.
105015 @ 계난 등짝에도 물에 젖지 말렌?
105015 #1 으, 젖지 말렌.
105015 @ 퀘야기를 데영.
105015 #1 예, 퀘야기 뒤영.
105015 @ 그건 쉼가죽으로마씨?
105015 #1 쉼가죽으로.
105015 @ 그럼 퀘야기 놓고 구덕 낡. 그 구덕 안에는 뭐 담양 갈 것과?
105015 #1 갈 때?
105015 @ 으.
105015 #1 갈 땀 김질게. 보리낭이나 조침이나 퀘, 퀘 털어난 나무나 아무 거라도 불 부트는 건 다 가정가.
105015 @ 거 뭐 헐 거? 가져가는 거?
105015 #1 뭐 헐 거?
105015 @ 으.
105015 #1 물에 들영 나오민 초울 거.
105015 @ 어, 초울 거.
105015 #1 불턱이엔 헨 잇주게. 불턱, 불턱에.
105015 @ 예, 예.

105015 #1 불턱에 그걸 살랑 초왕 이제 흐뎡 드시민 또 들어강 행 오고.
105015 @ 행 오고. 게민 이제 구덕에 불 초일 거.
105015 #1 담양 강 놔 뒷당. 나오민 그거 가정 강 그걸로.
105015 @ 테왏도.
105015 #1 경 안 허민 낭 썩은 것덜 그 물론 것도 그것도 가정 강 그건 오래
가주게.
105015 @ 그것도 가정 가고, 테왏도 담양 가고.
105015 #1 테왏 담양 가고.
105015 @ 또.
105015 #1 비창.
105015 @ 비창.
105015 #1 호미.
105015 @ 호미.
105015 #1 으, 글쟁이.
105015 @ 으.
105015 #1 그런 것덜도 다 가정 가고.
105015 @ 으. 물에 드는 호미랑, 밧 검질 메는 호미랑 트나지예.
105015 #1 틀려.
105015 @ 틀려예. 게민 물에 드는 호미를 무슨 호미렌 험니까?
105015 #1 무신 거엔 해낫저만은 그것ㄴ라.
105015 @ 중계호미?
105015 #1 중계호미.
105015 @ 으.
105015 #1 중계호미.
105015 @ 모양 보면 보리 비는 호리랑 중계호미랑?
105015 #1 틀려, 틀려, 틀려.
105015 @ 어떻 트납니까?
105015 #1 틀려. 그거는 흐뎡 썩르고.
105015 @ 중계호미가 썩라.
105015 #1 으, 그 썩이, 놀이 썩르고.
105015 @ 즈룩은 어떻 트나?
105015 #1 즈룩은 으, 즈룩은 뭐, 즈룩도 썩라.
105015 @ 으.
105015 #1 호미 뭐, 보리 비는 것보다 썩르고 놀도 썩르고. 또 경 뭐 보리 비는
것거치 늘실지 안 해도 돼고.
105015 @ 아.
105015 #1 이걸 메역만 끄치는 거니까.

105015 @ 즈룩이 보리 비는 건 영 길죽하다면 그 중계호미는 요기보다 그 끝이 좀 몽탁허잖아?

105015 #1 몽탕허여, 몽탕허여.

105015 @ 예, 즈룩 빠지지 말렌.

105015 #1 어, 어.

105015 @ 그래서 우에 건 가늘어도.

105015 #1 어, 어. 또 상즘네덜 전복 떼젠 허민 비창.

105015 @ 비창.

105015 #1 비창도 가정 가고. 비창은 이디 뭐 이디 걸어근에.

105015 @ 예, 예.

105015 #1 끈 혜영 걸어근에 비창도.

105017 @ 예, 예. 옛날에는 물에 들젠 허민 지금이야 다 고무웃이주만은.

105017 #1 고무웃. 옛날엔 속곳.

105017 @ 속곳 입어나서예.

105017 #1 속곳, 우에 적삼, 물적삼.

105017 @ 머리는?

105017 #1 머리는 수건.

105017 @ 수건.

105017 #1 수건, 물수건.

105017 @ 요것도 틀리지예.

105017 #1 예, 예. 이 안경도 틀려. 쪼근 거.

105017 @ 눈에.

105017 #1 으, 눈만 하나 박아지는 거. 이젠 이디 영 통 막아지는 거.

105017 @ 게민 눈이 두 종류가 이신게예? 이렇게 눈이 두 개 들어 있는 눈을 뭐렌 글읍니까, 옛날 썬 거?

105017 #1 옛날 썬 거?

105017 @ 예.

105017 #1 그건.

105017 @ 족은눈이렌 헛수과?

105017 #1 그건 그냥, 그냥 즘수눈인디 그것ㄴ란 무신, 무신눈이렌 헤라만은.

105017 @ 옛날눈이랑 지금눈이랑 트날 거지예.

105017 #1 트날 거주게. 지금은 이거.

105017 @ 요 눈을 뭐렌 헤낫수과?

105017 #1 뭐렌 헤나신고 잊어불어젧져이.

105017 @ 족은눈 안 헤난마씨?

105017 #1 족은눈, 족은눈.

105017 @ 이거는?

105017 #1 왕눈.
105017 @ 이건 왕눈?
105017 #1 왕눈, 크난 왕눈.
105017 @ 으, 족은눈, 왕눈예. 그 기억이 남수과? 그 우리 속곳을 몇 살 정도 까지 입어난 거 같으과? 기억 안나, 속곳?
105017 #1 그냥 나 뭐 일본도 강 살아나 불고 헤부니까 간 오란 그자 그럭저럭 행 텡기곡 스물다섯 후에 입어 낫주게 속곳도.
105017 @ 스물다섯?
105017 #1 으, 스물다섯 후에 여기 들어온 때부턴 메역 즈물아당 먹어나난.
105017 @ 게민 어렸을 땐 물질 안 헤 낫수과?
105017 #1 아니, 어렸을 때도 바당에 흐뎡 텡겨나긴 헤도 즈물레, 메역 즈물레 텡겨나진 안 허고.
105017 @ 놀레?
105017 #1 그냥, 그냥 휘레 텡경.
105017 @ 휘레 텡경 보말이나 잡고?
105017 #1 어, 그런 거나 허고 그자 헛주게. 어린, 열다섯에 일본 가나부난.
105017 @ 일본 가나부난.
105017 #1 으, 일본 간 살단 이디 오란 또 흐뎡 살단 또 가곡, 오곡 헤연, 음, 열아홉에 나간 스물 다섯까지도 살단 들어오고.
105017 @ 아.
105017 #1 게난 그 사이엔 잘 안 허고 그 스물 다섯 후로 메역 즈물레 텡겨난.
105016 @ 그 예전이랑, 막 옛날이라예, 처음 어무니 물질헛 때, 그 스물다섯 살 때쯤이랑 지금이랑 물질허는 거 비교허민 어떻 트낫과?
105016 #1 편한 건 그런 건 엇인 디.
105016 @ 아니, 아니 다른 점. 도구도 다르고.
105016 #1 도구, 도구 다른 거주게. 최고로 다른 거는 도구. 이 고무옷이고 눈이 고 그런 것덜 다 다른 거주게.
105016 @ 음.
105016 #1 호미랑, 비창이랑 굴쟁이는 ㄴ트고.
105016 @ 음.
105016 #1 그 전이랑 비슷헌디.
105016 @ 음.
105016 #1 고무옷 허고 이 발에 신는 무신 신 그거 허고 또 모자도 틀리고. 우 린 미녕으로 만든 수건 헛는디.
105016 @ 경현 그 속곳덜은 다 이녁냥으로 만들앙?
105016 #1 이녁냥으로 만들앙, 이녁냥으로.
105016 @ 예.

105016 #1 대강은 이녁냥으로 해도 또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이 셔 낫주만은 대강은 이녁대로 해영.

105016 @ 예.

105016 #1 우리 만들어야나서.

105016 @ 테왁은 지금은 스폰지잖아예?

105016 #1 으, 그때는 쿡박, 쿡테왁, 쿡으로 현 테왁.

105016 @ 으. 쿡은 집이서 질왕.

105016 #1 질루기도 집이서 올기도 허고 또 사당덜토 허고.

105016 @ 아, 쿡도 사당 헛수과?

105016 #1 예, 예. 사당덜도 이녁집이 엇이민 헛 수 엇주게 그건. 테왁으로덜 헛 풀아낫주덜게.

105016 @ 예. 기민 지금이야 그 망사리 만드는 것도 다 나일론이주만은.

105016 #1 나일론 지금은.

105016 @ 예전에는 그 망사리는 뭐로?

105016 #1 저, 저저저저 무시거, 무시것고 미엔 해연 미삐쟁이, 미.

105016 @ 예.

105016 #1 미, 이 저 어욱에 대.

105016 @ 어욱에 꽃예.

105016 #1 으, 그것이 막 질겨. 그거 해당 물렁 깨영 두드렁, 이제 걸로 새끼 꼬양 새끼 꼬양근에 막 질겨.

105016 @ 예, 새끼 꼬양 놔 둥 그 줄로 헛.

105016 #1 그걸로 못아근에.

105016 @ 못양.

105016 #1 테왁, 저저 망사리.

105016 @ 망사리 만들엇던 거라. 게민 그거 훑으게.

105016 #1 훑으게도 허고 줌질게도 허고.

105016 @ 막 훑게 만든 게 아까 솔썩 걷을 때?

105016 #1 얼맹이.

105016 @ 그 얼맹이도 그 미로 만들앗수과?

105016 #1 얼맹이는 거 아무걸로 해도 건 솔지게, 흐뎡 솔지게 꼬아도 텔 거난. 째으로 허여도 돼여. 그런 건.

105016 @ 아, 이건 째으로 해도 돼?

105016 #1 으, 건 미삐쟁이로 허젠 허민 많이 들영 안 돼여.

105016 @ 음.

105016 #1 거 어려와.

105016 @ 게난 미삐쟁이 허는 게 막 공드는 거군아?

105016 #1 공들어. 쫄르고 요만이 현 건디게 그걸 질게 해근에 크게 허젠 허민

얼마나 많이 들여야 해여.

105016 @ 하하.

105016 #1 그거 물류고 깨고 두드리고 그것도 공들어.

105016 @ 아.

105016 #1 그냥 해당 허는 것이 아니고.

105016 @ 아. 게민 순서를 한번 골아줍서. 미빠쟁이를 뽑아왕?

105016 #1 미빠쟁이를 뽑아 왕 두드려 즈질이 깨영 이젠 꼬양.

105016 @ 아, 두드린 다음에 깨는 거예.

105016 #1 두드렁 깨는 거지.

105016 @ 깨여난 다음에 꼬는 거.

105016 #1 꼬양.

105016 @ 물웃은, 즈녀들 입는 웃은 아까 속곳예. 아까 말씀하셨던 속곳.

105016 #1 지금도 소곶에 그거, 살마다 입영 그거 입엄신가, 나 지금 입는 거 몰라.

105016 @ 지금은 고무웃.

105016 #1 고무웃 입는디 소곶에 뭐 그런 거 입어실테주.

105016 @ 뭐 입엄주게.

105016 #1 입영험게지이, 옛날엔 그냥 속곳만.

105016 @ 속곳만예. 여기서, 여기 고내리에서 톳 안 해낫수과?

105016 #1 무사 이제도 허곡 옛날도 허곡.

105018 @ 그럼 이 톳은 옛날에 공동이과, 개인이과?

105018 #1 개인. 우리, 우리 텅길 때꺼지도 개인.

105018 @ 여긴 공동 엷어낫수다예. 접으로 안 해낫수다예?

105018 #1 안 해. 아무 때나 강 해당 먹어.

105018 @ 아, 톳?

105018 #1 으, 이것이 톳 나는 디문 요만씩 해가든 다 비어당 먹여난.

105018 @ 게밀 톳 헐 때 물에 안 들어?

105018 #1 물에, 물에 안 들어.

105018 @ 곳에서 그냥.

105018 #1 또 톳은 그냥 물 많이 싸지 안 해도 돼여.

105018 @ 아.

105018 #1 쪼끔만 싸도 돼여, 톳은. 쪼끔 곳 영 가까운 디 이시니까.

105018 @ 아. 물에 안 들영 그냥 곳디서?

105018 #1 으, 곳딜로게, 물에 안 들영.

105018 @ 겐 호미로 영 비여당.

105018 #1 으, 건 아무라도 비여당 먹어.

105019 @ 아. 우미는 어떻 해낫수과?

105019 #1 우미는 가까운 디도 잇고 지폰 디도 잇고. 건 줌녀들이 허는 거.
 105019 @ 줌녀들이.
 105019 #1 꺷딜로도 물에 안 들어도 헐 순 잇어. 물만 싸든 흐뵁 싸든.
 105019 @ 게민 우미도 다 개인으로 허는 거예.
 105019 #1 지금은 공동으로 헝 폴암신디 몰라. 아, 지금도 개인인가?
 105019 @ 개인인가, 어쨌든 옛날에는 다 개인으로 헝 거라예.
 105019 #1 옛날엔 집이서 먹젠덜이나 헤다근에게.
 105019 @ 아.
 105019 #1 집에서 먹젠덜 헤오주게, 경 풀고 뵘허진 안 헤낫주게.
 105022 @ 예. 아까 테우도 직접 여기서 다 만드는 거라서예?
 105022 #1 으, 만드는 거. 만들앙 헛주게. 옛날엔.
 105024 @ 아까 배 명칭덜은 잘 모르고, 예 알앗수다.

6. 의생활

옷감

106001 @ 우선 옷ㄴ슴 종류에는 뵘가 잇수과, 옷ㄴ슴 종류?
 106001 #2 옥이 뵘라?
 106001 @ 옷, 옷.
 106001 #2 옷?
 106001 @ 예.
 106001 #2 옷은게 옛날이사게 여기서 미녕 짠 거게.
 106001 @ 예. 미녕 잇고 또?
 106001 #2 미녕 짜근에게 저, 메는 거는 ㄴ시락 불리듯 이렇게 살랑 그냥 그디서 미녕을양 실을 좷인 걸 헤근에 이추록 허든 그거를 짜는 거를 만들젠 허면은 바 짹헤영, 이거를 이렇게 짜는 거주게.
 106001 @ 으.
 106001 #2 게근에 그거 짜근에게 무신 밧디 일허는 사름은 감, 감 뵘앙 감물 들 영 입곡 또 그 학교 다니는 아인 검정물 들여근에.
 106001 @ 음, 감물은 들이는데, 검정물은 뵘로 들여?
 106001 #2 검정물은 물금 사당.
 106001 @ 사당. 게민 옷 만드는 거는 옷ㄴ슴에 아까 미녕 잇고 또 뵘 잇수과?
 106001 #2 미녕이나베끼 뵘 엿주게.
 106001 @ 멍지?
 106001 #2 멍지허고 실영목.
 106001 @ 실영목. 실영목도 광목아니예, 미녕 종류 아니예?

106001 #2 미녕 종류. 미녕 종륵디 막 알른 거.
106001 @ 게니까, 또 베 잇고?
106001 #2 베.
106001 @ 또 모시도 잇어낫수과?
106001 #2 모시도 잇엇주. 켜디 그건 제주에서 헨 건 아니.
106001 @ 아.
106001 #2 한산모시라고 육지.

명주

106002 @ 기민예, 미녕부터, 멩지부터 한번 물어보쿠다.
106002 #2 예.
106002 @ 멩지?
106002 #2 멩지는 그 누에를 질러서 그거를 뽕냥 잇을 뽕양 뽕입니다게. 경허면
은 우리도 그걸 헤 보진 안 헨디 내가 본 말을 허는 거주게.
106002 @ 음.
106002 #2 누에를 질루면은 말짱 그게 막 크면은 그 저, 무신 소게거추록 생겨
가멍 그게 그렇게 되는 거라게 그 벌레가.
106002 @ 으, 음.
106002 #2 경허면 그게 이제 그거 허영 그 저 옛날은 솜클이라고 그 테우는 클
에 가근에 그거를 테와단 부각허게 헤근에 이렇게 소름허게 영 몰아 이렇게. 그 정
대거튼 대 허여서 이렇게 몰면은 그걸 가져다가 이젠 이렇게 썰을 짓이는 거라.
106002 @ 음.
106002 #2 그렇게 행 미녕허는 겨우다게.
106002 @ 미녕 허는 거예. 그럼 멩지, 멩지?
106002 #2 멩지는 우리 제죽 사름은 짜는 사름이 에려와수다.
106002 @ 누에, 누에.
106002 #2 길루기는 그렇게 헤영 풀고 그렇게 헤도.
106002 @ 으.
106002 #2 것도 육지에서가 멩지가 헛주게.
106002 @ 그럼 이 고내에서는 멩지 차는 사름이 경 잇어 낫수과?
106002 #2 잘 잇엇수다. 토멩지라고 그것 참 멩지 짜는 사름은 잘 잇엇주게. 베,
베미녕은 짜는 사름 잇엇서.
106003 @ 게민 어무니 멩지실은 종류가 뭐 이신지 알아지쿠과? 멩지실 종류에?
106003 #2 멩지실 종류가 그 누에버랭이로 헤영 빠분 거게.
106003 @ 뽕는 게 멩지실이잖아예. 그 뽕는 거에도 영 종류가 이실 건가예?
106003 #2 종류는 그게 토멩지라고 쪼금 굵게 헤여근에 두껍게 허는 건 토멩지
고 그거말고는 그것 7란 뽕엔 헛주만은 알른 거. 거 잇엇수다게.

106003 @ 알론 것도 있어난예.

106003 #2 예.

106003 @ 겐 굵은 게 토멩지였구나?

106003 #2 예, 토멩지. 굵엉 두꺼운 거.

106004 @ 게민 멩지로는 무신 것을 만들앙 입어신고예?

106004 #2 멩지는 시집 장게 갈 때에 결혼식 헐 때에.

106004 @ 예.

106004 #2 그것도 빨강물도 들이고 또 파랑물도 들여지주기게.

106004 @ 예.

106004 #2 그러면은 여자는 장옷이라고 이제는 그런 거 안 입주만은.

106004 @ 음.

106004 #2 두루마기 닳은 거.

106004 @ 예.

106004 #2 남저덜 제서 때에 입엉 질허는 그런 두루메기 그거 비슷한 종류라도 그게 무스 거 호상이라고 허여도. 소꿉에는 잘, 잘 사는 집이는 좋은 베해서 안 놔 근에 그 멩지에 안 놔 바지 저고리허고 치마 저고리 그추록 헤영 그걸로. 경 입은 거예.

106004 @ 어쨌든 치메 저고리.

106004 #2 그렇게 입엉 뭐 이것도 영 예경 옛날은. 쪽도 아니 질렁 그렇게 옛날은 간디 그 다음부터는 족두리가 나와서 여기 앞이 씨영 허는 거.

106004 @ 음.

106004 #2 이제는 그거 아니헐 다 드레스 허주만은.

106004 @ 게난 멩지옷 입는 거는 옛날에는 거의 다 시집, 장게 갈 때 그때만이 우구나.

106004 #2 예, 예 그거게. 겨고 죽영 갈 때에 막 잘 허는 집이는 그 남자 도복 이라고 두루막 다음에 큰 도복이 잇수다. 이디 오민 이만이 헐 거 그런 거 헤근에 만약에 저 흑교에 무신 교장이라 허던가 그런 무슨 장급덜은 그런 옷을 헤여근에 입저낫주.

106004 @ 게난 호상옷도 멩지로 헛다는 거 아니?

106004 #2 예, 예. 멩지로, 멩지로 헛수께게.

106004 @ 잘 사는 사름?

106004 #2 멩지로 헛수다.

106006 @ 그럼 이 멩지 허젠 허민 누에 질랑 실을 뽑아사 헐 거 아니과?

106006 #2 실을 뽑아야.

106006 @ 누에 치는 거 영 알아지쿠과? 누에 질루젠 허민 어떻 헤나신지?

106006 #2 누에 질루제 허민 쪼그만 그 벌레를 어디사 강 가져오는 건지 그건 몰라게. 겐디 그 요만큼씩 무신 저 차롱이나 그런 요만씩 헐 그릇이 잇엇주기 남도

고리, 경허민 그디 막 그거를 놓아서 이파리를 놓으면 곰상곰상곰상.

106006 @ 무슨 이파리?

106006 #2 뽕남 이파리. 거 썰엉.

106006 @ 썰엉, 거 맥이는 거라예.

106006 #2 예, 예.

106006 @ 경행?

106006 #2 경행 그걸 막 오래 질루면은 그게 이제 둔각해서 숨이 돼여 가명 그 냥 그 벌레는 이제 그 번데기 잊지 안 허여. 그 번데기가 그거라.

106006 @ 예, 누에 처난 번데기.

106006 #2 으, 으. 이 제주 사름은 언마 허지 안 허니까 그런 거 먹지도 안 허고.

106006 @ 계난 고내리에도 누에 치는 사름이 있어신가요?

106006 #2 고내도, 엇어서. 예구 알아지크라, 누게 길좌난 거 몰르큰게.

106006 @ 계민 그 누에는 요만현 알을 가져왕 그거 키우멍 숨 뽑을 때까지 키우젠 허민 얼마나 키워신고예, 그걸?

106006 #2 몰라도 혼 그게 무신 저 열흘이나 혼 들로 돼지 안 허여. 혼 두어덜 길좌실 거라. 두덜이나 석덜.

106002 @ 계민 그게 크면 거기서 숨이 봉상봉상.

106002 #2 으, 그추록 돼여근에 이젠 벌레는 다 이젠 뜯 걸로 뜯로 떼져 나오고. 그거 허영 이제 숨틀에 강 부계기 숨이 올라오른 그거를 이젠 요만이 현 그는 정대가 있어 이렇게 허는.

106002 @ 예, 예.

106002 #2 그거 허여근에 그걸 영 쫄닥쫄닥허게 영 몰주게 이추록. 경허민 이렇게 영 실허영 뽑는 거라 이렇게 그 무르에로 이렇게 돌리멍.

106002 @ 음.

106002 #2 다 이젠 그런 것덜이 엇어불언게. 멘네씨 까는 저 목, 목 멘네 그거 씨도 빠야 그거를 허는 건디, 씨 빵는 것도 서 나고 실 좇는 거 다 서 나신디.

106002 @ 그럼 어무니네도 헤 낫구나?

106002 #2 예?

106002 @ 이거 얘기 허는 거지예?

106002 #2 나 눈 보이지 안 허영게. 눈이 수술해도 안 보영.

106002 @ 예.

106002 #2 무신 병원에만 혼 삼년 텅기단 보난 녹내장인디 수술을 못 허켄 헛 거 수술을 헤여봐도 일반이고. 수술허난 더 안 돼 불언.

106002 @ 예. 계난 누에 행 실 뽑젠 허민 그 뭐로 허는 거?

106002 #2 그 무르레, 물레.

106002 @ 물레? 물레엔 불렛수과?

106002 #2 으, 물레엔 현 거 요디서 요만이 돌아라 행 손잡이 요만이 싯고, 그 게 어디도 어디 실 거라. 저 박물관에도 가보난 잘 엇더라. 그걸로 이렇게 해근에 췌 요만이 현 정대라고 이디 실 좇는딘 그걸 꽃아근에 글로 행 무시거 헤영 이렇게 허면 그렇게 실을 나와게.

106007 @ 누에는 많이 안 헛지만 미녕은 해나서예. 미녕은 하영예.

106007 #2 미녕은 많이 해난 사름이 만허주게.

106007 @ 예, 고내에도예.

106007 #2 예. 죽어부난 허주만은 많이 해낫수다. 다 돌아가불언 엇수다게.

106007 @ 미녕의 종류에는 뭐, 뭐 잇수과?

106007 #2 미녕에는 종류 별로 엇수다.

106007 @ 아. 뭐 아까 광목도 이실 거고.

106007 #2 광목은, 광목은 우리 이런 디선 못 짜.

106007 @ 못 짜, 기계로 허는 거.

106007 #2 기계로 그거는 육지로 나온 거고 제주에서 광목허는 디는 엇고게.

106007 @ 으.

106007 #2 광목은 엇수다, 엇고, 미녕은 미녕은 보편으로 다 해낫주.

106007 @ 그 닷새미녕, 엇새미녕 허는 말을 모르쿠과?

106007 #2 닷새미녕, 엇새미녕이엔 현 거는 너비를 말 허는 거. 너비 엇새미녕도 있고 닷새 미녕도 있고.

106007 @ 그럼 닷새미녕은?

106007 #2 요렇게 좁주기게, 닷새미녕이. 겐 엇새미녕이엔 허민 이렇게 넓주기 게.

106007 @ 폭을 가지고?

106007 #2 폭을 가지고 말허는 거.

106007 @ 실 굵기를 가지고 말허는 게 아니고?

106007 #2 굵기가 아니고 넓이를 말허는 거. 말허자면 이렇게 애기덜 챙빳 셔낫 주게, 챙빳.

106007 @ 음.

106007 #2 챙빳거추룩 ㄴ는 게 있어 그디 실을 다 꿰여근에 찰가닥 찰가닥 차는 건디 그게 실 놓는 거를 닷새미녕이엔 허민 막 좁게 놓는 거고 엇새미녕이엔 허민 실을 더 뇌서 더 낡 허는 걸 엇새미녕이엔 허는 거주.

106008 @ 겐 미녕으론 어떤 옷을 만드나낫수과?

106008 #2 미녕으론게 지금 이후젠 몸빼덜 입주기만은 굴중이라고 이 아래 다 럽치고 허는 갈중의 감들인 그런, 그런 거 입어나고 우인 적삼, 적삼도 그런 걸로 막 행 입곡 허단 보난 광목 같은 것이 육지에선 쪼금씩 나올 시절에는 이제 그 적삼거튼 것도 광목 적삼도 행 입곡 경 헛주게. 웨장목이렌 현 거 즘질아근에 더 즘 질아근에 허곡

106008 @ 웨광목?

106008 #2 웨장목, 웨장목 허주.

106008 @ 아, 웨장목, 웨장목 허는 거?

106008 #2 그거는 어디 웨국에서 나온 거난 웨장목이엔 헤실 거라. 헤영헤근에 막 줌진 거 있어. 하양행.

106008 @ 계난 광목 나오난 막 이런 거, 저런 거 만들앙 입어났구나?

106008 #2 으, 만들안 입엇주.

106009 @ 토목이엔 현 건 뉘렌 현 건지 모르쿠과? 토목?

106009 #2 토목이 멩주광 그 멩지 진짜.

106009 @ 토멩지.

106009 #2 토멩지, 토멩지.

106009 @ 토멩지를 토목이렌 헤?

106009 #2 토목, 광목.

106011 @ 으, 흥세미녕은 뉘를 흥세미녕이렌 헐 것과?

106011 #2 흥세엔 현 거는?

106011 @ 으.

106011 #2 옛날은 요만이 현 함이 잇엇주기에.

106011 @ 예.

106011 #2 그디 멩지를 멩지거튼 거 놓는 사름은 엇고 시집, 장젤 가젠 허면은 그 새서방 칩이선 그 토목 멩지라고 저, 토목멩지도 아니고 저 미녕, 옷새미녕이나 닷새미녕이나 그거를 톡허게 개여근에 그 함 안에 놔게. 그 맞는 함이 셔낫주기에. 이제도 셔.

106011 @ 그 함을 흥세함이렌 헐 거?

106011 #2 으. 흥세함이엔 현 거, 그걸 잘 곱닥허게 영 잘 그걸 잘 꾸미는 사름이 엇주게. 두께 더경 곤 포 헤여근에 꼳거추록 곱게 멘들앙 경헤영 옛날은 그 새시방 나가젠 허믄 그 하인이 잇엇주기.

106011 @ 예.

106011 #2 그런 허면은 그 하인 각시가 몰 타근에 그거를 등에 지던가 헤영이젠 가메게 그거를, 새서방칩이를. 이렇게 머리에 이영을 가던가.

106011 @ 으.

106011 #2 경헤낫주게. 경헤영 가정 가면은 그 칩이선 또 느람쥐 탁 폐와근에 느람쥐 이제 거트민 미녕이나 무시거 드릴 놔주기만은.

106011 @ 마당에 깎는 거?

106011 #2 예, 마당에.

106011 @ 느람쥐 깎앙?

106011 #2 으, 느람젼 헤영 쪽 폐우민 글로 이제 걸어와 새서방이 걸어오민 딱 세와듬서 그 흥세함을 올앙 보거든 그럼 그 소굽에 무시거 다 씨여 논 것이 있어

게.

106011 @ 아.

106011 #2 경허른 그거를 잘못 씨면은 막 그디서 새서방 벌 반앙 얼른 안 들어 놓고 경헛주게.

106011 @ 하하하.

106011 #2 겐디 육지는 딱난 지영 강 함 삼서, 함 사세요, 함 사세요, 육진 경헛게.

106012 @ 이 미녕 허젠 허면은 목화 농서를, 멘네 농서를 지어야.

106012 #2 농서를 지어야지.

106012 @ 그럼 멘네는 어떻 씨 뿌렁 가는 것과?

106012 #2 멘네 씨는 까물까물 헤영 요만씩 현 건디 그거를 멘네가 요렇게 요렇게 이 굴만큼 허면은 그게 올면은 올면은 자연적으로 요렇게, 요렇게 헤영.

106012 @ 그릇이 가?

106012 #2 으, 그릇 그추룩 헤전 헤영허게 숨거추룩 나와게.

106012 @ 음.

106012 #2 경허른 이제 그것만 강 속속 빼여오주게.

106012 @ 음.

106012 #2 경 안허면 그것에서 파리지치 들어 노면 하영허질 안 허주게. 미녕이 좋지 안 허영. 이것이 짝 허게 벌어지민 숨만 툽툽, 툽툽허게 앓아와져 그릇 반앙.

106012 @ 음.

106012 #2 경헛 가져와근에 이젠 그추룩 헤영 미녕을 짜젠 허면은 그런 실을 빠젠 허면은 이상헌 거라게. 이 트멍에 이렇게 접지면은 멘네는 저레 가고 씨만 도록도록 털어정. 게민 그 씨 받아근에 멘네는 삼월달이나 이월 그물어 가면 봄밭 갈 앙 헛 때에 그 멘네씨를 무신 물은 안 쥬 그땐는 무신 오줌산디 무시거 쥐근에 신 발 신영 막 비비더라고. 불치, 불 숨아난 불경게.

106012 @ 불치.

106012 #2 불치허영 그것에 낱 씨를 막 버물이면은 또록또록 헤영 영 빠기가 좋주게. 그걸 막 비병가근에 경 헛 강 밧디 씨 뿌려근에.

106012 @ 언제 몇 월에 씨 뿌려?

106012 #2 저 음력 삼월달에.

106012 @ 가는 거라 밧디 강.

106012 #2 음.

106012 @ 그럼 씨를 뿌린 다음 밧을 갑니까, 밧을 갈아낱 씨를 뿌립니까?

106012 #2 저, 갈아놔근에 뿌렁 꺾어실거라. 잇어 불영 그걸 몰르켜. 우리 멘네 도 타고 갈아도 나고 옛날 헛는다.

106012 @ 예, 예. 불치에 서경?

106012 #2 불치에 서경 막 비병. 경헛 막. 어쨌든 그 물인가 무신 거라도 주영

이거를 씨를 똥글똥글하게 멘들어야 돼. 이거에 불치에 막. 멘네씨를 빠 논 거니까
쪼끔 그 그것이 빠지 못 허주게.

106012 @ 경험 멘네씨를 빠 노면 언제, 멘네빤디 검질도 메고 막.

106012 #2 멘네빤디 검질도 메곡.

106012 @ 검질도 메고.

106012 #2 으, 여름내낭.

106012 @ 여름내낭.

106012 #2 여름내낭 검질 메든 이때 돼면은 헤영케 그제 피면은 강 요렇게 뽑
아오고 내중에 또 들린 거는 이렇게 가근에 뽑아 오곡 경허멍 경헤영 그 멘넬 바싹
물류와근에 이젠 강 첨 집어서 씨를 빵 가져가는 거라. 테우는 디 가른 이제 바게
기 테와 노른 요만인 현 정대라고 잇어게. 요만인 현 거 그것에 영 슴 놔근에 들민
영 즐락즐락허게 돼주게. 영, 영 요것거추룩 요만씩.

106012 @ 음, 음.

106012 #2 경허민 이젠 그거 가져당 실 짓이는 거.

106012 @ 그민 멘네낭은 어느 정도 크기로 큼니까? 멘네낭은?

106012 #2 이만인 커.

106012 106012 @ 게민 거기에 올메가 올릴 거 아니?

106012 #2 막 올라 가멍 올라.

106012 @ 그 올메를 뭐렌 불러?

106012 #2 으?

106012 @ 멘네에 연 올메를 뭐렌 콜옵니까?

106012 #2 멘네드레, 멘네드레 허니까 뭐.

106012 @ 멘네드리?

106012 #2 드레.

106012 @ 아, 멘네드레, 멘네드레.

106012 #2 멘네드레기.

106012 @ 아, 멘네드레기예? 멘네드레기 그제 슴 피기 전에.

106012 #2 피기 전이 연현 건 막 먹어져.

106012 @ 아, 맛있어예. 그거 따 먹어볼고 헛수과?

106012 #2 으.

106012 @ 경험 ㄱ슬 들어가민 거기서 막 슴이 텅. 경험 그제 가정단.

106012 #2 겨울엔 이젠 그제 허영 이 ㄱ슬벳디 물리왕 이 멘네영 물류와근에.

106012 @ 으.

106012 #2 영 브름 잔 날. 영 문지 들어가도 안 웰 거난. 그제 바싹 물려근에
강 테와오민 겨울에는 일이 엇잖아게.

106012 @ 예.

106012 #2 새 비어당 집안 이으민. 요새가 더 일이 더 만헤여.

106012 @ 으.

106005 #2 경헌 겨울엔 돈 날 뿔도 엇고 일이 엇주게 겨울에. 경허믄 그런 거 현 할망덜은 이젠 그거를 좇아근에 실 좇앙, 실 좇으믄 이렇게 꼬리 감는 것이 있어. 그것에 이젠 감아근에 이렇게 드밀앙 찰각 허는 것ㄴ라 무시겨엔 현다만은 잊어붙어져. 할망덜 다 죽어부난 이젠 잊어붙엉 알아지크라.

106005 @ 으.

106005 #2 그거 있어.

106005 @ 베틀?

106005 #2 아니 베틀은 짜는 것이 베틀이고 꼬리 놔근에 이레 영 찰각, 저레 영 찰각해야 짜져근에 되는 거주게. 그 꼬리 감는 거를.

106005 @ 으.

106005 #2 것ㄴ라 무시건엔 곱앗저만은.

106005 @ 으, 나중에 튼내지믄 곱아줍서.

106005 #2 튼내질 못허크라 그거.

106005 @ 으, 그거로 행 거기에 막 실 감앙 헛엇던 거예. 이제 모시 헤난 거 물어보쿠다. 모시실 만들젠 허민 어떻 헤난마씨.

106013 #2 모시실은 우리 제주에선 안 헤낫저.

106013 @ 그럼 삼은마씨?

106016 #2 삼베는 허는 사름이 혹시 있어실는지 모르주만은 삼베도 육지에서 찻주 이디션 미녕베긴.

106016 @ 멩지나 쪼끔 짜고 경해서.

106016 #2 예, 멩지나 쪼끔 짜고.

바느질

106022 @ 그럼 바농질 헐 때 도구들 물어보쿠다.

106022 #2 바농질?

106022 @ 예. 바농질 허젠 허민 뭐, 뭐가 필요헵니까?

106022 #2 바농질 헐 때예. 저 요렇게 허영 윤디판이라고 요거 두 개만이 헤여근에 윤디, 거 윤디에 현 거는 즈룩 돌고 쫄락현 윤디엔 현 것이 있어.

106022 @ 있어예.

106022 #2 그걸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다리는 거. 경허니까 그 옷을 허젠 허면 호상옷을 허엇던 뿔을 허엇던 그 윤디, 윤디 허여근에 실밥을 이런 디 거껴야 ㄴ뿔을 알아질 거 아니라게.

106022 @ 예.

106022 #2 경허믄 그걸로 쪽 다리명 입엉 영영영영 꼬불려 노면 그디를 짝허게 뉘주게.

106022 @ 음. 게난.

106022 #2 윤디, 윤디판.
106022 @ 윤디도 있어야 되고 바농질 허젠 허난 바농도 있어야 되고.
106022 #2 바농 허고 거뿐 윤디.
106022 @ 또?
106022 #2 윤디판.
106022 @ 으. 저 옷 ㄱ슴 영 자르젠 허민 뭐 있어야 될 것과?
106022 #2 자게, 자게.
106022 @ 자영.
106022 #2 흔 치, 두 치 현 거.
106022 @ 으.
106022 #2 십 치가 흔 자주게.
106022 @ 예, 열 치가 흔 자예?
106022 #2 으. 흔 자, 두 자 현 거.
106022 @ 그럼 자도 있어야 될 거고, 자르젠 허민?
106022 #2 가위, 가위. ㄱ세.
106022 @ ㄱ세렌 곁앗지예?
106022 #2 ㄱ세.
106022 @ 바농상지에 뭐, 뭐 들어잇수과? 바농상지와 바농썩지과?
106022 #2 바농상지.
106022 @ 바농상지에 들어잇는 거 다 곁아줍서.
106022 #2 바농상지에 뿔이, 바농상지에 들어잇는 게 뿔이 잇어게, 실 검은실.
106022 @ 검은실.
106022 #2 흰실, 국방색실 그추룩헿 들어 잇엇주.
106022 @ 실은 그냥 들어 이실 거 아니민 실트레기에 감아정 이실 거?
106022 #2 실?
106022 @ 으.
106022 #2 영 곁레에, 실곁레 잇잖아.
106022 @ 으.
106022 #2 겨문 아무것에라도 영 감양 쓰는 디 실패, 실패 요만씩 현 거 냥으로 실패가 잇어 냥으로 요만인 현 거. 그것에 영영영 감양 바농 찢렁 바농상지에 놓니다.
106023 @ 바농질허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 잇지예?
106023 #2 바우 돌리는 거게.
106023 @ 바우 돌리는 거 뿔렌 곁아?
106023 #2 바우 돌리는 건 바우 돌리는 거엔 허주.
106023 @ 또.
106023 #2 겨고게 또 뿔바농질 현텐 허는 건 뿔우로 영 가는 건 뿔바농질 현텐

하고.

106023 @ 촘촘한 거 어느 게 촘촘한 거?

106023 #2 촘촘한 좋은 건 뒷바농질 허는 거.

106023 @ 그냥 듣성듣성 허는 건 뭐렌 험니까?

106023 #2 그것ㄴ란 무시거엔 허지 안 허여.

106023 @ 무시거렌 허지 안 헤예.

106023 #2 으.

옷 종류

106024 @ 옷 종류 여쭙볼게마씨. 남자옷 종류에는 어떤 옷이 이신고예?

106024 #2 남자옷은 저 중의 적삼.

106024 @ 중의 적삼.

106024 #2 그 다음에는 바지 저고리, 두루메기.

106024 @ 음.

106024 #2 이런 도폭.

106024 @ 음.

106024 #2 그거. 도폭은 무슨 지(제) 큰 지나 지날 때는 그 높은 지관이 입어근에 허는 거.

106024 @ 아, 도폭은. 중의적삼은 어떻게?

106024 #2 중의적삼은 얇은 거계. 아래 우이 입는 거. 적삼은 우이 거고 아래 거는 중의.

106024 @ 아래 거.

106024 #2 또 바지, 바지에도 저고리 잇고 바지 잇고.

106024 @ 저고리 잇고 바지 잇고예.

106024 #2 조계 잇고.

106025 @ 그럼 여자옷은 뭐 잇어마씨?

106025 #2 여자옷이사 무시거 여자옷도 적삼, 적삼허고 또 저 치마.

106025 @ 치마렌 헛수과, 치메렌 헛수과?

106025 #2 치메. 이젯말론 치마주만은 치메, 치메.

106025 @ 음. 또.

106025 #2 치메저고리베긴 더 잇어?

106025 @ 안에 우리 물질허레 갈 때 입어난 건?

106025 #2 건 소중의. 소중의, 소중의 허주게 우리 제춧말로.

106025 @ 속곳이엔은 안 곁앗수과?

106025 #2 속곳이엔 곁는 사람 잇어도 속곳이 맞추게. 속곳은 그거말고도 속곳이 잇주게. 이추룩 현 중의도 잇고 속에 또 반중의 요만이 현 거 입는 중의도 잇고 고장중의라고 경.

106025 @ 재난 속에 입는 것도 속곳이엔 얘기 했었던 거라예.

106025 #2 으.

106026 @ 그 다음 아이덜 옷에는 뭐 잇엇수과, 아이덜?

106026 #2 아이고 아이덜 옷 무시거 잇어서게. 그 어른거추룩 중의적삼 그런 거
 흐꼬만혜게 행 입져근에 그런 거주.

106026 @ 금방 태어난 애기 입지는?

106026 #2 금방 태어난 애기는 등뎡이 내중에, 이제덜은 허지 안 혜도 그때덜은
 배, 삼배.

106026 @ 으.

106026 #2 삼배 그냥 바지락 현 걸로 그때 그냥 궂난애길 저고리 거치 멘들아
 도 간단히게 멘들앙 간단히게 요만이 멘들앙. 경허민 그거 입정 흐뎡 싯다근에 이
 젼 큰옷 혜근에 영 입져근에.

106026 @ 아.

106026 #2 저고리거추룩 현 거.

106026 @ 그걸 뉘렌 곺아?

106026 #2 저고리.

106026 @ 저고리엔 험니까, 붓뉘창옷이엔 안 혜?

106026 #2 아니, 아니. 거 저고리고 이제 거 체얍.

106026 @ 체얍.

106026 #2 궂 난 때 입지는 것이 거 창옷게.

106026 @ 붓뉘창옷예.

106026 #2 으.

106026 @ 붓뉘옷이렌 험 거고. 아이덜 기저귀 찰 때 오즘 싸난 밑에 터진 옷도
 입지 안 허여.

106026 #2 으, 터진 거 입주게.

106026 @ 그런 옷을 뉘렌, 강알 터진 옷이렌 험 건가?

106026 #2 아니. 거 터진 거는 거세기, 저, 터진 거엔 안 곺앙 아래 고장중의엔
 곺아났어.

106026 @ 아, 고장중의렌 곺아났어.

106026 #2 으, 고쟁이 중의, 고장. 이젠 고쟁이엔 곺아도 고장중의, 고장중의 혜
 연.

106026 @ 아.

106026 #2 경혜연 그런 거 혜영 입져근에 또 허주만은 지성치메라고 그런 거
 많이 입진 사름도 잇주만은.

106026 @ 예, 예 지성치메예.

106026 #2 으. 지성치메엔 현 거 어떻 허냐 허믄, 이렇게 혜영 애기들 와글와글
 곺어뎡겨가도 이디 영영 주름 앓져근에 이디 스뉘 줍지 안 혜여근에 이디 끈 들아

근에 영 혜영 입지른 걸어탕기주게 요디꺼진 돌아왕.

106026 @ 으.

106026 #2 경허른 걸어탕기당 오줌 싸도게 그 아랜 거세기 허난게. 지성치메.

106026 @ 예, 예.

106026 #2 지성치멜 많이 입젓주게 그뎨.

106027 @ 지성치메예. 예, 맞수다, 맞수다. 옷을 멘들젠 허면 옷감 가져당 즐라야 혈 거 아니과, 마름질 해야 혈 거 아니과?

106027 #2 으, 으. 바느질 혜영 몰라야 웰 거난.

106027 @ 몰를 때 허젠 허민 어떻 해야 웨?

106027 #2 몰를 때는 매 사름이 거 허는 거 아니.

106027 @ 아니.

106027 #2 그 바느질 잘 허는 사름이 혼 부락에 멧 사름 잇어이. 경허민 그 바느질 허는 사름은 잘 살진 못허영 바느질 품 풀양 살양. 경허민 그디 강 다 몰라도 렌 헨 그디서 만들기도 허곡 또 허여당 입지기도 허곡.

106027 @ 음. 게난 아무나 다 마름질.

106027 #2 허지 못허는 거주.

106027 @ 허지 못허는 거라예. 몰름질 허젠 허민 뭐 본이 잇어야 혈 건가? 옷 본?

106027 #2 그 어른들은 본 엇어도 짐작으로 착착 헛주기에.

106027 @ 아.

106027 #2 옛날은.

106027 @ 이런 디 재여 가지고?

106027 #2 으, 으.

106028 @ 혹시 부분 명칭덜 알아지쿠과? 저고리면, 저고리면 뭐 옷이 영 이실 거 아니우과, 그럼 저고리 여기는 뭐렌 곶을 것과?

106028 #2 거기 소미.

106028 @ 소미. 게고 여기 뭐 잇지예?

106028 #2 짓.

106028 @ 짓.

106028 #2 짓 우이 드는 건 동전

106028 @ 동전 들고예. 게민 이 앞에 부분은?

106028 #2 앞섭.

106028 @ 앞섭. 안쪽에 들어가는 거는?

106028 #2 안안섭.

106028 @ 안앞섭?

106028 #2 안안섭, 안안섭.

106028 @ 으, 안안섭. 음,

106028 #2 베꼈디 건 땃땃땃.
106028 @ 땃땃이고 게민 여기는 다 땃인데.
106028 #2 여기 또 소미.
106028 @ 소미.
106028 #2 요딘 꺄땃 놓는 거, 질땃.
106028 @ 음. 질땃이렌 헤?
106028 #2 으.
106028 @ 게민 우에 이디 짓 우에 요기 있는 건 땃렌 헤? 목 땃에? 짓바데 잇 수과 이디?
106028 #2 짓바데 잇는 거는 적삼에 짓바데를 들주 다른 것엔 짓바데 안 드는 거. 짓바데도 매 사름 들지 안 허여. 짓바데 드는 적삼도 잇고 안 드는 적삼도 잇고.
106028 @ 그럼 짓바데는 무사 드는 거마썸?
106028 #2 몰라게.
106028 @ 툃툃허게 만들젠 짓바데를 허는 건가?
106028 #2 짓바데 그거 허난 질기게 둔땃허게 험으로 그거 험산디.
106028 @ 아. 그럼예, 바지에는 이 부분은 땃렌 험 것과?
106028 #2 바지 허리게.
106028 @ 허리. 여기는?
106028 #2 아, 거기는 저 다리 다림 치는 디.
106028 @ 이 부분이 다림 아니예?
106028 #2 으, 다림.
106028 @ 이 바지 통은 땃렌 부르는 거 엇어?
106028 #2 그딘 엇어.
106028 @ 이 앞에 부분 땃 부르는 거, 엉땃이 부분 부르는 거 엇어?
106028 #2 엉땃이 부분은 밋.
106028 @ 아, 여기 밋. 밋, 여기 허리.
106028 #2 으, 밋.
106028 @ 여기 다림.
106028 #2 다림.
106028 @ 다림예?
106028 #2 으, 것ㄴ란 다림, 다림 허여.
106028 @ 예, 다림, 다림 허여예.
106028 #2 게난 다림은 요만이 현 끈이 잇주기게. 남소록허게 옛날은 멘들앙.
106028 @ 예, 예.
106028 #2 요걸 요렇게 허여게 쪽 허여다가 이디 툃 허게 무끄는 거.
106028 @ 무끄는 거.

106028 #2 이걸 헐 충 모른 사람은 이렇게도 헐 사람 셔라, 요번이 멧질 때 보난.

106028 @ 으. 다림 허는 거. 게민 치마의 부분 명칭, 한복 치마 영 허민 여기 무끄는 건?

106028 #2 앞치메게.

106028 @ 앞치메? 아니, 여기 허리, 허리렌 안 헤?

106028 #2 아니 그건 치마 허리고.

106028 @ 으, 으.

106028 #2 치마 입은 다음에 무슨 일 허젠 허민 무슨 치마 입잖아.

106028 @ 아니, 앞치마 말고 그거 말고 치마의 부분 명칭이라예?

106028 #2 치마에 있는 부분은 허리나베긴 엇어.

106028 @ 허리나베긴 엇어.

106028 #2 허리끈 허고.

106028 @ 허리끈예.

106028 #2 허리굽.

106028 @ 허리 뭐? 굽?

106028 #2 허리굽. 굽게, 것ㄴ라 굽이엔 헤 제줏말로.

106028 @ 맞수다. 허리굽예. 보선 물어보쿠다, 보선. 보선인 경우에 영 허면 이거는 뭐렌 굴읍니까?

106028 #2 앞코.

106028 @ 여기는?

106028 #2 뒤치기.

106028 @ 뒤치기. 이거 이 부분, 보선등이렌 허여.

106028 #2 아니, 보선목. 찜찜 이디ㄴ란 보선목이엔 허여.

106028 @ 이던 보선목. 게민 이디 부르는 건 엇고?

106028 #2 요 우엔?

106028 @ 예.

106028 #2 엇주게, 엇어.

106028 @ 엇어예. 코, 뒤치기, 보선목.

106028 #2 으.

106028 @ 그렇게 얘기헐 거예?

106028 #2 으.

106029 @ 그 지금은 우리 옷에 영 단추가 달령 이신디 예전에는 그런 단추가 엇엇잖아예?

106029 #2 으, 단추 엇이난에 곱 헛주گی게.

106029 @ 곱예.

106029 #2 곱허고 또 동달리라고 요렇게 무시겔로 못아근예.

106029 @ 으.

106029 #2 못앙 그것ㄴ란 무시거엔 곧는고 이젠 그거?

106029 @ 들매기?

106029 #2 들매기가 아니고.

106029 @ 별모작?

106029 #2 아니, 동달리라고 요만이 현 거 있어게.

106029 @ 아.

106029 #2 요만이 현 거.

106029 @ 옛날에, 옛날에는 뭐렌 불럿수과, 그거?

106029 #2 것ㄴ라 동달리.

106029 @ 동달리? 별모작이나 들매기 같은 거 엿수과?

106029 #2 아니. 별모작이엔 안 허고게.

106029 @ 속곳에, 속곳에 드는 건 뭐과?

106029 #2 그거, 그거주게. 소중의에 드는 거.

106029 @ 그게 뭐, 들마기.

106029 #2 소중들마기.

106029 @ 아, 들마기, 들마기에.

106029 #2 으.

106029 @ 들매기가 아니고 들마기엔 헤서예.

106029 #2 으.

106029 @ 소중들마기에.

106029 #2 으, 소중들매기. 소중의에 들마기.

106029 @ 아, 들매기엔 험신게. 옛날에 단추 없을 때는 곰 현다든지.

106029 #2 그거, 이런. 어쨌든 그것ㄴ란 동달리엔 허멘게.

106029 @ 아, 그 들매기랑 동달리가 ㄴ튼 것과?

106029 #2 소중들매기, 들매기 허주만은 그 동달리ㄴ라 경 곧는 거게.

106029 @ 아, 그림 전체적으론 그걸 동달리인데.

106029 #2 으, 동달리라. 그 못은 것ㄴ라는 동달리렌 곶아.

106029 @ 그 소중의에 잇는 거.

106029 #2 소중의에 것도 그거, ㄴ튼 거주만은 소중 들매기엔 곶메.

재단과 염색

106031 @ 예, 예. 그거는 특별허게 소중 들매기렌 ㄴ는 것브란. 그 염색허젠 허민 아까 감물 들이는 것도 잇엇고, 감물 들이젠 허민 감따당 허고.

106031 #2 감 따당 그거는 뿃앙.

106031 @ 예.

106031 #2 그 옷을 뒤집어근에, 뒤집엉 거 감께 부텅 막 혈 거난.

106031 @ 으.

106031 #2 뒤지어근이 막 이렇게 물 쪼금, 막 뺏아 낡 물쪼금 타근에 영, 물에 막 서경이 그거를 막 빨래 놀리듯 놀리든 감이 다 들어질 거 아니라게.

106031 @ 음.

106031 #2 경허든 저런 바깥디 가근에 짹 폐왕 널든 햇볓이 오면은 그게 발강 해전. 다시 막 물든 거 닻으민 물을 적저당 널고 두루 뵈 헨 거 시민 딱로 뒤집어 널고 허든 그게 발강케 돼여게.

106031 @ 음, 경 물 무치명 널엇당 널엇당 허는 걸 한 멧 번 정도 험니까?

106031 #2 세 번.

106031 @ 아, 세 번정도?

106031 #2 으.

106031 @ 게민 영 감물 들이는 것은 옷을 다 멘든 다음에 허는구나?

106031 #2 음.

106031 @ 천 먼저 물 들영?

106031 #2 아니, 천 먼저 들영 허는 거는 이제덜은 보난 그렇게 헤도, 그거 물 굵 들여서 감물이엔 헤도 감 쪼금 드나마나 해선게.

106031 @ 아.

106031 #2 감물 짱 놔둬서 물굵, 그 물굵 들인 다음에 이렇게 들여근에 허는 생 이란게.

106031 @ 아. 기라예. 게민 물굵 들이는 거는 이렇게 감물 들이는 거베끼 엇수 과? 다른 건 뤄 잇수과?

106031 #2 감물 허고 검은물.

106031 @ 검은물. 검은물은?

106031 #2 검정물 허고 또 무신 빨강물.

106031 @ 게민 검은물도 사당 허는 거고 빨간 것도 사당?

106031 #2 사당. 장에 꼭는 장서 셔 닻어. 물굵 장시, 물굵 장시도 멧 사름이 아 니고, 전라도 사름도 못 살든 그런 물굵도 풀고.

106031 @ 그럼 막 그 전이 아니고, 그 이후에?

106031 #2 그 전이 잇어난 거는 감베낀 뤄 엇어실 거라.

106031 @ 푸린 물, 풀 뜯어당 푸린 물 들이고 경은?

106031 #2 으, 그런 것도 셋주게.

106031 @ 아. 푸린 물 들이는 것도 셔 나고?

106031 #2 으. 풀 뜯어당 뺏앙. 경헛자 굵지도 안 허여.

신발

106032 @ 안 고와? 이번에는 신발 종류 물어보쿠다. 옛날에 신발 종류에는 뤄 잇어나신고예?

106032 #2 신발 난 모르쿠다. 째신베긴 엇수다.
 106032 @ 째신이엔 헛수과 초신이엔 헛수과?
 106032 #2 초신.
 106032 @ 나막신?
 106032 #2 나막신은 나무로 영 코 돌리고 헤영 아래 발 돌리고 헤영, 고무신, 고무신 코신 잇지 안 허여.
 106032 @ 예.
 106032 #2 똑 그 가다로. 겐 비 온 날은 물 이만인 허민 영 영 신어근에 소 때
 른 소 출 주레도 가고.
 106032 @ 나막신도 잇어나신게예.
 106032 #2 으.
 106032 @ 가족신도 이실 게 아니?
 106032 #2 가족신도 잇어주게. 가족신은 저 보선거추룩 현 거게.
 106032 @ 보선거추룩 현 거. 그건 언제 신어신고. 가족신은?
 106032 #2 가족신 난 때는 얼마 안 돼고 건 일후제, 찜찜 그후제라서. 가족신도
 아무 사름이나 신는 거 아니. 막 어려우니까 그건 못 신어 봤주게.
 106032 @ 시집, 장계 갈 때 그런 거?
 106032 #2 시집 장계 갈 적엔 가막창신이라고.
 106032 @ 으.
 106032 #2 까망헌 유단으로이 요런, 요런 천은 요 색깔거추룩 현 걸로 요렇게
 똑 이런 모양으로 요렇게 몰라서 기지를 그렇게 헤영 보선거추룩 만들앙 경은 허여
 도 지금 가막창신이엔 이디가 가망허여 유단으로 허고 바닥은 가족.
 106032 @ 으.
 106032 #2 가족에 납작헌 징 박은 가막창신이 잇어서.
 106035 @ 아, 시집 장가 갈 때 그런 거 신어난마씨? 가막창신 기구나. 계민 초
 신 만들젠 허민 어떻게야 웰 건고?
 106035 #2 초신은 째 두드려근에게.
 106035 @ 으, 으.
 106035 #2 째 두드령 율이 거시기 허는 것ㄴ라 무시거 무시거엔 헛저만은 그거
 헤영 이렇게, 이렇게 끈 매여듬서 초신은 짜주게. 이녀 손으로 경허명 다 만들앙.
 106035 @ 꼬으는 거 아니예.
 106035 #2 꼬으는 거.
 106035 @ 째 무슨 째으로 헛수과?
 106035 #2 나룩.
 106035 @ 나룩째, 여기 나룩째 엇지 안 허여?
 106035 #2 나룩째, 그때는 어디 산디째 같은 것도 잇지 안 허여.
 106035 @ 예, 예.

106035 #2 어쨌든 이런 쓸 종류 현 것ㄴ란 짝이엔 허주, 짝. 그거를 가져당 덩드렁이엔 현 건 동글락 돌 미끈현 거 영 놔둬서 그것에서 나무로 웬 이런 마끼로 그냥 막 두드리민 보각해지지.

106035 @ 케민 그거 꼬아가지고?

106035 #2 이젠 그런 초신 멘든 것도 천하일색으로 곱게 허영 아이고.

106036 @ 케난 초신에도 영 종류가 있어났수과?

106036 #2 초신에도게 무신 율이 이렇게 허는 것ㄴ라 무시게엔 헛저만은 있어 불영 몰르크라. 그거 허여근에 곱닥허게 초신도 두 가지랏주게.

106036 @ 으.

106036 #2 시집 가근에게 뒷날 물려주는 거 그 신 중에 그거.

106036 @ 음.

106036 #2 곱게 멘든 거.

106036 @ 그걸 뒤편 골아난 지는 그거 이름 생각 안 나고?

106036 #2 초신, 초신.

106036 @ 그냥 초신예?

106036 #2 고운거게. 꼬리 초신이엔 헤실 거라.

모자 등

106037 @ 음. 케민 모자 종류에는 뭐가 잇수과?

106037 #2 모자, 모자 썬 사름이 시어서?

106037 @ 밧디 가젠 허더라도 똥가 모자, 햇빛 가리젠 모자 썩 가실 거 아니?

106037 #2 저 허허, 밀납 거튼 거 허영, 그 꼭대기에 거 헤영.

106037 @ 음.

106037 #2 그 무시거 즐앙게.

106037 @ 즐앙. 경행.

106037 #2 즐앙 페랭이 거추록 멘들앙.

106037 @ 맞아마씨, 페랭이.

106037 #2 이제 페랭이가 그거라.

106037 @ 예, 예.

106037 #2 그거라도 나무 꺾데기 헤여근에 이제 기계로덜 다 만들앙 햅주만은 옛날은 손으로 짠 거 셔서.

106044 @ 여름에는 그 페랭이 썩 다녔던 거고예? 비 올 때 여기는 새로 만든 거 쓰지예, 그걸 뒤편 골아마씨?

106044 #2 비웃이엔 헛주.

106044 @ 우장 안 헛수과?

106044 #2 우장, 우장이엔 헛어.

106044 @ 새로 영 만든 거예?

106044 #2 으.

106037 @ 우장 쓰고 우에는 뭐 썬? 그거 샷갓이엔 안 곁앗수과?

106037 #2 샷갓.

106037 @ 샷갓예?

106037 #2 샷갓 씨고예. 그 우장 입어근에 영.

106038 @ 여름에는 페랭이 썬주만은 겨울에 쓰는 모자도 잇어났수과?

106038 #2 겨울에 씨는 모저가 엇주게. 경 모저가 썬 사름이 셔서. 워낙 잘 사는 사름은, 이제 그 저 시집 장계 간 디 보면은 여저덜 무시거 등뎡이꺼지 주랑헌 모자 영 씨는 거 잇언게. 그 가다로 헤여근에 하르방덜 씨여 낫어.

106038 @ 음. 거 뭐렌 불르는 일름은 몰르고?

106038 #2 몰라.

106040 @ 모르고예. 경허고 여기는 고내리는 양태 같은 거 안 헤낫어예?

106040 #2 양태 안 헤낫어. 양태 안 헌 디가 고내주게. 양태는 일로 동쪽으로 가른 군녕이, 이젠 군녕이엔 안 허영 동귀.

106040 @ 음.

106040 #2 그 스방더레 많이 헛주게. 웨도.

106040 @ 아, 웨도, 동귀.

106040 #2 하귀, 동귀.

106040 @ 헤낫구나. 고내는 그런 거 안 허고예.

106040 #2 모저 짜근에 허는 거 다 잇었어.

106040 @ 예.

106040 #2 양태 만들고 허는 거.

106040 @ 예, 예. 고내는 그거 안 허고예.

106040 #2 고낸 그거 안 허고. 거 허는 사름이 엇엇주게.

106040 @ 예.

106040 #2 그 제서 험 때 이렇게 씨근에 허는 것도 그 동귀 사름덜은 헛어. 즐 앓주게 이렇게 헤영.

106040 @ 음. 기구나예.

7. 식생활

밥과 국

107001 @ 밥 종류에는 무신 밥이 잇수과?

107001 #1 보리밥.

107001 @ 으, 보리밥.

107001 #1 조팝.

107001 @ 조팍.
107001 #1 쓸밥.
107001 @ 쓸밥. 쓸밥이 곤밥?
107001 #1 곤밥. 침 곤밥. 보리밥, 조팍, 곤밥.
107001 @ 으, 보리밥, 조팍, 곤밥. 또 다른 거 서경, 서경허는 거?
107001 #1 서경허는 건 뭐, 보리쌀에 풋도 서끄고, 콩도 서끄고.
107001 @ 음. 그거 말고.
107001 #1 또 범벅, 범벅은 어려운 때 먹어난 거. 좁쌀에 감자 서경 먹어난 거.
범벅.
107002 @ 계민 쌀 종류에는 무신 거 잇수과?
107002 #1 쌀?
107002 @ 으.
107002 #1 쌀 종류에는 무신 거, 보리쌀, 좁쌀, 곤쌀.
107002 @ 으.
107002 #1 곤쌀 대목 그거.
107002 @ 그거. 그거라예.
107002 #1 우리 밥 행 먹는 쌀은.
107002 @ 계민 옛날에는 거의 보리밥이였잖아예?
107002 #1 보리밥이 만해.
107002 @ 예.
107002 #1 질 많이 먹는 건 보리밥이주게.
107003 @ 으, 이제 보리밥 행 먹젠 허민 어떻 해야 헐 것과, 한 번 쪽 곱아줍
서. 보리쌀 장만허는 것서부터.
107003 #1 장만허는 거.
107003 @ 으, 보리밥 헤 먹젠 허민 준비를 해야 쉐 거 아니예.
107003 #1 준비는 그냥 뭐 이견 쌀로 장만헌 때부터 곤젠 허민.
107003 @ 쌀로 장만헌 때부터 곱아줍서.
107003 #1 쌀로 장만헌 때부터 곤젠 허민, 이제 솔보리를.
107003 @ 솔보리.
107003 #1 남방에 강 지여.
107003 @ 음.
107003 #1 거 거죽 벻경, 초불.
107003 @ 남방에에 강?
107003 #1 아니, 저 들방에, 들방에.
107003 @ 예.
107003 #1 들방에 가근에 물 버무리고 헤영, 물 버물영, 거 므른 채 허민 잘 안
벗어지니까.

107003 @ 으.

107003 #1 물을 그디 축축하게 버물영, 경헨 물방에에서 이젠 거죽 다 벳경. 벳겨질 정도로 이젠 지영, 이젠 오랑 물러 가는냥 물라 가는냥 그걸 불려. 물르민 채를 딱로 떼여내여.

107003 @ 아, 물려야?

107003 #1 예, 예 물려야 그것이 나가, 그대로 안 나가.

107003 @ 물려야 그게 나갈 거라.

107003 #1 으, 물령 나갈 거.

107003 @ 음.

107003 #1 멩석에 널영 물류왕.

107003 @ 예, 예.

107003 #1 물류왕 이젠 불령.

107003 @ 불령.

107003 #1 이젠 쓸 만들양, 이젠 ㄱ레에서 또 곶아. 그걸 반착 갈라야 반, 반으로 갈라야, 갈라야 밥을 빨리 튀고 또 먹기 좋고.

107003 @ 게난 물방에에서 곶양 온 건 온착?

107003 #1 물방에에서 지여 온 거를 ㄱ레에서 곶양.

107003 @ 물방에에서 지여 오면 온착 보리쌀.

107003 #1 으, 온착. 겁죽만 벳겨져.

107003 @ 겁죽만 벳겨진 거라.

107003 #1 으, 으 통보리. 그것 ㄱ란 통보리.

107003 @ 기민 이거를 다시 곶아.

107003 #1 ㄱ레에 곶아.

107003 @ 거민 이젠?

107003 #1 겐 ㄱ레에 곶양 이젠 그거 이젠 저 훙은 쌀, 줌쌀. 줌쌀 훙은 쌀이 잇주게. 게민 채로 청 대거름체, 대거름체엔 헌 체로 청, 훙은 걸로 밥 헤 먹고 줌진 건 또 저 줌쌀밥이엔 허영 딱로 헤영 먹고.

107003 @ 음, 큰 거로?

107003 #1 큰 건 주로 밥.

107003 @ 게니까 밥 헤 먹젠 허민 이제, 보리밥 짓젠 허민 보리쌀 씻영?

107003 #1 씻영. 씻영 이젠 물 낱, 그 또 줌쌀도 서꺼.

107003 @ 아.

107003 #1 보리쌀에. 줌쌀, 보리쌀만도 행 먹주만은.

107003 @ 예.

107003 #1 보리쌀 영 놔가지고 물이 함직허른 줌쌀, 줌쌀은 금방 익으니까, 익으난 줌쌀 흐뎡 서경 먹으른 맛이 좋아.

107003 @ 보리쌀은 삶아난 밥 허는 건 아니고?

107003 #1 그대로.

107003 @ 그대로.

107003 #1 물만 하영 노민 그자 그대로 익어 가는냥 밥이 돼여.

107003 @ 아. 막 오래 삶앙.

107003 #1 오래 삶아.

107003 @ 계민 좁쌀은 보리 다 익어가민?

107003 #1 으, 그자 반쯤 익어 가면은 물이 함직 허면은 좁쌀 하영 놓고 물이 죽음직 허면은 좁쌀 죽게 놓고.

107003 @ 아, 물 하면은 좁쌀 하영 놓고?

107003 #1 예, 예. 물에 맞창.

107004 @ 물에 맞창. 반지기밥 알아지쿠과, 반지기밥?

107004 #1 반지기엔 현 거는 보리쌀에 곤쌀게, 좁쌀에 곤쌀이나. 서끄는 것이 반지기.

107004 @ 서끄는 것이 반지기가라예. 반반 논 거.

107004 #1 반반 논 것이 반지기.

107004 @ 기민 아까 보리쌀에 좁쌀 서끄는 거는?

107004 #1 그냥 우리 보통 먹는 거난 그대로 서숙밥이엔 허주게게. 좁쌀에 보리쌀은. 경허고 보리쌀에 곤쌀이나 좁쌀에 곤쌀이나 서끈 건 반지기.

107004 @ 보리쌀에 곤쌀 서끄젠 허면 쓸 ㄱ치 낱 허면?

107004 #1 안 돼.

107004 @ 그럼?

107004 #1 보리쌀 막 익어가민. 곤쌀도 좁쌀만이빠긴 물 안 들어. 그, 그 시간베긴 안 걸려 곤쌀도.

107004 @ 아, 곤쌀도?

107004 #1 으. ㄱ찌 낱은 안 돼고.

107004 @ ㄱ찌 낱은 안 돼여.

107004 #1 으, 안 돼여 절대로. 보리쌀 익히는 게 오래여.

107004 @ 아, 보리쌀 익는 게.

107004 #1 으, 보리쌀 익는 건 막 오래여.

107004 @ 계난 폴폴폴 허게 익어가민 그때야 곤쌀 놓는 거예?

107004 #1 으, 으.

107005 @ 이제 곤밥 곶아줍서, 곤밥. 곤밥은 언제 만들앙 먹어난 것과?

107005 #1 곤밥은 뭐, 곤쌀은 아무 때나 나오는 거난게. 장만은, 장만허는 시기가 잇주기만은 우리가 먹젠 허면 미룻에 받아당 놔 뒷당.

107005 @ 으.

107005 #1 그 필요헌 때 푹 먹을 때 돼영 식게 때나 멩질 때, 생일 때.

107005 @ 아, 생일 때도 곤밥 먹어젿수과?

107005 #1 생일 때도 식구덜 다 먹진 못하고.
107005 @ 예.
107005 #1 그 주인 양반이든 주인 양반, 혼 돼 따로 받아당 놔 뒷당.
107005 @ 예.
107005 #1 으, 경헛다근에 이제 생일 돌아와가민 특별히.
107005 @ 만약에 하르부지 생일날 영 곤밥 지어주젠 허민 아이덜 거는 그냥 보리밥 헐 거 아니.
107005 #1 으, 그자 부족허민 부족헌 대로 쪼끔씩 갈라 먹고 또 보리밥은 따로 헛다근에 이제 또 식량이 차지 안 허면 보리밥으로 떼고.
107005 @ 기민 밥을 두 번 해야 될 거.
107005 #1 두 번 해야주게.
107005 @ 아이고.
107005 #1 양 솟, 두 솟디서 솟양.
107005 @ 두 솟디서?
107005 #1 으, 솟양 헤 뒤사주게. 경 안 허민 시장허민 안 될 거난. 그거 아이덜 양 차게 해주젠 허민 곤썰이 하영 드난 곤썰은 딱 혼 돼민 혼 돼. 웨싱 혼 돼민 웨싱 혼 돼베끼 못 받아오주게.
107005 @ 아.
107005 #1 옛날엔.
107005 @ 옛날엔.
107005 #1 많이 받아 올 수가 엇어.
107005 @ 경헛 그것만 헤 쫓던 거라예. 곤밥 잘 못 먹었던 거잖아예?
107005 #1 식게 때도 숄구락으로 갈랑.
107005 @ 식게 때 숄구락으로 갈랑?
107005 #1 으, 으.
107005 @ 아니, 식게 때 이런 사발에?
107005 #1 아니, 사발에 놓주기만은 아이덜은 얼마 하영 못 먹고 어른덜도 반 사발도 안 돼지게 식게 때도. 식게 때엔 행 옛날에 경 하영 허진 못 허연.
107005 @ 혼 사발 밥 거렁 주지 안 헛수과?
107005 #1 아이고, 흠치 혼 사발 어떻게 혼 사발 거려.
107005 @ 게민.
107005 #1 멧밥이나 올리는 거난 혼 사발 거리주게 그냥 허는 건 반 사발씩.
107005 @ 아, 반 사발?
107005 #1 으, 반 사발.
107005 @ 게민 아래는 보리밥 놓고 우이만 곤밥 더끄는 거?
107005 #1 경허는, 만약에 곤밥이 부족험직 허민 아래 보리밥도 놓주만은 그 쪼끔씩 쪼끔씩 거렁 먹어근에 식량 차게 먹지 못허여. 거.

107005 @ 이제 곤밥 짓젠 허면은 쓸 씻영 밥 없쳐 놓는 건 마찬가지로.
107005 #1 마찬가지로. 이제나 그제나 마찬가지로.
107006 @ 조팝은 어떻 만듭니까? 만들어 봅서?
107006 #1 조팝은, 조팝은 물 꿩영, 물이 삭삭 꿩면은 물 꿩영 허면 좁쌀 놔.
107006 @ 아, 조팝은 경 만드는 것과?
107006 #1 예, 물 꿩영 놓는 거. 흠치 놔 불민 안 돼여.
107006 @ 흠치 놔 불민 안 돼여?
107006 #1 으, 물 삭삭 꿩 가민 어느 정도 좁쌀이 혼 꿩면은 좁쌀이 얼마 드는 거 짐작허영.
107006 @ 음.
107006 #1 경허믄 고실락허게 잘 돼여.
107006 @ 아 기과?
107006 #1 으.
107007 @ 풋밥?
107007 #1 풋밥?
107007 @ 으.
107007 #1 풋밥은 풋으로 밥은 안 허고 풋죽.
107007 @ 풋죽. 아니 풋 영 밥에.
107007 #1 풋은 보리쌀에 서경.
107007 @ 서경.
107007 #1 보리쌀에 그냥 서꺼도 돼여 풋은.
107007 @ 습지 안 해?
107007 #1 습지 안 해도.
107007 @ 아, 웹니까?
107007 #1 보리쌀이 원체 오래니까.
107007 @ 아.
107007 #1 보리쌀이 오래 습으니까 보리쌀에 ㄹ치 놔도 돼여.
107007 @ 아, ㄹ치 놔도 돼여.
107007 #1 으, 으. 풋만 딱로 습으지 안 해도 돼여.
107008 @ 그리고 피밥도 먹어 봤수과?
107008 #1 안 먹어 봤.
107008 @ 안 먹어 봤.
107008 #1 핀 갈아 보지도 안 허고 먹어 보지도 안 허고 우린.
107008 @ 아, 이 동네 피는 안 해낫구나.
107008 #1 으. 우리 동네 피는 안 허여.
107009 @ 예. 감저밥 만들어 줍서, 감저밥.
107009 #1 감저밥?

107009 @ 으.

107009 #1 감저밥?

107009 @ 으.

107009 #1 감저밥은 좁쌀에 감저, 보리쌀에도 넣고 좁쌀에도 넣고.

107009 @ 계난 어떻 만들어?

107009 #1 만드는 건게 그냥 저 감저는 ㄴ치 좁쌀이영 ㄴ치.

107009 @ 음.

107009 #1 아, 감저 먼침 낵 흐쌀 익히당 이제 좁쌀 낵 숨아가민 밥 돼불주게.

107009 @ 감저 먼저 낵.

107009 #1 으.

107009 @ 감저를.

107009 #1 쌀어근에. 다 씻영 겁죽 벳경 영 요만씩, 요만씩 쌀영 이젠 낵.

107009 @ 경 물에 낵 감저를 먼저 삶아?

107009 #1 으, 삶당, 삶당.

107009 @ 계민 영 찢러 빵 다 익으민?

107009 #1 으, 익기 전에도 쪼끔, 익기 전에 뇌야 좁쌀도 ㄴ치 익주게.

107009 @ 아, 감저 다 익기 전에 놀 거예.

107009 #1 으.

107001 @ 그리고 저기 못 알아지쿠과, 못? 물룣, 물룣?

107001 #1 물룣 알아지주게.

107001 @ 그걸로도 밥 행 먹어낵수과?

107001 #1 난 안 행 먹어받.

107001 @ 안 해 먹어받마씨?

107010 #1 으, 다른 사름덜은 물룣에 패.

107012 @ 으.

107012 #1 패밥, 것ㄴ라 패밥.

107012 @ 패밥예.

107012 #1 으, 패밥.

107012 @ 물룣에 패밥 만들젠 허민 어떻 해나신고?

107012 #1 물룣에 패밥은 허젠은 허믄 패를 메여당 그것을 깨것이 씻영.

107012 @ 으.

107012 #1 곱닥허게 씻어근에 이제 삶양. 오래 삶아야 허여. 패는.

107012 @ 패를 오래 삶아야 허여.

107012 #1 으, 으. 패도 오래 삶고, 물룣도 오래 삶고.

107012 @ 으.

107012 #1 물룣도 완전 오래 삶아야 그냥, 그 물, 불 달게 말고 모롱허게 해 둬서 오래 오래 삶아야 물룣도 삶아지고.

107012 @ 으.

107012 #1 현대 우린 헨 먹어보진 안 현대 물룻밥, 패밥 옛날덜 먹어난 사름덜은 막 먹어난.

107012 @ 계난 막 오래 삶아 가면 물, 패 삶아지잖아예?

107012 #1 으.

107012 @ 그 다음에 어떻게?

107012 #1 그 다음에 그 물룻도 ㄱ치 삶아.

107012 @ 으.

107012 #1 경혜근에 이젠 쓸 흐뎡 놔근에게.

107012 @ 겐 그거 건져낸 찌어놔?

107012 #1 아니 그냥 그냥. 그, 그대로 험실 거라. 난 헤 보지 안 허연 먹어보지도 안 허고 말만 들엇주기만은 그 찌에 물 들어가고 찌이 익어가면은 밥이 되는 거라.

107012 @ 아, 밥이 되는 거라예.

107012 #1 으. 찌 흐뎡 놔야 밥이 돼주기게.

107012 @ 으. 음.

107012 #1 그거 아주 어려운 때에 쓸덜이 부족허니까 그건 조금 도움이 웬, 경허영 먹어, 먹어난 생이라.

107012 @ 경현 거라?

107012 #1 으, 음.

107012 @ 계난 패밥도 안 먹어 봤수과?

107012 #1 안 먹어 봤.

107011 @ 툷밥은 어떻 허과, 툷밥?

107011 #1 툷밥도.

107011 @ 툷밥, 툷밥?

107011 #1 툷이 툷.

107011 @ 으, 툷.

107011 #1 아이 먹어 봤.

107011 @ 것도 안 먹어 보고예?

107011 #1 으.

107013 @ 이제 밥은 이 정도 텃고예, 밥 헤시난 국 끓이쿠다, 국예. 국 종류에는 뭐가 잇수과?

107013 #1 국의 종류 뭐 늣뻬국도 잇고 메역국도 잇고 배추국도 잇고 뭐 여러가지 잇주게.

107013 @ 으.

107013 #1 국덜은.

107013 @ 그런 거 넣는 거에 따라서예?

107013 #1 콩늑물국도 잇고 뭐.
107013 @ 콩늑물 국도 잇고.
107013 #1 국 종류에는 뭐 호박국도 잇고.
107013 @ 으.
107013 #1 철에 딱라 가지고 철에 딱라.
107013 @ 자, 늑물국을 끓이쿠다.
107013 #1 늑물국.
107013 @ 늑물국 끓이쿠다예.
107013 #1 으, 늑물국.
107014 @ 늑물국 끓이젠 허민 어떻 헐 거? 이제 물 꿩우는 것부터 골아줍서.
107014 #1 늑물국 끓이젠 허민 물 꿩와근에, 이젠 뭐, 그전인 뭐 다시 무신 멜
치여 무시겨여도 안 놔도 웬장만 노민 먹어젓주만은 이젠 웬장 놓고게, 메루치 놓
고, 메루치 다시다나 메루치 놓고.
107014 @ 이제 말고 옛날에 끓여 먹어난 거.
107014 #1 옛날에 그냥 웬장허고 늑물만 낱 끓영.
107014 @ 게민, 물 끓어가민?
107014 #1 으, 물 와상와상 끓여가민 늑물 놔. 웬장 놓고. 늑물 낱 익어가민 웬
장 놓고.
107014 @ 아, 웬장을 나중에 놓는 거?
107014 #1 내중엘 노나 그건 이녁 므음게.
107014 @ 이녁 므음?
107014 #1 예, 예.
107014 @ 하하.
107014 #1 뭐 같이 놔도 돼고.
107015 @ 음. 경헛던 거. 이제는 콩늑물국 끓여줍서, 콩늑물국.
107015 #1 콩늑물국도게 콩늑물은 그냥 물 많이 놓지 말앙, 많이 노민 막 콩늑
물은 부껴불어 물이.
107015 @ 음.
107015 #1 슌젠 허믈. 부껴부난 조그만이 낱 슌아 낱.
107015 @ 으.
107015 #1 겐 익어가는낱 물 흐뎡 더 낱, 많이 낱.
107015 @ 음.
107015 #1 경헛 콩늑물엔 장물.
107015 @ 아, 웬장 아니고?
107015 #1 웬장 아니 장물.
107015 @ 장물 놔?
107015 #1 으, 음. 콩늑물엔 장물.

107015 @ 장물 놔예.

107015 #1 아, 웬장도 쪼금 놔도 돼주만은 주로 장물 서꺼야주.

107015 @ 계민 아까 물룻밥 안 해나신디 국도 물룻국 안 해난?

107015 #1 안해, 안해.

107015 @ 안해난.

107015 #1 물룻도 아무것도 국도 난 안 먹어 받.

107015 @ 음.

107015 #1 허기는 허영 먹는 사름덜이, 먹어난 사름덜이 실 거라.

107016 @ 계민, 물룻 그거 말고 무우국예, 무우국. 무수로 만든 국?

107016 #1 으, 으. 저, 늠뻬로 허는 거.

107016 @ 늠뻬국.

107016 #1 어. 그것도 물 췌와근에 즘질이 썰영 놔뵤다근에 물 췌어가민 놔근에, 그것도 웬장 낱 끓이고.

107016 @ 웬장 낱 끓이는 거?

107016 #1 으. 경헛주. 고기 낱 끓일 때는 장물 놓고.

107010 @ 아까 밥 헐 때 물룻밭고 무수로도 밥 헝 먹어낫수과.

107010 #1 으, 으. 경도 헝 먹어봐도 나도 그것도 안 헝 먹어 받. 무수로도 낱, 무수도 서경 먹어낫주게.

107017 @ 아. 콩국은 어떻 끓입니까? 콩국?

107017 #1 콩국?

107017 @ 예?

107017 #1 콩국은 그냥 물 놔근에 흐뵤 영 물이 췌여가면은, 물이 불 슣양 췌여가면은 이제 슣키 늠물이나.

107017 @ 음.

107017 #1 경헛 놔근에 이제 슣당 콩ㄱ를 영. 건 콩ㄱ를 놓는 거는 그 사름 이 녁 저 무시거 배운 지썸. 배우니 지썸으로.

107017 @ 으.

107017 #1 믱른 채 허끄는 사름도 잇고 우에, 또 물 그릇에 영 허믈 낱푼이에 미지근헛 물에 짓어근에 막 범벅거치 흐뵤 물랑허게 허영 우터리 슣허게 노면 그 콩국이 틀막틀막틀막 돼주게.

107017 @ 아.

107017 #1 경헛, 경헛 이제 불 약허게 헛근에 영 헛가믈 덩어리 짓어. 경허믈 우터레 소금은 노나 장물 흐뵤 헛영 근 맞칭.

107017 @ 근 맞칭 먹는 거.

107017 #1 으, 근 맞칭.

107017 @ 아. 어무닌 풀어 낱 헛수과, 사발에?

107017 #1 으, 난 풀어 낱, ㄱ를 풀어 낱. 늠물이며, 늠물 놔근에 흐뵤 발랑발랑

익어가든 그 우터레 노른 우린 그자 경헨 꿏영 먹언.

107018 @ 이제랑 호박입국 꿏여 주십서.

107018 #1 호박입은 호박입도 물 뇌근에 이제 꺀여 가든 호박입이 막, 호박입은 이 손으로 영 영 무지려, 무지려.

107018 @ 호박입 영 벗기지 안 헤?

107018 #1 벳겨, 침.

107018 @ 벳겨.

107018 #1 그 텡구리 벳겨.

107018 @ 예.

107018 #1 벳경 씻영 이젠 칼로 써는 것보단 손으로 영영 무지르멍.

107018 @ 무지렁.

107018 #1 근에 이젠 꼭꼭허게 그릇더레 낵, 냄비레 낵, 불 솥는 냄비레, 물 눈 냄비레 낵.

107018 @ 예.

107018 #1 경헤근에 그냥 솥당 호박입이 조금 익어가는 거 닻으면은 밀꺀를.

107018 @ 예.

107018 #1 그거 노민 더 문작허영 좋아.

107018 @ 아.

107018 #1 밀꺀를 헤영 범벅거치 영 카근에 헛당 그냥 영 비우나, 경 안 허면 쫓끔, 쫓끔 뒀게 허여근에 슬구락으로 쓱쓱쓱쓱 거려 노면은 더 맛이 있어.

107018 @ 즈베기처럼?

107018 #1 즈베기처럼 헤도 흐뎡 물랑허게 허영 흐뎡 즐게시리 헤영.

107018 @ 아.

107018 #1 경 맛이 좋아.

107018 @ 아.

107018 #1 요새 우리 노인당에서 매날 먹엇주게.

107018 @ 호박입국?

107018 #1 호박입국. 으, 으.

107018 @ 밀꺀를 풀어놔예.

107018 #1 으, 밀꺀를 풀어놔야, 무신 꺀를 놔야 경 안허민 물경헤영 안 뒀여. 맛이 엇어.

107018 @ 믱물꺀루도 괜찮우과?

107018 #1 믱물꺀를덜은 잘 놓지 안 허주만은, 믱물꺀를이 아멩헤도 비싸고 경 쉬웁지 안 헤여 이디는.

107018 @ 아.

107018 #1 으, 여긴 아멩헤도.

107018 @ 여기는 믱물 잘?

107018 #1 안 같아.

107018 @ 안 가는구나?

107018 #1 으, 돼질 안 허여. 이 고내는. 고내 지경엔.

107018 @ 계난 옛날에도 믫물궤루로 막 뒤 헤 먹거나 경 허진 안 헛구나?

107018 #1 으, 안 헤연, 안 헤연. 받아 와야.

107018 @ 아, 받아 와야?

107018 #1 비싸게 쥬 오일장에나 강 받아 와야.

107018 @ 경허야 먹을 수 있는 거구나.

107018 #1 예, 경허야 먹어지주게. 겨고 식게 때 멩질 때 무신 떡이나 허젠 헤야 받아 오주 경 안 허민.

107018 @ 으, 보통 때 먹는 건 아니구나?

107018 #1 으, 그냥 보통 때는.

107019 @ 이제, 이젤랑예 몹국 끓여주십서.

107019 #1 몹국?

107019 @ 예.

107019 #1 몹도 몹 헤여근에 저 춤몹.

107019 @ 예.

107019 #1 춤몹 헤다근에 이젠 그냥 놀채덜도 숲아근에 허주만은 몰류왕 그 몰류왕당 이제 빨앙.

107019 @ 물리는 건 놀채 물리는 거 숲앙 물리는 거?

107019 #1 놀채.

107019 @ 놀채 물려?

107019 #1 으, 음.

107019 @ 놀채 몰류왕.

107019 #1 톳은 숲앙 물려도.

107019 @ 아.

107019 #1 톳은. 몹은 그냥 물려 춤몹은.

107019 @ 예.

107019 #1 경헤근에 헛당 이제 먹을 만씩 빨앙.

107019 @ 빨앙?

107019 #1 으, 빨앙 이젠 썰어.

107019 @ 그때 빨 때도 숲진 안 허는 거? 그냥 물에만 킁 놔두민 웹니까?

107019 #1 어, 어. 물려난 거는 물에 킁 헛당 빨믄 되는 거.

107019 @ 아. 경헿 이젠 썰엉?

107019 #1 컷당 이젠 빨앙 썰엉.

107019 @ 예.

107019 #1 경헤근에 이젠 그것도. 그거는 뒤 빼 딸린 국에도 끓이고.

107019 @ 아.

107019 #1 그냥 빈 국에는 안 허여 뭘은.

107019 @ 뭘은 안 헤여.

107019 #1 뭘은 그냥 소 빼 같은 거, 저 도야지 빼. 그런 거, 그런 것에 끓이주 뭘죽은.

107019 @ 어쨌든 막 고기 삶아난 물?

107019 #1 고기 삶아난 국물에. 그런 거 뭘은, 그런 거.

107019 @ 으.

107019 #1 허고 자반, 뭘차반이엔 헐 무청도 먹어, 늘채.

107019 @ 아.

107019 #1 무쳐도 좋아.

107020 @ 으. 이제랑예, 생선국?

107020 #1 생선국은게 물 삭삭 꿩여근에 그 고기도.

107020 @ 보통 무슨 고기 국 하영 끓여 먹읍니까, 생선은?

107020 #1 생선국게, 저.

107020 @ 오토미 얘기 허는 거?

107020 #1 올토미.

107020 @ 다시 한 번 글아줘봅서.

107020 #1 이디서는 저 생성, 생선은 빨강헌 그 올토미 생성.

107020 @ 아, 올토미렌 헤?

107020 #1 으, 생선. 그거 허젠 허든 물 삭삭 꿩여근에. 그런 바닷꿩기는 물 꿩여, 막 오래 습양 짐이 팡팡 나게 꿩여 그거 봐야 헤싸지지 안 허여.

107020 @ 예.

107020 #1 겨난 경헐 낱 허곡 무수, 늣빼.

107020 @ 으.

107020 #1 그거.

107020 @ 게민, 물 꿩면 거기에.

107020 #1 고기 낱.

107020 @ 고기 낱, 오토미 낱?

107020 #1 으, 으. 오토미영, 늣빼영 ㄹ치 봐도 꿩고. 경 안허민 오토미 낱 또 흐끔 습당 늣빼 봐도 꿩고.

107020 @ 옛날에 끓여 먹을 때는, 요즘은 ㄹ녀 삶아 낱 막 빼 발르잖아? 생선 빼들, 옛날에는 경 안 헐 그냥 빼차?

107020 #1 빼차.

107020 @ 빼차?

107020 #1 빼차, 빼차. 빼차 영영 ㄹ차, ㄹ차근에 영 헐.

107020 @ 으.

107020 #1 물 꿩 노면은 그거 경 헤싸지지 안 허여.
107020 @ 으.
107020 #1 오곳오곳 흔 점씩 거렁.
107021 @ 으, 음. 이제랑 메역국 끓여 주십서.
107021 #1 메역도게, 메역도 물 꿩여근에 노면은, 메역 즈물양 오면은.
107021 @ 으.
107021 #1 들황, 이젠 또 그걸 먹을 만씩 빨앙, 빨앙 썰영.
107021 @ 음.
107021 #1 이젠 뭐 고기국에 끓이나 경 안 허믄 장국엘 허나, 저 웬장 낱 장국 끓이나.
107021 @ 으. 물 끓여가민 메역 낱?
107021 #1 으, 메역 낱.
107021 @ 웬장 놓거나 장 놓거나예?
107021 #1 으, 으. 메역국은 침 고기국에 놓거나.
107021 @ 으.
107021 #1 메역도, 메역도 메역 먹는 시기가 있어.
107021 @ 언제 메역 먹읍니까?
107021 #1 아니, 겨울에, 겨울에 그 쟁성국 같은 것엔 메역도 노민 좋주게.
107021 @ 으.
107021 #1 경허고 췌고기국 끓일 때.
107022 @ 예, 췌고기국. 맞아마씨, 맞아예. 이제 여름엔 냉국덜 하영 행 먹엇잖 아예, 냉국예?
107022 #1 으.
107022 @ 냉국 끓이젠 허민 어떻 험니까?
107022 #1 냉국 허젠 허민 여름에사 오이게, 오이냉국도 싯곡, 여름에 대목 오이냉국이주덜게 여름에.
107022 @ 대목예?
107022 #1 으, 대목, 대목.
107022 @ 자, 오이 냉국 만들어 주십서, 맛있게 만들어 주십서. 하하.
107022 #1 난, 난 경 맛있게 만들진 못 허곡게.
107022 @ 하하.
107022 #1 아니, 아니 그건 침, 요즘 젊은 사름덜 하도 맛있게 헤 노난. 옛날엔 맛 싯고 엇고게.
107022 @ 하하.
107022 #1 옛날, 옛날엔 오이도 엇언.
107022 @ 아, 오이 엇언. 맞지 오이 엇엇지. 뭘로 헛수과?
107022 #1 경허믄 옛날에 장국이엔 허믄 저 툃장국.

107022 @ 툇장궏?

107022 #1 으, 그거 여름에.

107022 @ 물웨 엇엇수과?

107022 #1 물웁 췏지, 침. 물웨.

107022 @ 맞아.

107022 #1 오이 데령 물웨.

107022 @ 맞아.

107022 #1 물웨로 장궏덜 행 먹엇지.

107022 @ 그지 물웨 장궏.

107022 #1 물웨, 물웨.

107022 @ 우선 물웨 장궏을 먼저 만들어 주십서.

107022 #1 물웨, 물웨 장궏도게 그냥 췏어근에, 줌질이 거궏 벅겨뵐.

107022 @ 물웨 거궏 벅경.

107022 #1 거궏 벅겨야, 물웨 거궏은 질겨.

107022 @ 아.

107022 #1 이 오이는 그냥 먹어도 뵐주만은 이 물웨 질경, 경 거궏 벅경 이젠 줌질이 췏영.

107022 @ 으.

107022 #1 경혜근에 저 그 무신 웁장 양념 흐뵐 허는 책 행. 뵐 고치나 무신 궏 그를이나. 그런 것덜은 옛날도 췏궏씩 서 나서.

107022 @ 게니까. 궏궏루영 고치영.

107022 #1 췏궏씩 그런 건 가정용 싱경이, 많인 안 허고게.

107022 @ 예.

107022 #1 경혜근에 낱 냉궏 행 먹고. 식초나 흐뵐 놓고.

107022 @ 식초?

107022 #1 식초, 식초. 식촌 대목 옛날부터 흐뵐씩 서 난.

107022 @ 저기 궏도 아니면 새우리도 흐뵐?

107022 #1 여름엔 새우리도 흐뵐 췏어 놓고.

107022 @ 새우리도 췏어 놓고 다마네기도 줌 췏어 놓고?

107022 #1 다마네긴 옛날 벨로 엇엇주게.

107022 @ 엇엇수과?

107022 #1 옛날, 아주 옛날엔. 이제 중간에나 낱주.

107022 @ 아. 새우리는?

107022 #1 새우리는 옛날부터 췏궏, 이 울타리에덜, 우궏에.

107022 @ 우영뵐디?

107022 #1 예예.

107022 @ 우영뵐디예?

107022 #1 으, 우영빳디 시난.

107022 @ 그거 헛고. 툃냉국은 어떻 만듭니까?

107022 #1 툃냉국도게 툃 헤여근에 물렁다근에 물 켑 이제 빨아근에 즈질이 썰 영, 이젠 저 무시겅고 웬장.

107022 @ 웬장?

107022 #1 으, 웬장 양념헤 낱. 으 그것도 새우리영 무시거영 웬장더레 다 문침 양념을 다 헤영 그거 다, 장국 허젠 허민 새우리를 익혀야 헐 거난 그냥 놔 불민 살아. 물에 노민 살아. 새우리가 살아. 새우리나 파나.

107022 @ 예.

107022 #1 물에 노민 사니까 웬장에 놔서 문침 익혀 낱 짬물로.

107022 @ 아, 뜨거운 물이?

107022 #1 짬물, 짬 거, 짬 것이 들어가면은 그것이 느룻헤영 놔도 먹기가 좋아.

107022 @ 아, 그냥 썰어 논 것 보다?

107022 #1 으. 그냥 썰어 놓는 거 보단.

107023 @ 옛날에도 성게국이 잇엇수과?

107023 #1 아주 옛날에 성게는 잇지만은 국 거튼 거 꿍영 먹어보지는 안 헛주 게.

107023 @ 성게국이란 건 요즘 난 거?

107023 #1 예, 예.

107023 @ 성게국 꿍일 때는 어떻 꿍엇수과?

107023 #1 우리 벨로 성게국은 경 쟁상시에 끌렁 먹어보지 안 허연. 이 큰일 때 나 끌렛주.

107023 @ 아.

107023 #1 거 뉘 가정에 무신 그거. 옛날부텀 그건 좀 어려와나서.

107023 @ 으.

107023 #1 경허고.

107023 @ 게도 고내리에도 물질허는 사름덜 막 하나지 안 헤?

107023 #1 물질허는 사름 옛날도 하 낫주만은 그 성게 같은 건 물에 들영 잡아 옴 버릇을 안 헛주게. 옛날은.

107023 @ 아.

107023 #1 그냥 물 싸든 곳디로 강.

107023 @ 아, 곳디로 강?

107023 #1 으, 곳디로 강 그냥 바르잡앗젠 헝 바룻덜 잡으레 갓당.

107023 @ 바르잡앙.

107023 #1 경헝덜 흐뵁씩 헤당덜 그냥 숲아근에 그자 깡 먹어낫주. 국 꿍이거나 무신 반찬하거나 그런 식은 안 헤연.

107023 @ 그냥 숲아가지고?

107023 #1 으, 솥아가지고. 경 안 허민 늘채로 행 먹으나. 늘채 깡도 먹어져.

107023 @ 아. 그냥 보말 솥아 먹는 듯이?

107023 #1 예, 보말, 보말 거치. 보말에 그거 ㄱ치 잡아다근에.

107023 @ 잡아당? 보말국은 끓여 먹었수과?

107023 #1 보말국도 옛날엔 경 끌렁 먹어보진 안 헨. 그냥 솥양. 솥양 올양덜 그자. 심심허믄, 심심허믄.

107023 @ 그냥 간식으로 먹었던 거?

107023 #1 으, 간식으로.

107023 @ 볶양 반찬 행 먹거나 경허진 안허고?

107023 #1 아니, 경 하영 행 오지 못 허연게.

107023 @ 아.

107023 #1 쪼금씩, 쪼금씩 해당.

107023 @ 그냥 그때 먹영 끝?

107023 #1 으.

107023 @ 패국 말고 그냥 넘패국이란 것도 잇수과?

107023 #1 넘패국 잘 행 먹었지.

107023 @ 아.

107023 #1 넘패, 미역췌.

107023 @ 아, 넘패, 미역췌?

107023 #1 으. 그런 거는 물만 싸민 이녁대로 헤여당 그거는 뭐 첨 많이 먹었지 옛날부터.

107023 @ 아.

107023 #1 그거는 옛날부터 잇어났어.

107023 @ 어떻 끌립니까? 넘패국은?

107023 #1 물 췌여가면은 노면은.

107023 @ 넘패 미리 안 삶아?

107023 #1 아, 그거 미리 솥아도 돼고.

107023 @ 예.

107023 #1 물렸던 거는 빨면 그냥도 돼고. 경 안 헤영 늘채 현 거는 솥양.

107023 @ 그지예?

107023 #1 거 금방 해당근에 금방 먹젠은 허믄 솥양 솥아놔야 돼지. 그 물렸던 거는 또 그대로 또 물에 낡 빨면은 끌려지고.

107023 @ 음.

107023 #1 으, 경허민 췌여. 미역췌, 저 넘핀 많이 먹어.

107023 @ 게민 그 넘패국은 미역국이랑 비슷합니까?

107023 #1 늣뻘?

107023 @ 아니, 넘패?

107023 #1 으, 비슷해도 더 들미롱헌 맛이 있어. 지픈 맛이 있어.
107023 @ 아, 넘패국이?
107023 #1 어. 잘 해근에 숲아근에 끌려 노민.
107023 @ 으.
107023 #1 넘팬 넘패대로 맛있고 메역쇄는 메역쇄대로 맛이 있고.
107023 @ 메역쇄는 미역을 메역쇄렌 허는 거?
107023 #1 아니. 메역쇄 따로 있어.
107023 @ 으.
107023 #1 요만씩 영 지레 현 건디 나풀나풀 해가지고 나는 바둑이 있어.
107023 @ 아.
107023 #1 그건 지픈 디도 안 나. 그냥 물 조금 싸 가면은 메역췌, 메역쇄, 넘피는 ㄴ튼 고단에 나.
107023 @ 아, 예.
107023 #1 메역쇄. 몰라 다른 디는 빛이엔사 굴암산디 우리 동네는 메역쇄 넘패.
107023 @ 그럼 이 메역쇄는 미역 종류이긴?
107023 #1 종류는 종류. 종류는 종류라도.
107023 @ 예.
107023 #1 메역은 금방 빨아근에 금방 먹을 수도 있지만은 이건 숲아야. 좀 질겨.
107023 @ 그럼 뽀닥뽀닥 현 거다예?
107023 #1 뽀닥뽀닥. 막 뽀닥뽀닥은 안 해도 조금.
107023 @ 으, 메역쇄예?
107023 #1 메역쇄.
107023 @ 가시리국은?
107023 #1 가시린 우린 아니 먹어. 저 어디 동촌더렌 먹어렌 헨게.
107023 @ 예, 먹어난.
107023 #1 그런 거 우린 메역당 옛날에 풀 딸렁.
107023 @ 아.
107023 #1 저, 이런 백지에, 저기 도배할 때. 그런 거로 씻주기게.
107023 @ 가시리?
107023 #1 먹어보진 안 허여. 가시린.
107023 @ 가시리 풀 쓸 때 가시리 허여?
107023 #1 으, 풀 쓸 때 가시리 허여.
107023 @ 아.
107023 #1 풀. 우미, 메역쇄 그런 건 풀로.
107023 @ 우미도 풀 헤낫수과?

107023 #1 우미 옛날엔 우미도 풀로 허고. 가시리도 풀로 헤난디 이제는 우미도 숲아근에 바레영 숲양 먹엄주만은.

107023 @ 아, 기과?

107023 #1 으, 옛날엔 가시리 같은 것도 풀로 썼어.

107023 @ 음. 파래는마씨, 파래는?

107023 #1 파래는 나는 고단이 있어.

107023 @ 프래?

107023 #1 으, 프래. 우리 동네는 파래 잘 안 나난 잘 먹어어 받.

107023 @ 프래국도예?

107023 #1 으.

107023 @ 옛날에도 물훼 많이 만들영 먹엇수과?

107023 #1 으?

107023 @ 물훼, 아까 냉국?

107023 #1 냉국덜 하영 먹언 옛날에게.

107023 @ 그니까 그 냉국에 레기 잡은 거, 바당 레기 잡은 것도 영 썰어 낱?

107023 #1 옛날에?

107023 @ 으. 우리 자리물훼 같은 거?

107023 #1 오징어.

107023 @ 아, 오징어로.

107023 #1 옛날에덜은 오징어도 이만씩 현 거 부찌와 바당에 강. 그런 것덜 헤 영.

107023 @ 으. 그걸로 물훼 행 먹언?

107023 #1 아니, 물훼도 허주만은 그런 걸로 물훼도 비싸고 많이 아니 나니까 매 집이 먹진 안 헛는디 허여 오는 집이덜은 거 행 먹어낫주.

107023 @ 아, 오징에 잡아단.

107023 #1 으, 오징에 잡아오른.

107023 @ 으.

107023 #1 그 잡아 오는 집에서. 우리는 아버지가 바당 영업을 헤 나니까 그건 잘 먹어낫주게.

107023 @ 으.

107023 #1 훼 거튼 것도 들류왕 구왕도 영 지져 먹고 그런 것덜 오징에도.

107023 @ 지난 번에 오징에 잡을 때 헛불 싸근에 밤에 강 잡앙 왕예?

107023 #1 으, 으.

107023 @ 경헛 잡은 걸로 물훼 행 먹언예.

죽류

107024 @ 이번에는 죽예, 죽. 죽 종류 가 보쿠다. 끓여 먹어난 죽 종류에는 뭐

가 잇수과?

107024 #1 죽 종류?

107024 @ 으.

107024 #1 팻도 잇고.

107024 @ 팻.

107024 #1 녹두.

107024 @ 녹두. 또.

107024 #1 돛비.

107024 @ 돛비.

107024 #1 그런 거, 그런 종류 다 잇주게.

107025 @ 으, 돛비에. 그림예 곤죽서부터 가보쿠다 곤죽.

107025 #1 곤죽은 흰죽계.

107025 @ 예, 흰죽, 여기서 흰죽이렌.

107025 #1 쌀죽, 쌀죽. 흰죽, 흰죽, 흰죽. 곤죽이라 흰죽.

107025 @ 게니까 곤죽이렌 글앗수과, 흰죽이렌 글앗수과, 쌀죽이렌 글앗수과?

107025 #1 곤죽이렌 글안.

107025 @ 아, 곤죽이렌 글안예. 곤죽이엔 글앗어.

107025 #1 나중에 돼 가난 쌀죽이여 무시거여.

107025 @ 예, 예. 게난 고내리서 글아난 말로.

107025 #1 곤죽.

107025 @ 곤죽. 곤죽은 어떤 때 끓영 먹어져난마씨?

107025 #1 아픈 때나 허고게.

107025 @ 기지예?

107025 #1 으, 으. 아픈 때 밥 못 먹어 가민 곤죽 썩.

107025 @ 곤죽 썩?

107025 #1 으, 기자. 이제는 쌀죽이여 무신 흰죽이여 햄주만은 그뻐.

107025 @ 으.

107025 #1 흥꿈 기다리라게, 곤죽 썩 주마. 경혜난 옛날.

107025 @ 하하. 게민 아이덜 아픈 때도 곤죽 준덴 허민?

107025 #1 으, 아픈 때도 그거.

107025 @ 그거 준덴 허민 좋아헨?

107025 #1 좋아허명 말명 헤도 어떻게 다른 약도 엇고.

107025 @ 아.

107025 #1 먹어 볼 게 엇주기에.

107025 @ 아.

107025 #1 설사나 나곡게 어떻 아팠 못 전당 무신. 밥은 못 먹켄 헤가민 곤죽이 나베끼 무시거 먹을 거 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엇어, 옛날에.

107026 @ 엇어 낫어예. 조죽도 해 먹어 낫수과? 조, 조로 죽, 조축?
107026 #1 조축? 조로 죽은 못 써. 겁죽, 조엔은 허믄 겁죽 신앙 조주게. 줍쌀죽
은 줍쌀죽이주게.
107026 @ 줍쌀죽.
107026 #1 줍쌀죽 쭈지.
107026 @ 으, 줍쌀죽.
107026 #1 줍쌀도이 여러 종류가 있어.
107026 @ 예.
107026 #1 희린줍쌀, 모인줍쌀.
107026 @ 희린줍쌀, 모인줍쌀?
107026 #1 예, 희린 걸론 못 쭈.
107026 @ 으.
107026 #1 모인 걸로 해야 돼. 모인 거는 파삭파삭 모이니까 죽을 쭈지는다.
107026 @ 예.
107026 #1 희린 거는 너무너무 흐려 가지고 범벅 돼불영 죽 쭈민 못 먹어.
107026 @ 아.
107026 #1 모인 건 막 먹기 좋아. 모인줍쌀은.
107026 @ 아, 모인줍쌀로예?
107026 #1 으, 모인줍쌀로 죽 썰 먹고.
107026 @ 그럼 떡 허는 것도 모인줍쌀로?
107026 #1 아니, 떡 허는 거는 반 서꺼도 좋고, 희린 거, 모인 거.
107026 @ 으.
107026 #1 너미 희린 것만 허믄 막 흐려불고.
107026 @ 예.
107026 #1 너미 모인 것만 허믄 바삭져불고 허니까 반 서경.
107026 @ 반 서경?
107026 #1 으.
107026 @ 깨민 줍쌀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 거?
107026 #1 아니, 이름은 강돌나리여 무신, 무신. 무시겨여, 무시겨여 멧 곡지 이
실 겨여만은 우리 주로 헤난 거는 희린조, 모인조.
107026 @ 희린조, 모인조예?
107026 #1 으.
107026 @ 죽 쭈는 거는 모인조?
107026 #1 으, 모인조.
107026 @ 이제 죽 쭈 줍서. 모인줍쌀로 죽 쭈젠 허민 어떻 헐 거?
107026 #1 그것도 모인줍쌀로 죽 쭈젠 허민 ㄱ치, 물에 ㄱ치 낱.
107026 @ ㄱ치 낱?

107026 #1 으, ㄱ치 난에 그냥 짓엉, 꺾여 가는양 짓어 가믄 죽 뒤는 거난.

107026 @ 으, 물 하영 낱?

107026 #1 아니, ㄱ 맞창 그자 쫄이 하믄 하영 놓고게.

107026 @ 으, 으.

107026 #1 너미 뒤여도 안 뒤고 알화도 안 뒤고.

107026 @ 좁쌀 죽 혈 때 ㄱ쫄도 ㄱ뉼니까, 아니면 좁쌀만 ㄱ뉼니까?

107026 #1 아니, 말제 뒤가난 그 쫄이 ㄱ쫄 때는 서꺾주만은 ㄱ냇날엔 ㄱ이니까 좁쌀죽만, 모인좁쌀 죽만 썩 먹엇주.

107027 @ 예. 이제 팔죽 끓여 주십서, 팔죽.

107027 #1 팔죽은게.

107027 @ 꺾죽? 꺾죽이엔 혈 거?

107027 #1 꺾죽, ㄱ냇날은 꺾죽.

107027 @ 으.

107027 #1 꺾죽은 꺾 놓양 꺾 막 익형.

107027 @ 으.

107027 #1 데경. 데경 좋아허는 사름은 막 그거 허고 오실오실오실 허게 그냥. 그거 익어가면은 이제 쫄 꺾엉 낱, 이제 쫄도 익고 그것도 익으면은 먹는 사름도 잇고.

107027 @ 어꺾든 영 문질러 헤야 뒤 거 아니, 꺾 익으면?

107027 #1 문질러 좋아허는 사름도 잇고 그대로 쫄는 사름도 잇어. 그대로 익형.

107027 @ 아, 그대로?

107027 #1 막 익허근에 그냥, 거저 익어가민 쫄 ㄱ근에 허영 그대로 거령 먹는 사름도 잇어.

107027 @ 아, 그럼 팔 막 문질러지지 않은 채 그대로?

107027 #1 으, 그대로. 그대로도 거, 그대로 썩 좋아허는 사름은 그대로 쫄고.

107028 @ 콩죽은 어떻 쫄니까?

107028 #1 콩죽은 콩 ㄱ아당 ㄱ물로. ㄱ물로 ㄱ아당 이젠 쫄 ㄱ근에 좁쌀도 모인좁쌀, 모인좁쌀 낱 이제 흐뺨 ㄱ당 콩ㄱ물 낱 허꺼근에, ㄱ물로 허경.

107028 @ 모인좁쌀 낱 모인좁쌀 먼저 끓이당?

107028 #1 ㄱ리당 ㄱ려가믄.

107028 @ 막 보글보글 헤 가믄?

107028 #1 으, ㄱ리면은 그 ㄱ물 영 허트는 거.

107028 @ 으, ㄱ를 허트는 거예?

107028 #1 으, 콩ㄱ물.

107029 @ ㄱ물죽?

107029 #1 ㄱ물도 우린 잘 안 헤나난 ㄱ물죽 같은 거 안 행 먹어뵤.

107029 @ 아, 여긴.

107029 #1 역시 떡이나베끼 죽은 안 해.

107030 @ 예. 이젠 녹두죽 끓여 줘서.

107030 #1 녹두도 팟이나 마찬가지로. 녹두도 삶양, 녹두는 삶양 문데겨.

107030 @ 문데겨?

107030 #1 으, 이제 경혜근에 거자 삶아가른 녹두 낱 거자 익으면은 이제 쌀 씻어 낫당 쌀 놔근에. 어느 정도 물 맞췄.

107030 @ 계민 풋죽이랑 녹두죽 끓일 때.

107030 #1 비슷하여.

107030 @ 쌀을 놓잖아예?

107030 #1 으.

107030 @ 놓는 쌀은 곤쌀로 놓는 거?

107030 #1 곤쌀이나 경 안 허민 모인좁쌀.

107030 @ 모인좁쌀?

107030 #1 예, 예. 희린좁쌀은 물이 질질질 나불어 안 돼, 희린 건. 죽 씹은, 밥은 좋은디.

107030 @ 어쨌든 곤쌀은 귀허난 모인좁쌀 낫어예?

107030 #1 으.

107030 @ 모인좁쌀로 죽 췌. 그민 아까 풋죽 쌀 때는 영 데기기도 안 데기기도, 사름에 따라 안 데겨 먹는 사름도 잇젠 헛잖아예? 풋 삶아진냥 그냥 쌀 놔가지고?

107030 #1 으.

107030 @ 녹두죽도 안 데기기도 험니까?

107030 #1 녹두는 데겨.

107030 @ 거의 데겨?

107030 #1 으, 으 녹두는 거의 데겨.

107030 @ 데겨 가지고 거기 쌀 낱.

107030 #1 으, 으.

107031 @ 이제랑예 득죽 끓여 주십서, 득죽.

107031 #1 득죽은, 득은 미룻에 득을 낱 삶당게.

107031 @ 으, 삶당.

107031 #1 익으민게.

107031 @ 익으믄.

107031 #1 익으믄 거 건져내영, 건져내영 고기 다 찢어근에 따로 찢어 놔. 고기만 먹는 사름은 고기만도 더러 먹주만은 이제 또 고기 못 먹으민 그 빼다귀 국물더레 낱 또 우려.

107031 @ 으.

107031 #1 경 행 빼다귀 건져 두고 이제 쌀 낱 췌 먹는 거주게, 득죽은.

107031 @ 으, 계난 고기 숭아지민 고기만 뜯어 먹고.

107031 #1 으, 먹게 돼면 다 뜯어 먹게 돼믄 그 빼다귀만 낡 숭당 그 빼다귀 건져당 숭아난 국물에 헤영 또 쫄 헤영 먹지만은, 고기를 먹당 남으민 고기도 그레 더러 놔근에.

107031 @ 찢어 낡?

107031 #1 찢어 낡.

107031 @ 계민 득죽 숭을 때도 마찬가지로 줍셀 놔가지고, 흐린줍셀?

107031 #1 모인줍셀.

107031 @ 아, 모인줍셀.

107031 #1 으, 모인줍셀 낡 옛날엔. 으, 득죽도.

107031 @ 득죽도예. 혹시 강이죽도 행 먹어놔수과?

107032 #1 강이죽도 행 먹어놔주.

107032 @ 강이죽은 어떻?

107032 #1 강이 헤다근에 이젠 또 그걸 그냥 금방 허면은 저 무시것고, 무신 오줍넨가 무신 흐뵀 냄새 나. 그거 흐뵀 이디 오라근에 든물에 우려 뒤근에, 우리당 이제 건져내영 뵀아.

107032 @ 으.

107032 #1 뵀앙.

107032 @ 우려 둔다는 게 물에 그냥 담가 둔다는 얘기?

107032 #1 으, 으. 무신 박세기나 낡푼이나 담앙.

107032 @ 아.

107032 #1 낡푼에나 낡 흐 뵀 시간 커 두면은 오즙을 다 짜부는 거라.

107032 @ 아, 강이가?

107032 #1 으, 강이. 그대로 허면은 흐뵀 지렁내 나, 비릇허게 흐뵀 냄새 나.

107032 @ 예.

107032 #1 경허난 그거 우려 뵀. 경헤영 건져낸 방에, 저 옛날에 돌혹도 셔나고.

107032 @ 예.

107032 #1 경 안허민 도고리.

107032 @ 도고리.

107032 #1 옛날 낡도고리.

107032 @ 낡도고리.

107032 #1 그것에 이제 마께로 뵀아.

107032 @ 뵀앙.

107032 #1 막 뵀앙 물 짜.

107032 @ 으.

107032 #1 물 짜면은 이제 강이, 강이 물 허고 모인줍셀 허고 낡 썬면은 강이 죽. 맛좋아.

107032 @ 기민 물 짜는 거는 뭐, 뭐 힘벽에 헤가지고?
107032 #1 아니, 그냥 체로 걸러. 좀진 체가 있어났어. 그걸로 걸러.
107032 @ 아, ㄴ는체?
107032 #1 으, ㄴ는체.
107032 @ 건져덩 그 국물만 낱?
107032 #1 국물만 낱, 국물만 놔도 틱탁틱탁 맛있어.
107032 @ 아.
107032 #1 국 끌려도 맛있고, 죽 섞도 맛좋고 경행.
107032 @ 아.
107032 #1 경허민 이 옛날부터라도 이 빼가. 빼가 아프지 안 헌덴.
107032 @ 빼가.
107032 #1 경혜영덜 많이 해당 먹어났어.
107032 @ 강이죽 하영 먹었구나.
107032 #1 보강도 먹곡.
107032 @ 강이죽 하영 끌렁 먹었수과?
107032 #1 아니, 경 많이도 못 허여, 자꾸 헤오지 못 허영.
107032 @ 아.
107032 #1 것도 물때 맞추고 또 한걸허고 영 헤야 허주게 경 자꾸 강 잡지 못 허여. 또 바람 썰도 못 가고.
107032 @ 예.
107032 #1 추워도 못 가고.
107032 @ 예.
107032 #1 여름 때에, 여름 때가 많이 나고 겨울엔 잘 엇어.
107032 @ 아. 마찬가지로 강이죽 끓일 때도 쓸은 좁쌀 낱예?
107032 #1 그 옛날에 좁쌀, 모인좁쌀, 모인좁쌀.
107024 @ 경행 어떤 죽을 막 하영 끓여 먹어났수과?
107024 #1 옛날에는이 어려우니까 밥은 허젠 허믄 쌀 하영 들고 허니까 그자 좁쌀죽계. 보리쌀로는 죽 못 써.
107024 @ 으.
107024 #1 밥은 허면은 밥은 불어나근에 남으면은 물 흐끔 헤근에 팔랑팔랑 습 앙 먹어지주만은.
107024 @ 으.
107024 #1 제라허게 죽을 쑤젠 허면은 좁쌀 놔야.
107024 @ 좁쌀.
107024 #1 으. 주로 좁쌀이주.
107024 @ 예.
107024 #1 좁쌀에 무신 감저도 서끄곡 경 안 허믄 썰어 놓곡, 경 안 허믄 저 늬

빼덜도 썰어 낡 죽 행 먹어놔어.
 107024 @ 음.
 107024 #1 만허게.
 107024 @ 그 양이?
 107024 #1 양이 만허게, 양이.
 107024 @ 계난 죽 혈 때도 막 그런 거 썰어 놔구나?
 107024 #1 예.
 107024 @ 밥 혈 때말고도?
 107024 #1 어. 죽에도. 죽에도 감저 거튼 거영 호박도 썰어 낡도 먹고.
 107033 @ 계민 아까 곶은 죽 말고 다른 죽들 뭐 또 잇수과?
 107033 #1 뭇이 잇어?
 107033 @ 호박죽?
 107033 #1 호박은 옛날에는이 호박죽 거튼 건 잘 안 쥘게.
 107033 @ 안 쥘수과?
 107033 #1 으, 호박은 옛날 경 이제 거치 많이덜 경 집집이 싱그지도 안 혀고
 헛주기 어떻산디 그거는.
 107033 @ 으.
 107033 #1 지금, 요즘에야 막 호박, 호박 험주만은 옛날은 그거는 경 많이 안
 먹어난 거 닻아져.
 107033 @ 아, 기과, 안 먹언?
 107033 #1 으. 옛날에 주로 먹는 거 기자 늬뻬.
 107033 @ 으.
 107033 #1 녹물.
 107033 @ 으.
 107033 #1 메역, 그런 거.
 107033 @ 아, 옛날에 호박 막 하영 안 헤놔구나.
 107033 #1 하영 안 현 거 닻아져.
 107033 @ 기다예. 그 노란 호박 가정 죽 쥘젠 허민 어떻 쥘니까?
 107033 #1 난 요즘도 경 호박죽은 안 쥘 반.
 107033 @ 안 쥘 반마씨?
 107033 #1 으, 으. 호박죽덜은 잘 안 쥘.
 107033 @ 으, 으. 죽이였고예. 쥘죽 같은 거 안 헤 먹엇수과?
 107033 #1 쥘죽도 안 헤 먹어보고. 쥘죽도 저 득죽이나 비싯힐 거라 몰라도.
 107033 @ 예.
 107033 #1 겐디 득죽, 쥘, 쥘고기가 질겨.
 107033 @ 음. 쥘은 믈물수제비랑 많이 행 먹엇지예.
 107033 #1 경헛주. 이레 경 쥘덜은 벨로 안 헛어.

범벅과 수제비

107034 @ 이제랑예, 범벅이랑 즈베기 물어보쿠다예, 범벅이랑 즈베기,

107034 #1 으.

107034 @ 범벅 종류에는 뭐가 잇수과, 범벅 종류?

107034 #1 범벅 종류에는 보리범벅도 잇고, 믰물범벅도 잇고, 조핌벅도 잇고 뭐.

107034 @ 조핌벅.

107034 #1 믰물범벅.

107034 @ 믰물범벅.

107034 #1 보리범벅.

107034 @ 아, 보리범벅도 잇수과?

107034 #1 보리 믰물로 헤근에 범벅 만들주게.

107034 @ 보리 믰물로 허면.

107034 #1 으. 믰물로.

107034 @ 게믄 믰물, 조, 보리. 다 범벅 만들 때는 믰루로 허는 거라예?

107034 #1 믰루로.

107034 @ 믰루로예. 게믄 범벅에 뭐 놉? 조범벅 헐 때 뭐 낱 헉니까?

107034 #1 감저.

107034 @ 거의 감저?

107034 #1 예, 감저, 감저.

107034 @ 믰물범벅에도 감저?

107034 #1 감저가 주로.

107034 @ 범벅 만들어 줍서. 보리든 조든 믰물이든. 어떻 만듭니까?

107034 #1 어떻 만드야게 그, 그냥 그 보리, 첨 저 감저나 저 무수나 또 무시것고 한 가지. 익혀 놉.

107034 @ 가루를?

107034 #1 아니, 그 감저를.

107034 @ 아, 감저를.

107034 #1 익혀 놉근에 이제 익혀근에 물 흐끔 이만이 흐끔 낱, 물 줍 놓은 정도로 믰루를 영 영 허트는 거라. 많이도 말곡게. 많이, 물이 만허믄 많이 허주기만은 죽게 허면은 믰루 죽게 놓고 허영 젓어가믄 범벅 뉘불어.

107034 @ 아.

107034 #1 경 튼튼해불어.

107034 @ 기믄 믰루를 물에 영 풀어 낱?

107034 #1 아니 아니. 그냥 믰루로.

107034 @ 그냥 감저 삶으는 디예?

107034 #1 으, 삶으는 더레 술술술술.

107034 @ 감저 좀 익으고 나민?
107034 #1 으, 익어, 익어가민.
107034 @ 익어가민?
107034 #1 으.
107034 @ 거기에 ㄱ루를 솔솔솔솔 헤영 젓어가민, 젓어가민 범벅 돼여.
107034 #1 어, 어. 범벅 돼여.
107034 @ 그 물에 맞춰 ㄱ루 양을 정허는 거?
107034 #1 으.
107034 @ 무슨 범벅이 맛좋아났수과?
107034 #1 ㄱ물범벅이 맛좋주게.
107034 @ ㄱ물범벅이.
107034 #1 비싸니까 ㄱ물이 질 비싸났주게 .
107034 @ 아, 기과?
107034 #1 으. ㄱ물은 매 집이 같지도 안 허고 ㄱ물 엇어. ㄱ물 허젠 허든 어디
오일장에나 가야지.
107034 @ 아. ㄱ이 낱 범벅도 행 먹어났수과?
107034 #1 그건 몰라. 다른 사름덜은 행 먹어나신디. 우린 안 행 먹어 본디.
107034 @ 게민 감자, 생감자 말고 빼떼기로도 범벅?
107034 #1 으. 빼떼기로도 ㄱ랑, ㄱ령. ㄱ령 ㄱ를 멘들앙. 그걸로도 행 먹어났
주. 그걸로는.
107034 @ 아, 빼떼기도 ㄱ를 멘들앙?
107034 #1 으, 으.
107034 @ 게민 네 종류가 잇다예. 모물, 조, 보리.
107034 #1 빼떼기.
107034 @ 빼떼기, 빼떼기 ㄱ루예. 감저 ㄱ루예?
107034 #1 으.
107034 @ 게민 감저 ㄱ루 헐 때도 감저 낱?
107034 #1 감저 놔야주게.
107034 @ 아. 하하. 이거 맛있겠다. 빼떼기 가루로 헐 거. 막 들코롬 헐 거 같
애?
107034 #1 어, 들코롬 허여.
107034 @ 이거에 이거 놓으민 아주 들코롬 헐 거 같애.
107034 #1 으.
107035 @ 아. 빼떼기 ㄱ루 헐 때도 감저 낱예. 이제는 즈베기 물어 보쿠다예.
107035 #1 즈베긴 ㄱ물츠베기게. 조츠베기도 잇고. 보리츠베기도 잇고, 그걸로도
만들아.
107035 @ 아, 그걸로도 츈베기도?

107035 #1 으, 으. 즈베기 만들어져.

107035 @ 아.

107035 #1 ㄱ룰로, ㄱ룰만 해 오민 즈베기 돼주게.

107035 @ 여기는 아까 ㄱ물 귀허덴 헛잖아예?

107035 #1 으.

107035 @ 게민 ㄱ물즈베기?

107035 #1 ㄱ물즈베긴 벨로. 기제서 때나베끼. 식게 때 허고 멩질 때나베끼 즈베기는 안 헿 먹어봣주게.

107035 @ 식게 때, 멩질 때 즈베기 헿 먹엇수과?

107035 #1 아니, 떡. 그런 때.

107035 @ 아.

107035 #1 상에 올리젠 허믄.

107035 @ 아, 떡.

107035 #1 으. 세미떡, 인절미떡.

107035 @ 아.

107035 #1 ㄱ물ㄱ룰로이 세미, 인절미.

107035 @ 세미, 인절미. 이따 떡 물어볼 겨우다이. 세미, 인절미. 아, 게민 그때 만 ㄱ물이 잇엇고 그 외에는, 즈베기 무슨 ㄱ루로 주로 해 먹엇수과?

107035 #1 보리츄베기게.

107035 @ 보리츄베기.

107035 #1 보리쫄 곶양게.

107035 @ 으. 보리츄베기를 쫄 하영 해 먹엇어.

107035 #1 게.

107036 @ 보리쫄 곶양. 그 츄베기도 잇고 그 반죽 해가지고 칼로 썰영 칼쳐베기?

107036 #1 칼, 칼, 칼국수.

107036 @ 칼국수렌 헛수과, 칼쳐베기렌 헛수과?

107036 #1 칼국수, 칼국순디 그 옛날엔 즈베기나베끼 무슨 그런 칼국수여 무시겨여 경 한길히 헿 먹어보진 못 해연 우린. 몰라 경 헿 먹는 사름도 잇긴 잇엇지게.

107036 @ 으, 으.

107036 #1 옛날이나 이제나 잘 사는 사름도 잇고 아주 못 사는 사름도 잇꼭게. 어떻.

107035 @ 그럼, 저베기 만들젠 허민 물 끓영?

107035 #1 물 끓여근에게.

107035 @ 반죽해영?

107035 #1 반죽해영.

107035 @ 반죽헿?

107035 #1 반죽해근에 저 순그락으로 똑똑 그차 나. 물은 끌러가명.
 107035 @ 끓여 가명?
 107035 #1 으, 솟디 낱. 끌어가면은 똑똑 순구락, 순구락 밥 먹는 순구락으로 그 차 노면은 텅어리 저근에 익어.
 107035 @ 계민 거기 누물 거튼 거 안 놓고.
 107035 #1 아니, 누물도 놓게 돼민, 주로 늬삐 하영 놓지 늬삐.
 107035 @ 아, 늬삐예.
 107035 #1 옛날부떠 늬삐덜은 셔 나난.
 107035 @ 으.
 107035 #1 늬삐, 배춘 셔 나난.
 107035 @ 아, 우영에 늬삐, 배추예.
 107035 #1 아니, 요디 강 사당이라도게. 이녀 우영에 잘 안 허여.
 107035 @ 늬삐도 사당 먹엇수과?
 107035 #1 아니, 그 늬삐 같은 거는 중산촌더레 가민 많이 갈아낫주게.
 107035 @ 음, 저디 상가? 상가 가민?
 107035 #1 상가보단도 저 납읍.
 107035 @ 아, 납읍더레.
 107035 #1 예, 예.

김치

107037 @ 이번에는 김치 물어보쿠다. 김치.
 107037 #1 김치.
 107037 @ 김치 종류에는 뭐가 잇수과?
 107037 #1 누물김치, 김치덜?
 107037 @ 으, 김치덜.
 107037 #1 김치종류 뭐 허젠 허민 다 헛주기게.
 107037 @ 으, 계난 그 일름을 혼 번 곶아봅서. 일름을?
 107037 #1 게, 누물김치, 늬삐김치.
 107037 @ 늬삐김치.
 107037 #1 파김치.
 107037 @ 파김치. 파김치렌 헛수과, 꽤마농김치렌 헛수과?
 107037 #1 꽤마농김치.
 107037 @ 꽤마농김치, 또 뭐 이신고?
 107037 #1 꽤마농김치.
 107037 @ 으, 꽤마농김치도 헤낫수과?
 107037 #1 꽤마농김치도 드물주게. 꽤마농덜도 헤 오젠 허민 옛날엔 저, 이렌 엇으난.

107037 @ 으.

107037 #1 저 우터레 가야 헤 올 거난 거 매 집이 안 허여.

107037 @ 아.

107037 #1 꿩마농은.

107037 @ 으.

107037 #1 그자 주로 늬뻬, 이 배추, 꿩마농 그런 거주게.

107037 @ 예, 그런 거 헛던 거예?

107037 #1 으, 으.

107037 @ 갯늬물집치도 헤낫수과?

107037 #1 갯늬물집치도 잘 안 허여. 매 집이 엇어 그것도.

107037 @ 아, 매 집이 엇어.

107037 #1 어, 어. 허기는 허는디이.

107037 @ 역시 재료 구허는 게 문제구나예?

107037 #1 예, 예. 이녁 집이 엇으믄 그런대로 넘어가주게.

107037 @ 으, 으.

107037 #1 이녁 집이덜 신 사름덜은 그런 것도 잘 행 먹엇주만은.

107037 @ 으. 게민 배추는 배추 허젠 허민 어디 강, 납읍 강 사오고, 무수랑 사 오고?

107037 #1 그런 배추 거튼 건 이녁 집이서 어떻게 허영 먹엇어.

107037 @ 아, 질황?

107037 #1 그런 건 사오지 안 허고. 늬뻬는 사단 먹어낫어, 늬뻬.

107037 @ 아. 늬뻬를 사?

107037 #1 으, 늬뻬는 이녁 집이서 잘 못헤난 옛날엔.

107037 @ 아.

107037 #1 씨도 엇주만은.

107037 @ 아.

107037 #1 그건 저, 그것도 저 중산촌에 가근에 사단.

107037 @ 기민 고, 김치 헤 먹젠 허민 고추가 셔살 거 아니과?

107037 #1 고추, 고추 ㄱ룰덜도 여간 땅 신 사름덜은 싱거근에 헛주만은?

107037 @ 집이서?

107037 #1 으. 쪼금씩 그것도, 그 옛날부터 장은 셔 나니까.

107037 @ 으.

107037 #1 오일장이여 무슨 칠일장이여.

107037 @ 으.

107037 #1 그 장에 강 흐뽀씩 사당, 하영 아니 낡게. 흐뽀씩 노난 노는 책만 헤 영.

107037 @ 고내리에선 어느 장에 갑니까?

107037 #1 애월장.
107037 @ 애월장?
107037 #1 으, 애월장.
107037 @ 예.
107037 #1 귀리장.
107037 @ 어.
107037 #1 저, 엄쟁이도 셔, 신엄도 셔나고. 애월, 주로 애월장에 텅겨주게 고넨.
107037 @ 아, 신엄을 엄쟁이렌 골앗수과?
107037 #1 엄쟁이.
107038 @ 엄쟁이. 아, 기다예? 이제 짐치 하나씩 물으쿠다예. 배추짐치, 배추짐치렌 헛수과, 녹물짐치렌 헛수과?
107038 #1 녹물짐치, 썬물짐치.
107038 @ 썬물짐치. 예, 예. 썬물짐치, 그럼 썬물짐치 좀 골아줍서, 만드는 것도 그렇고 이거 언제 해 먹어? 옛날에 김장은 안 해 낫어?
107038 #1 아니, 그것이 김치. 김장이 김치.
107038 @ 아. 김장. 그럼 썬물짐치는?
107038 #1 썬물은 그냥 어땡어땡 허당 보민 이녁대로 씨 허영.
107038 @ 으.
107038 #1 우영 시면은, 땅 시른 거 같앙.
107038 @ 으.
107038 #1 경 안 헤영 이녁 땅이 엇이면은 옛날에 밧, 녹물덜 갈렌 헤근에 영 흐뎡 헤당 먹을만씩 삭 쥐. 돈 흐뎡 쥬, 늬의 밧다. 경 흔 고지씩 이 너베기로 행.
107038 @ 아.
107038 #1 일로 헤근에 저만씩, 일로면 저 만큼. 경헤근에 이제 다 이녁 직시씩 갈아. 갈아근에 이제 옛날엔 주로 오쥬.
107038 @ 걸름이엔 현 거?
107038 #1 굽으로 강 주영. 갱 행 키와.
107038 @ 으.
107038 #1 갱 이제 커.
107038 @ 싱그는 건 뭐로 싱그는 거? 씨로?
107038 #1 씨로게 녹물씨, 녹물씨는 어땡 어땡 허명 그거 구헛 수가 있어.
107038 @ 으.
107038 #1 경허영 허면은 이제 크면은 이젠 칼로 강, 호미로 강 캐여.
107038 @ 그거 영 묶어주거나는 안 험니까?
107038 #1 아니게 그런 거 아니. 속도 아무것도 엇어.
107038 @ 아.

107038 #1 영 퍼데기, 퍼데기, 퍼데기.
 107038 @ 아.
 107047 #1 경혜영 이젠 캐영, 지영 바닷물에 강.
 107047 @ 으.
 107047 #1 바닷물에 강 요만씩 현 웅텅이가 잇주게. 쫘물 들어오는 그디 강 그 대로 이젠 막 담아 낵, 그 웅텅이에 경행 담아 낵 그 우터레 이젠 요만씩 현 돌들 막 가정당 지들화.
 107047 @ 겐 바닷물에 강 저리는 거?
 107047 #1 으, 저려. 겐 흔 삼일 놆 두면은 사흘밤, 사흘 나두민, 돌에 영 일렁 앓아 놓다보민 돌 아랜 생복이 잇어.
 107047 @ 아, 하하. 그 사이에 생복 들어왕 이신 거?
 107047 #1 으, 으. 그거 바닷물 들엇다 낵다 헐 때난.
 107047 @ 아이고.
 107047 #1 요만씩 현 거 다 부터. 경혜근에 이젠 앓아똥 이젠 그 물에서 시청, 건정, 이젠 퀘에기 혜근에 이제 물, 옷 젖지 못허게 혜영 지영 구덕에 담양 경행 지영 왕 이젠 항에. 지영 왕, 양념이엔 현 거는 소금 주로.
 107047 @ 그때 물이 쫘물이잖아예.
 107047 #1 쫘물, 쫘물.
 107047 @ 그럼 든물에 한 번 행구진 안 허여? 그 쫘물에 그냥 행꿍 와?
 107047 #1 그땐 촌물덜도 너무너무 고와낵주게. 이추록 오염똥지 안 헐 때니깐 게.
 107047 @ 아.
 107047 #1 촌물더레 뉘 느려가는 것이 엇주게. 이런 빗물이나베끼.
 107047 @ 아.
 107047 #1 뉘, 뉘 그냥 무신, 우리가 무신 어디 하수도가 셔, 뉘이 셔?
 107047 @ 아.
 107047 #1 경헐 때난 그자 그냥 저다근에 경허면은 촌물에 정 온 거 흐뎡 싱거와. 싱거우믄 이제 소금 허영.
 107047 @ 음.
 107047 #1 소금에 훤은 소금에 허영. 소금에 ㄹ치ㄹ를 흐뎡 서끄고 이젠 마농. 게도 마농을 흐뎡 빼져 놓고.
 107047 @ 그 양념을 만드는 거예?
 107047 #1 으, 이젠. 소금에 양념을 만드는 거라.
 107047 @ 아, 그럼 배추는 영.
 107047 #1 영, 놆 두고.
 107047 @ 물 빠지게예?
 107047 #1 으. 놆두고.

107047 @ 이제 양념 만드는 데 고추가루 넣고 거기에 소금도 넣는 거?
107047 #1 소금에 고춧가루를 흥끔 서끄꼭 이젠 마늘 서끄꼭 허면 그것이 양념.
107047 @ 계민 소금 그거 굵은 소금인 거잖아예?
107047 #1 흥은 소금.
107047 @ 그거 흥은 소금 물에 풀어 놓지도 안 허고?
107047 #1 아니, 그냥 그냥 속더레 속속속속 속 그자 조그만씩.
107047 @ 고춧가루 넣고 마농?
107047 #1 마농, 마농, 마농.
107047 @ 마농 뺏아 넣고. 계민 고춧가루는 그거 돌령 가루는 만들엉 놔 뺏수
과?
107047 #1 으, 으. 이제 도꼬방에엔 현 것에. 조그마현 방에 잇주게.
107047 @ 예, 예. 남방에예.
107047 #1 으, 남방에라도 저 옛날에 쪼그마현 돌혹도 서 나고.
107047 @ 돌혹예.
107047 #1 으, 돌혹. 돌혹에서 뺏고.
107047 @ 예, 돌혹에서 뺏아. 들어가는 양념은 소금, 고춧가루.
107047 #1 고춧가루.
107047 @ 그 다음.
107047 #1 저 마늘.
107047 @ 마농예.
107047 #1 그거주게, 그거 시 가지.
107047 @ 예.
107047 #1 경허근에 이제 허른 그, 아주 옛날엔 아주 그냥 헨도 먹어뺏주만은
그 다음 쪼금 서 가난 저 거시기 갈치 창지, 고등에 창지 그런 거 행 딸령. 딸령 이
젠 물 만들앙 그걸 이제 다시 만들앙 식형 그거 식형 그물을 이제 서끄고 헤영 그
물도 흥끔 놓고 허민 그렇게 맛이 좋아 짐치가.
107047 @ 갈치 창지, 고등어 창지가 어디서 나?
107047 #1 옛날엔 많이 나나서 계도.
107047 @ 잡아 난 거?
107047 #1 잡아 난. 옛날엔 그물이 엇엇주게. 낚배로 헤 오주게. 경허른 이 고내
포구에도 낚배 서 뺏주게.
107047 @ 예.
107047 #1 그 철에는, 이제 구, 시월 때엔 이때, 이때 하영 나뺏주게. 갈치, 고
등어.
107047 @ 어.
107047 #1 경허른 사다근에덜 창지 내영.
107047 @ 계민 창지 내영 놔 두는 거? 김치 헨 때 쓰젠?

107047 #1 으, 소금에 혜영 놔 두는 거.
107047 @ 젓 만들양 나두는 거?
107047 #1 어, 젓 만들양 나뒀당 달령.
107047 @ 딸리는 거예.
107047 #1 으, 그것이 다시.
107047 @ 그게 다시라예?
107047 #1 으, 으.
107047 @ 기민, 그 젓 딸령 헐 때는 젓 헐 때 소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예.
107047 #1 으, 젓 헐 때, 젓 헐 때.
107047 @ 기민, 김치 양념헐 때 소금 쪼금 덜 놓겠다예.
107047 #1 으, 덜 놔.
107047 @ 그거 막 짠물 날 거니까.
107047 #1 경혜영 큰 항아리에 담양, 항에 담양 놔 뒤도 그것이 부족허여. 그것
이 반찬이니까.
107047 @ 으.
107047 #1 그걸로만도. 아니믄 반찬이 엇주게.
107047 @ 기민, 그거 뒷항에 나두는 건 땅 팡 묻어두거나?
107047 #1 아니, 그냥 그냥 뒷항에, 뒷 구석에.
107047 @ 뒷 구석에예.
107047 #1 으, 경허른 겨울엔 저 감저 거튼 건 싱그니까 감저 과당 치영 그거
내냥 썰영 그것에. 감저.
107047 @ 아. 기민, 그 배추 싱글 때 그 밧은 놈의 밧 영 배추 잘 드는 밧이 있
구나. 잘 드는 밧보단 어뎡허단 가까운 그런 밧덜 빈 밧 내 놓는 밧이 잇어 삭으로.
107047 #1 삭으로 내는 거라?
107047 @ 이제 무수짐치 만들어 줘서. 무수짐치.
107047 #1 무수짐치도 뭐 똑딱똑딱 썰어근에 그거주게. 양념이엔 현 거 그자 고
치.
107047 @ 무수도 바당물에 강 소금 절영 올 거?
107047 #1 아니. 무순 집이서 그자.
107047 @ 굵은, 훤은 소금 뿌령.
107047 #1 으, 훤은 소금 뿌려근에 훤은 소금에 고춧꺄를 흐뵂 그자.
107047 @ 게난 배추짐치 바당에 절영 오는 건 워낙에 하영 헐 거난 한꺼번에
강 절영 오는 거?
107047 #1 하나 족으난 옛날엔 촌물에 강 씻어났어.
107047 @ 하나 족으나?
107047 #1 으, 하나 족으나. 집이서 씻음은 안 허여. 몸을 족으니까 거기 가믄.
107047 @ 아.

107047 #1 몸 죽으믄 반은 절여지니까.
107047 @ 음.
107047 #1 시치기도 좋고.
107047 @ 음.
107047 #1 부취지지 안 허영.
107047 @ 맞수다, 맞수다. 경 무수집치는 기냥 소금 뿌령.
107047 #1 으, 소금 뿌령. 집이서 허곡 썰어 낱.
107047 @ 예. 양념은 똑같고예?
107047 #1 비슷허여.
107047 @ 예. 무수집치도 하영 담양 향아리에 담아 놓고 헛수과?
107047 #1 경 하영 못 먹어. 끌령 먹는 건 하영 끌령 먹어지주게. 국 엇영은 밥 내려가지 안 허니까. 장 담아근에게 이녁이 담양.
107047 @ 그거 무수 낱, 늪빼 낱.
107047 #1 늪빼 낱.
107039 @ 열무 집치라는 게 잇잖아예?
107039 #1 으, 지금. 옛날엔 엇어.
107039 @ 옛날에 엇어났어?
107039 #1 엇어, 엇어.
107039 @ 열무집치를 뭐렌 곱아나신고? 초메기 녹물?
107039 #1 츄마기엔은 그냥 그것이 늪빼라, 츄마기, 어린 때부터 커 가는 거. 그 때부터 무신 츄마기여, 늪빼여. 늪빼 어린 때에 츄마기엔 해근에.
107039 @ 츄마기는 이파리만 잇는 걸 얘기 허는 거지예?
107039 #1 옛날엔 스몯 이파리만 잇는 건 엇어난 게, 막 옛날엔.
107039 @ 아.
107039 #1 중간에사 그것도 나고. 열무도 나고.
107039 @ 열무도 나중에 난 거라?
107039 #1 열무도 중간에사 나고.
107039 @ 게민 열무집치도 나중에 헤 먹언 난 거라예?
107039 #1 으, 열무도 나중에.
107039 @ 소금 절영 양념허는 건 마찬가지고?
107039 #1 으, 마찬가지, 마찬가지. 벨 현 양념이 엇언 옛날엔.
107040 @ 음. 뭐 물집치는?
107040 #1 물집치 거튼 것도 엇고. 아이고. 어느 저를에 물집치 출리고 므른집 치 출리고.
107040 @ 하하하. 기라예. 어느 저를에 물집치 출리고?
107040 #1 첨, 물집치 출리고. 한 가지도 어디 십디가? 한 가지도 엇는 집인 엇어. 목심이 질기난 살아진 거주.

107040 @ 하하하.

107040 #1 먹는 것에 대항은 참 옛날. 에이구.

107041 @ 동지김치엔 부르는 것도 따로 있어 낫수과? 아니라예. 이제는 꽤마농 김치?

107043 #1 꽤마농김치도 안 해영 먹어 받. 그런 것도 이제거치 하영 안 싱겨. 꽤마농도 겨 옛날엔 하지 안 해난.

107043 @ 김치 경 많이 안 해난?

107043 #1 아니, 김치도 안 해 먹어나고 꽤마농도 경 하영 싱그지 안해서.

107044 @ 꿩마농?

107044 #1 꿩마농도 이 웃드르렌 싯주만은 이렌 엇어.

107045 @ 으. 갯늬물도 많지 았고예?

107045 #1 많지 았고.

107046 @ 예, 부추김치.

107046 #1 부추김치도, 부추면은 뵈고?

107046 @ 새우리, 새우리.

107046 #1 새우리. 새우리도 김치 안 행 먹고 양념이나 헛주.

107046 @ 아, 안 행 먹고, 양념에나 쓰고?

107046 #1 예. 우영에 하영, 하영털 안 해낫지.

107037 @ 음. 게난 거의 김치렌 해 봐야 배추김지랑 무수김치예?

107037 #1 으, 그거 대목계. 그거 대목.

107037 @ 대목예. 나머지가 무슨.

107037 #1 이제야게 촌에도 이거여 저거여 허지만은.

107037 @ 지금도 꽤마농김치 안 행 먹읍니까?

107037 #1 지금이야 해 먹주계.

107037 @ 꽤마농김치 만들젠 허민 어떻힙니까? 지금?

107037 #1 지금?

107037 @ 으.

107037 #1 지금 꽤마농 헤다근에 절엇당 양념 버무려근에.

107037 @ 절엇당 양념 버무렁. 양념이야 뵈.

107037 #1 으, 고치, 고치, 고춧ㄹ루. 이제는 뵈.

107037 예.

젓갈

107048 @ 젓갈 종류 좀 물어보쿠다예. 이거 드시멍 험서.

107048 #1 아니, 난 먹언. 먹어 봐. 이거, 이것, 이것도.

107048 @ 예. <중략>

107048 @ 젓갈 종류에 젓갈 종류에는 뵈가 잇수과?

107048 #1 젓갈이엔 험은 무신 젓갈?
107048 @ 멜젓, 자리젓.
107048 #1 아. 그것사 뭐, 뭐 여러 가지 잇는디 여러 가지 잇꼭게. 우리사 보통
게 자리젓, 멜젓.
107048 @ 아까, 아까 고등어랑?
107048 #1 고등어 그건 알개미젓. 그 갈치 알개미젓이엔 현 건 막 맛좋아.
107048 @ 아.
107048 #1 지금도 그거 험시민 막 좋을 거라. 지금 저 무신 젓갈 잇저만은. 그
젓갈 많이 험 거라. 겐디 지금덜은 하도 험 먹는 것덜이 하노난게.
107048 @ 그럼 지금 젓갈 종류 알아지는 게, 자리젓, 멜젓, 알개미젓?
107048 #1 알개미젓.
107048 @ 알개미젓예.
107048 #1 갈치 알, 알로 허는 것이 알개미젓.
107048 @ 갈치 알개미젓. 고등어 창자랑?
107048 #1 고등어 창자는 젓 가튼 거는 너무 등거와불고 좋지 안 허여. 지름
깅.
107048 @ 그니까 아까 김치 허젠 허면.
107048 #1 으, 짐친 허젠 허면은 그거 약간 헛당.
107048 @ 고등어 창자랑 갈치 창.
107048 #1 창자랑 딸렁.
107048 @ 그건 그냥 김치용으로만 현 것과?
107048 #1 으. 또 그건 매 사름 허지도 안 헛게. 허는 사름이나 험 먹엇주게.
107048 @ 아.
107048 #1 그런 것도 매 집이 엇어.
107048 @ 매 집이 엇어예. 그럼예, 우리 젤 하영 헤 먹엇던 게 자리젓이랑.
107048 #1 멜젓.
107049 @ 멜젓이라예. 자리젓 만들어 주십서. 자리젓 허젠 허민?
107049 #1 자리젓 허젠 허민 옛날은 그 가시도 아니 끈고 그대로.
107049 @ 으.
107049 #1 그대로 이제 해당 영 뭐 생복 썬데기.
107049 @ 으.
107049 #1 진복 썬데기.
107049 @ 으.
107049 #1 그걸로 이제 도고리에 자리 낳.
107049 @ 으.
107049 #1 이젠 그걸로 딱딱딱딱 데맹이 거튼 디 찍어. 찍지 안 허민 소금이 잘
안 들어가고 굳이 잘 안 뒤여.

107049 @ 으.

107049 #1 겐 찍어근에 이젠 곤 맛창, 소금만 허트민 돼는 거.

107049 @ 안 찢어? 상 왕, 자리 상 왕 시칠 거 아니?

107049 #1 시치지 안 허여. 옛날엔 그냥. 이제는 시치고 그 비닐 벗기고 그 읍이, 그 끈어붙고 헛주만은 옛날엔 그냥.

107049 @ 사 온 양 그냥?

107049 #1 으, 사 온 양 그냥, 떠 온 양 그냥.

107049 @ 하하.

107049 #1 시쳐 가민 맛 엇어.

107049 @ 시쳐 가민 맛 엇어?

107049 #1 으. 심심허여.

107049 @ 게메예. 자리 한 말은 헛수과? 자리젓 허젠 허민 얼마나 헛수과?

107049 #1 서 말씩은 헛주게.

107049 @ 서 말.

107049 #1 건디 막 옛날에 서 말도 엇엿주게.

107049 @ 음.

107049 #1 막 옛날엔 그자 저 원담에 옛날엔 그 멜은 많이 들어났주게, 멜덜. 멜젓이나 헛덜 그자 익으민.

107049 @ 게민 자리젓 헛 때 한 서 말 사 왔수다예. 게민 소금은 얼마나 헤?

107049 #1 소금은 대싱 혼 돼쫘.

107049 @ 자리 서 말에 소금 대싱 혼 돼?

107049 #1 예, 예. 옛날 거 무시겏고 자리에도 경 하영 노면 짜근에게. 그 짜게 허젠 허민 많이 들고 곤 맞게 허젠 허민 대싱 혼 돼 반이나 두 돼 노민 뵈 거주.

107049 @ 예. 경헛 뵈에 놔가지고 머리 찍영 소금만 서끄민 끝?

107049 #1 으, 소금 서꺼근에 이젠 향아리에, 똑 맞은 향아리에 놔근에 뚜껍 더 쪼 놔 두민.

107049 @ 으. 뚜껍 더쪼 놔두민예?

107049 #1 으.

107049 @ 경헛 얼마나 놔 두민 그거 먹어집니까?

107049 #1 혼 들 정도 돼 가민 먹음 시작 헛 거라.

107049 @ 경헛 일 년 내낭 먹어?

107049 #1 일 년 내내 먹어지주게.

107049 @ 아, 예.

107049 #1 잘만 놔두민. 잘 안 허민 여름 나가민 티, 저 버랭이 퀘영게 겏도이 그 프리덜 옛날엔 하도 하부난.

107049 @ 뚜껍 잘 쪼윅 나뵈야지예?

107049 #1 으, 뚜껍 잘 쪼우고.

107050 @ 자리젓 만들어시난 이제는 멜컷이우다. 멜컷?
107050 #1 멜컷도 마찬가지로. 멜컷도 소금, 멜컷은 그냥 소금에 그자 멜도 쪼금 버무렁.
107050 @ 멜은 잡아 온 걸로 해지고?
107050 #1 해져. 저, 저 멜 거튼 거는 역불로 사지는 안 하고.
107050 @ 예.
107050 #1 어떻 허다근에 저 원담에 들어.
107050 @ 들어.
107050 #1 들어오면은 그것덜 거러온 건 흐끔 빌어도 오고, 경 안 허민 흐끔씩 살 수도 잇주만은 멜것은 경 하영덜 안 해여 자리젓만.
107050 @ 아, 기과?
107050 #1 옛날에, 옛날에 자리젓도 경 하영덜 안 허여. 그것도 비싸고이.
107050 @ 어무닌 아까 서말은 해낫잖아예 자리젓은?
107050 #1 으, 하영 난 때. 경 안 허민 흐 말. 보통 흐 말, 흐 말정도. 옛날에덜은.
107050 @ 게민 자리 흐 말헐 때 멜은 얼마나 해서, 멜은?
107050 #1 멜은 시른 신대로 흐 말도 하고 흐 돼도 허곡게.
107050 @ 아, 흐 말도 하고 흐 돼도 하고?
107050 #1 으, 으. 대신 흐 돼도 하.
107050 @ 으. 멜도 씻지 안 허여?
107050 #1 으, 멜도 씻지 안 허여.
107050 @ 그냥 가져온 양.
107050 #1 으.
107050 @ 그거는 머리도 안 두드릴 거 아니?
107050 #1 아니 두드렁 그냥 그대로 소금 버무리민 돼여.
107050 @ 소금 얼마나 낱? 멜 흐 말에?
107050 #1 멜 그 짜게 허젠 허민 짜게 허주만은 싱겁게 근 맞게 행 먹젠 허민, 멜은 소금이 또 덜 들어.
107050 @ 아, 멜이 덜 들어?
107050 #1 으, 으. 경허고 또 멜은 훑으민 데멍이 쫄라 뵤도 하고 경 안 허민 준 거는, 요만씩 현 거는 그대로.
107050 @ 머리 쫄라부는 거는 머리에서 고린내 나부난? 무사 쫄라부는 거라.
107050 #1 으, 훑은 멜, 멜 데멍이 훑은 건 맞은 옛언게. 그릇이나 촛지허주게.
107051 @ 아, 경혜부난. 음, 이 창자 가정 아감젓이렌 허는 게 알개미젓?
107051 #1 알개미젓.
107051 @ 아. 이게 알개미젓이구나. 그럼 아까 자리젓은 몇 월쯤에 듬굽니까?
107051 #1 자리젓 으름에.

107051 @ 여름에. 뭇도 여름에?
107051 #1 뭇은 여름 아니. 겨울에도 나와. 여름에 잘 안 나와.
107051 @ 개민 갈치 알개미것은?
107051 #1 갈치 이제, 이제.
107051 @ 아, 이제 나올 거예. 이 ㄱ슬에예.
107051 #1 으, ㄱ실에.
107052 @ 갱이것도 해낫수과?
107052 #1 우린 안 해 봐도 허는 사름덜은 많이 허지. 그거 많이 잡아오지 못
허지게.
107052 @ 갱이 통째로 허는 거?
107052 #1 으, 으. 요만씩 헌 거.
107052 @ 갈치 알은 갈치 손질해영 알만 모아 가지고 젓 담으는 거?
107052 #1 갈치?
107052 @ 으.
107052 #1 구생이 쟈. 머리에 그 빨강헌 거 신 거. 그것 채 해야 맛이 있어.
107052 @ 개민 머리 짬랑?
107052 #1 머리 쫄르지 안 허고 그냥 아가미, 아가미에로 영 돌라내는 것이 셔.
베설에 부뜬 양. 부뜬 양 돌라내여.
107052 @ 부뜬 양 돌라내여.
107052 #1 으.
107052 @ 그거 가정 젓을 만드는 거군아예.
107052 #1 으, 으. 고등에는 창지만 ㄱ차근에 그 아구리는 데껴붙어.
107054 @ 우리 출레렌 허면 출레, 출레.
107054 #1 출레.
107054 @ 출레렌 허면 뭇을 출레렌 허는 것과?
107054 #1 뭇을 출레렌 해게, 자리젓 ㄱ라 출레, 뭇젓 ㄱ라도 출레.
107054 @ 기민 지시도 출레렌 해?
107054 #1 으?
107054 @ 마농지시도 출레렌 해?
107054 #1 마농지?
107054 @ 으.
107054 #1 짬 건 출레, 옛날에 짬 건 출레.
107054 @ 짬 건 출레. 맞수다, 맞수다. 찬 건 출레예.
107054 #1 짬 건 출레.
107054 @ 갈치 지진 거나 고등어 구운 건 출레렌 안 해예?
107054 #1 으, 그건 그냥. 그건 반찬 기자.
107054 @ 짬 건 출레.

107054 #1 짠 건, 저 저 소금에 절여근에 짠 종류 출래.
107054 @ 으. 게민 뽕 물린 것도 지저 먹잖아예?
107054 #1 으.
107054 @ 그런 것도 출레렌 헐 건가?
107054 #1 아니, 그건 출레 아니. 그냥 뽕 지진 거. 소금에 낡 젓 헐 것그라만 출레.
107054 @ 아, 기라.

장아찌와 회

107055 @ 그 지시 종류에는 뭐 잇수과, 지시 종류?
107055 #1 지시가 뽕인고?
107055 @ 마농지시.
107055 #1 마농지?
107055 @ 으, 마농지. 아, 여긴 마농지우다예?
107055 #1 마농지, 마농지.
107055 @ 지 종류에는 뭐 잇수과? 마농지 그것도 대도 잇고 머리도 잇고?
107055 #1 그 머리는 지 아니혀. 그냥 마농 빨리로만 지 허지.
107055 @ 빨리 지허고 이 즐기, 즐기.
107055 #1 즐기는 그냥 뭐 테우청덜토 무청 먹고게.
107055 @ 즐긴 지 안 험니까?
107055 #1 즐기로 난 안 험 먹어부난 몰라. 거 험 먹는 사름덜은 험 먹엄신가?
107055 @ 으.
107055 #1 험 먹는 딴 험 먹을 거라.
107055 @ 빨리도 허고.
107055 #1 아, 마농지는게 그 빨리영 부짱게.
107055 @ 마농대, 이 대?
107055 #1 으, 마농지게 그것도.
107055 @ 아, 그것도 마농지?
107055 #1 으, 그것도 마농지.
107055 @ 빨리도 마농지?
107055 #1 빨리도 마농지.
107055 @ 아, 똑같애.
107055 #1 으. 게난 빨리 생기기 전에 마농질 헤불엄주게. 빨리 크기 전에.
107055 @ 막 청도.
107055 #1 건 세영 못 허여. 대가 세여불어. 대가 질겨불어.
107055 @ 그니까 대 헐 때는, 대 헐 때는?
107055 #1 대 헐 때는 마농 빨리가.

107055 @ 옛일 때 맞아마씨?
107055 #1 어, 어. 생겨갈 때.
107055 @ 생겨갈 때고 그 다음 막 마농 컷을 때도 마농 콧대사니 까근에 지 험
니게.
107055 #1 지 허주. 그건 으물로게.
107055 @ 으물로.
107055 #1 겁죽 뱃겨두고.
107055 @ 겁죽 뱃겨두고.
107055 #1 으, 으.
107055 @ 게민 그것도 마농지?
107055 #1 그것도 마농지.
107055 @ 대도 마농지?
107055 #1 대도 마농지.
107055 @ 이 뿌리 가정 현 건 콧대사니지렌은 안 험니까?
107055 #1 콧대사니지엔은 안 헤영 마농지.
107056 @ 아. 마농지 허젠 허민 어떻 만듭니까?
107056 #1 마농지 그 옛날엔게 장물에만 컨 헤낫주게. 경 무슨 이제거치 술 놓
고 식초 놓고 새콤들콤허게 안 헤서 옛날엔. 완전히 짜게만 헛다근에 그거 쪼끔씩
쪼끔씩 찢어 먹엇주게.
107056 @ 아.
107056 #1 장물에만.
107056 @ 장물에만.
107056 #1 이녀집이 만든 장물에만. 헤난디 이제는 막 마농지 허젠 허민 막 신
경덜 씨근에 여러 가지 놓는 생이란게. 난 요즘 아니 행 먹어 봐도.
107056 @ 장물에 그냥 마농 그걸 담아 부는 거?
107056 #1 어게. 마농 장물에 켕, 장물에 켕 죽음 허민, 짠짠허민 건정덜 찢어
먹어낫주게.
107057 @ 경허민 끝예? 휘, 자리훼나 그런 종규가, 휘 만들어 먹어난 거. 자리
훼도 잇고 생선은 어떤 훼가?
107057 #1 옛날에, 아주 옛날엔 자리 허고 조기, 저 상이. 상이엔 현 거 저 가서
상이여 무신 콧상이 그런 걸로나 휘 행 먹어낫주기 지금거치 뭐 뭐. 지금은 갈치로
도 현다, 고등에도 현다, 무신 거 코세이로도 현다 뭐 그런 거 안 헤연 옛날에.
단지 옛날에 행 먹어난 거 조기. 아주 옛날에.
107057 @ 조기도 휘 행 먹어낫수과?
107057 #1 으, 조기, 조기가 좋아.
107057 @ 아, 기구나.
107057 #1 조기, 각제기.

107057 @ 각제기도 꿩 행 먹고?

107057 #1 으, 옛날에. 막 옛날 아니고 중간에 헛주만은. 막 옛날엔, 아주 옛날에는 상이, 상이엔 현 거 잇어나서, 상이.

107057 @ 상이가 뭐과?

107057 #1 이제 그 막 위험현 곱상이엔 현.

107057 @ 아, 상어, 상어.

107057 #1 상어.

107057 @ 아,

107057 #1 상어 옛날엔. 옛날엔 요만씩, 요만씩 현 거 막 낚아 오랏주게.

107057 @ 그 상이가 많아났수과?

107057 #1 만허여, 만허여. 많이덜 행 와나서. 경허면은 그걸로 꿩도 행 먹고 그 거 썰어 낱덜 초장에 적정덜도 먹고. 옛날에 아주 옛날에.

107057 @ 아.

107057 #1 우리 어린 때엔 그런 생각이 나.

107057 @ 아. 상이가 많았구나. 옛날에 방어 같은 건?

107057 #1 아니, 아니 그런 건 엇어.

107057 @ 엇어났어.

107057 #1 방어여 무시거여 흠치. 거 엇어.

107057 @ 우럭, 우럭은?

107057 #1 으, 우럭은 셔난. 우럭 헤도 우럭은 지전이나 떡곡 캣다근에 그자 지숙이나 쓰곡. 기제서 때에. 우럭, 생선.

107057 @ 제사 때 쓰는 거. 으. 제사 때 미역국 끓일 때도 생선 낱 미역국 끓였수과? 국 끓일 때 생선 낱 국 끓였수과? 갱 끓이젠 허든?

107057 #1 갱 끌리 때 으, 바닷게기 끌리젠 허든 생선.

107057 @ 생선 낱 갱 끓이고예. 혹시 여기도 새끼꿩도 먹어나지 안 헨?

107057 #1 옛날에는 엇엇주게. 도새기 새끼꿩?

107057 @ 예, 도새기 새끼꿩.

107057 #1 옛날엔 그런 거 잘 엇어난. 옛날에 어느 저를에 그거 허영 먹어?

107057 @ 동네 추렴 안 험니까?

107057 #1 추렴헤도 경 새끼 벤 도새기를 추렴헤져? 그냥 그 수툏헤영 막 슬지게끔 질황, 고기만 하게끔.

107057 @ 아.

107057 #1 막 슬지게만 질황.

107058 @ 아. 그럼 우리 계절마다 뭐 반찬이 트난 게 잇어났구과? 봄에 하영 먹어난 거, 여름에 하영 먹어난 거. 여름에는 막 냉국 같은 것도?

107058 #1 냉국계.

107058 @ 행 먹어실 거고예?

107058 #1 으.

107058 @ 봄에는 뭐 고사리행 반찬행 먹어신가.

107058 #1 고사린 경 흔하게 먹어보지 안 하여. 그자 멧질 때, 제서 때 무시걸로나 헛낫지, 탕쉬로나 행 헛주. 반찬으로 행 먹어 보지 안 허연 고사린.

107058 @ 고사리 반찬으로 행 먹어보지 못 하여.

107058 #1 어떻 경 옷드르에 꺼끄레 잘 안 가.

107058 @ 일 허기 바빠부난.

107058 #1 으. 일이 바쁘고 먹음이 바빠노난 그자.

107058 @ 고사린 안 허고, 여름엔 뭐 먹어난 거.

107058 #1 여름엔 냉국이고.

107058 @ 가을에 뭐 주로 하영 먹었던 거 이신가?

107058 #1 가을에는 뭐 무시걸 먹어나신고?

107058 @ 겨울에는?

107058 #1 겨울에 뭐 그냥 메역국 거튼 거나 허곡

107058 @ 메역국 같은 거나?

107058 #1 으, 으 주로. 메역을 많이 먹었주게 겨울엔.

107058 @ 겨울엔예.

107058 #1 게난 이년대로 우리도게 우리대로 즈물아당 물렛단 그냥 겨울 낭세기 그거.

107058 @ 아, 메역예.

장 담그기

107060 @ 장 담그는 것서부터 여쭙보쿠다, 장 담그는 거.

107060 #1 상?

107060 @ 장. 웬장, 간장.

107060 #1 아, 웬장, 간장, 으.

107060 @ 게난 장 종류에는 아까 웬장, 간장 밖에 없지예? 집에서 담그는 거?

107060 #1 으.

107060 @ 제주도는 고추장은 안 담갔수과?

107060 #1 무사. 고추장도 담는 사름 잇주만은 우린 안 담가 봐서.

107060 @ 안 담가 봐서.

107060 #1 담는 사름 잇어.

107059 @ 게민 이제 장은 언제 어떻 담그는지 메주 삶으는 것서부터 츄츄츄츄영 굴아줍서.

107062 #1 메주 삶으는 건 이제 이 얼마 엇으민 이 콩덜 다 장만허면은 음력시월덜쯤 나면 삶주기계. 삶아.

107062 @ 으, 음력 시월에.

107062 #1 콩 놔가지고.
107062 @ 음.
107062 #1 메주 삶는 콩덜 허영.
107062 @ 얼마나 삶아놨수과?
107062 #1 우린 서 말, 무시거 대두로 허면은 두 말, 대두로 두 말.
107062 @ 음.
107062 #1 소두 우리 제주도 말로는 서 말, 너 말 그렇게 삶아.
107062 @ 으. 콩은 대두, 소두 헐 것과?
107062 #1 아니, 경 안 헤영 그냥 우린 소두로만 허연, 소두로만 허연.
107062 @ 소두로 서 말예?
107062 #1 으, 서 말.
107062 @ 이제 솟디 낱, 어느 솟디?
107062 #1 두말떼기.
107062 @ 두말떼기 솟디.
107062 #1 그냥 췌숯. 옛날 무췌숯 두말떼기.
107062 @ 그거 허젠 허민 콩 두 말을 혼꺼번에 다 놔? 서 말은 혼꺼번에 다 놓는 거?
107062 #1 혼꺼번에 못 허여.
107062 @ 못 허여.
107062 #1 두 번에나 헤사주.
107062 @ 두 번에.
107062 #1 너무 만허여.
107062 @ 그럼 서 말 허젠 허면.
107062 #1 경 안 허면은 저, 저 두말떼기보다도 더 큰 솟은 거 무슨 솟이엔 헤신고 잊어붙어졌저. 그 솟디서 삶젠 허민 혼 번에 허주만은 경 안 허면은 두 번에 삶아사.
107062 @ 집에서 제일 큰 게 두말떼기 솟이라예?
107062 #1 으, 두말떼기.
107062 @ 거기에 두 번에 나뉘 삶으민 혼 말 가웃 정도 허는 겨우다예?
107062 #1 으, 으.
107062 @ 물은 얼마나 놓니까?
107062 #1 물은 그것에 맞게시리 그냥 낱 죽아가믄 더 넣고. 물이 죽음직 헤가민.
107062 @ 불 때 가명?
107062 #1 으, 너무 하영 노민 막 부껴붙어. 게민 두께 올라듬서 영 젓으멍 헤사주. 콩, 콩 삶는 것도 막 물이 부껴.
107062 @ 으. 경헝 삶을 때 한 몇 시간이나 삶아마씨?

107062 #1 아이고 그거 숭아질 때까지 허믄 으라 시간 걸려.
107062 @ 여러 시간?
107062 #1 여러 시간 걸려. 오래 걸려.
107062 @ 으, 게민 한 반나절은 숭으는 거다예?
107062 #1 으, 으. 반나절. 흔 다섯 시간 더 걸려.
107062 @ 다섯 시간 더 걸려?
107062 #1 으, 그거 서 말 허영 허젠 허민 하루종일 걸려.
107062 @ 한 번 숭는데 다섯 시간 걸린다는 거?
107062 #1 으, 다섯 시간 정도 걸려.
107062 @ 물 좀 자자가민 더 넣으멍.
107062 #1 으, 물 죽아가믄 또 농곡 또 농곡 허영.
107062 @ 예.
107062 #1 이젠 다 숭으민, 이 손으로 민작민작 혈 정도로 숭아져 가믄 불 끼왕 두께 더경 흐뎡 틈 재왕. 겐 이제 바구리로 건져, 물 빠지왕 이젠 옛날엔 그냥 마개로 뺏으나 경 안 허면 도꼬방에엔 현 걸로 뺏으나 경 안 허면은 글후에는 이제 또 곱닥헌 보선 신어근에 블라. 그걸. 콩을.
107062 @ 다라에 낱?
107062 #1 으, 다라에 다라에. 경 안 허믄 ㄹ렛방석에.
107062 @ 아, ㄹ렛방석에 놔가지고.
107062 #1 응, 동글락헌 방석.
107062 @ ㄹ렛방석 젓어볼지 안 험니까?
107062 #1 그것이 이제 그 콩이 물 빠지왕 뿔 허민 덩어리져 가믄 물은 안 나주게. 물 안 날 정도로 허주기게. 물 날 정도가 아니라.
107062 @ 아. 게민 ㄹ렛방석에 낱 블라?
107062 #1 으, ㄹ렛방석에 낱 이제 블라. 경혜근에 이제 손으로 요만씩 헤영 막 두드리멍 덩어리 짓어. 덩어리 짓어근에 이젠 흔 쪽에 느런히 놔 뒷당 짹, 나룩짹.
107062 @ 으.
107062 #1 짹.
107062 @ 으.
107062 #1 그거 허여근에 이제 덩체기 이만이 무짹.
107062 @ 으.
107062 #1 이젠 시 거림으로 갈랑 그레 이젠 낱 우로 이젠 즐라메영 영 헤영 공쟁이에 돌아, 저 헛간, 창고 그런 디 돌아메여.
107062 @ 으.
107062 #1 겐 거멧게 트면은 이제 트면은, 그럭저럭 트고 뿔 허젠 허면 서너덜 걸려, 석덜.
107062 @ 게민 메주 만드는 날.

107062 #1 으, 만들앙.
107062 @ 바로 영영.
107062 #1 예, 예 만드는 날.
107062 @ 헤가지고 그 찹으로 묶을 수 있어마씨?
107062 #1 예, 무꺼져.
107062 @ 오.
107062 #1 경헝 놔 뒷다근에 이제 영 헝 이 아래 즐라메영 시 거림으로 영 갈
르면은 영 갈르면은 그레 툅 들어 앓지면은 털어지지 안 허여.
107062 @ 으, 떨어지지 안 허여.
107062 #1 돌아뻐 수 있어.
107062 @ 게민 그게 영영 만든 게 툅툅허구나예?
107062 #1 으?
107062 @ 메주 이렇게 빛은 게 단단허여?
107062 #1 단단허여. 그거이 췌아지난, 췌아지난. 툅툅허여.
107062 @ 어.
107062 #1 툅툅허게 허주게 막.
107062 @ 으.
107062 #1 막 툅툅허게, 완전 툅툅허게.
107062 @ 으. 건 찹으로 헝 메달앙?
107062 #1 메달앙.
107062 @ 어쨌든 그늘진 디 메다는 거마씨?
107062 #1 으. 그늘진 디, 그늘진 디. 그디 내불민 그대로 터.
107062 @ 예.
107062 #1 그늘지더라도 흐뎡 드신 디. 경헝야 제기 터.
107062 @ 아. 게민 한 석 달 정도 지낭.
107062 #1 으, 으.
107062 @ 지나면.
107059 #1 으, 경허영 흐 정월, 음력으로 정월 나가민 이제, 이제 소금 허영,
물, 물에 헝 이제 물에 소금에 헛당.
107059 @ 메주 메달아 논 거 다 물르낭.
107059 #1 이제 거뒤당.
107059 @ 거뒤당 씻어?
107059 #1 씻영. 그 소곱에 막 거멍게 터.
107059 @ 예, 예.
107059 #1 곱헝이. 그거 곱게 씻영.
107059 @ 으.
107059 #1 솔, 솔 거튼 걸로 헝 씻영.

107059 @ 겐 고펡이를 다 없애는 거라?
107059 #1 으, 다 잊어지게. 게도이 다 잊어지지 못 하여.
107059 @ 아, 예.
107059 #1 씻어지는 대로 씻어.
107059 @ 경헌 다음, 씻은 다음에?
107059 #1 씻은 다음에 이제 그거 내려 놓기 전에.
107059 @ 으.
107059 #1 씻기 전에.
107059 @ 으.
107059 #1 물을 행 놔 두는 거라. 항에, 장 담는 항에.
107059 @ 예.
107059 #1 항에 헤여근에 소금을 훑은 소금 헤영 이젠 서 말이민 서 말, 물 얼
마치 정도 헤영 소금도 얼마 들 거. 거 근 맞창.
107059 @ 으.
107059 #1 경헌 이제 헛당 이제 그 소금에 아쟁이가 있어.
107059 @ 으.
107059 #1 찌꺼기.
107059 @ 으.
107059 #1 게난 그 아쟁이 딸랑 뜯, 뜯 그릇더레 낱 그거 이제. 뜯 그릇에 그
물을 헤 놓고, 헤 낫당 이제 장 담는 항아리레 그 물을 다 거려 놓는 거라.
107059 @ 으.
107059 #1 거려 낱 아쟁이 데껴불고. 경허영 저, 무시거 저 독새기 하나 영 티
왕 보른 이만이 떠. 경허른 근 맞앗젠 허는 거.
107059 @ 아, 그니까 소금물 간 맞출 때 독새기를 띄우는 거라?
107059 #1 으.
107059 @ 그거 메주 담그기 전인 거잖아예?
107059 #1 으게. 경헌 근 맞취 놔근에 이젠 메주 담양.
107059 @ 담양?
107059 #1 그레 들이쳐. 메주 씻엉. 씻엉 이제 그레 들이청.
107059 @ 아.
107059 #1 경 행 들이쳐근에 이제 우에, 이제 저 방법으로 솟 시덩어리, 쪼금씩
현 거 시 개 놓고 고치 멧 개 놓고 경 헤근에.
107059 @ 그 솟이랑 고치 넣는 건 무사 넣는 것파?
107059 #1 그거 경허른 그거 방법이 웬덴. 장이 든덴.
107059 @ 아. 맞종게?
107059 #1 맞종게 웬덴.
107059 @ 아.

107059 #1 경 막 그걸로 해서 맛있는 건 아닌디 거 장도 담으면 고랑내 날 때가 있어. 잘 못 돼민.

107059 @ 계민 솟 놓는 건 냄새 빼는 건계.

107059 #1 예, 예 그건 방법으로, 방법으로 허는 거.

107059 @ 으, 으.

107059 #1 솟 거튼 거, 고치 거튼 거. 그거 아니 봐도 되고.

107059 @ 으.

107059 #1 그거 놓게 돼민 봐지면은 좋고.

107059 @ 음. 경 행 장 넣었잖아예. 그거는 언제부터 먹어집니까?

107059 #1 그거 경 허면은 익어가면 벌경해 가. 장물이. 붉어.

107059 @ 물이 붉어 가?

107059 #1 물이 붉어. 츠츠츠 막 붉어가면은 또 내중에는 검영해 가.

107059 @ 아.

107059 #1 경허민 그런 때 먹는 거.

107059 @ 거멍해지면?

107059 #1 으, 으. 멧 털 성, 흰 석털, 녀털 돼가민이 그것이 벌경해. 듬부룩 헤가당, 벌경해가단 내중에는 거무룩헤어.

107059 @ 으.

107059 #1 겨민 장물이 까맣게 돼불어.

107059 @ 으.

107059 #1 경허면은 옛날엔 까맣허면은 장물은 장물대로 따로 거려두고 메주는 메주대로 찌어근에 웬장 멘드는 거주.

107059 @ 계민 여기 메주에 소금물 담갓던 향이라. 향예.

107059 #1 향? 향은 따로 이제 큰향은 필요엇어.

107059 @ 으.

107059 #1 이제 장물은 장물 듬는 향, 향아리 요만이 현 거.

107059 @ 메주를 꺼내 부는 것과?

107059 #1 으, 꺼내불어. 메주 꺼내어근에 메주 꺼낸 다라더레. 다라나 무신 도고리레.

107059 @ 으.

107059 #1 꺼내 뒤근에 이제 장물은 쪼근 그릇더레 놓고 그 메주도 이젠 도고리에서 찌어근에, 그건 막 찌여.

107059 @ 으.

107059 #1 경해근에 이제 그거 담을 만 현 이젠 요만이 현 중간 향더레 또 놓고. 맞암직 현 향예. 봐은에.

107059 @ 이제부터 먹을 수 있는 거? 그때부터?

107059 #1 그때부터 쪼금 잇어야주게. 흐뎡 익어야.

107059 @ 아, 그것도 좀 있어야 돼?
107059 #1 으, 으.
107059 @ 간장은 그때 먹어질 거 아니?
107059 #1 간장은 먹어도 돼고.
107059 @ 아, 웬장은 영영 행.
107059 #1 으, 어느 정도.
107059 @ 그럼 먹젠 허민 시간 좀 걸림수다.
107059 #1 으, 흐뎡 걸려야.
107059 @ 메주 삶아가지고 곰팡이 피영 장 담글 때까지 시간이 한 석 달 정도.
107059 #1 예, 예.
107059 @ 석 달이고예.
107059 #1 예, 예.
107059 @ 겐 소금물 담광 놔 뒤도 흐 석달?
107059 #1 예, 예. 기간이 걸려.
107059 @ 아, 기간이 걸려.
107059 #1 게난 묵은 웬장덜 묵은 장덜이 다 먹는 것덜이 시난게.
107059 @ 으.
107059 #1 경 와리지 안 헤도 돼주게. 그거 꼭 새 거 먹젠덜은 안 허난.
107059 @ 으, 으. 장은 뭐 오래 담가 뒤야 맛있는 거?
107059 #1 맛있주.
107061 @ 재미 그 고추장은 안 담가 봤수과?
107061 #1 안 담가봤. 난 안 담가 봤.
107063 @ 혹시 그 메주 삶을 때나 장 담글 때 이런 건 허지 말아야 웬덴 허는 거, 그런 금기사항이 잇수과?
107063 #1 그런 때에는 그런 건 엇어.
107063 @ 그런 건 엇어.
107063 #1 으, 으. 이녁이 자기가 멩심만 헤영 허민.
107063 @ 음.
107063 #1 그런디 또 삶는 날이 잇어, 날짜가. 안 삶는 날도 잇긴 잇어.
107063 @ 그니까.
107063 #1 날짜를 봐야.
107063 @ 날짜 보지예?
107063 #1 으, 날짜 봐, 날짜. 잇어불언, 잇어불언. 나가 염소헤치면 염소헤치날 에도 안 삶고.
107063 @ 아, 기과? 그럼 자기 헤치 날에도 안 삶고.
107063 #1 으.
107063 @ 그럼, 메주 삶는 날만 날 보는 거 아니면 장 담는 날?

107063 #1 아니, 으. 담은 날도. 삶는 날은 안 허고 담은 날.
107063 @ 아, 삶는 날은 상관없고.
107063 #1 으, 으. 향더레 담은 날.
107063 @ 향더레 담은 날, 그날을 보는 거라예?
107063 #1 으.
107063 @ 으, 으, 알았수다.
107063 #1 그날은 날 봐야.

떡류

107064 @ 예. 이제는 떡 물어보쿠다. 떡예.
107064 #1 으.
107064 @ 떡 종류, 떡 이름덜 알아지는 거 뭐 잇수과? 떡 이름?
107064 #1 떡 이름?
107064 @ 생각나는 대로 글아줍서.
107064 #1 침떡.
107064 @ 침떡.
107064 #1 침떡, 세미떡.
107064 @ 으.
107064 #1 곤떡.
107064 @ 으.
107064 #1 우선, 우선 우리가 사용해난 떡은.
107064 @ 으. 곤떡.
107064 #1 친떡, 세미떡, 곤떡.
107064 @ 으.
107064 #1 인절미떡.
107064 @ 인절미떡.
107064 #1 돌레떡.
107064 @ 으, 돌레떡.
107064 #1 물떡.
107064 @ 물떡?
107064 #1 물떡은 세미떡보다 흐뎡 큰 것이 물떡이엔 헤낫주만은 물떡은 굳이
뭐 많이 사용은 안 헤나고.
107064 @ 음. 또.
107064 #1 빙, 빙떡.
107064 @ 빙떡. 또, 상웨떡도 잇수과?
107064 #1 삼메, 저 저 기주떡. 기주떡.
107064 @ 기주떡 험니까?

107064 #1 예, 저 ㄴ를 뇌근에 저 이 무시거나 막걸리민 막걸리 낭 허는 것ㄴ란
기주떡.

107064 @ 으.

107064 #1 경 안 허민, 우리 기주떡이엔 곶앗주. 삼메떡ㄴ라 기주떡.

107064 @ 으. 또 지름떡?

107064 #1 지름떡.

107064 @ 지름떡도 허고예.

107064 #1 으, 지름떡, 고장떡.

107064 @ 고장떡도 허고예.

107064 #1 으.

107064 @ 고장떡. 그럼예, 이제는 침떡이과, 친떡이과?

107064 #1 우린 침떡, 침떡 헤나난.

107064 @ 침떡예.

107064 #1 으. 그 흰쌀로 허는 건 설기떡.

107064 @ 으.

107064 #1 곤쌀로 허는 건 설기떡. 침떡으로 허는 좁쌀떡, 좁쌀ㄴ란 침떡.

107064 @ 아, 좁쌀로 만드는 것만 침떡이렌 헤?

107064 #1 으.

107064 @ 그럼 여긴 곤친떡 그런 말도 안 쓰겠다.

107064 #1 곤친떡 안 허여. 설기떡

107064 @ 아, 곤쌀로 허는 건 설기떡.

107064 #1 으.

107064 @ 침떡을 좁쌀.

107064 #1 좁쌀로 허는 건 침떡.

107064 @ 아. 이렇게 곶아. 다르다, 다르다 말 다르다. 조침떡, 곤친떡 이런 말
은 엇어예.

107064 #1 조침떡을 헤도 곤침떡은 안 허여. 그냥 설기떡이엔 허연.

107064 @ 설기떡이렌 헤예.

107064 #1 으.

107064 @ 이제는.

107064 #1 경 안허민 귀 갈랑 허젠 허민 곤쌀침떡이엔 헛주기계. 옛날말론.

107064 @ 아, 귀 갈랑 허젠 허민.

107064 #1 으.

107064 @ 그 설기떡을 곤쌀침떡이엔 헤낫구나.

107064 #1 으, 으.

107064 @ 근데 보통 여기서는 설기떡이렌 불런예?

107064 #1 이제는, 이제는 설기떡, 설기떡 허주만은 옛날에는.

107064 @ 설기떡은 이제사 굳는 말?
107064 #1 으, 이제.
107064 @ 그럼 옛날에는 곤.
107064 #1 곤침떡게, 곤설침떡 옛날엔.
107064 @ 으, 곤설침떡?
107064 #1 으, 으. 좁쌀, 좁쌀침떡, 곤설설기, 곤설침떡.
107064 @ 옛날말로 곶아즙서, 옛날말로.
107064 #1 곤설침떡.
107065 @ 그럼 이제 곤설침떡서부터 만들어 줘서. 곤설침떡 만들젠 허민 어떻
해야 될 것과? 자, 쌀을 물에 담강?
107065 #1 물에 담가.
107065 @ 무슨 쌀?
107065 #1 좁쌀.
107065 @ 좁쌀예. 아, 곤설부터 곤설침떡부터.
107065 #1 곤설침떡도 물에 담가.
107065 @ 아, 물에. 곤설 물에 담강.
107065 #1 으, 물에 담가. 다 똑같아 만드는 방법은.
107065 @ 음. 물에 담강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거.
107065 #1 방에에 뿔앙 ㄱ룰로.
107065 @ 집이서.
107065 #1 족으면 집이서 허고 하면 들방에라고 강 뿔고.
107065 @ 으, 뿔앙
107065 #1 그, 그 뿔는 거는 그 물건에 따라 하든 한 대로, 족으면 족은 대로.
107065 @ 이제 뿔앙?
107065 #1 뿔앙.
107065 @ ㄱ루 만들엉?
107065 #1 ㄱ루 만들엉 경혜근에 이제 흐꿈 물 버무렁 시리에 낱 청.
107065 @ 으.
107065 #1 경 허멍덜 침떡 꿩고.
107065 @ 물 버무리는 거는 물은 그냥 언물?
107065 #1 으, 언물.
107065 @ 언물 쪼끔, 쪼끔 그냥.
107065 #1 으, 으. 경 막 덩어리 지지 안 허게 쪼끔.
107065 @ 으. 그럼 어무니 헐 때는 시리, 시리도 막 크기별로 이실 거 아니?
107065 #1 많이 허젠 허든 큰 거.
107065 @ 으.
107065 #1 족게 허젠 허든 조금만 현 거.

107065 @ 으 .

107065 #1 여러 가지. 뭐 혼말들이 잇고 닷뒤들이 잇고 석뒤들이 잇고 뒤.

107065 @ 으. 보통 크기 어떻 거 써낫수과, 집이서?

107065 #1 식게 멩질 때에 그 대소상 때에, 소상, 대상 헐 때에는 큰 시리. 혼 말 드는 시리.

107065 @ 혼 말 드는 시리.

107065 #1 으. 그 외에 제사 때는 두 뒤 드는 시리.

107065 @ 으, 두 뒤 드는 시리에.

107065 #1 으.

107065 @ 게민 이 제서 때 췌던 두뒤들이 시리에 헤 보면 이제 그 시리에 ㄱ루 를 끌앙? 뒤, 뒤부터, 밑에 뒤부터 끌아?

107065 #1 밑에 무신 저, 저 푸성귀 이파리. 무신 ㄴ물 이파리민 ㄴ물 이파리.

107065 @ 아.

107065 #1 그런 거 허여사 아래 그냥 그대로 먹어지고 헐 정도로 ㄴ물 이파리 거튼 거 대목 끌주게.

107065 @ ㄴ물 이파리 끌앙.

107065 #1 경혜근에 이제 그레 ㄱ루 영 낵 이젠 또 ㄱ루 요만이 놓면은 이제 풋 서꺼.

107065 @ 음.

107065 #1 풋. 경 안 허민 부떠부난.

107065 @ 부떠부난.

107065 #1 풋은 부뜨지 안 허여.

107065 @ 예.

107065 #1 또 낵 또 허여.

107065 @ 예.

107065 #1 징징징징이. 혼 열 징쫂 웰 거라.

107065 @ 아.

107065 #1 혼 시리가.

107065 @ 혼 시리에 열 징정도?

107065 #1 으, 으.

107065 @ 혼 징 두께가 혼 이 정도?

107065 #1 으, 이정도. 너미 두터워도 안 뒤곡게.

107065 @ 안 뒤고예.

107065 #1 으.

107065 @ 열 징 정도?

107065 #1 으.

107065 @ 그럼 사이 사이에 놓는 거는 거의.

107065 #1 풋.
107065 @ 풋 낫수과?
107065 #1 풋, 풋.
107065 @ 풋 그루.
107065 #1 풋 혜영 숲아근에 것도.
107065 @ 숲양.
107065 #1 껏양 그를 만들양.
107065 @ 으.
107065 #1 경혜영 놔둬서 살살살살.
107065 @ 열 징 정도 행 이제 치젠 허면 그걸 시리를 솟 우이 강 언저?
107065 #1 경허면은 그 맞는 솟이 있주게.
107065 @ 으.
107065 #1 솟에 강 톡 앓져. 솟디 낡 물 낡 숲당.
107065 @ 으.
107065 #1 이젠 앓지면 돌아가멍 시리마개 허여. 짐 못 나가게.
107065 @ 짐 못 나가게?
107065 #1 으, 짐 못 나가게.
107065 @ 시리마개예.
107065 #1 으, 으. 시리마개.
107065 @ 예.
107065 #1 경혜근에 이제, 이제 두경 톡 더꺼근에.
107065 @ 시리 우에 두경 톡 더경.
107065 #1 시리 우에 이젠 솟 두갱이 더경. 놔 두면은 이제 짐이 팡팡팡팡. 글로 낡. 경허면은 이제 또 익을 만이 행, 옛날에 시계도 엇이 그냥 짐작으로, 경헨 두께 을양 이젠 젓가락 행 영 행 찢러 보면.
107065 @ 예.
107065 #1 익으면은 젓가락이 경 부뜨지 안 허고 설면 막 부뜨난 그거 부뜨지 않을 정도까지.
107065 @ 쪽 밑에까지 찢러 방?
107065 #1 으, 막 익으면은 쪽 들어가.
107065 @ 한 얼마 정도 숲으면 영 익어집니까?
107065 #1 하이고, 그것도 오래여. 그것도 혼 세 시간, 네 시간 걸릴 거라.
107065 @ 불은 막 쉰 불에?
107065 #1 으?
107065 @ 불은 막 쉰 불에 헉니까?
107065 #1 그냥 뭐 낭불로 혜나고 옛날에.
107065 @ 계난 불 막 와랑와랑 허게?

107065 #1 와랑와랑은 안 허여. 그자 어느 정도.
107065 @ 으. 경험 한 세 시간이민 돼게 오래 헛구나.
107065 #1 오래여. 오래 안 허믄 안 익어.
107065 @ 어.
107065 #1 그것이 그냥 우터레까지 짐이 올라강 익어야 헐 거난.
107065 @ 예. 게난 짐은 옆으로.
107065 #1 옆으로 나민 안 돼여.
107065 @ 안 돼예?
107065 #1 으, 시리마개 현 디로 나면 또 막고, 또 막고.
107065 @ 으. 시리마개 허는 것도 곤썰 반죽 헝 험니까?
107065 #1 그건 아니, 쯤썰 반죽. 쯤썰 반죽으로.
107065 @ 기민 한 세 시간 허면 그거 꺼내 낱.
107065 #1 이제 두경 을앙 뵙 익어서민 이제 불 꾸왓당 을아근에 이젠 ㄱ렛방 석 폐왕 양쪽에 뵙 대영, 행주 대영 들러당 이젠 폭 허게 어퍼. 비왕 겐 이제 칼로 ㄱ창.
107065 @ 먹는 거예. 경험 곤썰침떡 만들어서예.
107065 #1 으.
107065 @ 쯤썰침떡은?
107065 #1 쯤썰침떡은 경허고.
107065 @ 예.
107065 #1 그 옛날엔 쯤썰, 곤썰 침떡이 벨로 엇주기 우린. 우린 안 헤 봐서.
107065 @ 안 헤 봐서.
107065 #1 으, 그 말만 듣고 그 대소상 때나 그때에는 특별히 그 징 부찐 거엔 현 것이 있어.
107065 @ 건 뵙과 징부찐 거?
107065 #1 쯤썰떡, 쯤썰 ㄱ를를 요만이 두덥게 허면은, 이만이 두더우면은 이젠 그 우에 흥끔씩 곤썰 ㄱ를를 부찌.
107065 @ 하하하.
107065 #1 겐 징부찌는 거엔 허주.
107065 @ 게난 곤썰로만 다 못 허난.
107065 #1 못 헤연.
107065 @ 쯤썰 헤 놓고 우에?
107065 #1 으, 으 그거는 저 제서 때에 멩질 때에 상에 올리는 떡으로 딱로 허 연. 징부찐 거 딱로.
107065 @ 기민 그거를 징부찐 떡이렌 헤?
107065 #1 으, 징부찐 떡.
107065 @ 징부찐침떡이렌은 안 허고 그냥 징부찐떡이렌 허는 거라예?

107065 #1 으.

107065 @ 곤썰 ㄱ루 쪼금 들어가는 부분은 상에 올리는 거?

107065 #1 어, 올리는 거.

107065 @ 계민 열 징이민 열 징 그렇게 안 허큰게?

107065 #1 안 허여, 먹을 만이, 저 올릴 만이.

107065 @ 올릴 만이.

107065 #1 으, 곤썰ㄱ들이 하지 안 해부난게 그냥 저냥 그자 불르는 체 해근에.

107065 @ 하하하. 맞수다, 맞수다.

107065 #1 옛이민 곤썰ㄱ루 옛이민 그냥도 올리고 허는 디.

107065 @ 계난 침떡 칠 때는 막 멍심해야.

107065 #1 멍심해야 옛날에. 방법이 있어 그냥. 어떻 허당 숭 봐. 문덜도 문 더 꺼불고 그디. 정지에 앓아근에 불 숨젠 허민 누게 아무라도 들어오지 말렌. 지금은 그런 거, 저런 거 옛는디어.

107065 @ 으.

107065 #1 옛날에 경해근에덜 막 해났어.

107065 @ 무산고예?

107065 #1 무사산디사 경행 어떻 행 누게 확확 들어탱기고 문 열고 못 해가민 그 시리고망 막은 것이 터져근에 파파파파. 막 그냥 짐 나가불어.

107065 @ 짐 나가불민 다 안 익고예.

107065 #1 안 익어.

107065 @ 어떤 거 익고 어떤 거 안 익고.

107065 #1 예 원 익지 안 허연 비와 놓민 흐 쪽엔 설어 불고 흐 쪽엔 익어 불고, 못 먹어.

107065 @ 아. 다른 떡은 아닌디 꼭 침떡은 경 해났어예?

107065 #1 으, 침떡은 멍심해.

107066 @ 예, 예. 멍심해 가지고. 그 떡 종류에 송편이라는 것도 따로 있어났수과?

107066 #1 아니, 그 옛날엔 그거, 그거. 등절미엔 현 것도 셔났주만은. 대목 그거 대목 허연.

107066 @ 계민 송편이렌 안 불러나서예, 곤떡이렌 불러나서예.

107066 #1 곤떡, 곤떡.

107066 @ 아까 등절미가 뭐과?

107066 #1 등절미엔 현 거 아까 송편 거치 허여도 동글락허게 해근에 이디 납작허고 이딘 흐뵂 붕오릇허게.

107066 @ 그럼 이견게, 여기 동글락허게 행, 이디 손으로 푹 눌렁 여기 영 좁는 거.

107066 #1 어, 어. 좁아부는 거, 돌아가멍 좁앙.

107066 @ 돌아가명 동글랑허게.
107066 #1 동글락 현 건 그거 송편이고.
107066 @ 송편이고.
107066 #1 송편이고게. 게메 경허난. 이거 영 동글락허면은, 이거 영 동글락허면.
107066 @ 예.
107066 #1 이거는 이디가 흐뎡 봉오릇 허여. 이디가 영 봉오릇 허든 이건 영 허든 이디 영 낡 올로 영 누르뜨든.
107066 @ 아, 끝에만.
107066 #1 으, 그것ㄴ란.
107066 @ 아, 그걸 등절미렌 헤예?
107066 #1 으, 등절미.
107066 @ 게민 송편도 잇고 등절미도 잇어난?
107066 #1 송편 허는 딴 송편, 등절미 허는 딴 등절미 옛날에 경.
107066 @ 게민 이 송편이랑 등절미를 다 곤떡이렌 불릿수과?
107066 #1 곤떡이렌.
107066 @ 곤떡예? 게민 곤떡이렌 불릿던 건 이거 다 곤쌀로 만드난.
107066 #1 곤쌀로 만들앙.
107066 @ 이건 좁쌀로 안 만들고?
107066 #1 좁쌀로 안 만들야, 곤쌀. 뭐 세미, 인절민 ㄴ멸쌀.
107072 @ 아, 세미, 인절미?
107072 #1 으.
107072 @ 세미나 인절미는 ㄴ멸쌀, ㄴ물쌀로 만든 거예. 게민 세미떡 한 번 만들어 줘서. 세미떡.
107072 #1 세미떡은 또 이거 영영 헤영, 이거 영 헤영 이것이 동글락 허면은 일로만 영, 바우로만.
107072 @ 바우로만?
107072 #1 어, 어. 흐 쎄 바우는 요렇게 놔 두고 올로 시작허든 올로 영 요꺼지.
107072 @ 게난 이거, 만약 이게 지금은 네모우다만은 이거 동글락허게 분을 뜨는 거?
107072 #1 아니 그냥.
107072 @ 손으로만?
107072 #1 손으로만, 본 아니.
107072 @ 아, 손으로만.
107072 #1 손으로만 행 이딴 념겨두고, 이디 념겨두꼭 올로만 요 영 행 누르뜨민, 누르뜨 놔근에 이제 또 이 바우 헤불지 안허민 소굽에 풋 쉬가 들어가니까.
107072 @ 아, 예.

107072 #1 숭아가든 나와볼어.
107072 @ 예.
107072 #1 세미는.
107072 @ 으.
107072 #1 경허난 돌아가명 영 줘야.
107072 @ 예, 세미. 인절미는?
107072 #1 인절미는 그냥 저 무시것고 안, 안반이엔 현 것이 잇주기께.
107072 @ 예.
107072 #1 빨래 두드리는 안반. 그런 것에 낡 반죽해근에 작작 밀어.
107072 @ 으.
107072 #1 막대로 밀영 납작허게 해 놔근에 칼로 이젠 네모나게 그차. 그것이 인절미.
107072 @ 세미랑 인절미는 줍쌀로 허는 거?
107072 #1 아니 므물쌀.
107072 @ 아, 므물쌀. 므물꺾루 해당 반죽허젠 허민?
107072 #1 반죽은 저 물 미지근이 데왕 알맞게 찌어가지고. 막 므물쌀 떡 허긴 좋아.
107072 @ 므물쌀이 반죽하기는.
107072 #1 으, 으. 좋아.
107067 @ 예. 빙떡은 어떤 것과 빙떡?
107067 #1 빙떡? 빙떡은 지금도 험주만은 옛날도게 마찬가지로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거.
107067 @ 예, 이제 만들어 줘서. 말로.
107067 #1 그거 므물꺾를 헤영.
107067 @ 예.
107067 #1 이제 반죽 만들양 물 놔근에 어느 정도.
107067 @ 빙떡은 알뜰게 해야 될 거라예.
107067 #1 스몫 알튀도 안 튀고, 스몫 튀여도 안 튀고.
107067 @ 안 튀고예.
107067 #1 근 맞아야만 허주께. 후라이판이 영 낡 영 익혀 보멍.
107067 @ 으.
107067 #1 익혀보멍. 알루미 막 고평 터져볼고 두터우면 또 물젠허든 꺼꺼져볼고. 게난 어느 정도 근 맞게 헤영 카근에 이제. 나 지금도 빙떡 정월 멩질 나든 지점서. 아들네 집이 강.
107067 @ 아들네 집이 강.
107067 #1 아들네 집이 강 그자 먹젠덜께. 막 빙떡은 아무나 먹으니까. 게난 이 녀덜 먹젠.

107067 @ 예.

107067 #1 흔 뒤 ㅁ물ㄱ를 헤 오랑 어무니 지집서 허믄 바레진 못 허고 그거 짐작으로라도 무수 헤여근에 쉬 허고 헤영.

107067 @ 예.

107067 #1 옛날엔 또 스뭇 옛날에 그것도 엇엇주기만은. 중간에사 그것도 나왕.

107067 @ 빙떡도 중간에 나온 것과?

107067 #1 예, 예. 빙떡이 중간에. 스뭇 옛날엔 그런 건 고급떡이라 경 장 엇엇 주게. 그자 ㅁ물살 허믄 세미, 인절미.

107067 @ 예.

107067 #1 식게 때 올리젠 헤여근에 흐뭇씩 헤다근에.

107067 @ 기민 빙떡 허젠 허민 속도 넣어야 할 거 아니?

107067 #1 속에, 속에 무수.

107067 @ 무수 어떻 행?

107067 #1 무수 칼로 썰어근에, 칼로 썰어근에 확 데우청. 경헤근에 양념 무청, 그대로 근 맞게 무청 겐 파도 흐뭇 즈질이 썰어 놓고. 경행 툫툫 이녁냥으로 몰아 근에.

107067 @ 무수는 영 가늘게 채 썬는 거라예.

107067 #1 으, 채 썰영.

107067 @ 지금이야 빙 지질 때 후라이팬에 지지주만은.

107067 #1 옛날은 솟뚜껍이.

107067 @ 솟뚜껍이.

107067 #1 소뚜껍이에서 하나씩.

107067 @ 으.

107067 #1 이제는 뭐 후라이팬에 허민 두 개도 허고 세 개도 허고 허주만은 그 전이 솟뚜껍이는 가운데가 움막허주.

107067 @ 예.

107067 #1 게난 하나베끼 못 허여.

107067 @ 예. 솟뚜껍이도 영 지름 불르고 헤야 할 거 아니?

107067 #1 으, 지름 불르고.

107067 @ 뭇로 지름 불랏수과?

107067 #1 저 무시것고게. 무신 감저철에는 감저 툫 끈어 두어근에 허고 경 안 허면 늣뻘철에 늣뻘도 허고.

107067 @ 음.

107067 #1 그런 걸로 영영 뻘이고, 뻘여낫주게.

107067 @ 예. 찰지름 발랏수과?

107067 #1 아니, 찰지름은 아니고. 옛날엔 저 도새기 지름,

107067 @ 아, 도새기 지름으로.

107067 #1 도새기 지금덜도 해당.
107067 @ 그럼 추렴할 때 도새기 지름을 해다 놓는구나.
107067 #1 어. 어떻 허당덜 그거 갈라당 잇을 때도 잇주기만.
107067 @ 예.
107067 #1 어떻 허당 보든 춤지름으론 안 해 받.
107067 @ 지금이야 춤지름으로 허지 안 해?
107067 #1 예. 지금.
107067 @ 옛날에는 춤지름 안 해서예.
107067 #1 으.
107067 @ 여기서도 유채 지름 뽑앙?
107067 #1 뽑앙 먹어낫주게.
107067 @ 그걸로도 해 나고?
107067 #1 그걸로도 해 난.
107067 @ 또 도새기 지름.
107067 #1 으, 도새기 지름덜 헤영 해 나고.
107067 @ 예, 예.
107067 #1 막 옛날에. 지름도 에렵고 아무것도 어려운 때에.
107068 @ 여기는 밀꺾루로 영 상웨떡은 안 만들앙?
107068 #1 무사 안 헤여.
107068 @ 상웨떡?
107068 #1 삼메떡 허여. 밀꺾를로.
107068 @ 상웨떡이렌 험니까 여기도?
107068 #1 삼메떡.
107068 @ 삼메떡?
107068 #1 으.
107068 @ 예. 삼메떡 만들어 줘서.
107068 #1 삼메떡은.
107068 @ 반죽허는 것서부터.
107068 #1 삼메떡은 밀꺾를 헤영.
107068 @ 예.
107068 #1 이젠 저 탁배기. 저, 저 이제 거트민 막걸리.
107068 @ 막걸리.
107068 #1 막걸리나 우린 막걸리 아니 허연 저 기주를 만들앙.
107068 @ 예.
107068 #1 저 누룩 놓고 허연. 흐뎡 쉰다리 거치 쉬게 허여 낵. 그 물로 행 반
죽행 놔두민 부각이 익영 올란와.
107068 @ 음.

107068 #1 반죽 만들양 놔두민.
107068 @ 으.
107068 #1 흥끔 영 댓신디 헤근에 우에, 도고리서 찌영 도고리째 낱 그 우에 곱
닥헌 무신 거 더경, 포테기라도 더경 놔 두민. 여름 때에는 아무 디 놔도 돼주만은
겨울 때는 막.
107068 @ 딱뚫헌 디.
107068 #1 막 온돌방에. 온돌방에 행 드시게 행 놔두민.
107068 @ 이불 더평 놔 뒤예?
107068 #1 으. 그 우이 부쩍이 올라오믄 그걸로 영영 꼬치멍, 요만씩 꼬치멍 영
영 만들야. 영 놔두믄, 만들양 낱도 또 꿰와야, 부껴 올라와야. 만들야도.
107068 @ 으.
107068 #1 경행 이제 치믄 이제 좋주게.
107068 @ 기주 넣는덴 헛잖아예? 기주에 아까 막걸리, 탁베기 대신에.
107068 #1 기주. 기주 어느제 허영?
107068 @ 으.
107068 #1 기준 아무 때라도게 밥에 누룩놔근에게.
107068 @ 아.
107068 #1 누룩 낱 행 놔두면은 부글부글 익어.
107068 @ 익어.
107068 #1 저 꿰여.
107068 @ 꿰여.
107068 #1 으, 꿰믄 기주 돼는 거주게.
107068 @ 아, 그걸 놓는 거라?
107068 #1 경허믄 물로 툄라근에. 그 아쟁인 놓지 말고.
107068 @ 으.
107068 #1 누룩 아쟁이도 싹고 밥 아쟁이도 시난에 아쟁인 말고 그 국물만.
107068 @ 으.
107068 #1 이제는 막걸리 허고 우유. 지금은.
107068 @ 아, 막걸리 허고 우유.
107068 #1 으, 빵떡 만드는 디 꼭 막걸리 허고 우유 들어가주게.
107073 @ 예. 그 절벤, 솔벤은 안 헤낫수과?
107073 #1 절벤, 솔벤은 허는 디는 허곡 안 허는 디는 안 허여. 허는 사름은 허
곡, 우린 안 허여.
107073 @ 아.
107073 #1 우리 세미, 인절미, 곤떡 그자 침떡 그거, 그거주기게 옛날 못 사난
경 어디 이것 저것 헐 수가 셔게.
107073 @ 으. 이쪽엔 절벤 솔벤 안 헛구나.

107073 #1 으, 절벤 솔벤 어디 웃드르 어딘 상촌더레 헤 나실 거라.

107075 @ 예. 그 웃기떡이렌 현 건 뭐과?

107075 #1 뭐?

107075 @ 웃기떡, 웃지떡이렌 험니까 여긴?

107075 #1 뭘 떡?

107075 @ 웃지, 웃지떡?

107075 #1 웃지떡이엔 현 말 들어보지 안 헛는데.

107075 @ 제사할 때 맨 우에 오리는 지름떡 같은 걸 뭐렌 부릅니까?

107075 #1 고장떡.

107075 @ 아, 그거 고장떡?

107075 #1 으. 고장떡. 지름떡도 허주만은 고장떡도 헤. 고장떡 우선 해야주게.

107075 @ 고장떡은 어떻 만드는 거라?

107075 #1 고장떡은 동글락허게 헤근에 바우 영영.

107075 @ 뭘로?

107075 #1 손으로, 손으로.

107075 @ 아니. 곤솔로?

107075 #1 곤솔로도 허고 곤솔로 대목 허주게. 곤솔로 고장떡은.

107075 @ 으, 반죽 영 행.

107075 #1 영영 행, 영 동글락허게 행 영 헤불민. 납작허게 허영 영영영.

107075 @ 예.

107075 #1 이것이 고장.

107075 @ 겐 기름에 지저?

107075 #1 아니. 그냥 그건 삶아. 지름떡이 뜨로 잇어. 지름떡은 무가다로 행 바 위 안 헤 납작허게만 행 요만이 행 지름에 지저.

107075 @ 아.

107075 #1 옛날엔 지름떡도 엇언.

107075 @ 엇어난예.

107075 #1 옛날엔 엇언, 중간에사.

107075 @ 반죽은 고장떡이나 지름떡이나.

107075 #1 으, 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그걸로, 그걸로.

107069 @ 마찬가지로라. 그럼 어무니 제사할 때 헛던 게 맨 밀어 뭐 낫수과?

107069 #1 떡은? 떡 종류?

107069 @ 예.

107069 #1 침떡, 침떡.

107069 @ 맨 밀어 침떡, 그 다음 침떡 우이?

107069 #1 침떡 우이는 저 세미, 인절미.

107069 @ 세미나 인절미예, 그 다음.

107069 #1 송편.
107069 @ 송편. 또 그 다음.
107069 #1 고장떡.
107069 @ 그 다음 고장떡. 그 다음.
107069 #1 그 다음은 떡 종류는 그거.
107069 @ 그거예.
107069 #1 옛날에.
107069 @ 맨 밑에 침떡 낵 우에 세미나 인절미 낵 그 다음 송편 언저 낵 그 다음 고장떡 낵던 거라예?
107069 #1 으, 으.
107070 @ 그럼 상 낵을 때, 상 낵을 때도 마찬가지로?
107070 #1 비슷비슷 허여. 옛날에는 비슷비슷.
107070 @ 예.
107070 #1 없으니까게. 이제 거치 이것저것 허곡, 허여근에 뭐 고급으로 허진 안 허여게. 옛날은 뭐.
107070 @ 계민 상웨떡이나 아까?
107070 #1 그런 건 안 올려, 잘.
107070 @ 안 올리는 것과?
107070 #1 으. 그런 거는 그런 거는 허젠은 허면은 막 절약행 허면은 그거 한 가지.
107070 @ 으.
107070 #1 그거 혼 가지로만도 헐 수가 잇주기게.
107070 @ 아.
107070 #1 그자. 어려우민 어떻 헐 거라. 옛이민 옛인 대로.
107070 @ 그럼 상웨떡 가정 약케 같은 것도 안 만들어낵구나.
107070 #1 무시거?
107070 @ 약케.
107070 #1 약케가, 몰라 약케.
107070 @ 상웨떡 요만이 행 지지는 거? 기름에 지지는 거.
107070 #1 그것도 안 헤 보고.
107070 @ 안 헤 보고예.
107070 #1 으. 아주 어렵게덜 살아나부난.
107070 @ 아까 물떡이라는 거 잇어나신디 물떡이 뭐과?
107070 #1 그건 물떡은 그냥 보통으로 사용은 안 허고.
107070 @ 음.
107070 #1 어디 영장 날 때덜이나 크게. 세미떡 모양으로 웬 건디 아주 크게. 물떡, 돌레떡 그런 건.

107070 @ ㅁ물ㄱ루로?
107070 #1 아니, ㅁ물ㄱ룰로만 아니고 줍쌀로도 돼여.
107070 @ 줍쌀로도 돼여?
107070 #1 예, 그건 줍쌀로도 돼여, 보리쌀로도 돼고.
107070 @ 으. 크게 행.
107070 #1 크게, 크게. 돌레떡이엔 행 크게 허고 물떡도 막 크게.
107070 @ 그거는 언제 물떡 쓰는 거?
107070 #1 그 영장 때 고적으로.
107070 @ 고적으로.
107070 #1 고적떡으로덜 헤난.
107070 @ 고적이 뭐과?
107070 #1 영장 때 부주떡게, 이제 거트면.
107070 @ 아.
107070 #1 이제는 봉투로덜 행 감주기만은 옛날엔 떡으로덜 헤영 강.
107070 @ 게민 그거 바구니에.
107070 #1 으, 바구니에.
107070 @ 그 부주혈 걸로 행 가민.
107070 #1 친축집이덜 친축질레 고적이엔 현 건.
107070 @ 고적떡 행 가민 영장बाट디서는 온 사름덜 영?
107070 #1 예, 그디 온 사름덜.
107070 @ 반테우고.
107070 #1 으, 테우는 거. 맥이곡.
107070 @ 맥이곡 허는 거?
107070 #1 으, 그것이 일당이고 그것이 뭐 먹는 거고.
107070 @ 그때 쓰는 건.
107070 #1 으, 돌레떡, 물떡. 그런 때 그거 영장 때에만 쓰는 거.
107076 @ 그럼 당에는 안 다녀낫수과?
107076 #1 무사 안 다녀.
107076 @ 당에 다닐 때 허는 떡은 뭐과?
107076 #1 당에 다닐 때는 밥 헤영 보시에 거리곡게, 술 사이다로 하나 가지고.
107076 @ 으.
107076 #1 또 쉐꼬 가지고 상돌, 상돌 그거 영 쉐꼬 꽃이는 거 그거 허고.
107076 @ 예, 예.
107076 #1 또 저 고기 하나 구워 놓고.
107076 @ 으.
107076 #1 또 백지 멧 장 행 강, 창호지 말고 백지엔 현 거, 창호지보단 작은 거 그거 멧 장 놓고 경행 간.

107076 @ 떡은 안 허고?

107076 #1 떡도 혜영 가긴 혜영 가주기만은. 떡기 혜영 가긴 혜영 간. 다데떡.
다데떡이엔 현 거.

107076 @ 아. 당에 갈 때 가져 가는 걸 다데떡이렌 험니까?

107076 #1 으, 다데떡.

107076 @ 그럼 다데떡은 어떻 만들어.

107076 #1 동글락현 거 고장떡 거치 만드는 다데떡.

107076 @ 돌레떡은 어떻 만드는 것과?

107076 #1 돌레떡도 마찬가지로.

107076 @ 마찬가지로지예.

107076 #1 김을 하영 심영계 그건. 이만인 혜 놔사.

107076 @ 아. 기민 다데떡이랑 돌레떡은 마찬가지로.

107076 #1 비싯허여도 크고 죽은 거.

107077 @ 아, 크기가. 예, 예. 굿 할 때 뭐 딱로 허는 떡이 있어났수과?

107077 #1 시리떡.

107077 @ 시리떡.

107077 #1 으, 조그만 현 시리에 낱 치여근에 그거.

107077 @ 음.

107077 #1 그거 허고 저 다데떡.

107078 @ 떡 이거 말아 더 혜 먹어난 떡이 잇수과?

107078 #1 벨로 엇어.

107078 @ 기지예.

소와 고물

107079 @ 떡 속에 넣는 거 뭐 송편이나?

107079 #1 그건 쉬도 놓고계 풋쉬.

107079 @ 풋쉬.

107079 #1 풋쉬 대목 놓주게.

107079 @ 콩쉬 안 헛수과?

107079 #1 콩쉬 안 혜연. 풋쉬, 풋쉬.

107079 @ 풋쉬, 깨 같은 거는?

107079 #1 꿩도 쪼금 놓게 돼면은, 이제야 꿩지 옛날은 쨌 많이 혼전 혜나지 안
허난. 풋 거튼 건 흐꿈씩 가니까.

107080 @ 예. 그럼 고물도 거의 풋?

107080 #1 대목 풋.

107080 @ 콩 안 험니까?

107080 #1 벨로 안 허여서, 대목 풋이주게.

107081 @ 떡 혈 때 금기해야 허는 거 뭐 잇수과?

107081 #1 침떡혈 때만게 침떡혈 때도 치는 디만, 부업에만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게 양쪽 막 문 닫아불어.

별식

107082 @ 이제는 특별한 음식 만드는 거 몇 개 물어보쿠다. 수에 만들엉 먹어 낫수과?

107082 #1 아니, 난 안 멘들아 받.

107082 @ 잔치집 같은 데 가면.

107082 #1 으, 그런 디 갈 때는 흐끔 봐 나긴 헛주기만은.

107082 @ 예, 계난 어떻 만드는 건 알아질 거 아니?

107082 #1 으, 수에 만드는 것도 반죽 만들엉게.

107082 @ 반죽은 어떻 만들어?

107082 #1 반죽에는 것도 ㄴ를 들고게.

107082 @ 무슨 ㄴ를?

107082 #1 맛좋게 허젠 허믄 저 보리쌀 ㄴ를.

107082 @ 믹물ㄴ루 아니?

107082 #1 믹물ㄴ루도 흐끔 훑은 는쟁이엔 헨 거 셔. 훑은 거 ㄴ를 우에 거. 그 거 받아단 그거 셔끄고. 경헨 허고, 맛좋게 허젠 허믄 도새기 안칩덜, 베설덜 닥닥 찍어 놔.

107082 @ 으.

107082 #1 경혜근에 그레 서경 경헨 수에 담는 거주.

107082 @ 서경 도새기 핏물에?

107082 #1 핏물에 첨. 핏물에 서경.

107082 @ 으.

107082 #1 경혜근에 썩, 썩 아래거 ㄴ차똥.

107082 @ 으.

107082 #1 그 즈룩 글로 헿 질어.

107082 @ 질엉.

107082 #1 으, 즈룩은 베설더레 영 디물아 낱 우에 슬진 더레 그걸 막 질어, 담 아 낱 이젠 영, 영 헿.

107082 @ 경 내리멍.

107082 #1 으, 경 수에 담아.

107082 @ 수에 담아.

107082 #1 맛좋아 경허믄, 그것이 최고로 맛좋아.

107082 @ 최고로 맛좋아.

107082 #1 안칩덜 닥닥닥 못아 낱, 무슨 북부기 같은 거 베설 같은 거 다 그냥

장만해근에. 그 전에 경 해났지만은 지금은 사단덜 먹으니까계.

107082 @ 계난 큰일 때, 잔치나 영장 때 만들엇던 거지, 식게 때 그런 거 만들지는 못 헛잖아예?

107082 #1 못 허여, 못 허여. 잔치 때베끼.

107083 @ 잔치 때베끼예. 둬비도 해났수와 둬비?

107083 #1 둬비?

107083 @ 예.

107083 #1 둬비는 우리집이서 잘.

107083 @ 계도 만드는 거 알아지지예?

107083 #1 만드는 것사게.

107083 @ 둬비 만들어 보십서.

107083 #1 둬비 만드는 것도 콩 해근에 물 옷져당.

107083 @ 물 옷져당?

107083 #1 물 옷정당 그레에 곶양근에 이젠 솥양.

107083 @ 물 채 근 거라예?

107083 #1 으, 물 채.

107083 @ 물 채 근 거를 이제 솥으는 거라.

107083 #1 계, 솥양 팔닥팔닥 솥아가믄 물은 물대로 또 그거 건지는 건지대로 댜 가믄 그건 옛날은 그 무신 그음 해근에 옷그음 해영 옷그음더레 그걸 담양 경행 이제 아래 안반 놓고 주둥일 막 즐라메여.

107083 @ 으.

#1 즐라메영 이젠 안반더레 노양, 우이 또 무슨 안반, 널짜 곱닥헌 널짜 우이 영대영 그 우이 막 그레착덜 해당 지들루는 거라.

107083 @ 음.

107083 #1 계믄 물이 막 짜지는 거라.

107083 @ 음, 음.

107083 #1 경허믄 드랏허게 그거 텅어리 정. 경행 이제 내중에 꺼내민 두부 댜주게.

107083 @ 음. 계난 물 짜지젠 허민 시간 좀 걸릴 거 아니?

107083 #1 으, 으. 대강 짐작행 그것도 지들황 서너 시간 내부는 거라.

107083 @ 으. 계민 오늘 쓸 거 오늘 만들지는 못 허쨌다예.

107083 #1 아니, 만들젠 허민 만들긴 만들주게, 많이 모다들영 허여.

107083 @ 두부도 식게 때도 만들어났수와?

107083 #1 아니, 아니. 잔치 때나베끼.

107084 @ 잔치 때. 이제 묵 물어보쿠다 묵. 식게 때 묵 해났잖아예?

107084 #1 으.

107084 @ 어떤 묵 잇엇수와?

107087 @ 음. 기구나. 그럼 간식 같은 걸로 부침개, 지짐이도 행 먹어난?
107087 #1 아니, 옛날엔 그런 거 별로 안 행 먹언. 지짐이 같은 거 별로 잘 안 행 먹언.
107088 @ 맞아. 술 담갔지예? 술들?
107088 #1 술?
107088 @ 으.
107088 #1 술은 해낫지.
107088 @ 으.
107088 #1 술도 그냥 밥 허고 누룩 허고 허영 찌여근에 찌영 놔 두민 그것이 퀘는 거라.
107088 @ 으.
107088 #1 경허면은 이젠 그걸 솟아, 아니 걸러.
107088 @ 밥 낱 누룩 낱 막 켜 거를?
107088 #1 으, 으.
107088 @ 얼마나 놔 두민 퀘는 거라?
107088 #1 어느 정도 득시믄 득신 대로.
107088 @ 으.
107088 #1 빨리 퀘고, 경 안 허믄 얼면 언 대로, 추우믄 추운 대로 오래고.
107088 @ 음.
107088 #1 겐, 그 고소리엔 현 것이 잇어게.
107088 @ 예, 예.
107088 #1 그걸로 헤근에 이젠 딱 다끄는 거라. 그걸로 짱. 솟 우이, 솟 우이 고 소리엔 현 거 놔근에.
107088 @ 예.
107088 #1 경헤근에 그레 이제 끌리면은 소주가 나오는 거주.
107088 @ 그럼 누룩 놓고 밥 낱 그 켜 거를 그 고소리라는 그거 안에 담양 찌는 거?
107088 #1 찌지 안 허영.
107088 @ 예.
107088 #1 그냥 그거를 또 무시거 물을 짜 내는 거라.
107088 @ 물을 짜 내는 거?
107088 #1 어, 어 영 허영 밥에.
107088 @ 예.
107088 #1 누룩에.
107088 @ 예.
107088 #1 허영 버물영 노믄.
107088 @ 예.

107088 #1 이제 그것이 익어, 익지, 쨌지 안 쨌게.
107088 @ 예, 예.
107088 #1 쨌여가믄 이젠 쨌여 가믄 그 물이 쨌는 거. 쨌혜영 쨌디 그걸 놓고
고소리 놓곡 고소리 대영 쨌혜가믄 고소리레 물이 영 나오는 거라.
107088 @ 예.
107088 #1 쨌 거. 그 밥에 누룩에.
107088 @ 밥에 누룩에 게 고소리로 나온다고마쨌?
107088 #1 예, 예.
107088 @ 으.
107088 #1 쨌 아래서 불 때여. 이것이 막 뜨거워 가면은 짐이 올라와.
107088 @ 예.
107088 #1 이젠 일로 물만, 소줏물만 내리는 거라.
107088 @ 아, 일로 소줏물말 내리는 거라?
107088 #1 으, 소줏물만.
107088 @ 그럼 이거는 쨌 우이 언정 계속 막 끓이는구나. 여기 우인 뚜껑 더꺼
붙니까?
107088 #1 우에, 우에 더꺼나신가? 더꺼도 나실 거라. 더껏당 영 올라 뺨주기
자꾸.
107088 @ 예, 보글보글 허민 짐이?
107088 #1 으, 짐으로 이건 나오는 거라.
107088 @ 여긴 나온 게?
107088 #1 소주.
107088 @ 아.
107088 #1 으.
107090 @ 그럼 술 만들 때나 아까 삼메떡 만들 때나 누룩이 들어감수다예.
107090 #1 누룩이 들어가.
107090 @ 그럼 누룩은 미룻 만들영 놔 두는 거?
107090 #1 미룻 저 무시것고, 보리쨌을 ㄹ나 보리를 ㄹ나 혜영 흐쨌름 흐게 곱아
근에 그걸 쨌이는 거라. 퇴와.
107090 @ 으, 퇴와.
107090 #1 퇴와근에 누룩 만들야.
107090 @ 퇴우민 거기 곰팡이가 생기는 거라?
107090 #1 으, 으. 곰팡이 생겨, 곱닥허게 곰팡이 생겨.
107090 @ 예.
107090 #1 그거 덩어리로 만들야근에.
107090 @ 예.
107090 #1 무신거 저 옛날이면은 저 체, 쳌망.

107090 @ 예.

107090 #1 이거 영, 이거 영, 이레 영 챗망 놔근에 이레 영 그걸 담은 거라.

107090 @ 예.

107090 #1 답양 꼭꼭 누르떠근에 이젠 챗망 앓아뒀 영 낡 놔두든, 놔뒀근에 어 디 이제 뚜뚜헌 디 행 낡 놔두면은 누룩이 되는 거.

107090 @ 챗망 우에 그 누룩 만든 거를, 아니 누룩 만든 게 아니고, 아까 뒀, 뒀 헌 거를?

107090 #1 누룩 만들젠 허든.

107090 @ 예, 누룩 만들젠 허민. 이게 체 아니과예?

107090 #1 으, 챗망

107090 @ 챗망이렌 허민 어디를 챗망이렌 부르는 거? 요걸 챗망이렌 허는 거?

107090 #1 이, 이 둥글락 헌 거.

107090 @ 둥글락 헌 거. 계민 이 안에 막 그물 같은 게 있잖아예?

107090 #1 으, 으.

107090 @ 체가예, 체가 있잖아예?

107090 #1 으, 그건 그냥 그건 체에 부뜨는 거니까 그건 체엔만 허고.

107090 @ 이 우에?

107090 #1 이 우에 딱로 신 것만은 챗망.

107090 @ 챗망. 그럼 이 우이 아까 만든 것들 언저 뒀?

107090 #1 이걸 앓아붙어. 이 챗망만 딱로 잇주게.

107090 @ 아. 안에 체는 엇고.

107090 #1 으, 체는 엇어. 엇은 거 챗망만 딱로 만드는 것이 있어.

107090 @ 거기에 영영 만든 걸 챗망 안에 담아 뒀.

107090 #1 으, 담아 뒀.

107090 @ 담아 뒀.

107090 #1 으, 담아 놔 두면은 누룩이 되는 거라.

107090 @ 아.

107090 #1 그거 썩영, 소곱에서 텅 경허든 누룩 뒀어.

107090 @ 그거 만든 거 얼마나 놔 두민 영 튼니까? 거 오래 놔 두는 거?

107090 #1 아니, 것도 그 계절에 따라근에게 더우든 체기 퀘고 얼든 오래고.

107090 @ 음. 누룩 만들어시킨 아까 오메기술도 누룩 낡 만들고.

107090 #1 으, 오메기술.

107090 @ 삼메떡 할 때도 누룩 쓰고.

107090 #1 예, 기주 만들양.

107089 @ 계민 쉰다리는 어떻 만듭니까? 쉰다리?

107089 #1 쉰다리는, 쉰다리도 누룩 들어가.

107089 @ 계니까.

107089 #1 쉼다리는 밥.
 107089 @ 밥.
 107089 #1 떡다근에 식은 밥덜 남곡 뭇허면은게 이제 누룩게 곱닥헌 누룩덜 헤근에 췌앙.
 107089 @ 밥 남은 거에 물 좀 비왕?
 107089 #1 으, 으.
 107089 @ 누룩 흐끔 췌앙.
 107089 #1 으, 그레 낱, 경헝 낱 놔두민 보골보골 허게 궤여.
 107089 @ 으.
 107089 #1 경허믄 숲으믄 쉼다리 뉘는 거.
 107089 @ 아, 그거 보골보골 췌 거 숲아?
 107089 #1 숲아.
 107089 @ 숲으는 거.
 107089 #1 생체도 먹긴 먹는다 생체 먹으민 배탈 낱 안 뉘여.
 107089 @ 아. 숲앙 끝이민 끝인 거 그냥 그 체로 먹는 거예?
 107089 #1 으, 꿍이민, 꿍이민.
 107091 @ 이젠 옛 흐 번 멘들아 줍서, 옛.
 107091 #1 옛은 안 멘들아 봐서.
 107091 @ 안 만들어 봐서.
 107091 #1 옛은 별로 안 만들어 받.
 107091 @ 그럼 그 외에 이 마을에서 헤 먹어난 거 뉘 잇수과?
 107091 #1 뉘이 잇어?
 107091 @ 뉘 옛어? 그 외에 고내리에서 특별허게 멘들앙 먹어난 거?
 107091 #1 난 경 특별허게 멘들아난 건 옛일 거라.
 107091 @ 옛어. 예, 알앗수다.

8. 주생활

구조

108001 @ 이 동네 다 초집이랏던 거잖아예, 어무니네 어렸을 때는?
 108001 #2 초집 중에는 우리집이 췌 노파났는다. 저 우이.
 108001 @ 원래 여긴 아니파, 어느 쪽에 집이랏수과?
 108001 #2 우리. 저 중앙로로 요디 내려오당 보민 큰 넓적헌 폭남 잇지 안 험니까?
 108001 @ 예, 예.
 108001 #2 폭남신더레 오면은 요 동쪽더레 난 길 잇어 또. 그레 췌금 가 보면은

한질 보이는 그디가 우리집이랏주게.

108001 @ 그디 옛날에 고내천 잇어난 그 근방?

108001 #2 예?

108001 @ 옛날에 하천 잇어나지 안 헛수과?

108001 #2 게메 그거 하천 메와분 거주게. 폭남 신 디.

108001 @ 메와 분 거. 게난 초집 지을 때 어뎡 헤나신지 곶아줍서. 초집 지을 때?

108001 #2 아, 초집 지을 땡게.

108001 @ 예, 초집 짓을 때.

108001 #2 흑 헤당 또 흑만 이렇게 불르민 딱딱 벌어집네다.

108001 @ 예.

108001 #2 경 벌어지기 때문에 그 무신 보리 ㄹ시락이나 보리낭 복삭허게 그 썰어지거나 현 거 ㄹ치 흑에 낱 막 발로 불라근에 꾸영, ㄹ치 서텡.

108001 @ 으, 꾸영예.

108001 #2 꾸영 이젠 돌담 다왕게.

108001 @ 예.

108001 #2 나무 안에 그냥 건 식으로 네 지동 ㄹ근에 경 행 이젠 섬피 가쟁이 닳은 거 헤영 우에덜은 막 쟈쟈현 낱 막 ㄹ는 거 허영 이렇게 그냥 서리가 그거주 게.

108001 @ 예.

108001 #2 경헤영 허든 그 돌담 다와근에 흑 불랑 현 것이 막 발로 꾸썩이든 동네칩이 어른덜이 아이구 요 집이 집 짓엄젠게 물이나 저다근에 가근에 부주로 헤 주게 어뎡헤영 허뎡, 이젠 물 지여가든 그 흑 꾸는 디 낱 불르젠 허든.

108001 @ 아.

108001 #2 물도 엇주기계, 수도도 엇고 아무 것도 엇으니까. 물 질어당 이젠 그 허벽으로 현 허벽 질영 강 이젠 허든 또 다른 집이서도 오희 허든 막 이젠 또 밤 헤영 그사름덜 막 맥인다.

108001 @ 아. 집 주인은?

108001 #2 으, 집 주인은 허영 이제 발로 흑 ㄹ얏 막 꾸여근에 돌담 다우는 사 름은 돌담 답고 그 흑으로 이젠 안으로 막 불르뎡 또 돌 다우면서도 흑을 이렇게 놓뎡 다우면은 얼른 아니 무너진덴 헤영.

108001 @ 예.

108001 #2 그추룩 헤영 헤낫수게.

108001 @ 아. 게민 돌 다우는 사람들이나 흑 불르는 사름덜은 놉을 빌령 허는 거.

108001 #2 빌영, 빌영.

108001 @ 빌영 허는 거예.

108001 #2 이 녀 집이 또 사람이 그런 남저덜 시믄 허곡게.
108001 @ 으.
108001 #2 엇는 사름은 빌어야만 돼곡게.
108003 @ 으, 으. 게민 옛날에 보믄 초가집에 집 채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울 타리 안에 집 채가 여러 개 있잖아예? 예를 들엉.
108003 #2 예, 예. 밧거리, 모커리.
108003 @ 예를 들면 여기가 대문이면.
108003 #2 예.
108003 @ 여기가 들어가는 문이면?
108003 #2 매 집이 대문이 엇엇주기. 부제칩이나 그렇게 허엿주.
108003 @ 올레 잇고 이게 문이면 이디 하나 잇고 이쪽에 하나 잇고.
108003 #2 예, 예.
108003 @ 게민 여길 뤼렌 곶아마씨?
108003 #2 하나 소왕, 침침 소 메는 소왕간이고.
108003 @ 아, 아. 여기는 안거리.
108003 #2 쉼왕이엔 허여, 쉼왕.
108003 @ 쉼왕.
108003 #2 한국말론.
108003 @ 쉼왕예.
108003 #2 쉼 메는 그디가 쉼왕이엔 허고.
108003 @ 쉼막이렌 안 허고?
108003 #2 쉼막이렌 허지 안 허영 쉼왕, 쉼왕 경 허연.
108003 @ 그럼 사름 사는 딴 뤼렌 곶아?
108003 #2 사름 사는 딴 그냥 집이고.
108003 @ 안거리?
108003 #2 안거리, 밧거리.
108003 @ 안거리, 밧거리?
108003 #2 안거리는 그 쪽은 것이 밧거리고. 큰 거는, 큰집은 안거리고.
108003 @ 안거리고예. 쉼 있는 데는 쉼왕이렌 허고예.
108026 #2 예, 쉼왕이엔 허고 또 이제 집을 그추룩 헤영 또 지여 놓면은, 일 년 뤼면은 따시 이젠 일어야 돼여.
108026 @ 뤼를 일어? 지봉을?
108026 #2 새를 비여다가 그 우이 더퍼근에 일젠 허믄, 또 줄 놓는 거 각단이엔 헤영 새 요만큼씩 해당 이렇게 줄 허믄 이젠 그 나무 무신 걸로 이렇게 허멍 이젠 하르방덜은 이렇게 놔 주면은.
108026 @ 으.
108026 #2 할망덜은 그거를 이렇게 허멍 저렇게 나강 경헨 이젠 두 사름이 헤

가쁜 말짢 또 절로 그거를 이렇게 행 꼬아 오는 사름이 있어.

108026 @ 으.

108026 #2 그추록 허영 허른 큰 집이는 상줄이 혼 사십 개 들곡, 또 즈른 줄, 진 줄.

108029 @ 예. 그렇게 줄을 꼬을 때 쓰는 그걸 뒤편 글읍니까?

108029 #2 호롱이, 호롱이 해서.

108029 @ 호롱이, 호롱이.

108029 #2 줄 놓는 호롱이.

108029 @ 저 뒤편에는 꽃양 세운 거 있잖아예? 그거 뒤, 뒤치기?

108029 #2 저 무시거. 줄 어울리는 거엔 허난 그뎨 몰라 어울리는 거 무시거엔 사 해신지?

108029 @ 아. 영 돌리는 건 호렝이고, 호롱이고예?

108029 #2 으, 호롱이.

108029 @ 뒤에도 세우는 거?

108029 #2 아니 그건 이렇게 비여 가는 것이 줄 놓는 호롱이고 또 저쪽에서 앓 아근에 큰 거 하나 허영 이렇게 허주.

108029 @ 예.

108029 #2 경허면은 그거는 줄 무시거, 줄 어울리는 거엔 허주.

108029 @ 뒤치기엔 안 허고?

108029 #2 아니, 줄 어울리는 거.

108029 @ 줄 어울리는 거엔 해예?

108029 #2 줄 어울리는 저, 뒤치기엔 허지 안 허여.

108002 @ 옛날에는 여기 거의 대부분 초집이엿주만은 지에집도 잇어낫수과? 지에집 엿어?

108002 #2 기와집은 하나토 엿어낫수다.

108002 @ 아, 하나토 엿어나마씨.

108002 #2 기와집은 하나토 엿어나고 저 도당.

108002 @ 도당?

108002 #2 도당, 도당, 양철.

108002 @ 양철.

108002 #2 양철집.

108002 @ 도당집. 아, 도당집 잇어낫수과?

108002 #2 도당이엔 해근에 현 건 양철 ㄱ라 도당, 도당 헛주기게.

108002 @ 예, 예.

108002 #2 그, 그 양철집, 양철집 현 집이가 이제 저 서하동에 너커리에 그집이 랫주게. 양철집이엔 현 집.

108002 @ 음.

108002 #2 그 집 한 집이 그 양철집을 짓어나고.
108002 @ 양철집 짓어나고.
108002 #2 그 나머진 다 초가집.
108002 @ 그 나머진 다 초가집예. 초가집이엔 헛수과, 초집이엔 헛수과?
108002 #2 초집.
108002 @ 초집이엔 곱아서 옛날예.
108002 #2 으.
108002 @ 그럼 아까 대략적으로 집 지을 때 곱아줘신디, 보통은 우리 이렇게 크기에 따라 두 칸으로 나뉘지면 이칸집, 삼칸집.
108002 #2 삼칸집.
108002 @ 삼칸집 헛엇잖아예. 게민.
108002 #2 스간집.
108002 @ 아, 스간집도 잇어낫수과 고내에?
108002 #2 예, 예.
108002 @ 고내리에 스간집도 잇어난?
108002 #2 스간집은 고부장네 집이라고 막 부제집이라난.
108002 @ 부제집. 보통은 다 삼간집이과?
108002 #2 삼간집 허고 삼간집도 잘 엇엇주게.
108002 @ 아, 이간집?
108002 #2 이간집. 삼칸집은 드물엇주.
108002 @ 아, 삼칸집은 드물언마씨? 게민 저기 삼촌네 집은 이칸집이랏수과, 삼칸집이랏수과?
108002 #2 아니, 우리집은 삼칸집.
108002 @ 삼칸집.
108002 #2 삼칸집이라도 막 집도 노프고 헤난.
108004 @ 게난 삼칸집을 짓젠 허민 어떻 헤나신지 아까 집 짓는 거 조금 곱앗수다만은 츠근츠근 한 번 곱아줘 봅서. 삼칸집 짓젠 허민 먼저?
108004 #2 삼칸집도 막 역시 마찬가지로.
108004 @ 마찬가지로. 가장 먼저 허는 건 옆에 돌 세우는 거?
108004 #2 지동.
108004 @ 지동?
108004 #2 나무 세와근에 네 지동 이렇게 세우면은 우에 서리가 잇어야 할 거 아니라게.
108004 @ 예.
108004 #2 게난 그런 건 깎는 깎는 헌 낭 헤다근에 이렇게 병허게 저 무신 새끼 가늘게 낀 걸로 영 밀려나지 못 허게.
108004 @ 예.

108004 #2 여기까지 다 무꺼.
108004 @ 무꺼.
108004 #2 경 헤여근에 겨민 그 우에도 흑 블르곡이 이추룩 천장 허젠 허민.
108004 @ 게민 천장 허젠 허민 벽을 먼저 행 올라가야 나중에 천장을 헐 거 아
니?
108004 #2 겨난.
108004 @ 으, 겨난
108004 #2 이런 집 이추룩을 행 헤 놔도 안에도 형편이 아니주게.
108004 @ 예.
108004 #2 이디 영 세와노난 영삭헐 거 아니?
108004 @ 예.
108004 #2 경허면은 그 저 그 사이에 빛을 허느냐 허면은 저 가는 가는 나무
헤당 이렇게 영영 헤영 여깁 메영.
108004 @ 으.
108004 #2 메여근에 이젠 다시 그디도 흑으로 꾸여근에 이렇게 블르는 거.
108004 @ 음.
108004 #2 블르곡 저 방안으로, 안으론 문지락헌 그 저 무시거, ㄴ시락.
108004 @ ㄴ시락.
108004 #2 ㄴ시락 헤영 막 줌진 거 허영 막 꾸여근에 안에는 그걸로 매끈하게
행 블르주게.
108004 @ 으.
108004 #2 경헐 블랑 이젠 들르른 따로 제불, 제불은 흑 그냥 헤여근에 따시 그
디 꺼틀꺼틀 헌더레 흑 허여근에 맨짜허게시리 줌진 흑 치여근에.
108004 @ 게난 매끄럽게 허는 걸 아까 제불이렌 헛수과?
108004 #2 으, 제불.
108004 @ 제불이렌 부르는 거예. 그문 그거는 흑 매끄럽게 흑만 물에 타가지고
영, 영.
108004 #2 건 내중에.
108004 @ 내중에.
108004 #2 으. 제불 이렇게 손 보는 거.
108004 @ 예, 예. 제불 손 보는 거예. 경헐 흑 물 타 가지고?
108004 #2 저 ㄴ시락, 문지락 헌 ㄴ시락 허영 처음엔 그걸로 블랑.
108004 @ 으.
108004 #2 이젠 웬만이 물류거든.
108004 @ 으.
108004 #2 들르면은 따시 이제 줌진 흑 헤여근에 이젠 그디를 매끈하게 따시
제불 손을 봐야 돼주게.

108004 @ 으, 음.

108004 #2 경해야 종이를 부뜰 거 아니게.

108005 @ 예, 예. 경허민 마무리가 되는 거예, 마무리가 되는 거. 저기 우리 집 짓젠 허든 지등 세우는 데 밑에 받치는 돌이 있잖수과?

108005 #2 주춧돌 신 집은 주춧돌로 허고 주춧돌 엇이 막 못 사는 집은 주춧돌도 안 헤여근에게.

108005 @ 아, 주춧돌도 안 허는 집도 잇수과?

108005 #2 주춧돌 안 헤영 그냥, 나무 흐뎡 어지간헌 돌멩이 뿔 헤영 그냥 세왕도 허는 디 잇고 뉘 여러 가지.

108005 @ 아, 기라예.

108005 #2 주춧돌 곱닥허게 허는 집은 막 곱닥허게 헤근에 그 돌.

108005 @ 으, 음. 삼칸집이든 지등은 몇 개나 필요헝니까?

108005 #2 지등이, 혼 으섯 개쯤 뉘 거라.

108005 @ 아, 여섯 개쯤예?

108005 #2 으.

108005 @ 삼칸집 허젠 허면. 그럼 그런 지등들은 미리 집 짓젠 허민 다 행 오는 거?

108005 #2 으.

108005 @ 산에 강예?

108005 #2 산에 강. 산에 강도 허고 나무 장시가 잇엇주게.

108005 @ 그때도?

108005 #2 그때 제목 장시, 제재소.

108005 @ 아. 지금이야 제재소 있지만은 그 옛날?

108005 #2 아니, 옛날에도.

108005 @ 으.

108005 #2 나무 세우는 그런 거는 잇어실 거라.

108005 @ 어. 목쉬허는 사름이.

108005 #2 으, 한라산 강 또 허 오는 사름도 싣고.

108005 @ 잇고예. 들보는 어디에 들어가는 것과? 포렌 헝니까, 들보렌 헝니까?

108005 #2 거 뉘라?

108005 @ 아, 지등에, 지등이랑 영 연결허는. 도리, 도리는 뉘과 도리? 도리도 엇수과? 지붕에 연결할 때? 서리는 어디가 서리가 되는 것과?

108005 #2 서리는 쥬쥬헌 나무로 거세기 헤도 우이 서리가 잇주기게. 둥그런 나무 서리가.

108005 @ 예, 예.

108005 #2 이렇게 영 걸쳐져근에 허는.

108005 @ 여기 우에 가로지르는 큰 낭이 잇고예?

108005 #2 으.

108005 @ 가지챙이로 영영 나가는 게 서리가 될 거 아니예?

108005 #2 으, 서리, 서리.

108005 @ 예.

108005 #2 것도 동글랑헌 걸로 고운 걸로 짱 스몫 잘 사는 집인 곱게 헤영.

108005 @ 우리 길쭉허게 가운데를 가로 지르는 이 나물?

108005 #2 그거는 저 무신 거 그것ㄴ라.

108005 @ 그거 들보?

108005 #2 대들포.

108005 @ 으, 대들포.

108005 #2 대들포.

108005 @ 예, 예. 대들포엔 부르는 거. 대들보 있고 영 끝으로 영 도리가 있고 예?

108005 #2 대들포엔 허주, 이 우이 상양.

108005 @ 상양.

108005 #2 상양식 허젠 허믄 그거.

108005 @ 예, 예.

108005 #2 대들포에 그 저 일름, 저 저 무시거 한문으로 씨여근에 딱.

108005 @ 예, 예. 경 이 집 꼬트머리로 영 큰 낭덜이 이신 건 그건 도리렌 헐 거 아니 도리?

108005 #2 아니 아니, 서리.

108005 @ 서리는 대들보랑 도리랑 영 이어주는 거 아니과?

108005 #2 아니 아니.

108005 @ 아니?

108005 #2 빙 돌아가명 가생이로 영 현 것ㄴ라 집 서리엔 허는 거고.

108005 @ 가생이로 영 현 걸 서리렌 허고. 으. 서리렌 허는 거예. 그럼 그 지동 허젠 허믄 지동은 무슨 남으로 험니까?

108005 #2 에이구, 나무게 소남으로도 허고 침 돈 신 사름덜은 옛날은, 옛날은 한라산에 그런 나무가 잇엇텐 허난 몰라 원, 저 거세기 이런 마루널 같은 것도 저 굴무기.

108005 @ 굴무기.

108005 #2 굴무기 허고 지동 허는 것도 굴무기 말아 사옥이엔 현 나무도 잇꼭 허난에 여러 가지. 사옥이 허는 사름도 잇고 또 잘 살아근에 뵈헐 사름은 저 굴무기는 어려왕게 그런 거는.

108005 @ 으.

108005 #2 계난 보통 사옥이 그런 걸로 헛주.

108005 @ 굴무기가 막 좋은 낭이라예, 궤도 짜고.

108005 #2 그건 최고, 그 냥은.
108005 @ 아, 굴무기 냥이?
108005 #2 으.
108006 @ 케민 흑을 여끝 때는, 흑 여기 브르젠 헐 때는 그건 다 보리 ㄴ스락
놔 가지고 꺾여 가지고 흑 브르는 거예?
108006 #2 케난 영 허영 새끼도 꺾을 꼬아근에 막 많이 들주기게.
108006 @ 예.
108006 #2 그 준준헌 거, 영 깎는 거 세왕 그디 즘질즘질 허게 마막 무경근에
이젠 블르는 거라 그걸로.
108006 @ 으.
108006 #2 블르곡 이, 이 높이는 또 무신 널판데기 닳은 걸로 이추록 행 놓아근
에 그 청방이라고 그거 우이로 이제 그 하이고 것ㄴ라 무시거엔 현다만은 윗에 축,
축.
108006 @ 으.
108006 #2 축에 허는 나무는 ㄴ는 ㄴ는 헌 거 새끼로만 딱 꼬와근에 이추록.
108006 @ 으.
108006 #2 경허믄 그 소왕간도 짓젠 허믄이 그런 걸로 헤영 허믄 쉼 막 지랄허
명 빨로 영 헤블믄 그 흑 털어져근에 이런 디 그 서리만 그냥 남양도.
108007 @ 하하. 흑 막 굽어블민 쉼가. 삼칸집 허면 방은 보통 몇 개나 잇수과?
108007 #2 두 개, 두 개.
108007 @ 방 두 개? 케민 삼칸집 안에 뭐 뭐 잇어? 큰방이 잇고?
108007 #2 작은방 잇고, 쳇방이라고 부엌 저런 저, 저 우리 부엌에 모냥으로.
108007 @ 으.
108007 #2 그것ㄴ란 저 거세기, 정지.
108007 @ 정지. 삼칸집 안에 정지가 ㄴ치 부텅 잇어?
108007 #2 정지?
108007 @ 으.
108007 #2 으.
108007 @ 부텅 잇어?
108007 #2 널러 경해도.
108007 @ 아.
108007 #2 삼칸집도. 수룸허주기게. 영 폭이 넓질 안 허고.
108007 @ 예.
108007 #2 이거 큰방이면 이거 작은방.
108007 @ 작은방.
108007 #2 이디 마리.
108007 @ 마리.

108007 #2 이디 가믄 저 거세기 정지.

108009 @ 고팡은?

108009 #2 고팡 딱로 정지 즈꿏디 요만이 쪼금 잇고.

108009 @ 아, 고팡.

108009 #2 화장실은 안 허니까 화장실 그디만인 이디 저 무시겨 싯곡게 경허주게.

108007 @ 음, 고팡 싯고예. 그럼 막 방에 시렁도 이십니까, 우에 선반 우에 물 건들 놔 두게 벽장 우에 낭으로.

108007 #2 벽장, 벽장.

108007 @ 벽장?

108007 #2 벽장 놔근에 벽장 노믄 퀘, 옛날은 퀘 행서 허난에 퀘 두 개 그디 올려 노면은 딱.

108007 @ 백장 우에예. 그럼 이런 마루에도 우에 뭐 올려놓게 선반 만들거난 허진 았고?

108007 #2 선반은 허는 집은 선반 나무로.

108007 @ 나무로.

108007 #2 요렇게 요렇게 선반 쪼금 허영.

108007 @ 그 선반을 시렁이렌 안 끌읍니까?

108007 #2 아니, 선반이엔만 허여.

108007 @ 선반.

108007 #2 마루에 선반, 마루에 선반 경 허영.

108007 @ 음. 구들에 가면 구들에다 윗목 잇고 아랫목 잇지예?

108007 #2 아랫목이 잇는 거는 저 방이면은 저 바궤디 웰 처레주게.

108007 @ 예, 바궤디.

108007 #2 저 그 굴목을 쪼그만이, 사름 하나 들어갈 만이 요만인. 거기 방에는 넙적헌 돌게, 넙적헌 돌.

108007 @ 으.

108007 #2 그런 거 봉그다근에 이젠 영 공간나게 영 이렇게, 이렇게 터지고 요디를 돌로 영 막아근에 저 흑으로 막 블랑이.

108007 @ 예.

108007 #2 경허믄 요 안터레만 막 멘도롱 허주게. 아랫목이라고 그디가.

108007 @ 예. 게믄 거기가 아랫목예. 우리가 들어가는 이런 입구는 윗목이 되는 거라예?

108007 #2 으.

108007 @ 아랫목, 윗목예. 마루에 보면 옛날에, 옛날에는 막 추우니까 난로덜 엇일 이 안에 마루에 뭐 만들어놔수과 난로?

108007 #2 그런 집도 싯고 경헤도 그런 집은 얼마 엇어주기.

108007 @ 예.

108008 #2 이 마루에 봉덕불 거추룩 살련에 마리 안에 그 저, 이디 그 널판을 안 놔근에 요렇게 그냥 그 무신 요만큼씩 나무 짚어근에 저 뿔허곡 불도 담아당 이 령게 놓고 허믄 요 책상만큼 허게시리 기러기도 허믄 그디덜 앓앙 영 불 초아.

108008 @ 예, 게믄 그걸 뿔렌 곺앗수과?

108008 #2 봉덕불이엔 헤서 그것ㄴ라.

108008 @ 예, 봉덕불.

108008 #2 으, 마리에 가믄 그 봉덕불 살랑 허는 거.

108008 @ 봉덕불은 여기가 들어오는 입구면 한 이 정도에 봉덕불이 잇어난?

108008 #2 한 가운데.

108008 @ 한 가운데?

108008 #2 어떤 집이 강 보믄. 켜디 고넨 그추룩 현 집 엇어낫수다게.

108008 @ 아, 고넨 별로 엇어난?

108008 #2 으. 고넨 엇어나고 어디 웃드르 집이 강 보믄 그런, 그추룩 현.

108009 @ 아, 기과? 고넨 별로 엇어난. 그믄 고펡 보쿠다 고펡, 고펡 잇엇지예?

108009 #2 고펡은 다 잇엇주.

108009 @ 고펡에 뿔 뿔 놔 낫수과?

108009 #2 항.

108009 @ 항 잇고.

108009 #2 항 뚜께 더끄명 항아리덜.

108009 @ 게믄 고펡에 보면 쯤그만현 문이 있지 안 허과?

108009 #2 문은 아니고.

108009 @ 으, 문은 아니고.

108009 #2 창곰 내영게 영.

108009 @ 창곰 내는 거라예?

108009 #2 으.

108009 @ 바람 들어 왓다. 곡석 보관혈 거난예?

108009 #2 곡석 보관허는 게 아니고.

108009 @ 어, 무사 창곰을 내어?

108009 #2 무슨 공기 통허렌 산디 창곰 요만인, 니기반득 허게 요만인.

108009 @ 예, 창 쯤그만 허게 내난 거예. 그 고펡에 안칠성이 잇덴 험니까?

108009 #2 안칠성은 잇는 집이는 허고 엇는 집인 안 허고. 거 매 집이 허는 거 아니.

108009 @ 아, 잇는 집이만 허고. 모시는 집만 모시는 거?

108009 #2 모시는 집이만 뿔앙 그 무신거 느라미 허영 주쟁이 요렇게 더경 놔 두곡 허는 집도 싯곡 경허여.

108009 @ 아.

108009 #2 우리 집안에 그런 거 안 허난 엇어.
108009 @ 아. 어떤 집이 그거 모섬시고예, 안철성 모시는 집들은?
108009 #2 어떤 집계.
108009 @ 믿는 집?
108009 #2 아니 아니. 믿는 집 아니라도 그처럼 헛 것을 허여근에 막 그냥 심방
드려다가 굿도 그냥 흐를 허고 헤여.
108009 @ 음. 계민 고평에는 항덜 잇잖아예?
108009 #2 으.
108009 @ 항에 뭐덜 보관해놔어?
108009 #2 보리.
108009 @ 보리.
108009 #2 보리, 또 이 마을 들엉 이처럼 구월 나면은 물방에에서 그 보리 지어
근에 불령 아래에서 글명 쓸 만들아근에 항아리에 부체칩인 막 그냥 쪽 허게 놔 두
주게.
108009 @ 아, 일 년 내냥 먹을 거?
108009 #2 일 년 내냥 먹을 거, 경현디 양석 죽아근에 보리 익기 전이 놉의 집
이 강 막 꿰당 먹는 사름도 싯곡 여러 가지라.
108010 @ 이젠, 이젠 정지 가 보쿠다예. 부엌이렌 글앗수과 뭐렌 글앗수과?
108010 #2 정지, 정지.
108010 @ 정지에, 정지에 가면 뭐 잇엇수과?
108010 #2 정지에 가면 무슨 아이고, 정지에 가면은 솟덕을 돌로게, 돌.
108010 @ 으, 돌.
108010 #2 돌로 요렇게.
108010 @ 음.
108010 #2 똑 요렇게 허주게 요렇게. 영 허믄 솟을 이디 앓질 거 아니라.
108010 @ 예, 예.
108010 #2 이디 영 앓지만 일로 불 때믄 일로 막 내 팡팡 나가고.
108010 @ 으, 재도 글로 나가고?
108010 #2 으, 재, 재도. 재는 저레 자치고.
108010 @ 계민 정지에 솟은 멧 개나?
108010 #2 정지에 솟? 에또 쥬 큰 솟은 쥬 우쪽으로.
108010 @ 예.
108010 #2 하나 허고 그 다음에 또 말치엔 헛 거 흐 말치산디 무시거산디 말치,
말치 허난 그런 거 허고 그 다음에 딱로 쥬금 죽은 솟 허고 쥬 끄트메기 가면 쥬그
만 헛 솟 하나. 네 개.
108010 @ 제일 큰솟은 멧 말들이?
108010 #2 그건 흐 두 말 드는 거.

108010 @ 게민 두말치. 두말치 솟 하나 있었고 웨말치 솟 있었고 그 다음 두
 웨들이 솟 있었고, 쪼금만 현 솟 있었고?
 108010 #2 으. 거 냄비 거튼 것도 엇이난애
 108010 @ 예, 게난 여기는 큰방, 여기는 안방, 정지가 저기?
 108010 #2 으.
 108010 @ 정지 갈 때는 신발 신영 들어가는 거? 아니면
 108010 #2 정지 가젠 허면?
 108010 @ 으, 정제 가젠 허면?
 108010 #2 정제 가젠 허면 신발 신영 가야주.
 108010 @ 신영 가.
 108010 #2 정제는 흐뎡 움푹허여근에 요만인 현 팡들, 신 벗는 디 하나 잇주게.
 108010 @ 예.
 108010 #2 경허른 그거 디더근에 신 그디서 신영 정지에 강 앓양 불 습주.
 108010 @ 게민 솟, 솟덕에 솟 언저정 잇고, 또 정지에 뭐가 잇수과?
 108010 #2 물항게.
 108010 @ 물항.
 108010 #2 물 질어당 비우는.
 108010 @ 물항 잇고 그 다음?
 108010 #2 살레, 살레. 살레엔 곤주기게. 그 찻장.
 108010 @ 예, 예.
 108010 #2 그 대 헤영 여까근에 살렌 무신 셔셔게. 요만인 현 디 그릇 어프는
 디.
 108010 @ 으, 살레 헨 그릇 어프고예?
 108010 #2 으.
 108011 @ 물항 씻고 부엌이라예? 우리 집 지으게 뉘면 집 지으면 이 문 드는
 디가 잇잖수과? 집 지영 문을 돌젠 허면, 이게 문이렌 허면예, 요걸 뉘렌 험니까,
 이거 전체?
 108011 #2 아, 저 거세기. 그것ㄴ라 무신 문지둥이엔 허여.
 108011 @ 문입쟁이엔 현 말 안 합니까?
 108011 #2 문지둥이엔 헤.
 108011 @ 문지둥이엔 헤?
 108011 #2 이제덜은 저것ㄴ라 와꾸여 무신 무시거여 곶아도.
 108011 @ 예, 예전에는 문지둥이엔 헛엇던 거예. 게민 이, 이거는?
 108011 #2 지방 건.
 108011 @ 지방예?
 108011 #2 문지방.
 108011 @ 문지방예.

108011 #2 큰방 지방, 작은방에 지방.
108011 @ 으. 문지방이렌 헐 거. 계민 옛날에 우리 이런 문 말고 여단이문 두 개를 영 닫을 때는, 영 닫으면 문 잠그젠 허면 여기 거는 게 있어났수께?
108011 #2 걸쇄.
108011 @ 걸 걸쇄렌 헛수과?
108011 #2 으. 문걸쇄.
108011 @ 문걸쇄렌 헨마씨?
108011 #2 으.
108011 @ 영 더꺼지는 거 잇고 영 걸리는 거 잇고?
108011 #2 계난 걸리는 건 걸쇄게.
108011 @ 걸쇄, 이거는?
108011 #2 이것ㄴ란 무시거엔 현다 만든 것도 있어불언 몰르켜.
108011 @ 음. 이거 뭐 돌처귀엔은 안 험니까?
108011 #2 돌처귀, 돌처귀.
108011 @ 문돌처귀예?
108011 #2 으, 문돌처귀.
108011 @ 문돌처귀렌 헐 거예. 그 호령창이렌 현 것도 있어났수과?
108013 #2 호령향이 뭐라.
108013 @ 호령창, 호령창. 문 요만큼 헤가지고 사람 오는지 안 오는지 알 수 있게 허는 거?
108013 #2 아.
108013 @ 그거 엇어난?
108013 #2 그거 엇어근에 저 어떤 집이 보른 창문에 유리게 요만큼현 거.
108013 @ 예.
108013 #2 도비허멍 똑 부짱 네귀반듯허게 허영 경행 영 봐렌 사름 오는 거.
108014 @ 사름 오는 거 바레고예. 굴목 아까 잠깐 곁아서예, 불 때젠 허른 굴목 헛엇던 거.
108014 #2 굴목.
108014 @ 굴목.
108014 #2 똥 좃어당.
108014 @ 어.
108014 #2 쉼똥이영 막 돌아헿기멍 좃어근에 바싹 들랑 이제 그 굴목에 그거 놀만큼 현 디 셔 영, 들어가는 디 겨른 그레 비와근에 이젠, 굴목 진을 땀 그 똥 허 여근에 요레 허른 구누네라고 그 요만이 헤영 무신 낭으로 멘들아근에 즈룩헤영 영 헤영 똥 헤영 썩허게시리 디물양 불 이디셔 부썩어근에 그 안터레 썩 디물양.
108014 @ 그거 아까 뭐라고마씨? 즈룩 만들양 썩 디물이는 데 쓰는 거를?
108014 #2 저 거세기, 아까 곁아될 또 있어불어신에.

108014 @ 군대렌 안 험니까?
 108014 #2 아니, 아니. 구누네. 굴목 구누네렌 헤낫어.
 108015 @ 굴목 구누네렌 헤난 거예, 예. 그 초가집에 비 들지 안 허게 여기 밑에 대는 거 있지 안 헤예.
 108015 #2 풍채.
 108015 @ 풍채. 풍채도 종류도 있어낫수과? 떼여지는 풍채랑 그렇지 안 험 거?
 108015 #2 내내 이렇게 들려 있는 집은 그건 아무집이나 들젠 헤도게, 못 허영저 거세기 풍채 안 험 집도 잇고 또 발풍채라고.
 108015 @ 으.
 108015 #2 그 저 어욱이나 새 헤다가 낭 허영 요만이 지등 세와근에게 그 또 이젠 그 가운데 요런 서리 험 새끼로 마딱 메여근에.
 108015 @ 예.
 108015 #2 이젠 어욱이나 새 헤영 영 지러기로 헤영 그 으깁 딱 세와 노른 그 느람쥐 으까근에 그레 끼와근에 영 바치면은, 비 완직 허든 그레 영 바치면은 아니 들어오주.
 108015 @ 비가 안 들어오지예.
 108015 #2 아니 들어오지. 아니 들어오는 디 온 뵈인 걸 다 허젠 허면은 풍채를 이렇게 헛당 날 좋으면은 풍채 작쉬가 있어 이렇게 두 개.
 108015 @ 으, 세우는 거.
 108015 #2 영 세왕.
 108015 @ 으.
 108015 #2 풍채 작쉬.
 108015 @ 예, 풍채 작쉬.
 108015 #2 경 헛다근에 이젠 저 막 비가 크게 오랑 태풍 불어가든 그 풍채 작쉬 알아볼면은 그것이 이렇게 영 알려레.
 108015 @ 더꺼지게.
 108015 #2 더꺼지게
 108015 @ 풍채 작쉬를 알아볼면?
 108015 #2 으. 계난 그거를 새로 허여근에 경 으깁 허는 집도 잇곡.
 108015 @ 예.
 108015 #2 또 도당, 인척에 그 양철.
 108015 @ 양철.
 108015 #2 양철 허영 허면은 막 오래가주게 그 양철은.
 108015 @ 아, 그걸로 허는 집도 잇고.
 108015 #2 그걸로 허는 집은 드물고게. 우리집이 육지 강 사당 헤나실 거라.
 108015 @ 도당 그걸로 허젠 허민 그건 아무래도 일후제 아니? 그 막 전인 도당이 엇어낫지예?

108015 #2 엇언, 엇언.
108015 @ 예.
108015 #2 엇언에 우리 시집 간 후제 우리 오래비가 육지 강 그거 사단에 거 돌아나서.
108016 @ 예, 도당예. 집에 물팡도 잇어났지예?
108016 #2 물팡.
108016 @ 물팡은 뭐 헐 때 쓰는 거라.
108016 #2 정지 무똥 즈꿋디.
108016 @ 아, 정지 무똥 즈꿋디.
108016 #2 물팡이라는 건 이것추록 영 헌 돌 허여근에 또 지동 세왕. 또 백은 정지 백덜에 그냥 부짱 허여이.
108016 @ 으.
108016 #2 경허믄 정지 무똥으로 나오믄 요디 오랑 허벅 톡 허게 부리주게, 물 비와딩.
108016 @ 그럼 정짓문은 여기로도, 마리로도 들어가지고 저쪽으로 문 있는 거?
108016 #2 으, 바깥딜로.
108016 @ 바깥딜로.
108016 #2 정지, 정짓문.
108016 @ 계난 물팡은 그 베헌디 문?
108016 #2 으, 베헌디 잇주게 그 율이.
108016 @ 거기 있는 거예, 물팡.
108016 #2 물팡돌이엔 허여, 그것도.
108016 @ 예, 물팡돌.
108016 #2 그디 팡을 물팡 놔근에게 저 물허벅을 부리는 때문 물팡돌이엔 허주.
108016 @ 물도 막 질어났수과?
108016 #2 게, 우리 허벅으로 다 물 질어다근에 비와 낫주만은. 난 처녀 때도 물 질어도 허벅도 경 벌러 먹지 안 허고 허난에, 어떤 사름은 비우다근에도 허벅도 벌르고 향아리도 벌르고 경해도, 난 경해 보진 안 해연.
108016 @ 애기 때부터 물들 질잖아예?
108016 #2 으.
108016 @ 계민 어른덜은 큰 물허벅 허지만은 아이덜은?
108016 #2 아이덜은 흐꼬메기 헌 대베기.
108016 @ 대베기?
108016 #2 으, 물대베기.
108016 @ 계민 물허벅을 어디에 담앙?
108016 #2 구덕에.
108016 @ 구덕에.

108016 #2 바구리, 저 대바구리.
108016 @ 대바구리에 그거 담양 베로 행.
108016 #2 으, 정.
108016 @ 베로 행 정 갖던 거예.
108016 #2 베는 그 째으로 행 영 현, 끈 베 행.
108016 @ 예, 끈 베 헤가지고. 여기 물 흘치니까 등 젓지 말렌 뭐 바투기도 헤
낫수과?
108016 #2 으.
108016 @ 바투는 걸 뒤레 곶앗수과?
108016 #2 바투는 걸 무시거엔 곶긴 헛저만은?
108016 @ 등 젓지 말렌예, 물 흘리니까예.
108016 #2 무시거엔 헛저만은 거 잊어불언 알아지크라.
108016 @ 나중에 튼나지면 곶아줍서.
108016 #2 튼나지 못 허크라.
108016 @ 하하하. 그 곶목이, 올레가 질엇수과? 집들이?
108016 #2 구불탱이, 구불탱이.
108016 @ 구불탱이?
108016 #2 으.
108016 @ 어?
108016 #2 물구불탱이엔 헤낫주게.
108016 @ 물구불탱이?
108016 #2 으. 영 곶는 디 이디 그거를 영 요만인 돌아메주기게, 영 지영.
108016 @ 예.
108016 #2 게난 경 곶아난.
108016 @ 물구불탱이. 기민 그거는 등 베가지 말렌 허는 거 아니면 흘치지 말
렌 허는 거?
108016 #2 이디, 이디. 젓지도 말렌 허주만은 똑 여기.
108016 @ 아, 똑 여기 등 베가지 말렌?
108016 #2 으.
108017 @ 음. 우리 집이 들어 갈 때 올레 있잖아예, 올레.
108017 #2 으, 올레 진진헌 집덜이 있주게.
108017 @ 예, 올레 진진헌 집. 무사 올레덜은 구짜 안 허고 영 휘여지게 헤신
고?
108017 #2 아니, 건 올레 휘여진 집도 있고 구짜헌 집도 있고 허여. 건, 건 상관
엇고.
108018 @ 우리 아까 안거리 있고 밧거리 있고 쉼왕이 있었잖아.
108018 #2 으.

108018 @ 이렇게 세 개 이시민 여기를 쉼왕이렌 안 행 문간채라고 잇어낫수과, 혹시? 문간채 잇어낫수과?

108018 #2 문간이엔 허지 안 허고 이문간.

108018 @ 이문간.

108018 #2 이문간이엔 해근에게 문 그 대문, 큰 이문 즘그는 디가 잇주گی게. 그 딴 중그곡 쉼왕간은 요편으로 칸 허여근에.

108018 @ 아.

108018 #2 건, 올레 이렇게 문을 더꺼야 헐 거 아니라게.

108018 @ 예.

108018 #2 경허난.

108018 @ 문간채라는 건 엇어낫어예. 안거리, 밧거리, 쉼왕이라예, 이렇게 세 개.

108018 #2 으. 게 문간채엔 헐 거 문간채에 사름을 방 하나 꾸멍 살젠 허믄 어디 빌어근에 소왕 간 옆이, 경허는 사름도 잇주게. 문간채에 살암세계, 경허멍.

108018 @ 아, 경 행, 소왕 옆이 문간채에 살암신게 허는 사름도.

108018 #2 으.

108019 @ 쉼왕에 쉼을 키우난, 키우난 출 놀을 놀 거 아니?

108019 #2 으. 출놀은 마당에 누는 거.

108019 @ 마당에예.

108019 #2 으, 마당에, 마당에라도 흔 편이 늘주گی게.

108020 @ 통시 잇엇을 거 아니?

108020 #2 통시 잇주게.

108020 @ 거기에 도새기도 키우고?

108020 #2 으, 도새기 키우고.

108020 @ 도새기 키우젠 허민 집도 지어 찻수과?

108020 #2 집은 돌로 다와근에 요만인. 돌, 돌 다왕게.

108020 @ 으.

108020 #2 우인 저 무시거, 주쟁이나 느람쥐 행 요디 영 더경. 요, 요 칸만인 허여.

108020 @ 거기는 무사 경 더꺼주는 거라?

108020 #2 도새기 찻지 말렌.

108020 @ 찻지 말렌. 비 올 때, 잠 잘 때. 집을 짓어 주는 거라.

108020 #2 집 짓어 주는 거.

108021 @ 아, 케민 통시 가면, 통시 가면 사람들 일 보젠 허면 뭐가?

108021 #2 들팡돌.

108021 @ 들팡돌. 건 나무로 뒤어 잇는 건 아니고?

108021 #2 아니, 아니.

108021 @ 다 돌로, 돌로 했던 거. 돌로예.

108021 2 낭으로 어디 낭 성 혈 말이라. 요 중간에 낭 발 디디는 영 맞아근에 허는 디 이추룩 소랑헌 거 이디 낭 허는 집도 셔 낮어.

108021 @ 으.

108021 #2 육지도 강 보난 경헌 디 있더라.

108020 @ 예. 웨지안테 것 준덴 험니까? 도새기 키울 때, 것 주젠 허면 여기 뭘 갖다 놔?

108020 #2 그 물팡 옆에.

108020 @ 으.

108020 #2 항상 그 물팡 옆으로 조금 가면은 통쇄가 웨여게.

108020 @ 으.

108020 #2 경허문 그 저 향아리 별러진 거나 무시거이 도새기 통쇄 가는 옆디 레 놓아.

108020 @ 으.

108020 #2 향아리이.

108020 @ 으.

108020 #2 그거 놔근에 이런 먹단 거 무신 그릇 씻인 물 그레 막 갖다 노른 물 이 막 오래문 쉰내 나고 허는 디 영영 젓으멍 거러 주는 바가지 허여근에.

108020 @ 으.

108020 #2 그디 낮당 거렁 주곡 우이는 무신 채, 보리 지명 보리 껍데기 그 채 허멍 흐곰 우이 영 갖다 놔근에 영.

108020 @ 통시 안에도, 우리 안에도 먹이 먹는 그릇이 이실 거 아니?

108020 #2 돛도고리.

108020 @ 돛도고리. 돌로 만든 거이?

108020 #2 으.

108020 @ 돛도고리 낱 거기에 짓을 주는 거라예.

108020 #2 으.

108023 @ 쇠막에 관해서 굴아줍서 쇠막, 아까 쇠왕, 쇠왕간?

108023 #2 으, 쇠왕간.

108023 @ 쇠왕간은 어떻 허는?

108023 #2 쇠왕간에 쇠를 출을 해당 막 눌엇다근에 겨울에 그 출을 빠멍 주주 게. 출도 주고, 또 조 농사를 허지 안 헤게 조농사를 허면은 조칩을 딱로 눌러 낮당 그것도 쇠 먹이로 주는 거주.

108023 @ 우리 집안에는 곡석 보관허젠 고팡이 잇엇신디, 집 밖에 헛간이란 것도 딱로 잇엇수과?

108022 #2 헛간 엇어.

108022 @ 물건덜은 어디 보관?

108022 #2 쇠왕 거튼 디 놓고, 거 참 워낙 잘 살아근에 허는 집이나 헛간 잇고 허주게, 엇주게.

초가 지붕이기

108026 @ 우리 여기 초집이난 초집이난 지붕을 갈아줘야 헐 거 아니과예?

108026 #2 으.

108026 @ 지붕 일젠 허면 그것은 몇 번? 일 년에 한 번, 이 년에 한 번?

108026 #2 이 년에 한 번.

108026 @ 아, 이 년에 한 번.

108026 #2 금년에 일면은 내년 안 일영 또 다음에사 일곡게.

108027 @ 음, 이 년에 한 번. 계민 초집 일젠 허민 뭘 준비해야 할 것과?

108027 108027 #2 계니까 각단계 요만씩 헐 새 쪽은 거. 고지 강 그거 비여당.

108027 @ 비여당.

108027 #2 그거 해영 줄 놔근에, 이젠 또 새.

108027 @ 새.

108027 #2 겨난 흥끔 밧 잇는 사름덜은 새를 저 거세기 놓서 허지 안 허민 새가, 새빨리 하나씩 영 낱 놔두민 새가 들어.

108027 @ 예.

108027 #2 경허른 새가이 막 그냥 চে얌 헐 때는 이파리가 녀씩녀씩 해영 막 좋주게. 경허른 얼마 아니 들주게. 경허고 새를 좋지 안 헐 거는 많이 들고, 일젠 허른.

108027 @ 으.

108027 #2 경허른 우리 삼칸집이라도 우리집은 크난에, 헐 서른 못.

108028 @ 음, 새 서른 못 들어나서. 그럼 새랑 각단이랑 행 완. 각단은 줄 짜젠 각단은 헤 온 거잖아예?

108028 #2 줄 놓젠.

108028 @ 예, 줄 놓젠 각단을 헐 거잖아예. 집줄 놓젠. 그럼 집줄 만들기 헐 때 진줄도 잇고 짝른 줄.

108028 #2 진줄 잇주게. 진줄은 흔, 흔 스물 다섯 줄쯤 뒤편은 짝른 줄은 흔 스십 개 거즘 가까와. 경해야 돼여.

108028 @ 아.

108028 #2 진줄 이렇게 메영 요만큼씩 요만큼씩 자꾸 메야 뒤편이까 즈른 줄을.

108029 @ 아, 즈른 줄은 경 뿔 거. 경 집줄 만들 때 썼던 아까 도구가?

108029 #2 호롱이, 호롱이.

108029 @ 호롱이?

108029 #2 줄 놓는 호롱이.

108029 @ 호롱이. 그 다음 뒤치기에.

108029 #2 으.

108030 @ 집줄 놓젠 허면 이 처마 밑에 긴 나무를 대잖아예. 집줄 메는 대를 뒤편 글읍니까?

108030 #2 거왕.

108030 @ 거왕. 거왕대.

108030 #2 거왕대는 그 서리에 절로 이꺼지 줄 메는 디 쪽 허게 집 거왕을 새 끼로 행 딱 허게 요만큼씩 다 무꺼.

108030 @ 무끄는 거, 무끄는 거.

108030 #2 무꺼근에 이제 줄을 절로도 줄 심고 일로도 심영 등겨 허든 등겨근에 일로도 메고 절로도 메고.

108030 @ 예, 그 거왕은 무슨 나무로 헙니까?

108030 #2 거왕대는 저 고내봉에 가든 아카시나무 구짜헌 거 시든 그런 거.

108030 @ 아카시나무. 게든 이 동네 대나무는 안 헤 낫수과?

108030 #2 거왕대로 대나무도 허는 사름은 허주. 절로 허든 멧 년 가주게. 그거는.

108030 @ 대나무가 질겨?

108030 #2 으, 왕대, 왕대.

108032 @ 왕대, 예. 집줄 놓다 보민 줄이 좀 남기도 헤여예. 좀 남지 안 헙니까?

108032 #2 줄, 뒷을 남아, 줄을?

108032 @ 예, 줄. 집줄 놓다 남으면 절로 뒷 만들고 허진 안 헤?

108032 #2 아니, 아니.

108032 @ 아니.

108032 #2 즈른 줄 거든 거 첨 집 허영 허다근에 일당 남으면은 그 줄을 낫다 근에 도새기집 우이 무시거 더꺼이라도 메여주는 사름은 메여주고 아니면은 또 뒷 밧졌디 무시거 놀 때에 놀, 저 출놀이나 쪼그만 허게 놀젠 허면은 그 줄 셔야 뒷주게.

108032 @ 으. 부엌에 앓앙 허는 방식 거든 것도 만들어 나지 안 헨?

108032 #2 방식도 줄아근에, 할망덜 하르방덜 줄앙.

108032 @ 할망덜, 하르방덜 줄앙 쓰고예.

108032 #2 으.

108032 @ 방식 줄앙도 쓰고.

9. 신앙

109001 #4 거 집이게. 집이 테왓젠 헤근에 어디 강 들으민, 영 심방 빌어다근에

영 바리민 굿허는 식이라.

109001 @ 아. 굿 허는 식.

109001 #4 그거 허는 집이 막 많아났주.

109001 @ 기과?

109001 #3 그거 허는 집은 이 중간까지 허단 이제는 절간으로 많이 돌아서마씨.

109001 @ 예.

109001 #3 절간 많이 모셔가서마씨.

109001 #4 영 모셔. 백장가튼 거라고 영 놔근에 제사 지내젠 허믄.

109001 @ 백장에 그런 거 모셔마씨? 계민 가신이렌 행 영 모셔났수과, 가신. 집에 있는 신이렌 해근에.

109001 #4 그것이 그거지.

109001 #3 거는 칠성, 칠성계.

109001 @ 칠성? 그럼 아까 토신도 모셔나고.

109001 #4 그 토신제는 한 멧 년에 혼 번 허는 거고.

109001 @ 예, 예.

109001 #3 토신이엔 혼 것은.

109001 @ 예.

109001 #3 옛날은예 집을 짓게 뉘면은 토신에 와서 토신을 지냅니다. 토신제를 한 번 지내서 집을 짓읍니다.

109001 @ 예, 예.

109001 #3 집을 지으면은 한 이, 늘어져도 삼 년 내로 그 집이 토신제 날 받아가지고 사는 사름이 뜻이라도 한 마리 그 전이 잡아가지고 각각이 오리지 안 혼 온 채로 올려가지고 토신젤 혼 번 지내마씨.

109001 @ 아.

109001 #3 그 풍습이 쪽 흘러 왔수다. 흘러 오다가 이 세대가 바뀌져 가니까 뭐 허고 그 부락의 향제가 우리 부락에는 뭐 허고 선조덜이 이년에 혼 번허는 것이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109001 @ 아. 건 마을로 허는 거예.

109001 #3 예, 마을로 허는 거.

109001 @ 계민, 토신제는 집에서 허는 거?

109001 #3 개인.

109001 @ 개인이 허는 거?

109001 #3 개인이 허는 거. 그것은 원 논리가 어떻게 뉘는고 허민 이 집을 짓젠 허믄 그 땅 터신에게 나가 여기에 집을 지으쿠다. 경 고허는 거라예.

109001 @ 예.

109001 #3 고히서 그 집을 완전히 지으면은 삼 년 내에, 처음에는 이디, 이 터에 집을 지으쿠다. 토신님에게 영 고허는 거라예.

109001 @ 고허는 거고.

109001 #3 삼년 내로 집을 다 완성해영 정착이 웬 다음은, 고허는 것은 집을 지을 때 고헛으니까 이 터신은 아, 집을 고헛 때 집을 짓는 거니까 밥을 짓는데 이제 집을 다 짓어서 정착이 돼니까 이제 점심 줄 때가 됐는데 안 주는구나.

109001 @ 아.

109001 #3 원칙은 터신에게 먼저 고허는 거는 여기 집을 지으쿠다 현 거고 다음에 현 삼년 내로 제를 지내는 건 덕택에 잘 했습니다 한 번 메 허는 거.

109001 @ 예.

109001 #3 것은 자기 생애,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자식덜이든, 이런 것을 많이 허는데 그것이 중간꺼지도 헤 오다가 개인적으로 허는 토신제는 집을 지을 때 허는 것은 이제도 백프로 허고 잇수다. 열 집이민 열 집.

109001 @ 어쨌든 두 번 현다는 얘기잖아예.

109001 #3 그렇지.

109001 @ 집 짓기 전에 한 번 올리고, 집 지은 다음에.

109001 #3 건디 처음에 올리는 것은 이제도 열 집이면 열 집 다 허는데.

109001 @ 허는데.

109001 #3 집 지어 낱 허는 것은 열 집이서 이제 한 집 허나마나.

109001 #4 이젠 안 험주. 옛날엔 헤도.

109001 @ 예, 예.

109001 #3 게도 향제는 선조덜이 나가 향제에 줌 다녔수다. 이제도 헤 왔는데. 그 선조덜이 죽 우리 부락에.

109001 @ 고내 향을 얘기하는 거지예?

109001 #3 예, 예. 애월거튼 디 매년 허고. 지금도 매년 허고, 우리 선조덜은 고내 부락에 이년에 현 번 헤왔어마씨.

109001 @ 예, 예.

109001 #3 게난 이 년에 현 번은 지금도 쪽 험수다.

109001 @ 음.

109001 #3 경허게 똤든 거기선 회성이 두 마리 들어가고예 또 제관이 으답 사름 들어갑니다. 으답 사름 들어가고, 널 저녁이다 허면은 오닐 아척이 집이서 목욕 허고 오닐 아척이 집이서 하룻밤 잘 준비해가지고 강 이 저녁 장 내일 저녁 열두 시 땡 치면은 그 마을제 지내가지고 모레 아침은 다섯 시 경에 나와 불어마씨.

109001 @ 음.

109001 #3 그건 금년도 헛수다. 매년, 일년에 현 번은 험니다.

109002 @ 그럼 그 성주라는 것도 험니까?

109002 #3 집 지어 가지고 성주풀이, 거세기 허는 거. 집도 성주풀이 열에 아홉 집은 험수다.

109002 @ 게난 토신제 지내고 성주풀이도 허고.

109002 #3 예, 예.

109002 @ 그럼 토신제 지내는 것부터 먼저 물어보민 거 허젠 허민 음식 같은 건 뭐 준비힙니까?

109002 #3 그 개인집이 허는 것은 원 선조덜이 그 허여은 그 예를 지킨다 허면은.

109002 @ 예.

109002 #3 조메 두 기, 흰메 두 기.

109002 @ 예.

109002 #3 또 조 시리 두 개양.

109002 @ 예.

109002 #3 조 시리가 두 개, 좁쌀로 만든 떡 두 개, 흰 시리가 두 개. 돼지고기, 돼지머리 하나. 경안허믄 못 허게 돼면은 소고기 약.

109002 #4 아, 돼지머리.

109002 #3 돼지머리 허는 사름은 막 뭐 허는 사름.

109002 #4 경해도 게.

109002 #3 돼지 못 허면은 전체적으로 못 허면은 소고기 흰 서근내지 닷근 사다근에 허는 것이 최고우다.

109002 @ 으.

109002 #3 것이 토신, 토신에는 돼지머리, 버금은 쇠고기우다. 생으로양.

109002 @ 예.

109002 #3 그 아래가 돼지머리.

109002 @ 돼지머리.

109002 #3 그 아래가 닭.

109002 #4 아니 닭은.

109002 #3 이렇게 순서가 돼엿는데 겨믄 그 외로는 조기 한 마리, 명태, 오과, 밤 대추 비자 유지 사과 배 영 해영 허곡. 또 지전 같은 건 그것에 다 따랑 허게 돼고.

109002 @ 음.

109002 #3 그런 집이는 지금은 열에 한 집이고. 집을 짓젠 허민 토신 허는 건 열에 열 집 다 햐수다. 또 성주풀이도 열에 열 집 다 허고마씨.

109002 @ 또 글런 때 츠리는 음식은 다 곱타마썸.

109002 #3 같아.

109002 #4 가트게 햐야주.

109002 @ 성주혈 때도 경허고.

109002 #3 성주는, 집 지을 때는 열에 열 집 다 허는데, 집 지엄젠 고히는 거고. 성주는 열에 일곱 집 햐서.

109002 @ 음.

109002 #3 세 집은 형편이 뭐 현 집은 에이 그대로 살당 죽어볼주 안 허여.

109002 @ 어쨌든 경 지내는 사름덜은 집안에 신이 잇텐, 가신이 잇텐 믿는 거
잖아예?

109002 #3 경허든 그것도 허고 토신에게, 나 교육도 받았수다 그런 면에, 집 지
을 때는 여기 땅에 집을 지으쿠다 단지 고허니까 집을 지영 혼 번 지내는 것은 아
이, 이 토신이 집 지엄젠 현 게 점심 주카부덴 허난 안 주네. 막 기다리는 입장이라
마쭈. 계난 그건 으당 사름이 자기 집이다 허면은 한 번 헤 줘야. 으당이 헤 줘야.
그렇게 해서 지내는 것이 성주풀이.

109003 @ 문전에 대해서 골아주십서. 문전.

109003 #3 문전에는게 집이 법당이나 개인 주택이나 마찬가지로우다. 신이 없지
않우과?

109003 @ 예.

109003 #3 상에 모셔서 우에 허민 신이 거기 나타나게 웬 거라. 절대.

109003 #4 조왕허고 문전.

109003 @ 음.

109003 #3 예를 들어 뭐 아무것도 엇인 디 상 출려 낱 절허지 안 험니까?

109003 @ 음.

109003 #3 그때가 돼면은 그 신이 잡수젠 허니까 오는 거라.

109003 @ 음.

109003 #3 어느 집이 오늘은 가민 먹겠다 허민 오는 거. 절에도 마찬가지로우다.

109003 @ 음.

109003 #3 계난 어디 갈 때는 문제를 지내주는 것이 으당헌 일.

109003 @ 음.

109003 #3 갈 때 어딜 다치질 안 험다니까.

109003 @ 계니까 문제가 그런 거 험 때도 문제를 영 지내주는 거과?

109003 #3 하이고, 그러고 말고. 군인 갈 때도 우리 아이덜. 갈 아이 난닝구나
와이셔츠나 하나 곱게 한 일주일간 바래여근에 헤다근에 문전제 지내근에 아침에
곧 볏기 전에 헤근에 가이 보고 절허렌 헤근에 그 문전 앞서서 술아 주는 거라.

109003 @ 아.

109003 #3 그렇게 험으로써 좀 도움이 되는 거게.

109003 @ 어쨌든 식계 때만 문전제 지내는 게 아니고 뭔가 그런.

109003 #3 아이고 그것이 중요한 거게.

109003 @ 중요한 거.

109003 #3 이거 식계, 멩질에 허는 것은 조상이 오닐은 팔월 보름, 정월 초하루
니까 정식으로 먹을 것을 강 배불리 먹자. 이건 정식으로 오는 거고.

109003 @ 예.

109003 #3 그 외로 아이덜 길 떠날 때는 그런 기도를 헤 주는 것이 남신디 가

서 돈 백만 원 맥이는 거 보단 나은 거.

109004 @ 그민 조왕은 어떤 것과?

109004 #3 조왕은 즉 말하면은 문전은 아방이고 조왕은 어명이렌 허여.

109004 @ 어명.

109004 #3 어명이니까 제라도 해나면 조왕에 가서 메라도 올려서 허다 못행 센 꼬라도 저 종이 혼장, 백지 혼 권 사게 됨은 이제 해근에 탄 건 못해도 소지 석 장 은 슬아주는 것이 원칙. 소진게 영 꼬부려근에 해여근에 허고. 여기도 소지 석 장. 그럴 때에는 백지 혼 장 사다근에 소지 혼 장 들고 또 가는 아이 와이셔츠 곱게 바 래엇다근에 누구신디 근지 말양 자기만 알양 해여주는 것이.

109004 @ 계민 아버님 문제 지낼 때랑 조왕제 지낼 때랑 의미가 달리 해가지고 따로 허는 것도 잇수과?

109004 #3 문전제는 남자니까, 남자니까 보통 지전도 사오게 됨면은 소지 슬아 주고 또 거기에 거기 축이 줌 셔.

109004 @ 네.

109004 #3 축이 줌 시니까 그걸 고해 주고. 딱 문전 지내는 대로 그대로 허여근 에 해주면 아주.

109004 #4 계난 문전에 해난 거 조왕에 가근에 상 들렁 강 골멩이라도 영 허영 접시에 낫당 허민 됨여.

109004 @ 계난 따로 지내는 게 아니고 문전제 지내는 날 조왕제도 고해 줘 버 리면 됨는 거예.

109004 #3 예, 예.

109004 #4 계난 여기 거 걸영 그레 영 제서 때 허는 거. 영 놓만 허민 됨여. 쟈 안 지내도 됨여.

109004 #3 헐 때 저디 올리는 것이 원칙.

109004 @ 계니까 조왕신안티도 고허는 거라예, 문전제 지내멍예.

109004 #3 여기 올리른 여기 봐 난 저디 강 절허여 올린 것에 소지 석 장 슬아 주민 그결로 좋은 거.

109005 @ 음. 칠성은 어떤 것과?

109005 #3 칠성은예, 칠성은 함불로 손을 대는 거 아니. 이제 칠성은 즉 말하면 은 그 스주에 보면은.

109005 @ 예.

109005 #3 칠성은예 그 스주에 보게 됨면은 그 칠성 테운 사름이 셔.

109005 @ 예, 예.

109005 #3 테운 사름이 그림에 다 나타나. 허면은 옛 어른덜은 집이서 모사셔, 고팡이면 고팡에 상이라도 하나 놔서 제서가 돌아온다, 멩일이 돌아온다 허면 메를 해서 거길 문첩 혼 그릇 떠 났어.

109005 @ 예.

109005 #3 것이 이제 습관화 돼서 그 신이 감염됐어. 감염됐니까 그런 것을 잘 못허민 또 부정이 와. 하 이거 부정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109005 @ 음.

109005 #3 조금 건드리면은 이거 말도 못 해요.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잡이 모시는 것은 아니예요.

109005 @ 음.

109005 #3 겨난 꼭 내 아덜이 독잔데 이걸 언젠 헌데 어떻 허민 조코? 그럴 땐 절에 절에. 절에 강 모시고 일년에 혼 번 불공 들일 때 해주고 돈 허민, 게민 것도 처음 헐 때에 이 년에 한 번 습관을 그렇게 내와 붙어. 매년 허는 사름도 잇는데, 성가시주. 이 년에 혼 번 해여근에 글로 모사주는 것이 좋아.

109005 @ 절에.

109005 #3 그 모신 사름덜이 열에 일곱은 앞 길이 흰혜 가.

109005 @ 예, 그렇구나예.

제2절 어휘

1. 인체

얼굴과 머리

201001	머리	머리
201002	대가리	대가리
201003	크다[大]	크다
201004	숫구멍	숨통, 숨골
201005	제비초리	생이풀랑지, 제비풀리
201006	머리털	머리터럭
201007	머리카락	머리카락
201008	길다[長]	질다
201009	짧다[短]	쫄르다
201010	빗[梳]	얼럭지
201011	얼레빗	얼럭지
201012	참빗	챙빗
201013	닿다	닿다
201014	비녀	비네
201015	고수머리	곱슬머리
201016	가마[旋毛]	상감
201017	쌍가마	*
201018	가르마	앞가르다
201019	이마	이마, 임텡이
201020	넓다[廣]	널르다
201021	이마빼기	이마뺨
201022	숨털	간세터럭
201023	얼굴	얼굴
201024	낯[面]	낯
201025	웃다[笑]	웃다
201026	그리다[寫]	그리다
201027	세숫대야	세숫사리
201028	씻다[洗]	시치다
201029	거울	가가미
201030	보다[見]	보다
201031	뺨	뺨얌

201032	뺨따귀	뺨얌데기
201033	때리다[打]	때리다
201034	볼	볼
201035	볼따구니	볼터구니
201036	볼거리	*
201037	광대뼈	볼기뼈, 볼뼈
201038	보조개	*
201039	주름살	주름살
201040	눈[目]	눈
201041	흰자위[目]	흰공자
201042	검은자위	검은공자
201043	눈꺼풀	눈두꺼
201044	거적눈	*
201045	눈썹	눈썹
201046	질다[濃]	지트다
201047	속눈썹	눈썹
201048	양미간(眉間)*	
201049	수침(垂針)	*
201050	거머리	*
201051	폐롭다	폐롭다
201052	눈곱	눈곱제기
201053	눈초리	눈각지
201054	사팔눈	사팔때기
201055	눈웃음	눈웃음
201056	코	코
201057	만지다[撫]	문직다
201058	콧마루	콧므르
201059	세다[強]	쌌다
201060	콧구멍	콧고망
201061	코딱지	코딱지
201062	콧물	콧물
201063	닦다[拭]	다끄다
201064	콧수염	콧쉬염
201065	인중	*
201066	입	입
201067	쓰다[苦]	쓰다
201068	참말	츨말

201069	거짓말	거짓말
201070	바르다[正]	바르다
201071	답달하다	답드리허다
201072	입술	입바우
201073	헐다[毀]	헐다
201074	입놀림	입다심
201075	말하다	말근다
201076	입방아	입견지
201077	허풍	건풍
201078	뇌다	노다시리다
201079	침[唾]	춤
201080	삼키다[吞]	삼키다
201081	가래침	개춤
201082	뱉다[吐]	마끄다
201083	느침	니치름
201084	턱받이	턱바지
201085	혀	세, 세바닥
201086	훅다	할르다
201087	헛바늘	셋가시
201088	이[齒]	니
201089	앞니	앞니
201090	송곳니	걸리
201091	덧니	덧니
201092	버드렁니	*
201093	어금니	어금니
201094	사랑니	막어금니
201095	옥니	옥니
201096	옥다[曲]	오그라지다
201097	돋다[出]	나다
201098	음물다	악물다
201099	턱	턱가리
201100	턱살	*
201101	빨다[稍峽]	빨다
201102	수염	수염
201103	귀	귀
201104	귓바퀴	귀주머니
201105	귓볼	귓자라기

201106	꺾구멍	꺾고망
201107	꺾청(고막)	꺾창
201108	꺾지	꺾갑
201109	꺾이개	꺾오개
201110	가느꺾	ㄱ느꺾
201111	꺾밑	꺾밧
201112	꺾레나룻	꺾디쉬얌
201113	꺾	꺾가지
201114	꺾다[顛]	꺾다
201115	꺾가지	꺾가지
201116	꺾살	꺾사리
201117	꺾다[執]	꺾다
201118	꺾통수	꺾데가리
201119	꺾뒤	꺾뒤
201120	꺾덜미	꺾설미

상체

201121	어깨	웃뚝지
201122	어깨뼈	웃뚝지뺑
201123	어깨죽지	어깨죽지
201124	겨드랑이	즈쟁이
201125	팔	폴
201126	팔뚝	폴뚝
201127	새기다[刻]	새기다
201128	팔심	폴힘
201129	힘줄	꺾줄
201130	답살	꺾술
201131	팔꿈치	폴고비
201132	팔목(=손목)	꺾목
201133	뼈	꺾, 꺾
201134	뼈다귀	꺾다기
201135	손	손
201136	왼손	웬손
201137	오른손	ㄴ돈손
201138	왼손잡이	웬손꺾이
201139	손등	손등뺑이
201140	손바닥	손바닥

201141	손툽	손콥
201142	들다[擧]	들다
201143	흔들다[搖]	흔들다
201144	거스러미	거심
201145	할퀴다	곡취다
201146	손가락	손카락
201147	엄지손가락	어금손
201148	검지손가락	
201149	가운뎃손가락	상손가락
201150	약손가락	*
201151	새끼손가락	새끼손가락
201152	손살	*
201153	가슴	가심
201154	뛰다[跳]	뛰다
201155	젓가슴	젯가슴
201156	명치	오뎃숭이
201157	명자리	*
201158	젓	젯
201159	젓꼭지	젯꼭지
201160	젓명울	젯명울
201161	짜다[攥]	짜다
201162	울다[鳴]	울다
201163	배[腹]	배
201164	기다[匍]	기다
201165	고프다[餓]	고프다
201166	배꼽	배똥
201167	옆구리	읻갈리
201168	갈비뼈	읻갈리뼈
201169	등	등
201170	밀다[推]	밀다
201171	굽다[曲]	오그라지다
201172	등때기	등뎡이
201173	가렵다[癢]	ㄱ렵다
201174	긁다[抓]	긁다
201175	결리다	절리다
201176	등목(=목물)	등물
201177	찬물	언물

201178	등마루	등따리팡
201179	등뼈	등빼

하체

201180	허리	허리
201181	잔허리	ㄴ는허리
201182	가늘다[細]	ㄴ늘다
201183	엉덩이	엉치
201184	살집	술집
201185	볼기	볼기짜
201186	엉덩이뼈	엉덩이빼
201187	궁둥이	궁둥이
201188	궁둥이뼈	궁둥이빼
201189	살	술
201190	새끼똥구멍	새끼또고망
201191	더럽다[汚]	추접허다
201192	가볍다[輕]	게볍다
201193	무겁다[重]	무겁다
201194	살	*
201195	가래뿔	멍얼
201196	다리[脚]	다리
201197	서다[立]	스다
201198	허벅다리	허벅다리
201199	넓적다리	*
201200	무릎	독, 독무릅
201201	무릎뼈	독무릅뼈
201202	뼈다[櫪]	뼈다
201203	정강이	정갱이
201204	정강뼈	정갱이빼
201205	종아리	종아리
201206	장판지	주술
201207	오금	오곰다리
201208	복사뼈	*
201209	발[足]	발
201210	걸다[步]	걸다
201211	긋다[凶]	긋다
201212	헛발질	헛발

201213	발목	발목
201214	겹질리다	*
201215	발등	발등
201216	발바닥	발바닥
201217	발부리	*
201218	차다[蹴]	차다
201219	간지럽다	즈골리다
201220	간지럼	즈곰
201221	발가락	발가락

201221-1	엄지발가락	엄금발
201221-2	둘째발가락	*
201221-3	가운뎃발가락	*
201221-4	넷째발가락	*
201221-5	새끼발가락	새끼발가락

201222	발살	*
201223	까치눈	*
201224	티눈	쿠농이
201225	고린내	꼬랑내
201226	발톱	발콧
201227	발뒤축	발뒤치기
201228	쓸개[膽]	실개
201229	허파	복부기
201230	마음	므음
201231	곱다[麗]	곱다
201232	창자	베설
201232-1	큰창자	큰베설
201232-2	작은창자	족은베설
201233	목숨	목심
201234	빼앗다[脫]	빼앗다
201235	한숨	한숨

2. 육아

발달

202001	서다[孕]	설다
202002	시다[酸]	시다
202003	기쁘다[喜]	기쁘다
202004	입덧	입건지
202005	낳다[娩]	낳다
202006	태(胎)	아기뿔
202007	땃줄	베똥줄
202008	나이	나이
202009	어리다[幼]	어리다
202010	터울	므지
202011	갓난아이	꺏난애기
202012	싸다[包]	싸다
202013	어린아이	어린애기
202014	사내아이	스나이
202015	계집아이	지집아이
202016	아깁다	아깁다
202017	아이보개	애기엽게
202018	엽저지	애기엽게
201019	품다	품다
202020	오줌	오줌
202021	오줌독	오줌항
202022	오줌버캐	오줌찌거기
202023	오줌싸개	오줌쌌기
202024	누다[便]	싸다
202025	나무라다	나무라다
202026	지린내	지렁내
202027	마렵다	므롭다
202028	꾸지람	꾸지름
202029	배냇저고리	봣데창옷
202030	기저귀	사빠, 지성귀
202031	배두렁이	베불레기
202032	포대기	걸랭이
202033	보자기	포따리, 찰리
202034	보따리	포따리

202035	풀다[解]	클르다
202036	끄르다	클르다
202037	치네	뚜데기, 걸랭이
202038	띠	걸랭이
202039	개구멍바지	강알터진거

재통과 놀이

202040	죄암죄암	존메존메
202041	곤지곤지	곤지곤지
202042	따로따로	던데던데
202043	도리도리	마니마니
202044	짹짹	던데던데
202045	부라부라	걸음베걸음베
202046	걸음마	걸음베
202047	걸리다	걸루다
202048	곤두박질	건굴락
202049	곤두서다	건굴락사다
202050	가동가동	가둥가둥
202051	안다[抱]	안다
202052	안기다	안기다
202053	목말	고개
202054	흥내	슁내
202055	흥내질하다	슁내내다
202056	엄살	엄살
202057	쌈	쌈
202058	자라다[成長]	질다
202059	부아	부에
202060	참다[忍]	츄다
202061	심술	심세
202062	밋다[憎]	밋다
202063	옛말	옛말
202064	자치기	자치개
202065	구슬치기	다마치기
202066	딱지치기	뺏지치기
202067	통차기	*
202068	숨바꼭질	곶음제기

202069	숨다	굽다
202070	소꿉놀이	소꿉장난
202071	놀다[遊]	놀다
202072	실뜨기	*
202073	풍계문이	굽질락
202074	줄넘기	베털락
202075	줄다리기	줄등길락
202076	수수께끼	여숙제낄락
202077	공기	공기치기
202078	공깃돌	공기
202079	던지다[投]	데끼다
202080	고누	*
202081	땅뺏기	땅따먹기
202082	사금파리	사그마치
202083	말놀음질	말탈락
202083-1	생말타기	말탈락
202083-2	죽은말타기	말탈락
202084	대말[竹馬]	대막쟁이
202085	달음박질	들음박질
202086	겨루다[競]	심백허다
202087	제기차기	뎡기차기, 쪽기차기
202088	혜엄치다	혜엄치다
202089	웃놀이	웃놀이
202090	웃가락	웃가락

202090-1	도	한 짝만 짓혀졌을 때	토
202090-2	개	두 짝 짓혀졌을 때	캐
202090-3	걸	세 짝이 짓혀졌을 때	겔
202090-4	웃	네 짝 모두 짓혀졌을 때	웃
202090-5	모	네 짝 모두 엮어졌을 때	모

202091 동무니

202091-1	외동무니	한 동만으로 가는 말	*
202091-2	두동무니	두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
202091-3	석동무니	세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
202091-4	넉동무니	네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 가는 말	*

202092	막동	
202093	보리웃	*
202094	줄목	*
202095	이기다[勝]	이기다
202096	승강이	싱쟁이
202097	싸우다[鬪]	싸우다
202098	패싸움	*
202099	모다기령	모다치기
202100	편벽하다	펜백허다
202101	팽이치기	팽이치기
202102	팽이	팽이
202103	돌다[回]	돌다
202104	바람개비	브롬도레기
202105	연	연
202106	방패연(쟁연)	들연
202107	가오리연	강글레비
202108	연달	*

202108-1	머릿달	연의 머리에 붙인 대	상대
202108-2	꽂숫달	연의 가운데에 길이로 붙인 대	*
202108-3	꿇달	연의 네 귀에 '×'자 모양으로 엮붙인 대	*
202108-4	허릿달	연의 허리에 붙인 대	*

202109	방구멍	들고망
202110	꼭지	*
202111	갈개발	*
202112	벌이줄	벌

이

202112-1	머릿줄	연의 머릿달 양 끝에 매는 벌이줄	*
202112-2		연의 방구멍 위쪽 꼭지에 매는 벌이줄	*
202112-3	꽂숫줄	연의 꽂숫구멍에 꿰어서 꽂숫달에 잡아 매어 비스듬하게 올라와 가운데 줄과 한군데로 모이는 벌이줄	*
202112-4	활벌이줄	연의 머릿달 양쪽 뒤로 돌아가 활시위 처럼 잡아당기어 맨 벌이줄	*
202112-5	가운뎃줄	연의 방구멍에 매는 벌이줄	*

202113	얼레	얼레
202114	두모얼레	*
202115	네모얼레	*
202116	감다[捲]	감다
202117	개미[연놀이]*	
202118	퇴김	*
202119	그네[鞦韆]	굴메
202120	밀신개	*
202121	굴령쇠	*
202122	구르다[轉]	둥그리다
202123	썰매	썰매
202124	자전거	자전구
202125	키[身長]	지레
202126	키다리	*

생리와 질병

202127	하품	하우염
202128	선하품	선하우염
202129	기지개	질
202130	기지개하다	질트다
202131	경기하다	정짱허다
202132	놀라다[驚]	놀래다
202133	졸음	조라움
202134	졸다[眠]	졸리다
202135	졸리다	졸리다
202136	잠	즘
202137	귀잠	지픈즘
202138	자다[眠]	자다
202139	잠꼬대	헛말
202140	잠귀	즘귀
202141	잠꾸러기	즘꾸레기
202142	몸부림	몸질
202143	몸부림하다	몸질치다
202144	트림	트름
202145	딸꾹질	툄곡지
202146	재채기	헛쟁이
202147	개치네췌	에치나

202148	방귀	방구
202149	방귀뀌다	방구뀌다, 똥뀌다
202150	방귀장이	똥복쟁이
202151	구린내	구린내
202152	노린내	그끄렁내
202153	사레들다	스러레들다
202154	감기	감기, 고뿔
202155	기침	지침
202156	홍역	마누라
202157	학질	학질
202158	천연두	마누라
202159	곰보	꼼보
202160	비듬	비듬
202161	기계총	이발총
202162	독창	독짓
202163	두부백선	*
202164	웁	칠
202165	버짐	버줌
202166	마른버짐	군버줌
202167	진버짐	*
202168	주근깨	프리똥
202169	기미	지미
202170	사마귀[黑子]	사막
202171	여드름	여름
202172	멍	멍
202173	퍼렇다	퍼렇허다
202174	굳은살	쿠농이
202175	부스럼	부스름
202176	종기	허멀
202177	습종	십종
202178	나다[生]	나다
202179	붉은발	허멀발
202180	다대	허멀딱지
202181	고름[膿]	고름
202182	고장물	긋인물
202183	낫다[癩]	낫다
202184	아물다	아물다

202185	표적	폐적
202186	생인손	생손
202187	앓다[痛]	알리다
202188	두드러기	두드레기
202189	땀띠	땀떼기
202190	소경	눈먼사름
202191	청맹과니	튼봉사
202192	먼산바라기	*
202193	애꾸눈이	웨눈백이
202194	사팔뜨기	사팔떼기
202195	다래끼	개긋
202195-1		개씹
202195-2		개긋
202196	언칭이	칭보
202197	외언칭이	*
202198	쌍언칭이	*
202199	귀떡다	귀막다
202200	귀머거리	귀마구리
202201	병어리	말므레기
202202	말더듬이	말더듬이
202203	혀짤배기	세다드레기
202204	입비뿔이	입트레기
202205	구안괘사	웨살풍
202206	가납사니	자자기
202207	곰배팔이	폴졸레기
202208	곰사등이	등곰새
202209	절뚝발이	자울락이
202210	얇은뱅이	아진베기
202211	문둥이	문둥이뺑, 용다리

3. 친족

203001	아버지	아부지
203002	어머니	어무니
203003	아비	아방
203004	어미	어멍

203005	할아버지	하르부지
203006	할머니	할무니
203007	남편	서방
203008	아내	각시
203009	부부	서방각시
203010	싫다[厭]	싫다
203011	좋다[好]	좋다
203012	아들	아덜
203012-1	큰아들	큰아덜

203012-1	큰아들	큰아덜
203012-2	둘째아들	셋아덜
203012-3	셋째아들	말젯아덜
203012-4	막내아들	족은아덜, 막내

※아들이 다섯인 경우

203012-5	큰아들	큰아덜
203012-6	둘째아들	셋아덜
203012-7	셋째아들	말젯아덜
203012-8	넷째아들	네번째아덜
203012-9	막내아들	막내

※아들이 여섯, 일곱, 여덟인 경우도 가능하면 조사

203013	친아들	친아덜
203014	의붓아들	다심아덜
203015	딸	딸
203016	친딸	친딸
203017	의붓딸	다심딸
203018	자식	즈식
203019	없다[無]	엇다
203020	자손	즈손
203021	어비딸	*
203022	어비아들	에비아덜
203023	닮다[相似]	닮다
203024	어이딸	*
203025	어ैया들	*
203026	말이	몬이

203027	막내	막둥이, 막내
203028	형	성님
203029	누님	누님
203030	누이	누이
203031	언니	성
203032	아우	아시
203033	외아들	웨아덜
203034	외딸	웨딸, 웨딸레기
203035	쌍둥이	골에기, 쌍둥이
203036	다르다[異]	틀리다
203037	같다[如]	ㄴ트다
203038	양자	양제
203038-1		양제가다
203038-2		양제들이다
203039	처녀	처녀
203040	총각	총각
203041	혼인	혼인
203042	날[日]	날
203043	사주보다	스주보다
203044	중신	중매쟁이
203045	권당	웬당
203045-1		친축
203045-2		친축
203046	안팎잔치	안팎잔치
203046-1	암창개	남편이 부득이하게 오지 못해서 혼자 결혼
203047	사위	사우
203048	머느리	메누리
203049	시아버지	시아부지
203050	시아머니	시아무니
203051	장인	가시아방
203052	장모	가시아멍
203053	외할아버지	웨하르부지
203054	외할머니	웨할무니
203055	삼촌	삼촌
203055-1	삼촌	삼촌
203056	아주버니	*
203057	아주머니	삼촌

203058	환갑	한갑
203059	늡으신네	늡신네
203060	꾸정꾸정하다	정광ㅎ다
203061	살다[生]	살다
203062	고로롱팔십	콜롱팔십
203063	병추기	*
203064	거동하다	오목거리다
203065	손자	손지
203066	손녀	손녀
203067	친손자	친손지
203068	외손자	웨손지
203069	친탁	성탁
203070	외탁	웨탁
203071	내척	성첸
203072	외척	웨첸
203073	종내기	*
203074	시누이	시누이
203075	올케	올케
203076	큰아버지	큰아부지
203077	큰어머니	큰어무니
203078	작은아버지	작은아부지
203079	작은어머니	작은어무니
203080	조카	조케
203081	고모	고모
203082	고모부	고모부
203083	이모	이모
203084	이모부	이모부
203085	외삼촌	웨삼촌
203086	넋할아버지	*
203087	넋할머니	*
203088	넋손자	*
203089	홀아버	홀아방
203090	홀어미	홀어멍
203091	친아버지	친아방
203092	친어머니	친어멍
203093	의붓아버지	다심아방
203094	의붓어머니	다심어멍

203095	움딸	빌인딸
203096	누구	누게
203097	남[他]	눔

4. 의복

옷감과 세탁

204001	옷감	옷ᄃ심
204002	꿘다	고시다
204003	명주	멩지
204004	명주실	멩지실
204005	명주옷	멩지옷
204006	줄다[縮]	줄다
204007	무녕	미녕
204008	무녕실	미녕실
204009	닷새무녕	닷새미녕
204010	엇새무녕	엇새미녕
204011	생목	지챗미녕
204012	광목	광목
204013	베	베
204014	베옷	베옷
204015	베치마	베치메
204016	숨	소게
204017	풀숨	설멩지
204018	숨틀	소게 태우는 틀
204019	숨틀집	클방, 소게 태우는 집
204020	목화	멘네
204021	목화다래	멘네도레기
204022	누에	누에
204023	누에채반	누에챗망
204024	번데기	누에겍데기
204025	고치	고치
204026	뽕잎	뽕낭잎, 뽕낭썸
204027	뽕나무	뽕낭
204028	산뽕나무	드룻뽕낭
204029	오디	뽕낭여름

204030	다듬잇돌	안반돌
204031	다듬잇방망이	다듬이마개
204032	퍼다	폐우다
204033	빨다[滌]	빨다
204034	거품	부끌레기
204035	물거품	물부끌레기
204036	빨랫돌	서답허는 팡돌
204037	빨랫방망이	서답마개
204038	빨랫바구니	서답바구리
204039	헝구다	헝구다
204040	빨랫줄	서답줄
204041	마르다[乾]	므르다
204042	마지랑대	빨래작쉬
204043	널다	널다
204044	걷다[收]	거두다
204045	바래다[褪]	바래다
204046	헝겂	헝벅
204047	찢다[裂]	브리다
204048	나부랭이	헝벅 고사난 찢꺼랭이

복식

204049	바지	바지
204050	바짓가랑이	바짓가랭이, 바짓가달
204051	저고리	저고리
204052	치마	치메
204053	치맛자락	치멧자락
204054	풀치마	*
204055	웃고름	곰(치메곰, 두루메기곰)
204056	웃깃	깃
204057	웃섶	웃섭
204058	단추	단추
204059	매듭단추	동달귀
204060	동정	동전
204061	소매	소미
204062	중의	중의
204063	갈중의	갈중의
204064	적삼	적삼

204065 도포 도복
 204066 두루마기 두루메기
 204067 장옷 장옷
 204068 고쟁이 고장중의
 204069 토시 토시
 204070 누더기 뚜대기
 204071 거지 동녕바치
 204072 구두쇠 빗쟁이
 204073 잠방이 점벙이
 204074 허리띠 허리곰
 204074-1 허리곰
 204075 주머니 주머니, 주멩기
 204076 호주머니 계와
 204077 넣다[入] 놓다
 204078 버선 보선

204078-1	버선목	발목이 닿는 부분	보선목
204078-2	버선꿈치	발꿈치가 닿는 부분	보선뒤치기
204078-3	버선등	발등이 닿는 부분	보선등
204078-4	버선코	앞쪽 끝에 뽀족한 부분	보선앞볼

204079 길목버선 질목
 204080 버선발 보선바람
 204081 대님 다림
 204082 감발 발싸개
 204083 홉옷 홉옷
 204084 겹옷 겹옷
 204085 솜옷 소게옷
 204086 얹다 알롭다
 204087 입다[着] 입다
 204088 이불 이불
 204089 이불깃 이불깃, 덧깃
 204090 이불잇 이불안
 204091 홉이불 홉이불
 204092 겹이불 겹이불
 204093 사이 트멍

204094	누비이불	누비이불
204095	이불보	이불포
204096	보풀	푸슴, 거심
204097	홀칭	혼꺀데기
204098	요	요
204099	웃잇	요안
204100	눅다[臥]	눅다
204101	누이다	눅지다
204102	담요	담요
204103	방석	요방석
204104	앉다[座]	앗다
204105	베개	베개
204106	베갯잇	베갯잇
204107	베갯머리	베갯머리
204108	베갯모	베갯모메기
204109	목침	목침
204110	삿갓	삿갓
204111	패랭이	패랭이
204112	유건	유관
204113	병거지	털모자
204114	밑짚모자	밑낭패랭이
204115	미사리	삿갓망
204116	짚신	초신
204117	제총박이	초신
204118	딤총박이	비빔깍신
204119	미투리	*
204120	삼다[造履]	줄다
204121	나막신	남신
204122	가족신	가족신
204123	부르뜨다	부르뜨다
204124	벗다[脫]	벗다
204125	설피	덧신
204126	문수	첼
204127	부채	선제, 푸채
204128	미선	미선
204129	부치다[扇]	푸치다

바느질과 도구

204130	반진고리	바농상지
204131	가위	ㄱ세
204132	마르다[裁]	몰르다
204133	골무	골메
204134	실	쉴
204135	실꾸리	쉴컬레
204136	실패	쉴패
204137	바늘	바농
204138	찌르다[刺]	찌르다
204139	바늘겨레	바농참지
204140	바늘귀	바농귀
204141	꿰다	꿰다
204142	깎다	줍다
204143	실밥	실밥
204144	접다	줍다
204145	곶치다	접다
204146	휘갑치다	바위돌리다
204147	재봉틀	접음틀
204148	다리미	다리워
204149	다리다[熨]	다리다
204150	인두	운디
204151	인두판	운디판
204152	누르다[壓]	눌리다
204153	씨아	무르에

204153-1	(씨아 기둥)	가락을 끼우는 좌우에 있는 두 개의 기둥	*
204153-2	썰기	가락과 장가락이 마주 붙어 돌아가도록 밑에서 받치는 나무	*
204153-3	(갈개)	씨아질을 할 때 씨아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타 앉는 앉을개	*
204153-4	씨앗귀	가락 끝에 파배기처럼 생긴 톱니	*
204153-5	씨아손	손잡이	즈룩
204153-6	가락	씨를 빼는 톱니	무르레살

204154 물레 미녕 짜는 성쿨 (브디, 꼬리박)

204154-1	괴머리	물레의 왼쪽 가로대 끝 부분에 놓는 받침 나무	*
204154-2	괴머리기둥	괴머리에 세워진 기둥	*
204154-3	설다리	물레의 바탕 위에 세우는 두 개의 기둥	*
204154-4	가로대	물레 몸통과 괴머리를 가로지른 나무	*
204154-5	물레바퀴	물레의 바퀴	*
204154-6	꼭지마리	물레의 손잡이	*
204154-7	동줄	물레의 바퀴와 바퀴를 이은 줄	*
204154-8	가락고동	괴머리의 두 기둥에 가락을 걸기 위하여 고리처럼 만들어 박은 물건	*
204154-9	가락(옷)	실이 감기는 쇠꼬챙이	*
204154-10	굴뚝	물레의 몸이 실린 중심의 굴대	*
204154-11	물렛줄	물레의 바퀴와 가락을 걸쳐 감은 줄	*

204155 자세 열레

5. 음식

주식

205001	밥	밥
205002	쌀	술
205003	쌀독	술항
205004	담다[入]	담다
205005	보리밥	보리밥
205006	끓어오르다	끓어오르다
205007	빼다[渴水]	빨다

205008	조밥	조팍
205009	덜다[減]	덜다
205010	흰밥	곤밥
205011	팔밥	팟밥
205012	반지기	반지기
205013	고두밥	생밥
205014	먹다[食]	먹다
205015	누룽지	누녕이
205016	눌은밥	누녕이밥
205017	더운밥	드신밥
205018	식은밥(찬밥)	식은밥
205019	툇밥	톨밥
205019-1	패밥	패밥
205019-2	파래밥	팍레밥
205020	밥보	밥체시
205021	밥술	밥술가락
205022	밥알	밥방울
205023	끼니	끼니
205024	늦다[晚]	늦다
205025	이르다[早]	이르다
205026	공밥	공밥
205027	놀다	놀다
205028	승냥	승냥
205029	화독내	그끄렁내
205030	국	국
205031	나물국	낙물국
205032	콩국	콩국
205033	춧국	초냉국
205034	냉국	냉국
205035	건더기	건지
205036	국물	국물
205037	굶다[飢]	굶다
205038	죽	죽
205039	덥다[暑]	덥다
205040	흰죽	곤죽, 흰죽
205041	팔죽	팟죽
205042	섞다[混合]	서끄다

205043	콩죽	콩죽
205044	갱죽	국죽
205045	깨죽	깨죽
205046	녹두죽	녹디죽

부식

205047	반찬	반찬
205048	테우다	테우다
205049	김치	짐치, 김치
205050	배추김치	배추짐치
205051	무김치	늬삐짐치
205052	열무김치	열무짐치
205053	물김치	물짐치
205054	나박김치	나박짐치
205055	갓김치	갓늬물짐치
205056	파김치	파짐치
205057	깍두기	늬삐짐치
205058	메주	메주
205059	담그다	담그다
205060	간장	장물
205061	장물	장물
205062	된장	웬장
205063	소금	소금
205064	소금버캐	소금병댕이
205065	소금장수	소금장시
205066	간	곤
205067	맛	맛
205068	간하다	곤허다
205069	콩나물	콩주름
205070	숙주나물	녹디주름
205071	무나물	늬삐늬물
205072	고사리	고사리
205073	고사리나물	고사리늬물
205074	고사리밥	고사리밥
205075	꺾다[切]	꺼끄다
205076	곳[場所]	곳
205077	고비	뺨고사리

205078	미나리	미네기
205079	부추	새우리
205080	상추	부루
205081	시금치	시금치
205082	푸성귀	푸성귀
205083	오이	오이
205084	물외	물웨
205085	참외	참웨
205086	수세미외	사게웨
205087	말물	초불
205088	끝물	막물
205089	개똥참외	간잘귀
205090	원두막	원두막
205091	갯잎	유입
205092	고추	고치
205093	풋고추	풀고치
205094	고춧가루	고춧ㄱ를
205095	맵다[辛]	맵다
205096	작다[小]	족다
205097	호박	호박
205098	청등호박	늪은호박
205099	호박잎	호박입
205100	시들다	시들다
205101	더덕	던덕
205102	젓	젯
205103	자리젓	자리젯
205104	멸치젓	멜젯
205105	아감젓	알개미젯
205106	짜다[鹽]	짜다
205107	초(식초)	초

별식

205108	흰떡	곤떡
205109	백설기	곤친떡
205110	부스러기	브시레기
205111	송편	송펜
205112	소[떡소]	쉬

205113	고물	쉬
205114	도래떡	돌레떡
205115	설다[未熟]	설다
205116	만두	*
205117	가루	ㄴ를
205118	국수	멘
205119	칼국수	칼국수
205120	삶다[烹]	숯다
205121	수제비	즈베기
205122	푼다[淡]	푼다
205123	범벅	범벅
205124	미숫가루	계역
205125	볶다[炒]	보끄다
205126	붕지	붕다리
205127	과줄	과질
205128	엿기름	엿기름
205129	감주	감주
205130	달다[甘]	들다
205131	술	술
205132	막걸리	막걸리
205133	붓다[注]	붓다
205134	기울다[傾]	자울이다
205135	주다[授]	주다
205136	마시다[飲]	마시다
205137	준(鑊)	추니
205138	엮다	어프다
205139	술고래	술푸데기
205140	술독	술항
205141	술심부름	술부름씨
205142	술장사	술장시
205143	숨기다	굽지다
205144	찾다[索]	춧다
205145	들이켜다	들으싸다
205146	갑시다	ㄴ끼다, 야게 걸다
205147	지짐이	적
205148	누름적	적
205149	산적	적갈

부엌과 그릇

205150	부엌	정지
205151	부엌문	정짓문
205152	불때다	불습다
205153	불등걸	불망구리
205154	불뚱	불뚱
205155	부엌비	정짓비
205156	내[煙氣]	내
205157	낮다[低]	야프다
205158	높다[高]	노프다
205159	그을음	기시렁
205160	검댕	숫검댕이
205161	아궁이	아궁이
205162	재	불치
205163	모으다[集]	모으다
205164	부뚜막	숫덕
205165	붓돌	숫덕돌
205166	솔	숫
205167	옹달솔	족은숫
205168	무쇠솔	무쇠숫
205169	끓다[沸]	끓리다
205170	솔뚜껑	숫뚜껑이
205171	솔귀	숫천
205172	솔전	숫천
205173	솔바닥	숫창
205174	솔밑	숫창
205175	솔검정	숫검댕이
205176	부삽	불살
205177	군손	군손, 굴룬손
205178	군일	군일, 굴룬일
205179	살강	살레
205180	부지깻이	부지땡이
205181	짚방석	정짓방석
205182	성냥	성냥
205183	성냥개비	성냥살, 성냥개비
205184	성냥갑	불곽

205185	부시	부들췌
205186	부싯돌	부들
205187	부싯깃	불쩍
205188	부시쌈지	부들주머니
205189	부시통	*
205190	등잔	등피
205191	관솔	솔각
205192	호롱	초롱
205193	남포등	람프등, 남포등
205194	접싯불	각지불, 쯤시불
205195	불켜다	불싸다
205196	숯	숯
205197	검다[黑]	검다
205198	숯가마	숯가마
205199	뜬숯	게스미
205200	숯검정	숯검뎡이
205201	불타다	불카다
205202	탄내	끄시렁내
205203	불태우다	불태우다
205204	불티	불티, 불게미
205205	끄다[消火]	끄다
205206	화로	화리
205207	돌화로	돌화리
205208	청동화로	정동화리
205209	봉당	봉덕
205210	화룻불	화룻불
205211	불죄다	불초다
205212	화상(火傷)	분치
205213	부손	불순가락
205214	부젓가락	불젓가락
205215	다리쇠	시발래
205216	석쇠	적췌, 석췌
205217	물독	물항
205217-1		지신물
205217-2		지신물항
205218	담배	당배
205219	피우다	먹다

205220	용고뚜리	*
205221	담뱃대	담배통, 담배물뿌리
205222	빨다[吸]	빨다
205223	물부리	물뿌리
205224	담배통	담배통
205225	담배설대	담배대
205226	담배쌈지	담뱃쌈지
205227	재떨이	담배젓따리
205228	벼루	베루
205229	상	상
205230	그릇	그릇
205231	비다[空]	비다
205232	주발	놋그릇
205233	사발	사기그릇
205234	뚜껑	뚜껑
205235	젍시	젍시
205236	굽달이	굽돋은젍시, 굽돋은쟁반
205237	대접	대접
205238	보시기	보시
205239	종지	종지
205240	간종지	장물종지
205241	숟가락	숟가락
205242	젓가락	젓가락
205243	수저통	숟가락통
205244	설거지	설거지
205245	구정물	구짓물
205246	도시락	동고량
205247	주전자	주전지
205248	냄비	냄비
205249	바가지	물박세기
205250	박	박
205251	뒤옹박	두렁박
205252	조롱박	꼭박
205253	쪽박	꼭박세기
205254	양푼	냥푼
205255	조리	조리
205256	단지	단지

205257	뚝배기	독사발
205258	시루	시리
205259	시룻밀	시룻 고망 막으는 거
205260	시룻번	시리마게
205261	정그레	떡징
205262	함지박	도고리
205263	바구니	바구리
205264	소쿠리	소쿠리
205265	대[竹]	대
205266	이대	수리대
205267	왕대	왕대
205268	숨대(분죽)	*
205269	제주조릿대	*
205270	굳은대	익은대, 굳은대
205271	무른대	*
205272	항아리	항
205273	물동이	허벅
205274	뒤주	두지
205275	도마	돔베
205276	칼	칼
205277	식칼	정지칼
205278	빼다[拔]	빼다
205279	무디다[鈍]	무끼다
205280	갈다[磨]	굴다
205281	숫돌	신돌
205282	날카롭다	느실다
205283	행주	상베
205284	번철	빙철, 적 지지는 뚜껑
205285	국자	국자
205286	밥주걱	밥우금, 밥자
205287	죽젓광이	벼슬기
205288	수세미	수세미
205289	떡살	떡본
205290	밀판	돔베
205291	밀개	정대
205292	소줏고리	고소리

205292-1	(고리 위통)	소줏고리의 위통	고소리 우에
205292-2	(고리 알통)	소줏고리의 아래통	고소리 아래
205292-3	귀때	술이 내려오는 부리	쫓, 조쟁이
205292-4	(받이뿔)	부리로 떨어지는 술을 받는 병	등덜벙

205293	빋다	빋다
205294	풍로	*
205295	삼발이	시발췌
205296	달이다	달이다

6. 가옥

형태와 배치

206001	집터	집터
206002	초가	초가집, 초집
206003	길[路]	길
206004	골목	소룻길
206005	좁다[峽]	좁다
206006	낱다[古]	헐다
206007	기와집	지에집
206008	흙집	흑집
206009	돌집	돌집
206010	오막살이	막살이
206011	외채	웨채
206012	안채	안거리
206013	바깥채	밭거리
206014	안팍채	안팍거리
206015	문간채	이문간집
206016	결채	모커리
206017	짓다[作]	짓다
206018	장독	장항
206019	덮다[蓋]	더프다
206020	장독대	장독대
206021	헛간	헝장덜 놓는 디, 헛간
206022	외양간	쉐막, 췌왕

206023	잃다[失]	일르다
206024	마구간	몽아지 막살이
206025	변소	통시
206026	부춘돌	디딜광
206026-1	부출	디딜광
206027	기척	그적소리
206028	맞서다[拮]	마주사다
206029	냄새	내음새
206030	맡다[臭]	맞추다
206031	울담	울담
206032	울안	우жат
206033	터알	우영
206034	가리	눌
206035	보릿가리	보리눌
206036	짚가리	짚눌
206036-1	출눌	출눌
206037	틈[隙]	트멍
206038	가리다[積]	눌다
206039	사닥다리	사다리
206040	이영	느래미
206041	주저리	주쟁이
206042	엮다[編]	여끄다

내부 구조

206043	차양	풍채
206043-1		풍채
206043-2		발풍채
206044	디딤돌	옛돌
206045	난간	난간
206046	마루	상방
206047	마루문	대문
206047-1	‘호령창’	대문
206048	마룻널	마룻널
206049	구들	구들
206050	구들장	구들돌
206051	종이	닥지
206052	얹다	얹르다

206053	구들직장	*
206054	큰방	큰구들
206055	들다[入]	들다
206056	윗목	맞자리
206057	아랫목	안자리
206058	천장	천장
206059	닿다[觸]	닿다
206060	웃바람	우풍
206061	안방	족은구들
206062	방문	구들문
206063	비[帚]	비차락
206064	빗자루[柄]	빗즈룩
206065	쓸다	쓸다
206066	버리다[棄]	버리다
206067	바람벽	백브름
206068	걸다[掛]	걸다
206069	벽장	백장
206070	시렁	선반
206071	선반	선반
206072	헛대	훤
206073	도배	도비
206074	귀알	비알
206075	풀비	풀비차락
206076	чат방	챗방구들
206077	광	고광
206078	두다[置]	두다
206079	광문	고광문
206080	간수하다	강직허다
206081	안뒤꼇	안거리 뒤
206082	지붕	지붕
206083	함석	양철집
206084	지붕물매	*
206085	이다[蓋]	일다
206086	평고대	거왕
206087	처마	처마
206088	처맛기슭	처마
206089	낙숫물	지슨물

206090	댓돌	지스물바데돌
206091	흙	흑
206092	진흙	진흑
206093	찰흙	촌흑
206094	흙덩이	흑덩어리
206095	새벽	쉐세낭 불른 흑
206096	흙질	흑질
206097	이기다[沓]	흑꾸다, 흑불르다
206098	산자(撒子)	서슬
206099	기둥	지둥
206100	상기둥	마릿지둥
206101	뿔기둥	구들지둥
206102	세우다	세우다
206103	주춧돌	주춧돌
206104	서까래	*
206105	용마루	지붕믈
206106	보	포
206107	대들보	대들포
206108	반자틀	*
206109	귀틀	귀클
206110	외(椽)	튀기
206111	인방	*
206112	문설주	문입쟁이
206113	문곶도리	*
206114	문얼굴	문부출
206115	문틀	문틀
206116	문머리	웃데방
206117	문흙	문흙백이
206118	문지방	문지방
206119	지계문	*
206120	닫다[閉]	더끄다
206121	창문	창문
206122	잠그다	잠그다
206123	창호지	창호지
206124	뛰창문	문창곰
206125	구멍	고망
206126	미닫이	밀문

206127	여달이	*
206128	살문	쌀문
206129	널문	널문
206130	덧문	덧문
206131	문틈	문트멍
206132	돌찌귀	돌치귀
206133	암톨찌귀	암톨치귀
206134	수톨찌귀	수톨치귀
206135	문고리	문걸쇄
206136	배목	문걸쇄
206137	괘	괘
206138	열다[開]	올다
206139	장식	장석
206140	자물쇠	통쇄
206141	열쇠	열쇄
206142	부수다[碎]	부수다
206143	서랍	설랍

연장

206144	툽	툽
206145	양날툽	*
206146	거도	거두
206147	틀툽	대툽
206148	툽밥	툽ㄴ를
206149	자귀	자귀
206150	옥자귀	*
206151	노루발장도리	못빼기
206152	못뽑이	못빼기
206153	박다[釘]	박다
206154	배척	*
206155	끌	끌
206156	망치	망치
206157	방망이	방맹이
206158	대괘	대괘
206159	개탕대괘	홈백이
206160	송곳	송곳
206161	뚫다[鑿]	뚫르다

206162	곶자	곶은자
206163	떡통	떡통
206164	떡줄	떡통줄
206165	떡칼	떡칼
206166	흙손	흑손
206167	쇠흙손	췌손
206168	나무흙손	흑손
206169	흙받기	흑바데
206170	돌물레	뒤치게
206171-1		호룽이

7. 생업

농업

207001	농사	용시
207002	밭	밭
207003	밭가	밭에염
207004	밭담	밭담
207005	밭빼기	돌랭이
207006	병작(竝作)	병작
207007	갈다[耕]	갈다
207008	쟁기	쟁기

207008-1	양지머리	쟁기의 좌우 손잡이	양짓머리
207008-2	쟁깃술	쟁기의 몸 아래로 비스듬히 뻗어 나간 나무	*
207008-3	한마루	쟁기의 성에와 술을 꿰뚫어 곧게 선 나무	*
207008-4	성에	쟁기의 윗머리에서 앞으로 길게 뻗은 나무	성에
207008-5	좁생이막대	쟁기의 위 덧방을 누르는 나무	*
207008-6	보습	쟁깃술 바닥에 끼우는 쇠조각	보습
207008-7	벧	보습 위에 비스듬하게 덧댄 쇠조각.	벧
207008-8	물추리막대	쟁기의 성에 앞 끝에 가로로 박은 막대기	돌벧이뿔
207008-9	‘땀’	좁생이막대 아래에 끼워서 쟁깃술의 각도를 조절하는 막대	*

207009	욕보다	속다
207010	거리	*
207011	벗밥	*
207012	곰방메	곰베
207013	밭머리	밭명에
207014	밭두둑	고랑
207015	밭고랑	이랑
207016	밭이랑	고랑
207017	거웃	*
207018	극쟁이	*
207019	씨레	*

207019-1	손잡이	씨레의 손잡이	*
207019-2	찍게밭	씨레의 손잡이와 몸통을 이어주는 2개의 기둥	*
207019-3	몽둥이	씨레밭을 박을 수 있는 굵은 막대	*
207019-4	씨레밭	씨레 몽둥이에 박힌 뽕죽한 살	*
207019-5	나루채	씨레 몽둥이 앞 양쪽에 박은 나무	*

207020	번지	*
207021	팽이	꿩이
207022	곡팽이	못꿩이
207023	파다[堀]	파다
207024	쇠스랑	쉐시랑
207025	삽	삽
207026	따비	따비
207027	거름	걸름
207028	질다[肥]	질다
207029	씨앗	씨
207030	알씨	*
207031	백씨	*
207032	뿌리다[撒]	뿌다
207033	망태기	맹텡이
207034	꿈개	섬피
207035	남태	*
207036	돌번지	*

207037	김[雜草]	검질
207038	김매다	검질
207039	애벌매기	초불
207040	두벌매기	두불
207041	세벌매기	세불
207042	가다[去]	가다
207042-1		이제랑 가게
207043	호미	글쟁이
207044	홍아기	사대 소리
207045	놉	놉
207046	시키다	시키다
207047	품삿	일품
207048	비짜다	비짜다
207049	결두리	중석
207050	품앗이	수눌음
207051	삼태기	글체
207052	낫	호미

207052-1	낫자루	낫의 자루	호미즈룩
207052-2	슴베	자루 속에 들어박히는 뽀족하고 긴 부분	*
207052-3	낫쟁기	낫자루에 슴베가 박히는 부분을 단단히 하기 위하여 둘러 감은 쇠	*
207052-4	낫놀	슴베가 빠지지 않도록 낫자루에 구멍을 뚫어 박는 쇠못	*
207052-5	낫공치	낫의 슴베가 휘어넘어가는 덜미의 두꺼운 부분	*
207052-6	날	풀을 벨 수 있는 날카로운 부분	날

207053	베다[刈]	비다
207054	새 패기	미베쟁이
207055	새끼	노
207056	꼬다[索]	꼬다
207057	매듭	*
207058	노	노
207059	끈	친, 끈
207060	참바(바[索])베	
207061	짐바	질베
207062	질빵	질빵

- 207063 잇다[承] 잇다
- 207064 길마 질메
- 207065 소길마 쉼질메
- 207066 말길마 툐질메

207066-1	길맞가지	길마의 몸을 이루는 말굽 모양의 나뭇가지	질메가지
207066-2	앞가지	길마의 앞부분이 되는 민둥산 모양의 나무	*
207066-3	뒷가지	길마의 뒷부분이 되는 편자 모양의 나무	*
207066-4	궁글막대	길마의 앞가지와 뒷가지를 꿰뚫어 맞춘 나무	*
207066-5	둥우리막대	궁글막대 아래 댄 나무	*
207066-6	쟁거리	소의 궁둥이에 막대를 가로 대고 그 양 끝에 줄을 매어 길마의 뒷가지에 좌우로 잡아매게 되어 있는 물건	*
207066-7	쟁거리끈	쟁거리막대의 양 끝에 매어 길마의 뒷가지와 연결하는 줄	*
207066-8	쟁거리막대	쟁거리끈에 매어 소의 궁둥이에 가로 대는 막대	*
207066-9	배뎃끈	길마를 엮을 때에 배에 걸쳐서 졸라매는 줄	*

207067 멩에 멩에

207067-1	목대	멩에 양쪽 끝 구멍에 꿰어 소의 목 양쪽에 대는 가는 나무	*
207067-2	붓줄	멩에 양 끝에서 비겨미까지 연결된 줄	*
207067-3	한태	붓줄을 마소의 등 위로 잡아매는 줄	*
207067-4	(오리목)	붓줄 끝에 맨 비겨미와 쟁기의 물추리막대를 연결하여 매는 줄	*
207067-5	비겨미	붓줄이 소 뒷다리에 닿지 않도록, 두 끝을 턱이 지게 하여 붓줄에 꿰는 막대기	*

207068 지게 지게

207068-1	지겟다리	지게 몸체의 맨 아랫부분에 있는 양쪽 다리	지겟가지
207068-2	지겟가지	지게 몸에서 뒤쪽으로 갈라져 뻗어 나간 가지	*
207068-3	지게세장	지게의 두 다리 사이에 가로 박아 맞추어 놓은 나무	*
207068-4	지겟등태	지게를 질 때 등이 배기지 않게 붙인 등태	*
207068-5	지게꼬리 (밑뺨)	지게의 짐을 잡아매는 줄	*
207068-6	지겟작대기	지게를 버티어 세우는 긴 막대기	*

207069	바지계	바지계
207070	밭채	*
207071	물지계	물지계
207072	이삭	이석
207072-1		이석
207073	짚	짚
207074	익다[熟]	익다
207075	개상	클
207076	벼훑이	클
207077	그네	클

207077-1	보리 이삭(둥근 살)	*
207077-2	밭벼 이삭(넓고 모난 살)	*

207078	타작하다	테작허다
207079	땀	땨
207080	진땀	진땨
207081	젖다[濕]	적다
207082	죽을힘	죽을심
207083	겨를	즈를
207084	도리깨	도께

207084-1	도리깨채	도리깨의 자루로 쓰는 긴 막대기	도께즈룩
207084-2	도리깨열	도리깨채의 끝에 달려 곡식의 이삭을 후려치는 곧고 가느다란 나뭇가지	*
207084-3	도리깨꼭지	도리깨장부 끝의 구멍에 끼워 도리깨열을 잡아매게 된 작은 나무 비너	도께아덜

207085	여물	으물
207086	쭈정어	쭈쟁어
207087	꼴	출
207088	꼴밭	출왓
207089	꼴꾼	출비는 놉
207090	꼴단	출뭇
207091	신다[載]	실르다

207092	마차	구루마
207093	복두	셋베
207094	명석	명석
207095	덕석	*
207096	거적	거적
207097	체	체
207098	가는체(고운체)ㄱ는체	
207099	끓은체	대체
207100	말총체	말총체
207101	챗바퀴	챗망
207102	챗다리	*
207103	어레미	얼맹이
207104	키[箕]	푸는체
207105	키질	푸는체질
207106	까불다	푸다
207107	드리다	불리다
207108	‘술박’	좁박
207109	풍구	*
207110	흡	흡
207111	흡되	흡뒤
207112	되	뒤
207113	관되	관뒤
207114	사삿되	뒤약뒤기
207115	말[斗]	말
207115-1	통말	말
207115-2	모말	귀말
207116	가웃	가웃
207117	끓다[不充滿]	끓르다
207118	고무래	당그네
207119	불당그래	구누네
207120	떡등구미	멕
207121	가마니	가맹이
207122	끗다[引]	끗다
207123	곡식	곡석
207124	흩다[散]	그느다
207125	자루[袋]	찰리
207126	부대(負袋)	푸대

207127	거두다[收]	거두다
207128	게으름	간세
207129	노라리	간세다리
207130	보리	보리
207131	보리밭	보리밭, 보리왓
207132	누리다[黃]	누렁허다
207133	밟다	블르다
207134	까끄라기	ㄴ시락
207135	보리쌀	보리쌀
207136	보릿겨	보리체
207137	겉보리	겉보리
207138	쌀보리	술보리
207139	맥주보리	맥주보리
207140	보릿짚(보릿대)	보리짚
207141	매끼	퀘미
207142	감부기	감비역
207143	귀리	대우리
207144	조	조
207145	조밭	조팓
207146	차조	히린조
207147	메조	모인조
207148	슌다	소끄다
207149	조이삭	조코고리
207150	서속(黍粟)	서속
207151	비비다	브비다
207152	허수아비	허사비
207153	좁쌀	좁쌀
207154	조짚	조칩
207155	벼	나룩
207156	벼이삭	나룩고고리
207157	볍씨	나룩씨
207158	못자리	못자리
207159	밭벼[山稻]	산뒤
207160	밭벼 이삭	산뒤고고리
207161	밭벼밭	산뒤밭
207162	밭벼쌀	산뒤쌀
207163	밭벼짚	산뒤짚

207164 맷돌 ᄇ래

207164-1	맷돌짜	맷돌의 위아래 돌	*
207164-2	윗돌	맷돌의 위짜	우착
207164-3	아랫돌	맷돌의 아래짜	아래착
207164-4	매암쇠	맷돌 위짜의 한가운데 뚫린 구멍	ᄇ래혹, 고렛고망
207164-5	맷수쇠	맷돌의 아래짜 한가운데 박힌 물건	ᄇ래조쟁이, ᄇ래중시리
207164-6	맷손	맷돌의 손잡이	ᄇ래즈룩

207165 맷방석 ᄇ랫방석
 207166 매함지 도고리
 207167 풀맷돌 정ᄇ래
 207168 풀매 정ᄇ래
 207169 썰기
 207170 방아 남방에
 207171 쌍방아 두쿨방에
 207171-1 세쿨방에
 207171-2 *
 207171-3 *
 207172 방아확 돌혹, 방에특
 207173 방앗간 방에간
 207174 붓비다 부피다
 207175 방앗공이 방에귀
 207176 남방아 남방에
 207177 연자매 물방에
 207178 방앗돌 물방에돌
 207179 연자맷간 물방에
 207180 절구 방에
 207181 절곳공이 방에귀
 207182 빵다 뺏다
 207183 뉘 니
 207184 고르다[擇] 줍다
 207185 씹다[嚙] 씹다
 207186 겨 체
 207187 콩 콩
 207188 콩잎 콩입

207189	기름콩	주름콩
207190	콩깍지	콩깍지
207191	콩짚	콩짚
207192	꼬투리	콩깍지
207193	두부	둠비
207194	두붓물	둠빗물
207195	뜨겁다	데불다
207196	비지	콩비제기
207197	찌꺼기	찌꺼기
207198	완두	청대콩
207199	강낭콩	강남콩
207200	동부	둠비
207201	팥	팻
207202	팥알	팻알
207203	팥밥	팻밥
207204	녹두	녹디
207205	깨(참깨)	퀘
207206	들깨	유퀘
207207	참기름	참지름
207208	깻묵	팻주시
207209	고소하다	구시다
207210	메밀	므멸
207211	메밀밭	므멸밭
207212	나깨	느쟁이
207213	메밀껍질	므멸체
207214	메밀국수	므멸국시
207215	메밀수제비	므멸즈베기
207216	메밀칼국수	므멸칼국시
207217	메밀떡	므멸떡
207218	메밀묵	므멸묵
207219	무르다[軟]	물르다
207220	고구마	감저
207221	절간고구마	감저빼떼기
207222	찌다[蒸]	찌다
207223	썰다	썰다
207224	감자	지슬
207225	마늘	마농콥대사니

207225-1	마늘대	마농대
207225-2	마늘밀	마농빨리
207225-3	마늘중	마농동지
207226	마늘장아찌	마농지
207227	파	꽤마농
207227-1	파밀동	꽤마농빨리
207228	무	늪삐
207229	무청	늪삐입
207230	시래기	씨래기
207231	장다리무	씨받는늪삐
207232	열무	츄마기
207233	배추	배추
207234	고갱이(배추)	속 잘 앓았저.
207235	나물	늪물
207236	채소	승키
207237	길대	유래기
207238	다듬다	다듬다
207239	값	값
207240	옥수수	강녕이
207240-1	옥수수	강녕이
207241	수수	대죽
207242	쌀수수	찰대죽
207243	비목수수	비대죽
207244	사탕수수	사탕대죽
207245	수수깡	대죽냥

어업

207246	잠녀(潛女)	잠네
207247	물길	물길
207248	물웃	소중이
207249	물안경[水鏡]	눈
207249-1		왕눈
207249-2		족은눈
207250	테왁	테왁
207251	망사리	망시리
207252	비창	비창
207253	작살	소살

207254	어부	보제기
207255	뜯채	족바지
207256	그물	그물
207257	돛단배	풍선, 낙배
207258	이물	*
207258-1	이물간	*
207258-2	이물사공	*
207259	고물	*
207259-1	고물간	*
207259-2	고물사공	*
207260	돛	배초석
207261	마룻대(돛대)	*
207262	마룻줄(용총줄)	*
207263	활대	*
207264	외대박이	*
207264-1	두 대박이	*
207264-2	세대박이	*
207265	노(櫓)	*
207266	결노	*
207267	상책(노착)	*
207268	노잎(노깃)	*
207269	노앞	*
207270	노뒤	*
207271	노손	*
207272	눗구멍	*
207273	눗줄	*
207274	닻	*
207275	닻가지	*
207276	닻줄	*
207277	닻들	*
207278	닻걸이	*
207279	키[舵]	*
207280	킷구멍	*
207281	키잡이	*
207282	강다리	*
207283	상앗대	*
207284	떼[浮筏]	테우

기타

207285	이웃	동네
207286	더불다[與]	더불다
207287	마을	믄을
207288	고을[村]	골
207289	누리[世]	세상
207290	윗마을	웃드르
207291	옮다[移]	옮기다
207292	아랫마을	해변마을
207293	마을가다	믄실가다
207294	밤마을	밤믄실
207295	가게	점빵
207296	구멍가게	점빵
207297	다녀오다	땡겨오다
207298	심부름	부름씨
207298-1	부름씨	부름씨
207299	잔돈	즌돈
207300	남다[餘]	남다
207301	거스름돈	우수리
207302	있다[有]	있다
207303	에누리	내리다
207304	우수리	우수리
207305	받다[受]	받다
207306	나머지	나머지
207307	흥정	흥성
207308	빚	빚
207309	빚지다[負]	빚내다
207310	변리[邊利]	벤리
207311	늘다[增]	늘다
207312	대장간	불미대장간
207313	풀무	풍금
207314	손풀무	손풍금
207315	모루	*
207316	모루채	망치
207317	갓양태(양태)	양태
207318	망건	망건

207319	망건골	망건골
207320	탕건	탕건
207321	결다[編]	즌다
207322	사냥	사농
207323	사냥개	사농개
207324	사냥꾼	사농꾼
207325	쏘다[射]	쏘다
207326	핑잡이	핑마치
207327	고	코
207328	올가미	*
207329	덧	덧
207330	나누다	나누다
207331	갖다[持]	갖다

8. 수와 단위

수

208001 하나~열

208001-1	(1)	하나
208001-2	(2)	둘
208001-3	(3)	셋
208001-4	(4)	넷
208001-5	(5)	다섯
208001-6	(6)	으섯
208001-7	(7)	일곱
208001-8	(8)	으덱
208001-9	(9)	아홉
208001-10	(10)	열

208002	세다[數]	세다
208003	알다[知]	알다
208004	스물~백	

208004-1	(20)	스물
208004-2	(30)	서른
208004-3	(40)	마흔
208004-4	(50)	쉰
208004-5	(60)	예순
208004-6	(70)	이른
208004-7	(80)	오든
208004-8	(90)	아흔
208004-9	(100)	백

208005 한~엿 ‘되, 말’을 연결하여 말해 보십시오.

	단위	되	말
208005-1	(1/한)	흔 돼	흔 말
208005-2	(2/두)	두 돼	두 말
208005-3	(3/서, 석)	석 돼	서 말
208005-4	(4/너, 녀)	녀 돼	너 말
208005-5	(5/닷)	닷 돼	닷 말
208005-6	(6/엿)	웃 돼	웃 말

208006 한두 ‘개, 되, 말’을 연결하여 두 개씩 세어 보십시오.

		개	되	말
208006-1	(1-2/한두)	흔두개	흔두돼	흔두말
208006-2	(2-3/두세)	두세개	두석돼	두서말
208006-3	(2-3-4/두서너)	두서너개	두서녀돼	두서너말
208006-4	(3-4/서너)	서너개	서녀돼	서너말
208006-5	(4-5/네댓)	너다섯개	너다섯돼	너다섯말
208006-6	(5-6/대여섯)	대으섯개	대으섯돼	대으섯말
208006-7	(6-7/예닐곱)	예실곱개	예실곱돼	예실곱말
208006-8	(7-8/일고여덟)	일고으덟개	일고으덟돼	일고으덟말
208006-9	(8-9/여덟아홉)	으더아홉개	으더아홉돼	으더아홉말

208007 여남은 여남은

208008 서른남은 설남은

단위

208009 뽕 뽕
 208010 집게뽕 조리
 208011 밭[單位] 밭
 208012 밟다 밟다
 208013 필(무명/명주) 필
 208014-1

208014-1	무명	40자
208014-2	명주	*
208014-3	광목	*
208014-4	베	25~28자

208015 마지기(평) 혼말지기
 208015-1 120평
 208016 못 못
 208017 묶다[束] 무끄다
 208018 나르다[移] 날르다
 208019 둥 못
 208019-1 보달
 208020 조짐 가지
 208021 바리(종류) 바리
 208021

208021-1	보리	30못
208021-2	조(이삭 있음)	6못
208021-3	콩	6못
208021-4	밭벼	30못
208021-5	꿀	60못
208021-6	띠	6못
208021-7	각단	6못
208021-8	어욱	*

208022 모금 굴레
 208023 섬 열말

208023-1		열다섯 말
208024	덩이	못
208025	포기	포기
208026	그루	그루
208027	돌이(양태)	관
208028	마리	마리
208028-1	두[頭]	마리
208028-2		마리
208029	축	축
208030	꿨미	꿨미
208031	쌍(돼지)	쌍
208032	채(집)	거리, 채
208033	장(무덤)	자리
208034	컬레(신)	배, 컬레
208035	바퀴(운동장)	바퀴
208036	못	못
208037	죽	죽

9. 민속

통과의례

209001	꿈자리	꿈사리
209002	아이서다	애기설다
209003	삼신할머니	삼신할망
209004	깃저고리	봣디창옷
209005	배넛머리	배안엿머리
209006	돌	돌, 쳇돌
209007	새색시	새각시
209008	새신랑	새신랑, 새서방
209009	가마	가메
209010	시집가다	시집가다
209011	시집보내다	시집보내다
209012	장가가다	장계가다
209013	장가보내다	장계보내다
209014	함	홍세함
209015	위요(우시)	우시

209016	대반(對盤)	대반
209017	신부상	신부상
209018	휘다[槩]	휘다
209019	이바지	이바지
209020	부조	부주
209021	사돈	사둔
209021-1	안사돈	안사둔
209021-2	바깥사돈	밖사둔
209022	겹사돈	겹사둔
209023	상갓집	상갓집
209024	수의	호상
209025	상복	상복
209026	상제	상제
209027	상주	큰상제
209028	만상제	큰상제
209029	두건	두건
209030	복치마	복치메
209031	상장(喪杖)	방장대
209031-1		왕대
209031-2		머구남
209032	짚동	짚동
209033	일포제[祖奠]	일포제
209034	조문하다	조문하다
209035	뒋자리	뒋자리, 산터
209036	지관	정시
209037	패철	췌
209038	관	관
209039	상여	상여
209040	보장(寶帳)	포장
209041	계(契)	제
209042	상두꾼	행상꾼
209043	장삿날	장삿날
209044	장지	장지
209045	광중	개광자리
209046	횡대	개관
209047	호층	*
209048	무덤	봉분

209049	산담	산담
209050	돌장이	돌챙이
209051	토롱	토롱
209052	산역	*
209053	마치다[終]	마치다
209054	벌초	벌초, 소분
209054-1	소분	산소 돌아뵙 함저.
209055	묘위전	지월제밭,
209056	고총	골총
209057	제사	식계
209058	제삿집	식계집
209059	편틀	펜틀
209060	퇴물	튀물
209061	메	메
209062	갱(羹)	개영국
209063	제육	적
209064	제편	침떡
209065	인절미	인절미
209066	절편	절벤
209067	웃기떡	지름떡
209068	반기	반
209069	반기하다	반테우다, 반보태다
209070	몫	직시, 짝시
209071	면례(緬禮)	천리

세시풍속

209072	설날	설맹질
209073	세배	세배
209074	명절	맹질
209075	걸립	걸궁
209076	금줄	금줄
209077	매다[結]	매다
209078	장구	장구
209079	설장구	장구
209080	뽕과리	뽕메기
209081	영등할머니	영등할망
209082	단오	단오맹질

209083	물맞이	물맞이
209084	모래찜질	몰레뜸, 몰레찜질
209085	추석	팔월맹질, 팔월추석

10. 신앙

210001	점	점
210002	점쟁이	점쟁이
210003	안택	안택
210004	당	당
210005	무격	무당
210006	굿	굿
210007	굿판	굿판
210008	명두	멩두
210009	추다[躡]	추다
210010	소지(燒紙)	백지
210011	사르다[燒]	술다
210012	살(煞)	세
210013	삼살방(三煞方) *	
210014	도깨비	도채비
210015	낮도깨비	낮도채비
210016	허깨비	헛거
210017	어둑서니	기신새
210018	무섭다	막습다
210019	겹쟁이	겹쟁이
210020	고사(告祀)	코스
210021	고수레	케우리는 거, 코스
210022	포제	막을포제

11. 자연

들

211001	들	드르
211002	풀[草]	풀
211003	방화(放火)	방에

211004	불다[點火]	부뜨다
211005	내[川]	내
211006	넷가	넷가
211007	물가	물가
211008	따르다[從]	뜨르다
211009	건너다[渡]	건너다
211010	낭떠러지	기정
211011	다리[橋]	다리
211012	가깝다[近]	가참다
211013	멀다[遠]	멀다
211014	덤불	덤벌
211014-1	가시덤불	가시덤벌
211015	돌무더기	머들
211016	갈림길	거름질, 두갈래질
211017	묻다[問]	묻다
211018	비탈길	비크레깃질
211019	벼랑길	기정질
211020	내리막길	구렁질
211021	오르막길	동산질
211022	길가	질가
211023	큰길	한질
211024	분화구	*
211025	꼭대기	꼭대기
211026	오르다[登]	올르다
211027	기슭	*
211028	산바람	산브름
211029	산꼬대	늑룻
211030	상고대	산강
211031	구렁	굴렁
211032	고랑창	고랑챙이
211033	건너가다	건너가다
211034	넘어지다	푸더지다
211035	자빠지다	자빠지다
211036	천상수	*
211037	숲	고지, 꽃
211038	성(城)	성

바다

211039	바다	바당
211040	바닷가	바당가
211041	바닷물	바닷물
211042	바닷바람	바닷브름
211043	깊다[深]	지프다
211044	얕다[淺]	야프다
211045	물먹다	봉먹다
211046	모래	몰레
211047	모래밭	몰레밭
211048	자갈	자갈
211049	갯가	갯긋이
211050	펼	펼
211051	먼바다	먼바당
211052	과도	절
211053	과닷소리	절소리
211054	듣다[聞]	듣다
211055	너울	문둥절
211056	굵뉘	후네기
211057	물결	물절
211058	잔물결	즌물절
211059	무수기	물찌, 물때

	무수기	방언형	날짜
211059-1	한무날	흔물	*
211059-2	두무날	두물	*
211059-3	서무날	서물	*
211059-4	너무날	너물	*
211059-5	다섯무날	다섯물	*
211059-6	여섯무날	으섯물	*
211059-7	일곱무날	일곱물	*
211059-8	여덟무날	으덟물	*
211059-9	아홉무날	아홉물	*
211059-10	열무날	열물	*
211059-11	열한무날	열흔물	*
211059-12	열두무날	열두물	*
211059-13	(열서무날)	*	*
211059-14	아끈췌기	*	*
211059-15	췌기	*	*
211059-16	한조금	*	*

211060	여	여
211061	곶(串)	코지
211062	물밀다	물들다
211063	밀물	든물
211064	물싸다	물싸다
211065	썰물	싼물

시후

211066	오늘	오널
211067	내일	내일
211068	모레	모리
211069	내일모레	내일모리
211070	글피	글피
211071	그글피	
211072	어제	어제
211073	그저께	그지께
211074	그끄저께	그직아시날
211075	새벽[曉]	새백
211076	꼭두새벽	동새백

211077	해[太陽]	해
211078	빛	빛
211079	아침	아침
211080	낮	낮
211081	저녁	저녁
211082	저녁거리	저녁ㄱ심
211083	초저녁	초저녁
211084	밤[夜]	밤
211085	한밤중	한밤중
211086	하늘	하늘
211087	땅	땅
211088	구름	구름
211089	푸르다	푸르다
211090	별	별
211091	은하수	미리내
211092	달	들
211093	차다[充滿]	차다
211094	달무리	들그늘
211095	초승달	초싱들
211096	보름달	보름들
211097	그믐달	그믐들
211098	햇무리	*
211099	무지개	상고지
211100	쌍무지개	*
211101	봄	봄
211102	여름	으름
211103	가을	ㄱ슬
211104	겨울	경울
211105	입춘	입춘
211106	동지	동지
211107	초하루	초하를
211108	보름	보름
211109	그믐	구름

211110-1	하루	흐루
211110-2	이틀	이틀
211110-3	사흘	사흘
211110-4	나흘	나흘
211110-5	닷새	닷새
211110-6	엿새	웃새
211110-7	이레	일뤼
211110-8	여드레	으드레
211110-9	아흐레	아흐레
211110-10	열흘	열흘

211111	사나흘	사나흘
211112	너더닷새	너닷새
211113	대엿새	대웃새
211114	지나다[過]	지나다
211115	삭망	삭제, 삭망
211116	저물다	저물다
211116-1	‘구물다’	구물다
211117	지다[落]	지다
211118	이월달(영등달)	영등달
211119	선달	정월들
211120	올해	올리
211121	내년	내년
211122	내후년	우맹년
211123	작년	작년
211124	재작년	재작년

날씨

211125	별	벧
211126	별살	벧살
211127	따스하다	드뎡허다
211128	땡별	땡벧
211129	가을별	ㄱ실벧
211130	양지받이	양지 받른 곳
211131	아지랑이	*
211132	그늘	그늘
211133	그늘대	벧마드랭이

211134	나무그늘	낭그늘
211135	쉬다[休]	쉬다
211136	그림자	굴메
211137	바람	브름
211137-1	바람위	브름위
211137-2	바람아래	브름아래
211138	맞바람	양순, 양브름
211139	바람받이	브름코지
211140	바람살	브름살
211141	회오리바람	돛쟁이
211142	동풍	셋브름
211143	남풍	마프름
211144	서풍	섯갈브름
211145	북풍	하늬브름
211146	비[雨]	비
211147	굳다[堅]	굳다
211148	빗줄기	빗살
211149	장마	장마
211149-1	봄장마	5월 장마, 고사리장마
211149-2	가을장마	ㄱ실장마
211150	곰팡이	곰생이
211151	소나기	췌낙비
211152	여우비	넘어가는 주제
211153	가랑비	ㄱ랑비
211154	이슬	이슬
211155	시원하다	시원하다
211156	도롱이	우장
211157	가물다	ㄱ물다
211158	가뭄	ㄱ뭄
211159	흉년	승년
211160	비바람	비브름
211161	안개	으남
211162	번개	편개
211163	천둥	천동
211164	벼락	베락
211165	홍수	홍수
211166	눈[雪]	눈

211167	함박눈	힘벽눈
211168	오다[來]	오다
211169	싸락눈	쓰레기눈
211170	도둑눈	*
211171	내리다[降]	내리다
211172	희다	허영허다
211173	춡다	얼다, 춡다
211174	떨다[慄]	털다
211175	고드름	동곳
211176	녹다[融]	녹다
211177	얼음	얼음
211178	얼다[氷]	얼다
211179	곱다	곱다
211180	진눈깨비	비눈
211181	우박	우박

방향

211182	앞	앞
211183	뒤	뒤
211184	결	즈꿏다
211185	옆	옹
211186	위	위
211187	아래	아래
211188	밝다[明]	붉다
211189	어둡다[暗]	어둑다
211190	왼쪽	웬착
211191	오른쪽	늑단착
211192	밑	밧
211193	흐르다[流]	흐르다
211194	안[內]	안
211195	밖	베껏
211196	구석	구석
211197	모서리	모서리
211198	가[邊]	꺏
211199	가장자리	꺏
211200	가운데	가운디
211201	곧다[直]	구짱ㅎ다

12. 동물

가축

212001	소[牛]	췌
212002	막다[防]	막다
212003	암소	암췌
212004	수소	부랭이, 숫췌
212005	취소	식췌
212006	불까다	불블르다
212007	불알	불득새기
212008	황소	노랑췌
212009	얼룩소	어럭췌
212010	부리망	망울
212011	쇠고삐	췌석
212012	끌다	끌다
212013	송아지	송애기
212014	배넛소	벵작췌
212015-1	하룻~열룻	

		소	말
212015-1	하룻(1)	금송	금송
212015-2	이듭/두듭(2)	다간	이수
212105-3	사룻(3)	사룻	삼수
212015-4	나룻(4)	나룻	사수
212015-5	다듭(5)	다듭	*
212015-6	여듭(6)	으듭	*
212015-7	이룻(7)	*	*
212015-8	여듭(8)	*	*
212015-9	아듭/구룻(9)	*	*
212015-10	열룻/담불(10)	*	*

212016	작두	작두
212017	쇠죽	췌죽
212018	구유	도고리
212019	말[馬]	말
212020	죽다[死]	죽다

212021	많다[多]	하다
212022	암말	암물, 즈매
212023	수말	웅매
212024	망아지	몽생이
212025	가라말	가레물
212026	청총마/총이말	청총매
212027	절따말/적다마	적대물
212028	얼룩말	어럭물
212029	유마	*
212030	백마	백물
212031	고라말	고레물
212032	곰배말	고부랭이
212033	조랑말	조랑물
212034	달리다[走]	들리다
212035	마소	므쉬
212036	글경이	글갱이
212037	털[毛]	터럭
212038	말고삐	물고삐
212039	당기다	둥기다
212040	낙인	낙인
212041	개[犬]	개
212042	짚다[吠]	주끄다
212043	쓰다[用]	쓰다
212044	수캐	수캐
212045	암캐	암캐
212046	강아지	강생이
212047	비루	비리
212048	비루먹다	비리올르다
212049	고양이	고냉이
212050	암고양이	암코냉이
212051	수고양이	수코냉이
212052	도둑고양이	도둑고냉이
212053	살쥬이	식, 식고냉이
212054	닭	득
212055	암탉	암득
212056	수탉	장득
212057	털떠구니	*

212058	산떡	*
212059	닭의어리	득수랭이
212060	닭장	득집
212061	달걀	득새기
212061-1	노른자위	노랑알
212061-2	흰자위[卵]	흰알
212062	곰다[腐]	고리다
212063	병아리	빙애기
212064	까다[剝]	까다
212065	돼지	도새기
212066	수돼지	수토새기
212067	암돼지	암토새기
212068	추렴하다	추렴허다
212069	가르다[分]	갈르다
212070	고기[肉]	퀘기
212071	일شم씨	일성
212072	생둥이	서툰바치
212073	새끼 돼지	새끼도새기
212074	돼지우리	dot통, 통시
212075	돼지고기	dot퀘기
212076	적	적
212077	적꼬치	적꼬치
212078	굽다[炙]	굽다
212079	무판(푸줏간)	dot퀘기 푸는 판창
212080	기르다	질루다
212081	둘치	지시랭이
212081-1	둘암소	지시랭이
212081-2	둘암말	지시랭이
212081-3	둘암돼지	지시랭이
212081-4	둘암개	지시랭이
212082	거위	*
212083	오리	오리

벌레와 곤충

212084	벌레	베랭이
212085	파리	프리
212086	취	취

212087	쉬슬다	쉬싸다
212088	가시	장벼랭이
212089	구더기	구데기
212090	쉬파리	쉬푼리
212091	쇠파리	쉐푼리
212092	똥파리	똥푼리
212093	모기	모기
212094	물다[咬]	물다
212095	각다귀	극다귀
212096	장구벌레	장쿨레비
212097	벼룩	베룩
212098	빈데	빈데
212099	이[蟲]	니
212099-1	서캐	쉬
212100	서캐훑이	쉬챙빃
212101	지렁이	게우리
212102	회충	송백충
212103	거머리	거말
212104	바구미	돛부리
212105	콩바구미	*
212106	곰뽕이	곰뽕이
212107	땅강아지	땅강생이, 하늘강생이
212108	그리마	검수에기
212109	쥐며느리	*
212110	노래기	구두에기
212111	지네	주냉이
212112	진딧물	진쉬
212113	진딧물내리다	진쉬일다
212114	하루살이	흐를살이
212115	눈에놀이	눈에눈이
212116	달팽이	들뽕이, 집짓은들뽕이
212117	민달팽이	옷뽕은들뽕이
212118	거미	거미
212119	개미	게염지
212120	왕개미	왕게염지
212121	불개미	노린게염지
212122	메뚜기	믄축

212123	방아깨비	산뒤물축
212124	여치	*
212125	사마귀[螳螂]	국주베기
212126	귀뚜라미	공칭이
212127	풍뎡이	두메기
212128	장수풍뎡이	하늘썩
212129	무당벌레	무당버랭이
212130	쇠똥구리	썩똥버랭이
212131	딱정벌레	딱정버랭이
212132	집게벌레	*
212133	하늘소	*
212134	노린재	*
212135	나비	내비
212136	호랑나비	심방내비
212137	날다[飛]	늘다
212138	사슴벌레	사슴버랭이
212139	잠자리	밥주리
212140	고추잠자리	고치밥주리
212141	장수잠자리	장수밥주리
212141-1		*
212142	매미	재열
212143	매미허물	재열뿔
212144	말매미(왕매미)	왕재열
212145	쓰르라미	뿔재열
212145-1		*
212146	소금쟁이	물하레비
212147	방개	물썩
212148	반딧불이	불란디
212149	벌	벌
212150	꿀벌	춤벌
212151	꿀	꿀
212152	땅벌	소왕벌
212153	말벌	물벌
212154	붓다[腫]	붓다
212155	진드기	진독
212155-1		서미역
212155-2		부르리

212156	송충이	소낭버랭이
212157	개구리	글개비
212158	올챙이	올챙이
212159	맹꽁이	맹마구리
212160	두꺼비	두꺼비
212161	뱀	베염
212161-1	뱀띠	베염헤치
212161-2	뱀허물	베염흘
212162	용	용
212162-1	용띠	용헤치
212163	도마뱀	독다귀
212164	구렁이	구렁이
212165	살무사	물폐기

들짐승

212166	여우	여우
212167	노루	노리
212168	염소	염송애기
212169	토끼	토끼
212170	족제비	족제비
212171	쥐	중이
212172	꿩	꿩
212173	쥐구멍	중이고망
212174	박쥐	드람쥐
212175	다람쥐	드람쥐
212176	오소리	지달이
212176-1		지달이고망
212177	지달(이)	지달이
212178	지달피	지달이가죽
212179	멧돼지	산토새기
212180	원숭이	원숭이
212181	원숭이띠	즌나비띠, 즌나비헤치
212182	호랑이	호랭이
212183	호랑이띠(범띠)	범헤치, 범띠
212184	꼬리	꿀랑지

날짐승

212185	새[鳥]	생이
212186	꽁지	꽁랑지
212187	깃[羽]	깃
212188	새총	생이총
212189	새가슴	생이가슴
212190	참새	참생이
212191	비둘기	비둘기
212192	제비	제비생이
212193	매	매
212194	참매	참매
212195	솔개	똥소리기
212196	까치	까치
212197	까마귀	까마귀
212198	딱따구리	남도래기생이
212199	삿꾸기	삿국생이
212200	종달새	비죽생이
212201	올빼미	옷바미
212202	꿩	꿩
212203	까투리(암꿩)	암꿩
212204	장끼	장꿩
212205	꿩알	꿩독새기
212206	꺼병이	꿩빙애기
212207	두루미	하기새
212208	기러기	기레기
212209	갈매기	굴매기

바다 동물

212210	고등	보말(곰생이, 문데다리, 멧지보말)
212211	개울타리고등*	
212212	명주고등	*
212213	눈알고등	*
212214	밤고등	떡보말
212215	팽이고등	수두리
212216	각시고등	심방ㄱ메기
212217	두드럭고등	메옹이
212218	대수리	마타슬
212219	타래고등	*

212220	대룡빨고등	웬보말
212221	제주개오지	*
212222	애기삿갓조개	츄배말
212223	거북손	배채기
212224	따개비	*
212225	군부	군벗
212225-1		츄군벗, 하르비군벗, 돌군벗
212226	진주담치	까막뿌리
212227	소라	구쟁기
212227-1		문둥구쟁기, 살구쟁기, 좃구쟁기
212228	전복	전복
212228-1		암전복
212228-2		숫전복
212229	전복갑	전복조갱이
212230	오분자기	오분자기
212231	게	갱이(츄갱이, 으파리갱이, 돌갱이)
212232	바위게	*
212233	부채게	*
212234	엽낭게	*
212235	참게	츄갱이
212236	꽃게	*
212237	소라게	*
212238	그물무늬금게	*
212239	집게발	어금발
212240	갯강구	밥게
212241	말미잘	물무조리
212242	성게	구살
212243	말똥성게	습
212244	군소	굴멍이
212245	새우	새우
212246	불가사리	불가사리
212247	수세미불가사리	
212248	해파리	물췌기
212249	낙지	낙지
212250	문어	물꾸럭
212251	서대	서대
212252	해삼	미

212253	멍게	멍게
212254	바닷물고기	바당래기
212255	맑다[淸]	붉다
212256	흐리다[濁]	흐리다
212257	잘다[細]	줄다
212258	썩다[腐]	썩다
212259	비늘	비늘
212260	배따다	배카다
212261	생선(生鮮)	생선
212262	미끼	이껍
212263	갯지렁이	바당지렁이
212264	낙시	낙시
212265	낙시대	낙시대
212266	만들다[造]	멘들다
212267	낙시줄	정술
212268	붕돌	뽕돌
212269	참대	춤대
212270	낙다	나끄다
212271	주낙	주낙
212272	주낙배	주낙배
212273	지느러미	늘개
212274	아가미	생선구렁이
212275	멸치	멜
212276	보리멸	보살치
212277	갈치	갈치
212278	풀갈치	갈치새끼
212279	베도라치	브들래기
212280	말뚝망둑어	쫓벌래기
212281	벌망둑	덤부치
212282	매통이	아여리
212283	고생놀래기	고생이
212284	용치놀래기	술멍이
212285	어렁놀래기	어렁이
212286	실놀래기	실어레이
212287	옥돔	생선
212288	흑돔	웁이
212289	돌돔	돌돔

212290	감성돔	검은돔
212291	벙에돔	귀룻
212292	황돔	황돔
212293	자리돔	자리돔
212293-1		자리 거리다
212294	고등어	고등에
212295	전갱이	각제기
212296	조기	조기
212297	보구치	백조기
212298	가오리	가오리
212299	오징어	오징에
212299-1		오징에 부찌다
212300	붉바리	북바리
212301	다금바리	다금바리
212302	농어	농어
212303	쥐치	객주리
212304	우럭볼락	우럭
212305	볼락	볼락
212306	쭈기미	손치
212307	독가시치	따치
212308	방어	방어, 부시리
212309	재방어	*
212310	상어	상어
212311	가래상어	갈래죽상어
212312	개상어	즌다니
212313	팽이상어	도롱이
212314	귀상어	*
212315	돌묵상어	마쟁이
212316	수염상어	비깨
212317	두툽상어	비근다리
212318	별상어	벨상어
212319	고래	고래
212320	돌고래	곰수기
212321	쥐돔	*
212322	복어	복쟁이
212323	흑산호	*

13. 식물

풀

213001	가라지	ㄱ라지
213002	갈대	꺄대
213003	억새	어옥
213004	새풀	미뻬쟁이
213005	화승(火繩)	미슴
213006	띠[茅]	새
213007	띠밭	새왓
213008	길차다	휘치다
213009	빨기	뻬이
213010	사초	상고지
213011	천일사초	자우락
213012	김의털	췬터럭
213013	쇠무릎	믈모작쿨
213014	바랭이	제완지
213015	민바랭이	밋붉은제완지
213016	조개풀	북덕제완지
213017	방동사니	산뒤제완지
213018	마디풀	ㄹ작쿨
213019	솔새	*
213020	개솔새	*
213021	뚝새풀	*
213022	괭이밥	가마귀웨줄
213023	원추리	ㄱ시락쿨
213024	메꽃	메마줄
213025	갯메꽃	개삼동낭
213026	비름	비눔
213027	쇠비름	췬비눔
213028	개비름	개비눔
213029	참비름	츨비눔
213030	땅빈대	ㄱ롬쿨
213031	애기땅빈대	*
213032	괭이밥	괭조
213033	여우구슬	득고달쿨

213034	질경이	베체기
213035	쭈	속
213036	캐다[採]	캐다
213037	쭈떡	속떡
213038	토끼풀	토끼풀
213039	개자리	개자리쿨
213040	냉이	난시, 난쟁이
213041	방울새풀	*
213042	무릇	물릇
213043	여뀌	여꾸
213044	오이풀	오나릿불휘
213045	영경퀴	소쟁이가시
213046	췌기풀	췌와기
213047	수크령	*
213048	망초	천상쿨
213049	별꽃	진풀
213050	병풀	함박쿨
213051	깨풀	복쿨
213052	박조가리나물	진풀
213053	짜리	불처귀
213054	땅짜리	밋불처귀
213055	피막이풀	빈네쿨
213056	도깨비바늘	가마귀바늘
213057	도꼬마리	*
213058	모시풀	모시풀
213059	왕모시풀	*
213060	천남성	*
213061	맥문동	*
213062	밀나물	멜순, 멀순
213063	살갈퀴	뱃끼기
213064	차풀	자골
213065	결명자	절명제
213066	까마중	개삼동
213067	하늘타리	하늘래기
213068	노랑하늘타리	두루에기
213069	부처손	푼채손
213070	방가지뚱	뚱수웨

213071	닭의장풀	고냉이쿨
213072	배풍등	소나쿨
213073	취	취, 끄
213074	취덩굴	취줄
213075	취뿌리	취뿌리
213076	댕댕이덩굴	정동줄
213077	노박덩굴	본지낭
213078	새박덩굴	*
213079	호자덩굴	실므작쿨
213080	한삼덩굴	삼수세기
213081	함바기	췌정동
213082	담쟁이	눈벨레기, 담쟁이줄
213083	송악	송악
213084	인동	인동
213085	멀꿀	*
213086	천문동	*
213087	계요등	떡정동
213088	사위질빵	*
213089	등대풀	등지풀
213090	수영(승아)	생케쿨
213091	애기수영	
213092	싸리	근자리쿨
213093	땀싸리	비차락낭
213094	명아주	제낭
213095	갓	갓늬물
213096	달래	핑마농
213097	씀마귀	씀마귀
213098	고들빼기	고들베기
213099	박하	박하
213100	비수리	물너울
213101	꿀풀	*
213102	마삭줄	마삭쿨, 물싸움쿨
213103	갯기름나물	방풍
213104	구릿대	구리대
213105	으아리	*
213106	익모초	익모초
213107	피마자	피만지

213108	뉴질랜드삼	*
213109	양하	양애
213110	파초	반추
213111	갯강활	*
213112	부들	*
213113	개구리밥	*
213114	줄	*
213115	마름	*
213116	싱경이	늦

꽃

213117	꽃	꽃, 고장
213118	꽃봉오리	꽃봉오리
213119	채송화	*
213120	민들레	고름쿨
213121	봉선화	봉숭아꽃
213122	흰꽃나도사프란	마농꽃
213123	분꽃	분꽃
213124	할미꽃	고녕이쿨
213125	붓꽃	*
213126	참나리	*
213127	맨드라미	*
213128	해바라기	해바라기
213129	진달래	진달래
213130	철쭉	철죽
213131	피다[開]	피다
213132	쑥부쟁이	*
213133	수국	*
213134	산수국	*
213135	광대나물	*
213136	제비꽃	*
213137	복수초	*
213138	수선화	돌마농꽃
213139	선인장	떡꽃
213140	문주란	*

나무

213141	뿌리	불휘
213142	잔뿌리	ㄴ는뿌리
213143	줄기	낭가지
213144	가지	낭가지
213145	잎	섭, 입파리
213146	나무	낭
213147	하다[爲]	하다
213148	삭정이	삭다리
213149	소나무	소낭
213150	솔잎	솔입
213151	솔가리	솔입
213152	솔방울	솔똥
213153	떨감	지들커
213154	마디다	ㄴ티다
213155	갈퀴	글쟁이
213156	도끼	도치
213157	팽나무	폭낭
213158	팽	폭
213159	동백나무	돛박낭
213160	붉다[赤]	붉다
213161	멀구슬나무	머쿠실낭
213162	버드나무	버드낭
213163	녹나무	녹낭
213164	아카시아	웨가시낭
213165	은행나무	은행낭
213166	음나무	음낭
213167	삼나무	숙대낭
213168	심다[植]	심그다
213169	벗나무	벗낭
213170	왕벗나무	왕벗낭
213171	사옥	사옥이
213172	느티나무	굴무기
213173	주목	노가리낭
213174	종려나무	남총낭
213175	윤노리나무	윤노리낭
213176	비목나무	베염유리
213177	구상나무	구상낭

213178	굴거리나무	굴거리낭
213179	생달나무	*
213180	굴나무	굴낭
213181	따다[摘]	따다
213182	광굴나무	산물낭
213183	유자나무	유자낭
213184	비자나무	비자낭
213185	치자나무	치자낭
213186	비파나무	비파낭
213187	오동나무	오동낭
213188	조롱나무	조롱낭
213189	배롱나무	백일홍
213190	감탕나무	*
213191	거망웃나무	*
213192	팡팡나무	팡낭
213193	노린재나무	제낭
213194	때죽나무	중낭
213195	마가목	마깨낭
213196	말채나무	돌마깨낭
213197	느릅나무	누룩낭
213198	두릅나무	들곱낭
213199	향나무	향낭
213200	옷나무	칠낭
213201	소리나무	소리낭
213202	솔비나무	솔피낭
213203	층층나무	*
213204	닥나무	닥낭
213205	돈나무	*
213206	무환자나무	모과낭
213207	쥐똥나무	*
213208	섬쥐똥나무	가스레기낭
213209	이팝나무	뺨낭
213210	가시나무	가시낭
213211	개가시나무	*
213212	중가시나무	소리가시낭
213213	호랑가시나무	소뿔이가시낭
213214	돌가시나무	*

213215	제주가시나무	*
213216	꾸지뽕나무	긋가시낭
213217	덜꿩나무	*
213218	사스레피나무	*
213219	머귀나무	머귀낭
213220	좁머귀나무	논독낭
213221	자귀나무	자귀낭
213222	말오줌때	*
213223	증대가리나무	물하레비낭
213224	예덕나무	*
213225	참식나무	*
213226	까마귀쪽나무	구림비낭
213227	천선과나무	빈독낭
213228	실거리나무	*
213229	굴피나무	*
213230	후박나무	*
213231	풍개나무	*
213232	먼나무	먼낭
213233	박달나무	박달낭
213234	떡갈나무	츄남
213235	상수리나무	가시낭
213236	참나무	츄낭
213237	산딸나무	틀낭
213238	초피나무	제피낭
213239	국수나무	생이폭낭
213240	사철나무	*
213241	겨우살이	저슬살이
213242	모람	*
213243	누리장나무	개낭
213244	아왜나무	*
213245	순비기나무	숨부기낭
213246	불나무	북낭
213247	협죽도	*
213248	담팔수	*

열매

213249	과일	과일
--------	----	----

213250	껍질	겉죽
213251	깎다	까끄다
213252	벗기다	벳기다
213253	딸기	탈
213254	뱀딸기	게염지탈
213255	명석딸기	베염탈
213256	복분자딸기	보리탈
213257	줄딸기	줄탈
213258	산딸기	산탈
213259	가시딸기	가시낭탈
213260	검은딸기	가막탈낭
213261	장딸기	*
213262	개암	*
213263	머루	멀뤄
213264	개머루	고녕이멀뤄
213265	까마귀머루	가마귀멀뤄
213266	산머루	산멀뤄
213267	상동나무	삼동낭
213268	상동	삼동
213269	시로미	*
213270	다래	드레
213271	개다래	*
213272	보리수나무	볼레낭
213273	보리수	볼레
213274	보리장나무	마께볼레낭
213275	앵두나무	에앵뒤낭
213276	앵두	앵두
213277	매실	매실
213278	매화나무	매화낭
213279	밀감	밀감
213280	밀감나무	밀감낭
213281	탱자	개탕취
213282	탱자나무	개탕취낭
213283	감	감
213284	뽕다[柿]	초랍다
213285	감물	감물
213286	홍시	홍시

213287	꽃감	풀감
213288	청미래덩굴	멀레기낭
213289	맹감	*
213290	찢레나무	*
213291	영실	*
213292	사과나무	능금낭
213293	사과	능금, 사과
213294	배나무	배낭
213295	배	배
213296	돌배	돌배
213297	팔배나무	*
213298	밤나무	밤낭
213299	구실잣밤나무	즈밤낭
213300	밤	밤
213301	보늬	*
213302	복숭아나무	복숭게낭
213303	복숭아	복숭게
213304	대추	대추
213305	대추나무	대추낭
213306	으름	유름
213307	오미자	오미자

바다 식물

213308	미역	메역
213309	넓미역	넙피
213310	미역쇠	메역췌
213311	김	김
213312	과래	꼭래
213313	툇	툇
213314	패	패
213315	넓패	넙패
213316	지충이	지충
213317	다시마	지충
213318	듬북	듬북
213319	감태	감태
213320	모자반	몹
213321	청각	청각

213322	우뭇가사리	우미
213323	우미	우미
213324	서슬(까막살)*	
213325	진두밭	*
213326	도박	*
213327	갈래곰보	*
213328	풀가사리	가시리